

576돌 한글날 기념

#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 말글 독립투쟁, 조선어학회 수난 80돌

○때 : 2022년 10월 7일(금) 09:50-17:00

○곳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l1LQq-P8lQ8>

주최:  한글 학회 .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우리 말글 독립투쟁, 조선어학회 수난 80돌**

**•차 례•**

[기조 발표]

정궁식(서울대) : 조선어학회 수난의 법사적 검토 ..... 7

[제1부 주제 발표]

조오현(건국대) : 건재 정인승 선생의 삶으로 살핀 국어운동사 ..... 37

허재영(단국대) : 환산(한메, 한뫼) 이운재의 국어 연구와 국어교육 ..... 61

이상혁(한성대) : 백수 정열모의 언어 의식과 국(어)학적 성과 ..... 95

[제2부 주제 발표]

정재환(성균관대) : 해방 후, 조선어학회 한글운동의 원천이 된 조선어학회 사건 ... 121

리의도(춘천교대) : 사이스 표기의 이모저모 ..... 139

고영근(서울대) : 다시 찾는 어학자 권영달의 학문과 생애 ..... 159

[제3부 연구 발표]

김태인(한남대) : ‘-는 거 있죠’ 구성의 통사적 특징과 기능 연구 ..... 173

현영희(경북대) : 신문 주제에 따른 인용명사 구문의 사용 양상 ..... 193

김정아(University of Napoli L'Orientale) :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 연구 ..... 207

김가람(전북대) :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원인 연구  
—언어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 227

김영일(Crescenta Valley High School) :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위 분석과  
교수 방안 제시 ..... 239





한글날 576돌 2022 한글주간  
10. 4. [화] > 10. 10. [월]  
국립한글박물관 및 전국



## 기조 발표

조선어학회 수난의 법사적 검토/ 정공식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기조 발표

## 조선어학회 수난의 법사적 검토\*

정공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gsjung@snu.ac.kr

### I. 머리말

1942년 8월 여학생의 일기장에서 찾은 “국어를 사용하였다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빌미로 교사 정태진과 조선어학회 그리고 대중교로까지 확대된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패망으로 치닫고 있는 일제의 황민화정책의 극단적 표출이다. 그해 9월 5일부터 이듬해 4월초까지 전국에 걸쳐 33명을 조사하고 함경도 홍원 등에 28명을 구속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첫 구속 후 만 1년이 되는 9월 18일 16명을 예심에 회부하였으며, 그 사이에 이운재와 한장이 옥사하였다. 예심에서는 다시 1년 후인 1944년 9월 30일 12명을 공판에 회부하였고, 제1심 함흥지방법원에서는 1명에게 무죄를,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4명과 검사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며, 고등법원은 해방 이틀 전인 8월 13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sup>1)</sup> 1942년 9월 5일 정

---

\* 본고는 발표를 위한 초고이니 인용을 삼가기 바라며, 기존 논문을 인용하기 바랍니다.

\* 본 발표문은 필자의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豫審終結決定書〉의 분석」, 『애산학보』 32(애산학회, 2006) 및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44(애산학회,

태진을 연행한 것에서부터 1945년 8월 13일 상고심인 조선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무려 2년 11개월이 소요되었다.

1930년대에 조선학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민족주의가 성장하였지만, 1940년대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극심해지자 국학의 부진은 물론 변절자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국어학자들은 거의 변절하지 않았으며<sup>2)</sup> 조선어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항일운동을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민지기 조선어학회가 차지하는 위상, 특히 민족독립운동사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애산학회에서 2006년에 간행한 『애산학보』(제32집)에서 조선어학회 수난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sup>3)</sup>

‘조선어학회 수난’과 관련된 자료는 함흥지방법원의 <예심종결서>, <고등법원 판결문>과 이희승, 정인승 등 관련당사자의 회고<sup>4)</sup>가 남아 있어서 불충분하지만 사건의 전개과정과 혐의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II. 조선총독부 언어정책과 조선어학회

말은 창조력을 가진 사람의 창조물로 사람의 정신을 새겨내며 무한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또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의사교환의 수단이다. 창조적 언어관에서는 ‘말의 힘’을 인지하여 민족주의 언어관으로 나아가며, 이는 겨레가 지향하는 마땅한 이상이다. 개화기의 민족주의 언어관이 정립되면서 ‘말=일’의 철학이 등장하였다. 식민지기에는 저항적 민족주의 언어관이 태동하였고 강압에 의해 겨레의 말이 사라지더라도 조건만 형성되면 내면적 말글이 사전을 통해 부활한다는 ‘초생물학적 민족주의 언어관’으로 발전하였다.<sup>5)</sup> 조선총독부는

---

2017) 두 글을 바탕으로 그 후의 성과를 보완하였다.

- 1) 자세한 것은 “부록1. 사건 전개 일지” 참조.
- 2) 조동걸,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이론』(지식산업사, 1998), 책을 내면서 참조.
- 3) 필자와 논제는 다음과 같다: 김호일, 「〈사론〉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조선어학회의 수난」;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 언어관을 통해서 본」; 정승교, 「일제는 왜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켰나?: 기만적 동화정책의 파탄」; 박영신, 「조선어학회가 겪은 ‘수난’ 사건의 역사 사회학: 학회 조직의 성격과 행위 구조」; 조재수, 「조선어 학회와 『큰사전』」; 정해동, 「선친과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총 7편).
- 4) 일석이희승전집간행위원회 편, 『一石 李熙昇 全集 2: 국어교육, 국어정책, 기타』(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윤경, 『김윤경 전집5-한글운동, 그 밖』(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박이정, 1997); 이인, 『반세기의 증언』(명지대학교출판부, 1974), 125-141쪽. 한 이희승의 회고록이 가장 자세하여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다. 이는 1959년 6월부터 1961년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사상계』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정인승의 회고도 방대하다. 그리고 김윤경, 이인의 회고는 간단히 본인과 관련된 사실만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 이희승의 회고록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참조·보충하였다.
- 5) 김석득, 앞의 글, 18-22쪽.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얼을 담는 도구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체제에 위협이 될 우려가 전혀 없는 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를 주목하였고, 한계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멸절을 시도하였다. 조선어학회의 활동으로 사전이 편찬되어 언어가 보존되면 민족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민족주의 언어관은 근대적 국어연구가 시작된 때부터 태동되었다. 근대에 민족구가가 수립됨에 따라 의사소통의 중심이 된 민족어의 정리에 착수하였고 이는 민족구가의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었다.<sup>6)</sup> 주시경은 학자를 넘어서 ‘겨레의 혼’과 ‘나라의 생각’을 가르친 저항적 민족주의자였으며, 그 제자들은 그의 사상을 이어서 ‘겨레의 혼’이 든 우리 글과 말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민족의 얼’을 일깨우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이었다.<sup>7)</sup> 주시경이 지향한 어문민족주의적 조선어연구의 경향이 대중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었다. 조선어연구회는 민족 문화의 발전과 자존심을 세울 사전 편찬을 제안하였고, 이는 공감을 얻어 조선어사전편찬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조선어사전편찬 사업은 1930년대 이후 조선어를 지키기 위한 저항으로 소명이었다.<sup>8)</sup>

조선총독부는 언어학자 호시나 고이치(保科孝一; 1872~1955)에게 비밀리 독일의 폴란드에 대한 언어정책의 조사를 명했다.<sup>9)</sup> 여기서 그는 식민정책에서 동화가 핵심이지만 무력에 의한 동화는 반감을 야기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백성을 열복시켜야 하고, 여기서 국어정책이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였다. 호시나 고이치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비스마르크 시대의 ‘게르만화 정책’인데, 이는 언어정책을 통해 폴란드어의 추방을 넘어서서 폴란드의 민족성 자체를 개조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그는 공용어보다 교육어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폴란드에 대한 ‘게르만화 정책’은 실패하였고, 호시나 고이치는 언어적 식민지배의 실패 원인을 찾았다. 1906~7년 독일은 초등학교 종교교육에서 폴란드어를 완전히 배제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동맹휴학이 발생하였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비스마르크가 ‘압박주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유화정책’을 취해서 ‘동화’정책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호시나 고이치는 위 책에서 식민지의 언어정책의 요점을 제시하였다. ①국어와 민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족어의 사용금지 나아가 멸절은 무모한 행동이다. 강압적

6)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의 역사』(개정판: 책과함께, 2005), 19쪽.

7) 박영신, 앞의 글 참조.

8) 최경봉, 앞의 책, 65-70쪽.

9) 保科孝一, 『독일 속령 시대의 폴란드에서의 국어 정책』(조선총독부, 1921); 비밀도서, 총 148쪽(서언 2쪽, 목차 2쪽, 본문 144쪽). 본서는 철저학 비밀로 관리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뮤지엄 검색,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미검색.

정책은 민족의식을 고양시켜 식민지배체제를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 ②이민족의 동화에는 국어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③위 동화정책은 장기에 걸쳐 최소한 1세기 이상 소요되므로, 온건한 정책(Slow & Steady)으로 진행할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④국어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장기에 걸쳐도 유지되어야 한다.<sup>10)</sup> 1937년 11월 조선군참모장이 육군차관에게 보낸 기밀문서에서 일제는 징병제와 관련하여 1937년 병역법의 완전한 실시는 수십 년 이후로 상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약 80%의 조선인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50년을 상정하였지만, 15년 내지 20년으로 단축할 것을 기도하였다.<sup>11)</sup>

일본은 표면적 정책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1920년대에는 유화적 모습을 보였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는 ‘강압적 민족말살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에서 형식적 내선일체를 달성하였으며, 1941년에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면서 조선어과목을 폐지하였고,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교과를 완전히 없애고 ‘국어상용’ 정책에 따라 언어생활을 통해 일본화를 추진하였다.<sup>12)</sup>

1936년 10월 28일 훈민정음 반포 490돌 기념축하회에서 안창호의 축사를 빌미로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대외활동을 금지하였으며, 1937년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 관련자를 처벌하였으며 그 여파는 조선어학회에도 미쳐 존립이 불투명하였다. 민족말살정책 하에서 조선어학회는 민족사적 사명을 완수하려고 조선어사전 출판 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활동하였고, 그 대가로 황민화정책에 호응하여, 국민총력연맹에 가입하여 간사장 이극로 등은 조선신공에 참배하기도 하였다.<sup>13)</sup>

호시나 고이치의 온건적 하지만 점진적이고 그래서 더욱 강력한 언어의 흡수와 말살을 통한 동화방침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의 기틀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동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해방구를 인정하였으며, 그 해방구는 축소될 예정이었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총독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학술단체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순수한 학술적 차원에서 어문의 통일과 사전편찬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동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문화운동이라는 조선어학회는 해방구에서 민족언어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의 외줄 위에서 조선총독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동거는 황민화정책의 추진으로 파탄을 맞이하였다. 조선어학회 수난은 조선총독부와 일

10)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옮김, 「조선과 독일령 폴란드」, 『국어라는 사상: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소명출판, 2006) 참조.

11) 宮田節子/ 李熒娘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일조각, 1997), 31쪽.

12) 정승교, 앞의 글 참조.

13) 최경봉, 앞의 책, 187-284쪽.

제의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기만적 동화정책의 파탄의 대표적 증거이다.

### Ⅲ. 사건의 전개 과정

#### 1.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

##### 1) 사건의 발단

1919년 3.1 운동이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의 유화국면을 이용하여 문화국면에서 민족의 활로를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어와 국문의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1921년 12월 3일에 張志瑛, 權憲奎 등 15, 6명이 ‘朝鮮語研究會’를 설립하였으며,<sup>14)</sup> 기관지 『한글』을 월간으로 발행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7년 독일에서 귀국한 이극로가 참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29년 한글기념일에 전국적으로 구성된 198명의 발기로 ‘朝鮮語辭典編纂會’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조선총독부도 초기에는 학술문화단체로 여겨 허용하였다.

그러나 1940년에 접어들어서는 학술문화단체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여름 일본경찰이 함남에서 國防服을 입지 않은 朴炳燁을 조사하면서 그의 조카 박영옥의 일기에서 “국어를 사용하였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당시 국어교사인 정태진과 조선어학회까지 조사하였지만, 무위에 그쳤다. 마침 이극로가 만주의 尹世復(大倥敎 제3대 교주)이 보낸 檀君聖歌의 작곡을 주선할 것을 부탁하는 편지 한 통을 발견하였다.<sup>15)</sup> 이를 근거로 조선어학회를 조선독립, 즉 「치안유지법」 상의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담당 경찰서인 흥원경찰서에서는 1942년 9월 5일부터 1943년 1월 5일까지 7개월 동안 정태진 등 모두 33명을 전국에서 검거하여 흥원과 함흥으로 연행하였다. 1943년 2월경에 함경남도 경찰부와 흥원경찰서는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주저하였으나, “요

14) ‘조선어연구회’는 1908년 8월 31일에 창립한 ‘국어연구학회’(지금의 한글학회)를 계승한 것이다. 학회를 새로 창립했다기보다 국어연구학회(→배달말글문음→한글모)가 주시경 선생의 죽음으로 그 활동이 얼마 동안 중단됨으로써 이때에 단체의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총회를 열어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다.

15) 대종교에서는 이 사건을 “임오교변”이라고 부르며 21명의 대종교 간부들이 검거되었으며, 대종교 총본사의 비품과 서적이 압수되었으며, 동만주·남만주 및 국내에서 대종교 간부를 체포하였다. 이동언, 『독립운동 자금의 젖줄 안희제』(역사공간, 2010), 147쪽.

시찰인물 중에서 위험분자로 인식되는 자는 검거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건은 일체 엄중히 조치하라”는 조선총독부의 豫備檢束 명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하였다.

## 2)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담당경찰서인 홍원경찰서에서는 1942년 9월 5일부터 1943년 4월초까지 7개월에 걸쳐 모두 관련자 33명을 조사하여 29명을 구속하였으며, 증인으로 약 50명을 소환하였다.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 및 조서 작성은 1943년 1월 말경부터 시작하여 1943년 3월 15일경에 완료되었다. 경찰은 4월에 9명을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24명을 기소하여 예심에 회부할 것을 검찰에 보고하였다. 검찰은 1년의 구속만기일에 임박하여 12명을 기소유예, 16명을 예심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12명을 석방하지 않고 조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는 핑계로 함흥으로 이감하였다.<sup>16)</sup> 1943년 9월 12, 13일 이틀에 걸쳐 28명을 이감하였다. 함흥에 와서는 사상범으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검사에 같은 형사가 있어 형식적이었다.

경찰이 수사하고 조서를 받을 때에는 고문을 통하여 허위사실의 자백을 강요 받은 것은 불문가지이다. 허위자백을 통한 혐의사실은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인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결사 등이었다. 수사관들은 사상사건을 다루어 별명이 ‘사람백정’이었다.

1943년 3월 15일 경찰의 조서작성이 끝나 4월부터 검찰에 송치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검찰은 오지 않았다. 8월말이나 9월초에 검사가 왔다. 검사국이 있는 함흥으로 이송되지 않고 홍원경찰서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가 조사를 할 때에는 ‘C’ 형태로 된 자리에 피고인 1명을 검사와 마주보게 중앙에 앉히고 그 주위에 경찰이 앉도록 하였다.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아낸 경찰이 둘러있는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 경찰의 조서와 다른 내용을 검사에게 대답하면 검사의 신문이 끝난 후 다시 경찰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의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경찰의 조서와 검사의 조서는 같을 수밖에 없었다. 예심에 회부된 16명은 사상범으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고문과 감옥의 열악한 환경 탓으로 1943년 12월 8일 이운재가, 그리고 1944년 2월 22일에 한징이 사망하였다. 이후 국어학자가 아닌 후원자인 김도연, 김양수, 장현식, 이인, 이우식 등은 병보석으로 석방하였다.

16)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관련자의 형사절차> 참조.

### 3) 예심과 재판

홍원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자백을 강요하면서 예심에 회부되면 수년을 끌어 옥 중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1944년 2월 상순에 온 예심판사는 4월 경에 심문을 시작하였다. 고문에 의한 것을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경찰조서만이 아니라 검찰조서도 같은데 검사도 고문하였는가?”라고 질문하고 압박질렀다. 결국 예심조서도 경찰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1944년 9월 30일에 예심이 종결되었는데, 이미 사망한 이윤재와 한징을 제외하고 장지영과 정열모는 증거가 부족하여 免訴되고, 나머지 12명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

제1심 재판부는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9회 공판을 하였는데, 공범으로 함께 심문해야 하지만 이 두세 명 또는 서너 명씩 재판소에 갔다. 재판부는 예심종결결정문에 쓰인 대로 밀어붙였다.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이극로, 정태진 등 한글학자는 독립의 목적으로 결사를 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중화, 김법린은 이에 가담한 점이 치안유지법 위반이며, 이우식, 장현식, 김도연, 김양수, 이인 등은 이를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실행을 협의 하였다는 것이다. 대여섯 차례의 공판을 한 후 검사는 8~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유치장 미결감방에 2년 동안 가두어두고 2개월 미만의 속성으로 끝내었다. 선고에 대해 재판장은 “당신에게 이 정도의 판결은 약과이다. 그 동안 법정을 다니며 얼마나 귀찮게 굴었는지 아느냐?”라고 힐난하였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극로 등 국어학자 5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2년의 실형을, 후원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4년]을, 장현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극로 등 4명은 1945년 1월 18일에 상고를 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사나흘 후에 개별적으로 불러 상고취하를 권유하였고 나아가 이례적으로 같은 방에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검사 사카모토(坂本一郎)는 피고인 전원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실제 상고를 하면 1개월 내에는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상례이었다. 그러나 5월에 상고를 접수하였다는 통지가 왔는데, 이는 재판장이 상고를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일부러 서류를 고등법원에 늦게 보내었기 때문이다. 상고를 한 이유는 함흥이 아닌 서울에 이감되기를 희망해서였다. 그러나 상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흥교도소에 있었다. 7월 중순 경에 고등법원에서 공판일자가 8월 12일로 잡혔다는 연락이 왔으며, 그날이 다가와도 이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사조차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에 8월 13일에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함흥의 유지들의 부탁은 받은 함흥지방검사국의 엄상섭(嚴尙燮) 검사는 출옥

명령서를 작성하여 간수장에게 제시하자 8월 17일 오후에 출감하였다. 그 날 함흥유지들과 함께 출옥환영회 및 광복축하연을 갖고 이튿날인 8월 18일 서울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모두 서울로 돌아왔다.<sup>17)</sup>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의 연행에서부터 1945년 8월 13일 상고심인 조선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무려 2년 11개월이 소요되었다. 1942년 9월부터 1943년 3월말까지 7개월에 걸쳐 34명을 검거대상으로 삼아 32명을 체포하였다. 또 증인 등으로 48명을 조사하는 등 모두 82명을 수사 또는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1명은 불기소를, 체포하지 않은 2명은 기소중지를,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13명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16명에 대해 기소를 하여 예심에 회부하였다. 예심기간 동안 김윤경과 한징이 옥사하였고, 예심에서는 14명 가운데 장지영과 정열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소하고 나머지 12명은 공판에 회부하였다. 제1심에서는 12명 중 11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실형을 선고 받은 4명이 상고를 하자 검사는 이들과 함께 장현식[무죄]에 대해서도 상고하여 1945년 8월 13일 전원에 대해 조선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종결되었다.

#### IV. 예심종결서의 검토

〈예심종결결정서〉에 따르면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치안유지법 제1조와 제5조 위반이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國體의 變革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지도자 등”을, 제5조는 “위 결사의 목적을 수행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국체의 변혁’은 통치권자인 천황의 절대성에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행위는 일본의 통치권·영토권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범주에 포섭되었다.<sup>18)</sup> 재판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17) 경찰에 압수된 국어사전 원고는 6개월 후에 서울역 뒤의 통운회사 창고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고등법원에서 상고하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재판기록과 함께 증거로 서울에 보낸 것이다(앞의 책, 497쪽).

18)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한울아카데미, 1998), 38쪽; 특히 조선고등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水野直樹/ 이영록 역, 『朝鮮에 있어서 治安維持法 體制의 植民地的 성격』, 『法史學研究』 26(韓國法史學會, 2002) 및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역사공간, 2022) 참조.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범죄혐의 사실의 확정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 사실에 대한 법적용에 대해 살펴보자.

## 1. 혐의 사실의 확정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이 왜 국체변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豫審終結決定書〉를 통하여 들여보자. 여기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당사자인 14명에 대한 개별적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고유의 어문의 정리·통일·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문운동은 가장 근본적인 민족운동이며, 이는 세계사에서 검증된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1919년 3.1운동 이래 실력양성운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진영의 활동이 衰落期에 접어든 1930년대 이래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어문운동은 민족의식의 고양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한 서론은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에 대한 그들의 전반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선어학회를 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치안유지법」 상의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였다.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꾀하는 하나의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深謀遠慮를 포함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점진형태이다. 언어는 사람의 지적 원천이며 감정과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민족고유의 언어는 의사소통은 물론 민족감정 및 민족의식을 양성하여 민족결합을 굳게 하여, 민족 고유의 문자로 민족문화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민족적 특질은 그 어문을 통해서 더욱 민족문화의 특수성이 향상 발전되고, 고유문화에 대한 애착은 민족적 우월감을 낳아 민족은 활기차게 발전한다. 그러므로 민족 고유의 어문의 성쇠는 민족 자체의 성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약소민족은 필사적으로 이의 보존과 발전에 노력하고 방언의 표준어화, 문자의 통일 및 보급을 희구하였다. 이리하여 어문운동은 민족 고유문화의 쇠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상과 발전을 초래하고, 문화의 향상은 민족 자체에 대한 강한 반성적 의식을 가지게 하여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약소민족에게 독립의욕을 낳게 하고, 정치적 독립달성의 실력을 양성케 하는 것이다. ‘조선어학회’는 1919년 3·1운동과 그 후의 문화운동에 의한 민족정신의 함양 및 실력양성을 우선한 실력양성운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1931년 이래 문화운동 중 기초적인 어문운동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문화운동의 가면 아래에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단체로서 조선어문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활동은 조선어문에 깃든 조선민심의 心底에 파고들어 조선어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게 하여 편협한 민족관념을 배양하고,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신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조선어학회’는 공산주의운동에 위축되어 존재감이 없는 민족주의진영에 있어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여,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하였다. 각종 사업은 언론 등의 지지 하에 조선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조선어사전 편찬사업 등 미증유의 민족적 대사업으로서 촉망받고 있었다.

이어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 12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혐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생애를 기술하여 이들이 철저한 민족주의자임을 강조한 다음 조선어학회를 통한 민족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적시하였다. 기술방식은 이극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극로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심종결결정서>에서 이극로와 최현배에 대한 기술에 따라 혐의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인 ‘조선어학회’의 결성과 가입 및 가입을 권유한 사실, 즉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통하여 민족독립운동을 한 범죄행위이다. 여기에는 다시 “(가)철자법 통일안, (나)표준어 사정, (다)외래어표기법, (라)언문강습회, (마)한글날 기념회, (바)『한글』 발행, (사)조선어사전편찬, (아)조선기념도서출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와는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②인재양성을 위한 결사의 조직, ③문법술어의 협의, ④교육과 강연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 등이다.

이에 따르면 국어학자인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등은 결사의 조직 및 가입과 활동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정인승은 가입과 사전 편찬 등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우식 등은 사전편찬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대개는 조선어학회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이나 강연을 통한 민족의식을 고취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부록 참조).

조선총독부는 조선어학회의 결성과 이에의 가입, 한글맞춤법 통일, 표준어사정, 외래어표기법, 한글강습회, 한글날 기념회, 기관지 『한글』 발행, 조선어사전 편찬, 문법술어의 협의, 조선기념도서의 출판 등 학술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사실로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단순한 인재양성을 위한 결사조직까지도 범죄사실로 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조급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2. 적용 범조의 문제

예심에서는 사실을 확정된 다음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범조항을 적용하여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1929년 조선어학회의 결성

부터 1942년 장기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다. 근대형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권력자의 임의적·자의적 처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처벌 없다”는 ‘罪刑法定主義’로 표현되어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해석상 이 원칙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sup>19)</sup>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1928년 및 1941년에 개정된 「치안유지법」 제1조와 제5조이다(부록 참조).

직접적으로 혐의사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있다. 즉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의 결사조직 및 이우식, 김법린의 결사 가입 그리고 이극로, 이희승의 인재양성을 위한 결사조직에 대해서이다(부록 3의 ‘△’ 표시 부분). 1929년 조선어학회는 어문의 과학적 연구와 이를 통한 2세 국민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독립의 목적, 즉 국체변혁의 목적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선어학회의 조직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행위는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目的犯’이므로, 구체적인 목적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야만 성립한다. 그러므로 처음 조선어학회라는 결사를 조직할 때에는 그 설립취지 등에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법은 아니었다.<sup>20)</sup>

조선어학회가 사전편찬, 한글보급운동 등 각종 활동을 하면서 민족의식이 고취되어서 독립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개칭한 것을 조직의 변경이며 동시에 목적도 변경하였다고 트집을 잡았다. 사전편찬 등 구체적인 활동이 바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띤 행위이므로 이는 바로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이 된다. 그런데 조선어학회를 결성하고 그 목적에 따른 활동은 행위 자체는 여러 번에 걸쳐 있지만, 전체로 보아서 1개의 행위 내지 범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조선어학회’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고 그 목적수행 행위를 하는 것은 문화운동을 통한 민족독립행위인 것으로 치안유지법 제1조 소정의 國體變革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예심종결결정서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連續犯’에 해당하는

19) 일본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본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 한다”는 大日本帝國憲法 제23조 및 “유죄판결을 할 때에는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는 刑事訴訟法 제360조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牧野英一, 『刑法總論』(新法律學全集 23: 日本評論社, 1937), 78면 참조.

20) 변호사들은 수양동우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인격을 수양하고 務實力行으로 경제적 실력을 배양한다”는 것이 수양동우회의 주요강령이었다. 여기에는 조선의 독립이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강령을 실천하면 ‘자연히 조선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선독립은 수양동우회의 사실상의 목적이었다. 조선총독부에는 수양동우회를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삼는 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하려고 하였다. 일본 변호사는 間接目的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이희승, 앞의 책, 489-490쪽).

다.<sup>21)</sup> 나아가 조선어학회의 결성 자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연속범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선어학회의 결성부터 구체적인 행위까지 처벌하였다.

### 3. 절차법적 문제

형사소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유죄를 확정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당시 일본 형사소송법 제1조에서는 “裁判地를 犯罪地 또는 被告人의 住所나 居所 또는 現在地”로 규정하였다. 이는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피고인의 防禦權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의 피고인은 많고 또 범죄지는 넓지만 핵심인물은 서울에 거주하며, 핵심적인 사건은 조선어사전 편찬이므로 범죄지도 서울이다.<sup>22)</sup> 그러므로 수사는 물론 재판도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함경남도 흥원과 함흥에서 진행되었다. 초기에 경찰은 진단학회로까지 확대하려고 하였지만 고위층에서는 이를 막았다. 일차적으로는 사건을 축소시키고 또 조선인은 물론 외국인의 이목을 피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게재되어 있다.

당시 조선형사령과 형사소송법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는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신문을 받은 후 구류장이 발부되어 구류가 되어야 하며 구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태진은 1942년 9월 5일에, 이극로 등은 그해 10월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는 1943년 1월말에 시작되어 3월 15일에 종료되었다. 그래서 4월에는 검찰에 송치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 6, 7개월이 지난 3월 말경에 경찰의 수사와 구류가 끝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인권보장을 위한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연속범의 해석을 통하여 불법을 회피하였다. 즉 연속범은 실체법상 일죄로서 형벌권은 1개이기 때문에 公訴權과 관련하여서는 1개로

21) 형법 제55조 “連續한 數個의 행위가 동일한 罪名에 저촉될 때에는 1개의 죄로써 이를 處斷한다.”; 자세한 것은 牧野英一, 앞의 책, 290-4면; 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동은, 『형법총론』(제2판: 법문사, 2006), 735쪽 참조.

22) 경찰은 조선어학회를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최대한 조선총독부에 협조를 하여, 신사참배, 국방헌금, 근로봉사에도 참여하였으며, 또한 친일파의 거두 한상용, 최인 등과도 친하게 지냈다. 이런 일은 이극로가 맡았다. 이런 관계로서 서울에서는 직접 다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소절차에서는 이를 분할할 수 없지만, 수사절차에서는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수 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였다.<sup>23)</sup> 당사자의 조선어학회 관련행위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개개의 행위마다 열흘씩 구류기간을 산정하면 6, 7개월을 넘을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적법절차를 준수한 셈이다.

6, 7개월의 구류기간 동안 경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엄청난 고문을 하였다. 고문이 불법이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씨개명까지도 강요하였다.<sup>24)</sup> 이희승 등은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그려 당시의 실상을 잘 알려주고 있다.

1) ‘비행기 태우기’: 두 팔을 등 뒤로 젖혀 두 손을 함께 묶어 허리와 동여매고 두 팔과 등허리 사이에 나무를 가로지른 다음 나무의 양 끝을 줄에 묶어 천장에 매다는 것이다. 또 줄을 꼬아서 돌리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10분 내지 15분이면 정신을 잃어버린다(空中戰). 2) ‘물 먹이기’: 목욕실에 칠성판 같은 곳에 사람을 묶고 얼굴을 아래로 젖힌 후 주전자 등으로 물을 분는다(海戰). 3) ‘亂杖’: 주먹질, 발길질, 나무 등으로 때리는 것이다(陸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4) 기타: 겨울에 빨가벗겨 기게 하고, 바닥에 눕히고 때리며 얼음물을 분기,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얼굴의 반을 먹칠하고 등에는 “나는 虛言者입니다”, “나는 허언자이니 용서하십시오”라고 써서 돌아다니게 하는 것, 서로 때리게 하는 것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고문 등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다시 조사해야 하지만 검사의 조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경찰에서 고문으로 날조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김윤경에 대해서만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하여 기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예심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것은 고문에 의한 것을 주장하지만 이미 잘 짜진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예심의 목적은 검사의 기소권의 남용 방지인데, 식민지 조선에서 예심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피고인은 무기한으로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예심 중에 이윤재와 한징처럼 감옥에서 죽는 경우까지 있었다.<sup>25)</sup>

제1심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는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인의 회고대로 예심종결결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치안유지법 제33조에 따라 직접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법원에서는 최초의 공판기일 35일 전에

23) 玉名友彦, 『朝鮮刑事令釋義』(京城: 大洋出版社, 1944); 법원도서관 역, 『국역 조선형사령석의』(2005), 78쪽.

24) <예심종결결정서>에는 본명과 함께 創氏改名한 것도 기재되어 있다.

25) 신동운, 「日帝下の豫審制度에 관하여 -그 制度的 機能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27-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참조.

는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조선형사령 제31조). 하지만 치안유지법 제35조에서는 이를 배제하였다.

## V. 고등법원 판결문의 분석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문은 『동아일보』 1982년 9월 3일자 제1면에 개요를, 이어서 9월 6일~8일 3회에 걸쳐 전문이 번역·소개되었다. 그리고 9월 4일자 제7면에서는 생존자이신 이희승(당시 86세), 정인승(당시 85세) 선생을 인터뷰하였는데, 선생들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을 찾았다.”며 “어문운동사는 물론 독립운동사의 귀중한 자료가 틀림없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잃었던 자식을 찾은 기분”이라고 기뻐하였다.<sup>26)</sup> 1945년 8월 13일에 선고된 고등법원 1945년[昭和20年]刑上第59號 판결을 소개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한다.<sup>27)</sup>

### 1. 고등법원 판결문의 형식과 구성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은 일본어 타이프로 인쇄된 兩面罫紙에 작성되었으며, 版心은 “黑口 下向 魚尾”이며, 하단에 “裁判所檢事局用紙”가 인쇄되어 있으며, 심하게 훼손되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재해야 한다. 개별 상고이유를 적고 이어서 행만 바꾸어 판단하였다.<sup>28)</sup> 그런데 이 판결문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지 않고 장까지 바꾸었다. 1945년 5월 17일 선고 1945년刑上제30호 판결문과 비교하면 분명하다. 판결문의 용지는 양면패지로, 판심의 양식은 같은데 “朝鮮總督府裁判所”가 하단에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쪽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 확정 후의 조치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문의 상태로 미루어 보면 당시 아주 급박하게 작성한 것 같다.

1쪽 12행 95쪽[실제는 93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구성은 크게 서두[1~4쪽]와 본문[4~94쪽], 결론[94~5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6) 신문기사는 ‘NAVER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검색하였다. 이 판결문은 부산지검 문서보관소 창고에서 찾았다고 한다(한인섭,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경인문화사, 2012, 591쪽]).

27)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기록물검색→

독립운동관련판결문(<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그러나 번역문에는 상당한 분량이 누락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8) [일본] 형사소송법[1937. 법률71 개정] 제425조 ①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53조 판결서에는 상고이유 및 중요한 답변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단 제412조 내지 414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는 상고이유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두: 서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그리고 판결경위와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사건번호와 재판의 종류를 “昭和二十年刑上第五九號/判決”라고 기재하였다(1쪽 1~2행). ②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는데, “본적, 住居[주소],<sup>29)</sup> 성명, 직업, 나이” 순으로 각각 1행씩 적었으며, 강제로 창씨개명한 흔적이 그대로 보인다. ③판결에 이른 경위를 서술하였다. ④고등법원의 판단인 판결주문을 기재하였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2) 본문: 변호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핵심부분으로,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변호인 丸山敬次郎, 安田幹太, 朴元三의 상고이유: ㉞이극로, 정인승의 변호인 丸山敬次郎, ㉟최현배, 이희승의 변호인 安田幹太, ㊱崔鉉培의 변호인 朴元三. ㊲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② 변호인 朴元三 및 安田幹太의 상고이유: ㉞최현배의 변호인 朴元三, ㉟최현배, 이희승의 변호인 安田幹太. ㊳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③ 검사의 상고이유: ㉞4인에 대한 양형 부당 상고, ㉟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㊴장현식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한 상고이유, ㊵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결사: 재판부가 판결함을 선언하는 부분이다. ①“따라서 戰時刑事特別法 제29조에 의하여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하여 판결임을 선언하였다. ②“昭和二十年 八月 十三日/ 高等法院 刑事部”를 기재하여 선고일자와 재판부를 명시하였다. ③판사 5명이 “직위, 氏名[手記], 날인”의 순으로 작성하였다. 특이한 것은 난외 아래에 手記로 판사의 “氏”가 적혀 있는데 1945년 5월 17일 선고 1945년(소화 20)형상제30호 판결문과 1945년 8월 20일 선고 1945년(소화 20)형상제91호 결정문 아래에는 이러한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첫째, “朝鮮總督府檢事局用紙”에 작성된 점, 둘째, 상고이유 별로 장을 달리하는 점, 셋째, 판사의 서명·날인한 곳 아래에 수기로 “氏”가 기재된 점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법원이 아닌 검사국에서 작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① 판결문은 “朝鮮總督府裁判所” 용지가 아닌 (朝鮮總督府) “裁判所檢事局用紙”에 작성되었는데, 전쟁 끝이어서 용지 부족으로 ‘재판소검사국용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1945년 8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결정문은 “조선총독부재판소” 용지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용지 부족으로 ‘검사국용지’를 사용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② 공문서나 판결문은 대개 이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은 변호인과 검사 별로 장을 달리하여 새 용지에 작성하였으며, 끝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재하였다. 다양한 형식을 종합·검토하면 최대 7명이 나누어

29) 양자가 같으면 함께 기재하였다.

작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위 용지와 함께 고찰하면 이 작업은 검사국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짙어진다.

③ 판결문은 판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서명하는 차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氏”가 수기로 있다는 것은 아마도 검사국에서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상고기각의 판결문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로 보냈고 판사는 그 판결문에 그냥 서명·날인만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점이다. 피고인-변호인-의 상고기각 부분(①-㉔), ②-㉔)과 검사의 장현식의 무죄선고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③-㉔)은 타이프로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③-㉔)은 타이프가 아닌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기각하여 형을 확정하였다.

판결문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는 이것이 판사가 재판한 후에 서명날인을 한 原本인 ‘正本’인지 여부이다. 우선 국가기록원에서는 출처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원소장처가 고등법원인지 검사국인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판사가 서명·날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판결문에 엄청난 오자가 수정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는 점에서 판결 선고용 초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사 이 판결문이 정본이 아닌 초고라고 하여도, 고등법원-조선총독부-의 최종판단이라는 점은 숨길 수 없는 핵심적 사실이다.

## 2. 원심의 판단

1945년 1월 16일에 선고한 함흥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문은 찾을 수 없는데,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복원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① 민족고유의 어문의 정리·통일·보급을 도모하는 소위 어문운동은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深謀遠慮를 함축하는 민족독립운동이다(이극로, 정인승의 변호인 丸山敬次郎의 상고이유 제1점).
- ② 민족고유의 어문의 消長은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 자체의 소장에 관계되며, 방언의 표준어화, 문자의 통일보급을 기도하는 등은 조선독립행위에 해당한다(위 제2점).
- ③ 조선 어문운동 자체는 표면상 합법적 문화운동이나 그 이면에 있어서 조선독립

30) ①은 3명(丸山敬次郎, 安田幹太, 朴元三 및 판단), ②는 2명(朴元三, 安田幹太 및 판단), ③은 2명(양형 부당, 장현식).

의 목적을 가진 비합법적 운동이다(위 제5점).

- ④ 어휘의 採錄·註解는 조선독립의 근본목적에 따라 민족정신의 고취로 일관한 취지하에 그 철저함을 기하였으며, 조선의 민족정신을 말살·훼손하는 문구의 사용을 피하였다. 그리고 주해는 검열의 범위 내에서 암암리에 민족의식의 양양을 도모하도록 연구할 것을 협의·결정하여 수록 어휘 약 15만(원문 ‘號’)단어의 원고를 작성했다(최현배의 변호인 朴元三의 상고이유 제2점).

위에서 보듯이 제1심 판결문은 예심종결결정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며, 아마 이 역시 검사국에서 작성하였을 것이다. 다만 1921년 大同團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장현식<sup>31)</sup>에 대해 조선어학회의 성격을 알고 지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변호인과 검사의 상고 이유

#### 1) 변호인

丸山敬次郎는 이극로와 정인승을, 安田幹太는 최현배와 이희승을, 朴元三은 최현배를 변론하였는데, 공동으로 선임하면, 당사자들은 물론 변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개별로 선임하였다.<sup>32)</sup>

丸山敬次郎는 조선어학회가 정치적 결사가 아닌 학술단체임을 주장하였다. 우선 조선총독부의 판단과는 달리 조선 내에서 유력한 민족주의 단체가 아니며, 총독부의 방침에 따른 조선어사전편찬을 총독부도 지원하였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내버려두었으며, 독립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활동이 없었다. 원심이 전제로 한 민족 고유언어의 발전이 민족 자체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을 부정하고 그 반대임을 주장하였다. 그 증거로 당시 조선사회의 발전에 비추어 조선어의 후진성을 강조하여 조선어로는 학문을 할 수 없고 일상대화조차도 일본어로 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安田幹太는 핵심인물인 이극로를 들어 그가 전향과정에 있으며 다른 관련자도 그러함을 강조하고, 조선독립의 직접적·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수양동우회-홍사단-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1937년 6월에 150여 명을 검거하여 2년이 지난 1939년

31) 김명엽, 『서도에서 ㅈ길을 찾다: 인동장씨 집성촌 서도 사람들』(민속원, 2013), 261-298 쪽 참조.

32) 이인 선생은 1930년 수원농고 興農社 사건을 변론하면서, 변론 내용 때문에 6개월 변호사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조선총독은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신의주 卞居熙建[1942. 1. 15., 대전 北村直甫[1945. 6. 13.] 등).

10월에 제1심 공판을 개시하여 12월의 제1심에서는 41명 전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1940년 8월 제2심에서는 전원 유죄를 선고하였다. 1941년 11월 17일 고등법원에서는 “법은 행동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지 마음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모든 피압박민족은 마음 속으로 독립과 자유를 원하지만, 이 마음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33)</sup> 그리고 목적을 함께하는 동지적 결합이 있어야만 내심을 처벌할 수 있다. 朴元三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과 활동은 시정방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은 법적인 논변을 다루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 사회를 보는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丸山敬次郎는 조선사회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가 여전히 후진상태에 있어 일상생활에서조차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논변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전술로도 볼 수 있지만, 민족말살정책의 표면적 효과를 잘 드러내며, 나아가 조선사회의 발전이 일본의 시혜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安田幹太는 전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완전한 신민으로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을 강조하였다.<sup>34)</sup>

## 2) 검사

검사는, 이극로에 대해서는 만주에서의 활동과 공산주의, 민족종교인 大倮敎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최현배 등 모두에 대해서는 3·1운동의 영향을 적시하였다. 또

조선어학회가 합법적 단체로 위장한 1931년 이후에는 회원이 많아졌지만, 본질을 알아차리게 되자 이극로 등 5인의 모임으로 전략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서술은 33명을 검거하고 29명을 구속하여 16명을 예심에, 그 중 1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조치와는 모순된다. 즉 1931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은 순수한 학술·문화단체인 조선어학회를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로 날조하였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검사는 ‘조선어학회’가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선어학회는 1919년 3·1운동의 실패를 거울삼아 문화운동에 의한 민족정신을 함양하여 독립을 추구하려는 실력양성운동 역시 성공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였다.

33) 한인섭,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559-561쪽 참조; 이 사건의 완전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

34) 이의 대표적인 예는 수양동우회 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주역인 이광수는 전향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독립된 모습을 보여 나름의 홍보적 효과도 거두었다(한인섭, 앞의 책, 562-3쪽).

1931년 이래 이극로를 중심으로 문화운동 중 기초적인 언문운동에 주력하여 문화운동의 가면 아래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단체로서 20여 년의 장기간에 걸쳐 조선민족에 대해 조선어문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그 활동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조선어문에 의지하는 조선민심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조선어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조선민족에게 민족관념을 배양하고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을 기도한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신장에 획기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明治維新의 원동력이 된 도쿠가와(徳川) 말기 國學(Kokukaku)의 초기 발흥과 유사하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사상계를 풍미한 공산주의운동의 주된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단체 사이에서 홀로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해 온 단체로서 민족주의진영에서 단연 불후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 사업은 조선인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가운데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은 曠古의 민족적 대사업으로서 촉망 받게 된 것이다.

조선어사전에 수록된 어휘 및 주해는 현저히 민족적 색채를 갖추어 사용자에게 저절로 민족의식을 자극·배양하는 민족적·역사적 대사전이다. 조선어학회의 어문 활동이야말로 실로 조선민족운동 가운데 그 本道를 걸은 대표적·획기적인 확고한 지도이념을 가진 가장 심모원려가 풍부한 민족독립운동의 점진적 형태라 단정할 수 있다. 10여 년 간 일반 사회인의 마음에 끼친 해독은 심대한 것이다.

검사는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잠자고 있는 조선민족의 정신을 일깨워 직접적인 독립운동보다 더 큰 영향을 조선인에게 미쳤음을 언급하고 이를 사상사적으로 일본의 근대를 탄생시킨 國學에 비유하였다. 이극로 등의 제1심에서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또 조선어사전의 내용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大倭教 등 민족적 색채가 현저한 어휘나, 倭亂 등 민족적 감정에서 일본을 모욕했다고 인정되는 어휘와 주해가 일본정신을 현저히 결여하고 민족적 색채를 띠는 紀元節, 開國紀元節, 日章旗, 太極旗 등을 근거로 범죄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예심 중인 德山一은 “종합적으로 보면 민족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는 이극로 등이 걸으로는 “민족의식을 청산하고 忠良한 皇國臣民이 되어 있다고 진술하지만, 공판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여전히 민족의식에 투철하다.”고 논박하였다. 그리고 장현식에 대해서는 검사는 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와 검사의 이극로에 대한 신문에서 “장현식에게 지원을 요청”한 내용을 근거로 유죄임을 주장하였다.

#### 4.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여 전부 기각하였다.

① 소극적·간접적 행동: 「치안유지법」에서는 국제변혁의 수단이나 방법을 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간접적인 행위도 해당하며, 게일어의 부활로 영국의 자치령이 된 남에이레(Aire)[아일랜드(Ireland)]와 지배국의 동화정책에 맞서 자국 언어 사용운동으로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1918년 독립을 한 폴란드를 그 예로 들었다.

②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합법성: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위법한 목적과 결합되어 범죄를 구성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③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른 문화활동으로 위법성이 없는 사전편찬: 객관적인 내용의 비교가 아닌 행위자의 내심-숨은 목적-을 보아야 하며, 소극적·간접적 문화운동도 국체변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국체변혁의 위험성을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실제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판결문과 원용된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판결은 이와 같은 행위가 민족의식을 양양시켜 독립의 기운을 양성시키는 결과 독립의 위험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설명한 취지인 것이 자명하다.”고 하여, 그냥 무시하였다.

⑥고등법원은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고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윤재와 한징의 옥사, 이인 등의 보석 등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주어진 대로 판결하였다.

형사법의 목적은 ‘心情’이 아닌 ‘行動’을 처벌하여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은 사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합법적 단체인 ‘조선어학회’의 표면적 활동은 이면에서는 불법이다.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받아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도 암암리에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불법활동이다. 합법적 학술활동에 종사하여도 방향을 전향하여 언제든지 불법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국체변혁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문화활동도 이에 해당한다.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학술, 창씨개명, 자백-이 아니라 흥중에 품고 있는 속마음이다.<sup>35)</sup>

조선인의 모든 행동은 국체변혁을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항상 조선인은 잠재적 범죄자이며 이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식민지 형사법은 불법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까지 규율대상으로 삼는 心情刑法으로 ‘거대한 전환’을 선언하였다.

35) 한인섭, 앞의 책, 600-1쪽.

## VI. 맺음말

식민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동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민족어를 말살해야 한다.<sup>36)</sup> 민족어는 사전에 담기게 되고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운동은 ‘민족어의 보존’을 통한 근본적인 민족운동이다. 민족어 말살을 완전한 동화정책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 방법으로 인식한 일제는 국방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건을 확대하여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을 일으켰다. 일제는 문화운동을 통한 간접적인 독립운동으로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과 가입, 목적수행행위 등을 엄하게 처벌하는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으로 처단하였다.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식민지 말기에 대부분의 민족주의자가 전향한 가운데 발생한 항일운동이다. 33명을 검거하여 29명을 구속하였으며 증인 등은 약 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이었다. 경찰에서는 허위자백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하였으며 이는 검사도 묵시적으로 동조하였고 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1년이 지난 1943년 9월 이극로, 16명을 예심에 회부하였다. 예심 기간 동안 이운재와 한징이 고문의 후유증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옥사하였다. 또 1년이 지난 1944년 9월 예심에서는 장지영과 정열모를 증거부족을 이유로 免訴하고, 나머지 12명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다. 1945년 1월의 제1심 법원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등 5명에게는 실형을, 이우식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장현식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형을 선고 받은 4명과 검찰이 상고하여 해방 이틀 전인 1945년 8월 13일에 조선고등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하였는데, 양쪽의 상고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의 논리는 “間接目的은 目的犯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문화운동을 통한 간접적인 독립운동도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는 형식적으로는 당시 조선형사령과 의용되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 등을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는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고문이 있었고, 검사와 판사는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등 불법적이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회피하기 위해 탄압의 꼬투리를 잡은 함흥에서 진행하였다.<sup>37)</sup>

36) 일제의 민족어 말살정책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교육을 금지하였다. 김경혜 지음/ 정희선 외 옮김, 『1948년 한신(阪神) 교육 투쟁: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원점』(경인문화사, 2006) 참조.

37) 1941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조선어학회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1945년 8월 13일의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은 검사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朝鮮總督府 裁判所’ 용지가 아닌 (朝鮮總督府) ‘檢事局用紙’에 작성된 점, 둘째, 판결문을 한 사람이 아닌 최대 7명이 작성하여 형식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점, 셋째, 마지막에 판사의 서명 날인하는 곳 하단에 고등법원 판사의 “氏”가 수기로 기재된 점 등이다. 그리고 판결문에 오류와 수정한 곳이 엄청나게 많아 정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작성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근대법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사법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의 대원칙을 훼손한 최소한의 법치주의조차 훼손한 폭거이다.

변호인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 편찬 등의 활동은 합법적이며 또 순수한 학술문화활동으로 정치적 결사 내지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고등법원은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문화활동이어도 내심으로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안유지법」 상의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형사법이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서 내심까지 규율할 수 있는 心情刑法으로 나아간 군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조작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고심인 고등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리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예심과 제1심인 함흥지방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시 조선어의 상황, 사상전향의 문제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주장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조선사회를 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 부록

### 1. 사건 전개 일지

- 1942. 8. 사건 단서 포착
- 1942. 9. 5. 정태진 연행
- 1942. 10. 1. 이극로, 이중화, 장지영, 韓澄, 李允宰, 金允經,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權承昱, 李錫麟 등 11명 검거
- 1942. 10. 21. 이우식, 李秉岐, 李萬珪, 李康來, 金善琪, 정열모, 김법린 등 7명 검거
- 1942. 12. 23. 이인, 徐承孝, 安在鴻, 김양수, 장현식, 鄭寅燮, 尹炳浩, 李殷相 등 8명 검거
- 1943. 1. 5. 김도연, 徐珉濠 등 2명 검거
- 1943. 1. 말 경찰 조서 작성 시작
- 1943. 2. 함경남도 경찰부와 흥원경찰서 협의
- 1943. 3. 15. 경찰 조서 작성 완료
- 1943. 3. 15. 안재홍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석방
- 1943. 3. 말 申允局, 金鍾皙 검거, 權憲奎와 安浩相 기소중지 처분
- 1943. 4. 1. 경찰 김종철, 신운국 기소유예
- 1943. 4. 경찰 권승욱 등 4명 기소유예, 김도연 등 24명 기소 의견 검사국 송치
- 1943. 9. 7. 靑柳五郎 검사 조사 시작(\* 경찰 수사 의견 제시)
- 1943. 9. 12. 관련자 함흥으로 이감(이틀)
- 1943. 9. 18. 김윤경 등 12명 기소유예로 석방, 이극로 등 16명 예심 회부
- 1943. 12. 8. 이윤재 옥사[면소]
- 1944. 2. 상순 예심판사 나타남
- 1944. 2. 22. 한징 옥사[면소]
- 1944. 9. 30. 14명 예심 종결; 장지영, 정열모 면소, 이극로 등 12명 공판 회부
- 1944. 12. 21.~45. 1. 16. 제1심 공판 9회
- 일자 미상 검사 4~8년 징역형 구형
- 1945. 1. 16. 제1심 선고 공판; 11명 유죄 선고(5명 실형, 6명 집행유예), 장현식 무죄
- 1945. 1. 18. 정태진 외 실형 선고자 4명 상고
- 1945. 1. 21. 검사 상고(장현식 포함)
- 1945. 1. 판사가 상고 취하 권유
- 1945. 5. 상고 접수 통고
- 1945. 7. 중순 상고심 선고일(8. 12.) 통고
- 1945. 8. 13. 고등법원 상고기각 판결
- 1945. 8. 15. 해방
- 1945. 8. 17. 함흥 형무소에서 석방
- 1945. 8. 18. 함흥을 출발하여 서울로 옮
- 1945. 10. 3. 서울역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에서 국어사전 원고 발견
- 1948. 10. 9. 조선말큰사전 제1권 발간(동아일보, 1957. 10. 9)
- 1957. 10. 9. 큰사전 6권 완간(상동)

2. 관련자의 형사 절차

성명	체포일과 장소	구속 장소	기소 여부		예심 1944. 9. 30	제1심 판결 1945. 1. 16	상고심
			경찰 43. 4.	검찰 9. 18			
권덕규	병으로 불구속		중지				
권승욱	42. 10. 1; 서울	함흥	유예				
김도연	43. 1. 5; 서울	미상	○	○	공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김법린	42. 10. 19; 동래	미상	○	○	공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김선기	42. 10. 21; 서울	미상	○	유예			
김양수	42. 12. 23; 서울	미상	○	○	공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김윤경	42. 10. 1; 서울	홍원	○	유예			
김종철	43. 4. 1; 서울		유예				
서민호	43. 1. 6; 서울	미상	○	유예			
서승호	42. 12. 23; 서울	미상	유예				
신윤국	43. 3. 31; 서울		유예				
안재홍	42. 12. 23; 서울		불기소			(43. 3. 15. 석방)	
안호상	병으로 불구속		중지				
윤병호	42. 12. 23; 부산	미상	유예				
이강래	42. 10. 21; 서울	미상	○	유예			
이극로	42. 10. 1; 서울	함흥	○	○	공판	징역 6년	상고
이만규	42. 10. 21; 서울	미상	○	유예			
이병기	42. 10. 21; 서울	미상	○	유예			
이석린	42. 10. 1; 서울	홍원	유예				
이우식	42. 10. 18; 의령	미상	○	○	공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이윤재	42. 10. 1; 서울	홍원	○	○	면소	1943. 12. 8. 옥사	
이은상	42. 12. 23; 광양	미상	○	유예			
이인	42. 12. 23; 서울	함흥	○	○	공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이중화	42. 10. 1; 서울	홍원	○	○	공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이희승	42. 10. 1; 서울	홍원	○	○	공판	징역 2년 6월	상고
장지영	42. 10. 1; 서울	홍원	○	○	면소		
장현식	42. 12. 23; 서울	미상	○	○	공판	무죄	검사
정열모	42. 10. 20; 김천	미상	○	○	면소		
정인섭	42. 12. 23; 서울	미상	○	유예			
정인승	42. 10. 1; 서울	함흥	○	○	공판	징역 2년	상고
정태진	42. 9. 5; 서울	미상	○	○	공판	징역 2년	확정
최현배	42. 10. 1; 서울	홍원	○	○	공판	징역 4년	상고
한징	42. 10. 1; 서울	홍원	○	○	면소	1944. 2. 22. 옥사	

\* 구속 장소는 대부분 홍원으로 추정된다.

\*\* 이희승의 회고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인승, 김윤경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회고하였다.

3. 범죄 혐의 사실

범죄 사실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김도연	김법린
1. 조선어학회 조직	△29-42	△좌동	△30				
2. 조선어학회 가입				○36.4.	◎	◎	△32
가) 철자법 통일안	○33, 40	○좌동	○좌동	○좌동			
나) 표준어 사정	○35, 36	○좌동	○좌동				
다) 외래어표기법	○31-41.1	○좌동	○좌동				
라) 언문강습회	○31-32	○좌동	○좌동				
마) 한글날 기념회	○31-36	○좌동	○좌동				
바) 『한글』 발행	○32-42.6	○좌동	○좌동	○37-42			
사) 조선어사전편찬	○38-42.9	○좌동	○좌동	○36-42	○41-42	○36-40	
아) 조선기념도서출판	○35, 38	○좌동	○좌동				
자) 결사가입 권유	○36. 4.						
3. 인재양성 결사조직	△36,7,41		△이극로				
4. 문법술어 협의		○35,40	○좌동	○좌동			
5. 교육·강연					○36-39		○34-38
범죄 사실	김양수	이우식	이 인	이중화	장지영	정열모	장현식
1. 조선어학회 조직					●29	●29	
2. 조선어학회 가입	◎	△31.6.	◎	◎고용			◎
가) 철자법 통일안					●이극로	●이극로	
나) 표준어 사정					●이극로	●이극로	
다) 외래어표기법							
라) 언문강습회							
마) 한글날 기념회					●이극로	●이극로	
바) 『한글』 발행		○36-42			●이극로	●이극로	
사) 조선어사전편찬	○36-40	○상동	○39,40	○37-42			○36-39
아) 조선기념도서출판			○38				
자) 결사가입 권유							
3. 인재양성 결사조직		○이극로	○이극로				
4. 문법술어 협의							
5. 교육·강연						●31-39	

비고 ○: 혐의사실 인정; ●: 혐의사실 불인정;  
 ◎: <예심종결결정서>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사실 인정  
 △: 혐의사실을 불인정하나 다른 사실과 함께 연속 1죄로 기소  
 \* 표시 뒤의 숫자는 해당사건이 발생한 연월이며, “이극로”는 그와 같다.  
 \* <예심종결결정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 적용 법조 및 법정형

성명	치안유지법(1941)		관계	치안유지법 개정	처단형 죄명	선고형
이극로	제1조 전단	제5조 실행협의	형법 제55조		제1조 전단 결사조직죄	징역 6년
최현배	제1조 전단					징역 4년
이희승	제1조 전단					징역 2.5년
정인승	제1조 후단				제1조 후단	징역 2년
정태진	제1조 후단	제5조 실행선동	형법 제55조		목적수행행위죄	징역 2년
이중화	제1조 후단				제1조 후단 목적수행행위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우식	제1조 후단	제5조 실행협의	형법 제55조			
김양수	제1조 후단			부칙; 형법 제10조	개정 전 치안유지법 제1조제1항후단 목적수행행위죄	
김도연	제1조 후단			부칙; 형법 제10조		
이인	제1조 후단	제5조 실행협의	형법 제55조	부칙; 형법 제10조		
장현식	제1조 후단			부칙; 형법 제10조		무죄
김법린	제1조 전단	제5조 실행선동	형법 제55조		제1조 후단 결사가입죄	징역 2년 집행유예

- \* 치안유지법 제1조 전단 결사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 \* 치안유지법 제1조 후단 결사가입죄: 7년 이상 유기징역형
- \* 치안유지법 제5조 결사목적 수행 행위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 \* 개정 전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 결사 목적수행 행위죄: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
- \* 형법 제55조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죄명에 저촉될 때에는 1개의 죄로써 이를 처단한다.
- \* 치안유지법 부칙 제2조: 개정으로 형이 가중되면 종전의 형으로 처단한다.

5. 치안유지법 발취

1) 1925년 법률 제46호(칙령 제175호로 조선에 시행)

제1조 ①국체國體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황을 알면서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2) 1928년 칙령 제129호 개정법

제1조 ①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그 정을 알고서도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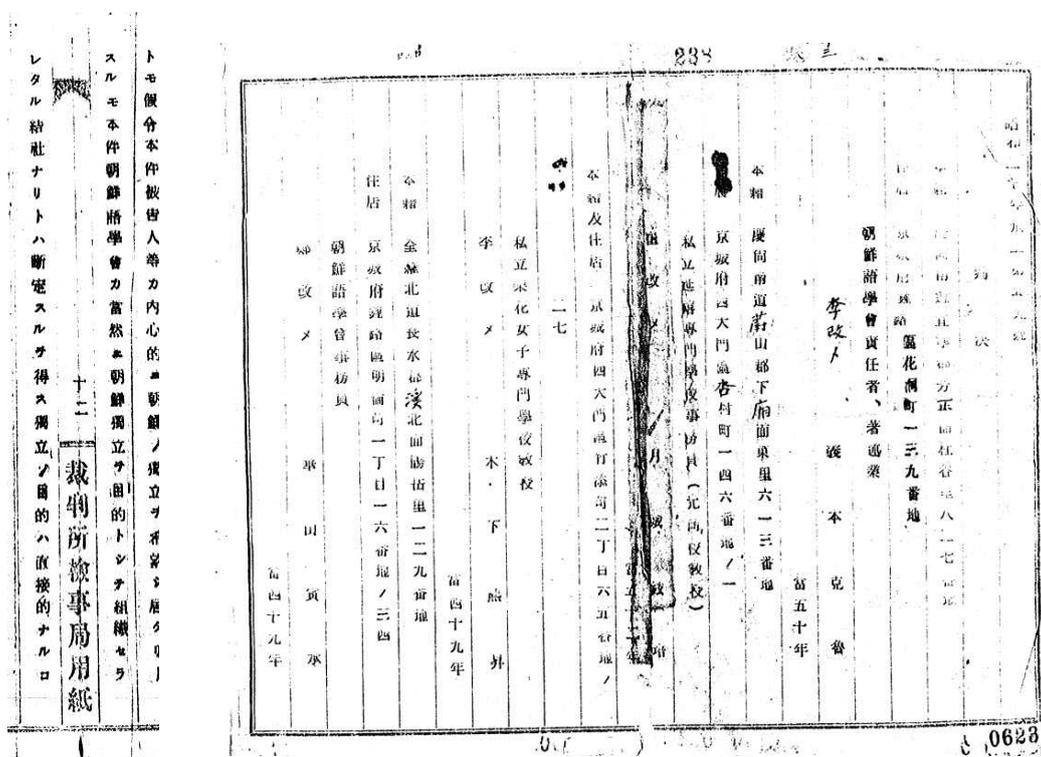
3) 1941년 법률 제54호 개정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정을 알고서도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 또는 선동하거나 또는 그 목적인 사항을 선전하거나 기타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② 제1장[죄; 역자 보충]의 개정규정은 본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 역시 이를 적용한다. 단 개정규정에서 정한 형이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형에 의하여 처단한다.

6. 고등법원 판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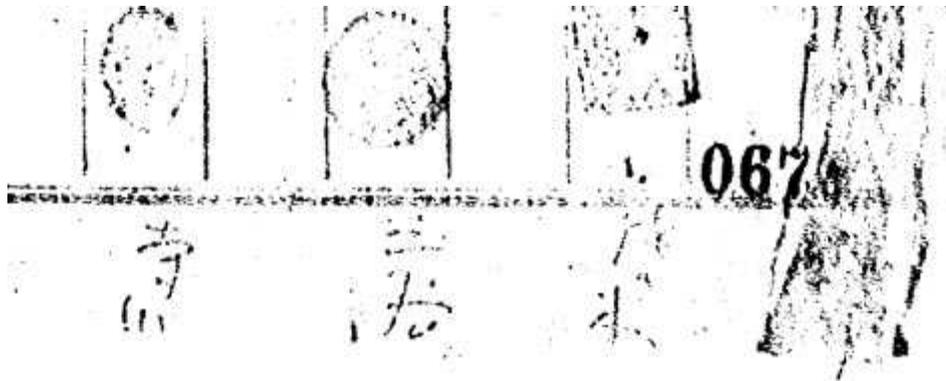


1: 판심

2: 판결문 첫 면



12: 판결문 마지막 부분



13: 수기 '氏' 부분 확대



국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 제1부 주제 발표

건재 정인승 선생의 삶으로 살핀 국어운동사/ 조오현

환산(한메, 한뢰) 이운재의 국어 연구와 국어교육/ 허재영

백수 정열모의 언어 의식과 국(어)학적 성과/ 이상혁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1부 주제 발표

## 건재 정인승 선생의 삶으로 살핀 국어운동사

조오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choh177@hanmail.net

### 1. 들어가기

이 글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의 말과 글과 얼마저 사라질 위기에서 나라의 말과 글과 얼을 지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려던 정인승 선생의 삶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정인승 선생의 삶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한글학회의 역사이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신 모든 애국지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 2. 성장기

#### 2.1. 출생과 가정 환경

정인승 선생은 1897년 음력 5월 19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129번지에서 한학자인 정상조님과 송성녀 여사의 3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동래이고 자는 경범(景範)이며 호는 건재(建齋)이다.

마을의 부호로 대대로 한학을 숭상하는 선비 집안이었다. 고조할아버지 정준

성님은 한학자로 교류가 깊던 우의정 유후조(우의정)의 천거로 정2품 판서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에 몰두했고, 증조할아버지 정태유님, 할아버지 정기성 형제님, 아버지 정상조님이 모두 한학자인 선비 집안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족보 일로 서울에 자주 다녀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앞섰다. 서울에 갔다 올 때면 늘 책을 사 왔는데 책을 주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되 벼슬이나 출세는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한다.

## 2.2. 가풍에 따라 한문을 공부하다

정인승 선생은 한학을 숭상하는 가정의 영향을 받아 한학을 공부했다. 다섯 살 때 한학을 배우기 시작해서 다섯 살에 『천자문』을 떼고, 여섯 살에 『동몽선습』, 일곱 살에 『소학』을 떼었으나 『소학』을 땔 무렵 서당이 없어져서 다음 과정은 언해본을 통해 혼자 힘으로 공부했다. 아홉 살에 『자치통감』, 열한 살에 사서, 열세 살에 삼경, 열여섯 살에 『주역』을 끝으로 한문 공부를 마쳤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 언해본으로 공부한 것이 나중에 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 2.3. 나라와 겨레에 대한 사랑과 항일 정신이 움트다

정인승 선생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 항일 사상이 짝트게 된 계기는 을사보호조약과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나타난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주둔하던 일본군의 만행을 보면서 자연스레 길러졌다.

을사보호조약은 정인승 선생이 아홉 살이 되던 1905년에 체결되었는데, 정인승 선생은 이때의 일을 전북일보에 연재한 <국어운동 50년>과 『건대학보』에 실린 <내 나이 여든일곱에>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철이 들만하게 된 아홉 살 때의 어느날, 당시의 애국신문이었던 <황성신문>에 특호 활자로 “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고 보도된 것을 보신 아버님의 통곡 소리에 영문을 모르고 함께 따라 울었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내 나이 여든일곱에>)

아홉 살 때였던가 싶다. 우리 집 사랑에 수 십 명의 어른들이 모여 방바닥을 치고 우는가 하면 비통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무언가를 쓰는 것이었다. 아버님께 여쭙어보니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들려주시며 나라에 올리는 상소문을 쓴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에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얘기를 듣자 어린 소견에도 어찌나 분하고 억울한지 그 시절 이후부터는 왜놈만 보면 진저리를 치게 되었다. (<국어운동 50년>)

덕유산 아래에 있던 정인승 선생의 마을은 의병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자 일본군의 토벌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일본군 토벌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정인승 선생의 집을 징발해서 병참소로 사용하면서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

이런 난리 속에 동네에서 가장 크던 우리 집은 일본군에게 징발당하여 병참소로 사용되었다. 우리 집을 근거로 주변에서 의병들의 토벌 작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밤이면 이들이 잡아 온 의병들을 고문하느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동네 앞산 소나무에 사람을 달아놓고 총살을 하는 일도 가끔 있었다. 우리 땅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와서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을 저처럼 무참히 죽이는 일본군의 잔인성에 피가 끓었지만, 힘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찌해볼 도리는 없는 일이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정인승 선생의 형이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다.

하루는 나의 형 인영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 팔을 다친 적도 있다. …… 그 마을 이장 집으로 쫓겨 가서 숨을 돌리고 보니 형의 바른팔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장 어른이 일본군에게 가서 의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약을 얻어다 간단한 치료를 했다. 다행히 형의 상처는 심하지 않았다.

정인승 선생이 어릴 때 보고 겪었던 이러한 일들은 소년 정인승의 나라 사랑과 겨레 사랑,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 3. 신학문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로 가다

#### 3.1. 서당 없어진 자리에 동신학교를 세우다

정인승 선생은 한문 공부를 마친 뒤에 서당이 있던 자리에 동신학교라는 간판을 세우고 형뻘, 아저씨뻘 되는 사람 30여 명을 모아 놓고 역사와 국문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정인승은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런데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보통학교 졸업장이 필요했다. 정인승 선생

은 19세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투 틀고 갓 쓰고(14세에 결혼했음) 용담보 통학교 2학년에 입학해서 1년 반 만에 졸업했다.

### 3.2. 세 번의 가출 끝에 허락을 받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서울로 가려 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가출을 시도해서 가출 세 번째에 허락을 받고, 친척이면서 한학자인 정만조님 집에서 살면서 강습소 보결시험을 보았다. 독학으로 공부가 되었었기 때문에 4년 과정을 1년에 마칠 수 있는 중등학교 강습반에 입학했다. 중등학교를 1년 만에 마친 정인승 선생은 내자동에 있는 종교 예배당 영어 강습소에서 3개월간 공부를 했다.

### 3.3.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돌리며 참가하다

정인승 선생은 1919년 봄에 법률전문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서울에는 아직 대학은 없었고 전문학교로 법률전문, 의학전문, 고등공업, 고등상업 등 일본 사람이 세운 학교와 아직 총독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채로 기독교 계통의 서양인들이 운영하던 연희전문이 있었다.

법률전문에 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기다리던 3월 1일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청년 정인승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낮에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밤에는 등사판으로 복사판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골목골목 배달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 길에서 만난 청년들로부터 법률전문이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는 소리를 듣는다. 청년 정인승은 법률전문이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는 소리를 듣고 시험을 포기한다.

입학시험을 포기한 정인승 선생은 독립선언문을 숨겨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 4. 연희전문 시절

### 4.1. 연희전문학교에서 영향을 받은 한글사랑 정신이 정인승 선생의 학문적 뿌리

일본인이 세운 학교가 싫어서 법률전문 입학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갔던 정인승 선생은 그해 겨울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연희전문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한다. 연희전문 재학 시절 청년 정인승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삼 년 선배인 김윤경, 위당 정인보 선생, 피셔(Fisher) 교수, 윌한경(U. Underwood) 교수였

다. 이 네 분들로부터 학문적·사상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김윤경 선생과 정인보 선생은 이후 정인승 선생이 국어학을 연구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다.

정인승 선생님은 『건대학보』에 수록한 <내 나이 여든일곱에>에서 “김윤경님은 그의 옛 스승 주시경 선생의 창의적인 국어문법 학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나에게 우리말을 연구하게 영향을 준 바가 적지 않아 영문법 교수인 백남석 선생의 『영어 구문론 해설』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것과 함께 나름대로 국어문법에 대한 이치를 전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또 정인승 선생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의 마지막 강의(88세 때) 종강에서 한글전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정인보 선생한테 수사학을 배울 때 정인보 선생이 한 말을 소개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한테서 수사학을 배웠는데 정인보 선생은 ‘새벽 소리 찬바람에’를 예로 들면서 ‘한문으로 된 국문보다 우리 말이 더 재미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 4.2. 미국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하다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정인승 선생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 갈 결심을 한다. 피셔 교수가 스칼라십을 마련해주고 미국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소개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는 데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 첫째는 집안의 반대가 강해서 허락을 받을 수 없었다. 정인승 선생은 전에 가출하던 방식으로 가족 모르게 미국으로 갈 결심을 했다. 그런데 둘째의 이유인 돈의 문제는 결심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인승 선생의 집은 마을의 부호였지만 유학의 학비를 댈 만큼 부자도 아니었다. 정인승 선생은 연희전문에 다닐 때에도 등사반에 들어가 필경을 해서 학비로 썼고, 피셔 교수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받은 돈으로 하숙비로 썼다.

정인승 선생이 돈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안 이기연(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세호 장군의 아버지) 씨가 미국 가는 것을 1년 늦추고 그동안 돈을 벌어서 내년엔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취직을 권유하고 송도고 등보통학교 윤치호 교장에게 소개해주었다.

## 5. 고창고보 교사 시절

### 5.1. 민립학교라는 말에 고상고등보통학교(고창고보)의 교사가 되다

송도고등보통학교 윤치호 교장의 제의에 따라 송도고등보통학교의 영어 교원

으로 가기로 하고 부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양태승 교장이 교육에 대해 토론하자며 만날 것을 제의한다. 윤치호 교장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만나기를 거절했으나 거듭된 제의에 마지못해 양태승 교장이 머물던 전 통여관을 찾아서 만났다. 첫날은 교육에 대한 토론만 하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만나서는 고창고보가 민립이고 아직 체계가 덜 잡힌 학교라면서 고창고보로 와 줄 것을 제의한다. 처음에는 안 가려 했으나 민립이라는 말에 이끌려 고창고보로 가기로 한다.

## 5.2. 본격적인 국어 운동이 시작된 시기

고창고등보통학교의 부임 시기는 정인승 선생이 본격적으로 국어 운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정인승 선생은 고창고등보통학교에 영어 교원으로 부임했다. 같은 날 체조의 이병학(뒤에 사돈이 됨. 이미연 양의 증조부), 수학의 유찬식 선생도 부임했다. 이 세 선생은 ‘민족혼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점과 ‘학교를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이 통했고, 이후에도 함께 뜻을 합쳤다.

### 5.2.1. 영어 교사로 부임했지만 정규시간 외에 국어를 더 많이 가르치다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한 것은 영어 교원이었다. 그런데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해서 보니 국어 시간(조선어 시간)이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일본어 시간은 1주에 여섯 시간씩 배정되어 독본, 습자, 작문 등을 골고루 가르치고 있으나 조선어 시간은 1주일에 한 시간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장차 조선어 시간을 없앨 움직임까지 있었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의 일을 “내가 고보에 간 것은 영어 교원으로 간 것이지만 이런 현실을 보니 분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민족 관념을 심어주려면 국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인승 선생은 교장에게 국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어(조선어)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교장은 정인승 선생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총독부의 교육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인승 선생은 하는 수 없이 정규시간이 아닌 과외로 지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지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비공식적인 방법에 한계를 느낀 정인승 선생은 교장을 움직여 고창고보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이 있고 일본 중의원을 지낸 바 있는 마쓰도미를 설득했다. 조선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던 마쓰도미는 총독을 설득

해서 총독으로부터 교육령은 고칠 수 없되 고창고보에 한해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정인승 선생은 조선어 시간을 1주에 5시간(독본 2시간, 문법 1시간, 작문 1시간, 습자 1시간)으로 늘린다. 그리고 진급 제도에서도 평균 60점이면 과목낙제에 관계없이 진급되었으나 조선어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진급시키지 않는 등 조선어 교육을 강화했다.

### 5.2.2. 나라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서 유학의 꿈을 버리고 국어 교사가 되다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한 것은 영어 교사였지만 국어 교육에 몰두하느라 전공을 국어 교사로 바꾸고 영어 교사는 박희성이라는 분을 별도로 채용했다. 그뿐 아니었다. 정인승 선생은 그렇게 갈망하던 미국 유학의 꿈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국어(조선어) 교육에 몰두한다. 정인승 선생 자신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겨레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정인승 선생은 “말과 글을 그대로 지니고 지켜가고 있는 민족은 비록 남의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독립이 되어 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되 말과 글을 잃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굳은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국어운동 50년>에서) 결국 정인승 선생은 국어 교육의 시급성과 독립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소망하던 미국 유학의 꿈을 접었다.

### 5.2.3. 고창고보 교사 시절 물음과 대답을 통해 조선어학회와 관계를 맺다

정인승 선생이 조선어학회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이의도의 <건재 선생의 ‘의문·해설 한글 강화’>에 의하면 “늦어도 고창고보 교사(조선어 및 영어 담당) 때에는 ‘한글’을 구독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1934년 4월에 나온 ‘한글’ 제11호에 실린, 선생의 질의와 그 해답(김윤경 선생이 답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이것이 현재로서 기록으로 증명되는 최초의 기록이다”고 밝히고 있다.

정인승 선생과 조선어학회의 관계에 대해 정인승 선생도 <국어운동 50년>에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외솔 최현배 씨가 뜻밖에 나의 목장엘 찾아왔다. 외솔은 당시 연희전문에서 강의하면서 김윤경·이희승 씨 등과 함께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간부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와는 고창고보에 있으면서도 늘 연락을 취해오던 터였다”고 회고했다.

#### 5.2.4. 애국 학생을 보호하여 고창고보를 민족학교로 키우는 역할을 하다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 부임한 지 4년이 되는 1929년 11월 광주에서는 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 학생운동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5만 4천여 명이 참가하는 학생운동으로 번져나갔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에서는 주모 학생들은 모두 퇴학시키도록 조치하고 퇴학당한 학생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사상불온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어느 학교에도 전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애국정신으로 똘똘 뭉친 정인승·이병학·유찬식 세 선생은 애국 학생의 전학을 받기로 하고 교장을 설득했고, 교장도 세 선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창고보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 굴하지 않고 우수 학생들은 시험을 보아 모두 전학을 받아들였다. 이 소문이 전국으로 번지자 함경도, 평안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왔고, 일본 사람들에게 고창고보는 민족주의자들의 소굴로 인식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북에서는 오산고등학교, 남에서는 고창고보가 민족정신이 가장 강한 학교가 되었다.

#### 5.2.5. 일제의 감시를 피해 사표를 내다

조선어 교육의 강화에 이어 사상불온으로 퇴학당한 학생들을 받아들이자 학무국에서는 고창고보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기게 되었다. 일제 당국은 결국 고창고보를 말 잘 듣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이지 고창고보가 공립이 되는 것은 뻔했다. 또 세 선생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심해졌다. 정인승(교무)·이병학(서무)·유찬식(교장) 세 선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의 끝에 1935년 8월 학교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정인승 선생은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에서 양을 기르며 책을 보고 있었다.

## 6. 조선어학회 시절

### 6.1. 최현배 선생의 권유로 사전편찬의 일을 맡다

정인승 선생은 쫓기듯이 고창고보를 퇴직하고 서울로 올라와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현재 돈암동)에서 양을 기르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솔 최현배 선생이 정인승 선생을 찾아왔다. 최현배 선생은 정인승 선생에게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사전을 만들고 있으니, 참여해서 같이 만들자고 제안한다.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편찬하기로 한 것은 1929년 10월 31일 제483돌 한글날 기념식을 갖고 1백 8명이 학회 회관(당시는 수표동)에 모여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사전 편찬을 계획한 것은 주시경·권덕규·이규영·김두봉 등이 광문회에서 『말모이』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은 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했고, 1927년 계명구락부가 이 사업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계명구락부도 역시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만든 것은 주시경 선생 등이 이루지 못한 사업을 완수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조선어사전 편찬회’는 “일찍이 문화발전에 유지한 민족들은 언어 및 문자의 정리와 통일을 급무로 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과거의 모든 문명 민족이 제각기 자기 어문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어와 표준 문자를 제정하여 동시에 표준사전을 편성하여 어문의 통일을 도모하였고, …… 금일 세계적으로 나오된 조선 민족을 갱생할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추진하는 방편으로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출발했다. ‘조선어사전 편찬회’는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의한 2년 뒤인 1931년 착수했다. 그러나 경비 부족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경비 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 사업은 이우식·김양수·장현식·김도연·이인·서민호·신윤국·김종철·설태희·설원식·윤홍섭·민영욱·임혁규·조병식 등 열네 명의 인사들이 1만 원의 회사금을 거두어 냈고, 사전편찬을 촉진하기 위한 비밀후원회를 조직하여 어느 정도 경비를 마련한 뒤에 3년을 기한으로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배 선생이 정인승 선생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당시 최현배·김윤경·이희승 등이 조선어학회의 간부로 사전편찬의 일을 맡았으나 이 세 분들은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집필에 전담할 사람을 찾던 중 정인승 선생이 고창고보에서 퇴직하고 목장의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정인승 선생이 사전 편찬의 일을 맡기로 한 뒤로 업무 분담을 정했다. 외무 활동을 비롯한 전체 회무는 이극로 선생이, 예산의 집행은 비롯한 회계는 최현배 선생이, 주필은 정인승이 맡았다. 그리고 상임 집필은 정인승·이극로·이중화·한징·이운재 다섯 사람이 맡았다. 정인승 선생은 그때의 일을 <국어운동 50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외솔 최현배 씨가 뜻밖에 나의 목장엘 찾아왔다. 외솔은 당시 연희전문에서 강의하면서 김윤경, 이희승 씨 등과 함께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간부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와는 고창고보에 있으면서도 늘 연락을 취해오던 터였다.

외솔은 나에게 아직껏 우리말사전이 없어 조선어학회에서 여기에 뜻을 두고 여러 방향으로 집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면 교편을 잡고 있어서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또 능력이 달려 간부들끼리 의논한 끝에 정 선생에게 맡기자고 결정이 되었으니 꼭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 그러자 외솔은 정 선생이 굳이 사양하면 사전을 만들지 못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권유하면서 충분치는 못하나마 경비도 시작할 만큼 준비는 되어있으니 꼭 맡아주어야 된다고 졸라댔다.

정인승 선생이 최현배 선생의 제의에 따라 <우리말사전>을 착수한 것이 1936년 4월 1일이었다.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규범이 정해져야 한다. 맞춤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표준어가 정해져야 하며, 외래어 표기법이 정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불규칙해도 사전을 만들 수 없다. 다행히도 조선어학회에서는 1929년 사전 편찬을 하기로 결의한 뒤로 이 세 가지 일을 추진해왔다.

#### 6.1.1.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고친판 수정위원으로 활동하다

- 1) 맞춤법통일안 제정위원으로 권덕규·김윤경·이병기·이운재·이희승·장지영·정인섭·최현배·박현식·신명균·정열모·이극로 12명을 선정하다.
- 2) 12인의 위원이 2년 동안 69회, 211시간 심의를 해서 1932년 12월에 맞춤법 원안을 작성하다.
- 3)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6명을 더 뽑아 19명의 위원회가 되다. 19명의 위원이 경기도 개성에서 1933년 1월까지 회의를 열고 원안에 대한 제1 독회를 가지다.
- 4) 이 원안에 대한 수정위원 10인을 뽑아 6개월에 걸쳐 수정을 가하고 전체 위원이 모여 화계사에서 제2 독회를 마치다.
- 5)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리위원 9명을 뽑아 최종 정리를 끝내고 1933년 10월 19일 공표하다.

이때까지 정인승 선생은 조선어학회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정인승 선생이 사전 편찬의 일로 학회에 들어온 뒤로는 맞춤법 통일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정리하면,

- 1) 1937년 3월 1일 펴낸 고친판에서 수정위원 7인 가운데 한 분으로 참여하다.
- 2) 1940년 6월 발표한 재판의 개정 조항 기초위원 3인(이희승·이극로·정인승)으로 참여하다.
- 3) 1980년 8월에 발표한 ‘한글맞춤법’의 수정위원으로 참여하다.

### 6.1.2. 표준어 사정

- 1) 1935년 1월 2일 그동안 표준어로 수집한 4천여 어휘를 표준어 사정위원회 제1독회를 열어 사정위원 40명에게 내어놓았다.
- 2) 제1 독회는 온양에서 이희승 선생이 의장이 되어 참석한 32인이 회의를 열고 사정한 뒤에 김창제·김윤경·김형기·방종현·신윤국·안재홍·이극로·이기윤·이만규·이숙중·이운재·이호성·이희승·최현배·한징·홍애스티 등 수정위원 16명을 뽑아 수정하도록 했다.
- 3) 제2 독회를 8월 우이동 봉황각에서 열었다.
- 4) 제3 독회를 1936년 7월 인천 제1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열다.(사정위원 73명이 됨)

정인승 선생은 제3독회에 참석하여 문세영·윤복영·이강동·이극로·이만규·이운재·이중화·이희승·최현배와 더불어 최종 수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종 수정위원은 총 5,669개의 낱말 가운데 3,001개 낱말을 골라 표준어로 정해서 1936년 10월 28일 표준말 발표식을 가졌는데 이운재 선생이 설명을 맡았다.

### 6.1.3. 외래어 표기법

- 1) 1931년 1월 24일 조선어학회 주최로 각계의 권위자 45명으로 구성된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 문제 협의회>의 결의로 조선어학회에서 책임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 2) 책임위원으로 이희승·정인섭·이극로 3인을 뽑아 이들로 외래어 표기법, 일본말 소리 표기법, 우리말 소리의 로마자표기법, 우리말 소리의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 3) 슬기를 모으기 위해 조선음성학회, 일본음성학회, 만국음성학협회, 세계언어학자 대회, 국제실험음성과학대회, 세계음운학대회 등 권위 있는 연구 단체의 조언을 받았다.
- 4) 8년 동안 연구와 심의를 거쳐 1938년 가을에 외래어 표기법, 일본어음 표기법, 한국어음 로마자표기법, 한국어음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에 대한 원안 만들었다.
- 5) 원안 전문을 등사하여 각계 인사 3백여 명에게 보내어 비평과 수정을 받은 뒤에 10년만인 1940년 6월 25일 학회회원 전원의 결의로 확정 발표했다.
- 6) 연희전문 교수 정인섭, 조선어학회 대표 간사 이극로, 이화여전 교수 이희승 3인의 책임위원과 이중화·최현배·함병업(보성전문 교수)·김선기(연희전문 교수)·정인승 다섯 사람의 심의를 거쳐서 완성했다.

정인승 선생은 사전편찬의 주필을 맡으면서 한글맞춤법통일안, 표준어 제정, 외래어 표기법 제정 등에서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다.

## 6.2. 『한글』 편집

1937년 10월(49호)~1942년 5월(93호) :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편집·발행을 담당하다.

## 6.3. 물음과 대답

『한글』은 동인지 한글과 학회지 한글 두 종류가 있다. 동인지 한글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오다가 끊어지고 학회지 한글이 발행되었다. ‘질의·응답’이 마련된 것은 1932년 6월에 간행된 학회지 한글 제2호부터다. 이때 시작된 ‘질의·응답’은 이갑·최현배·이운재·김선기·이극로·이희승 선생들이 분담하여 답했고, 제 11호부터 제13호까지는 김윤경 선생이 혼자 답했다. 이때까지 정인승 선생은 질의자로 등장한다. 14호(1934.7)부터 제46호(1937.6)까지는 이운재 선생이 도맡아서 답했는데, 이때 최현배 선생과 이극로 선생이 1회씩 답했다.

그런데 1937년 6월 이운재 선생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정인승 선생은 이운재 선생의 뒤를 이어 대답을 집필했는데 1차는 1937년 10월(49호)부터 1949년 7월(108호)까지 집필했고, 2차는 1959년 10월 9일(125호)부터 1963년 9월 30일(132호)까지 집필했다. 이 기간 동안 45회의 대답을 집필했는데, 이 시기는 정인승 선생이 한글의 편집과 발행을 책임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sup>1)</sup>.

## 7. 조선어학회 사건

### 7.1.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

〈생략〉

### 7.2. 사건 일지

- 1942년 9월 5일 : 정태진 - 함경도 흥원경찰서에서 소환장 받다.
- 10월 1일 : 정인승·이중화·장지영·이극로·최현배·한징·이운재·이희승·김윤경·권승욱·이석린 총 11명은 종로서에 연행된 뒤 함흥으로 출발했다.
- 10월 2일 새벽 정인승·이극로·권승욱(3명)만 함흥에서 내리고 나머지 8명은 계속해서 어디(흥원경찰서)론가 가다.
- 3주 후 : 정인승·이극로·권승욱(3인) - 자동차에 실려 흥원으로 가다.(그동안 모진

1) 리의도(1996) 참고.

고문 받음.)

- 10월 18일 : 이우식 - 경남 의령에서 붙잡히다.
- 10월 19일 : 김법린 - 동래에서 붙잡히다.
- 10월 20일 : 정열모 - 금천에서 붙잡히다.
- 10월 21일 : 이병기·이만규·이강래·김선기(4명) - 경성에서 붙잡히다.
- 10월 23일 : 서승효·안재홍·이인·김양수·장현식·정인섭(6명) - 경성에서 붙잡히다.
- 10월 23일 : 윤병호 - 부산에서 붙잡히다.
- 10월 23일 : 이은상 - 전남 광양에서 붙잡히다.
- 1943년 3월 5일 : 김도연 - 경성에서 붙잡히다.
- 3월 6일 : 서민호 - 경성에서 붙잡히다.
- 3월 말부터 4월 1일 사이 : 신윤국·김종철이 불구속으로 문초 받았고, 권덕규·안호상은 병으로 두 번이나 구속을 면할 수 있었음.
- 먼저 소환되어 간 정태진을 포함 33명이 고초를 겪었다.  
※ 이 사이 50명의 인사가 증인으로 소환당해 고초 겪음. - 백낙준·정세권·곽상훈·김백두·방종현·민영욱·임혁규 등이 흥원 유치장까지 끌려와 심문을 받았다.
- 1943년 12월 8일 : 이운재 선생 옥사.
- 1944년 2월 22일 : 한징 선생 옥사.

### 7.3. 사법 처리 결과

- 기소 : 이극로·이운재·최현배·이희승·정인승·김윤경·김양수·김도연·이우식·이중화·김법린·이인·한징·정열모·장지영·장현식·이만규·이강래·김선기·정인섭·이병기·이은상·서민호(24명)
- 기소 유예 : 신윤국·김종철·권덕규·안호상(4명) - 본래 불구속이었다.
- 불기소 : 안재홍(1명) - 석방되었다.
- 기소 중지 : 권덕규·안호상(2명) - 2명은 병으로 잡아 오지도 못함.

### 7.4. 아오야기 검사의 심문 결과

- 예심 회부 : 이극로·이운재·최현배·이희승·정인승·정태진·김양수·김도연·이우식·이중화·김법린·이인·한징·정열모·장지영·장현식(16명) - 사상범으로 독방에 수감되다.
- 기소 유예 : 이강래·김윤경·김선기·정인섭·이병기·윤병호·서승효·이은상·서민호·이만규·권승욱·이석인(12명) - 석방되다.

### 7.5. 예심 종결 결과

- 이운재·한징(2명) - 사망으로 기소 소멸됨.

- 장지영·정열모(2명) - 면소로 석방되다.
- 나머지 12명 - 정식 재판에 회부되다.

## 7.6. 예심 종결 선고

피고인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등이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점은 개정치안유지법 제1조 앞단에 해당하고 피고인 정인승이 같은 결사에 가입하여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점과 김법린이 이 결사에 가입한 점과 이중화 이우식 김양수 장현식 김도연 이인 정태진이 이 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점은 각각 개정치안유지법 제1조 후단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극로 이우식 이인이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그 목적 되는 사항을 실행하는데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김법린 정태진이 마찬가지로 그 목적 되는 사항을 실행하도록 선동한 점은 개정치안유지법 제5조에 각각 해당하고 피고인 이극로 이우식 이인 김법린 정태진의 각 소행은 모두 연속에 걸리는 것이므로 각각 형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이극로에게는 결사조직죄 이우식 이인 정태진에게는 각각 결사 목적 수행행위죄 김법린에게는 결사가입죄의 일죄로 하고 김양수 장현식 김도연 이인의 전기 결사 목적 수행행위죄는 모두 개정 규정에 정한 형에 가중이 있는 경우에 걸리므로 개정치안유지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개정 전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의 각형에 따라 각각 처단할 범죄라고 생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공판에 붙인다. (<예심종결 결정문>의 일부)

- 개정치안유지법 제1조 앞단 : 이극로·최현배·이희승(3명-결사 조직 및 수행)
- 개정치안유지법 제1조 후단 : 정인승(결사에 가입하고 행위를 한 점), 김법린(결사에 가입한 점), 이중화·이우식·김양수·장현식·김도연·이인·정태진(7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한 점)
- 개정치안유지법 제5조 : 이극로·이우식·이인(3인-목적되는 사항을 실행하는 데 관하여 협의한 점), 김법린·정태진(2인-목적되는 사항을 실행하도록 선동한 점)
- 형법 제59조 : 이극로·이우식·이인·김법린·정태진(5명-연속에 걸림), 이극로(결사조직죄), 이우식·이인·정태진(3명-결사 목적 수행죄), 김법린(결사 가입죄의 일죄)
- 치안유지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개정 전의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 : 김양수·장현식·김도연·이인(4명)

## 7.7. 최종 판결 선고

-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함흥지방법원에서 니시다(西田勝吾) 판사의 주심으로 9회의 공판이 열림.
- 1945년 1월 16일 니시다(西田勝吾) 주심 판사의 선고 :
- 실형 5명 -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월, 정인승 징역 2년, 정태진 징역 2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7명 - 김법린·이중화·이우식·김양수·김도연·이인·장현식

## 7.8.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실형 선고받은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은 1945년 1월 18일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했음.

상고 취하를 권고하던 사카모토(坂本一郎) 검사는 설득이 실패하자 1945년 1월 21일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장현식을 맞상고했다.

해방으로 재판 없이 석방되었다.

## 8. 광복 이후

### 8.1. 마지막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다

일본의 항복으로 석방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이 열차는 서울에 오는 마지막 열차였다. 정인승 선생은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 기차를 타지 못했으면 우리들은 영영 서울에 오지 못하고 말 운명에 부닥칠 뻔했다. 이 기차가 서울에 내려온 마지막 열차였던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당국이 38선 이남에의 왕래를 차단해버린 때문이다. (<국어운동 50년>에서)

### 8.2. 건국준비 어문 분야 참여하기로 했으나 파벌싸움이 싫어서 정치에 관여 안 하기로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정태진은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도착하면 건국준비위원회에 찾아가서 어문 분야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다섯 분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서울에 도착 즉시 건국준비위원회를 찾아가자는 계획을 바꿔서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침 일찍 안국동 네거리에서 만나 건국준비위원회를 찾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정인승 선생 일행이 시내에서 만났으나 건국준비위원회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갈려 파벌싸움을 하다가 사무실에 수류탄이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일행은 건국준비위원회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우리 본래의 임무

인 우리말을 찾아내고 갈고 닦아 그 일을 통해 민족정신을 북돋우는 국어 운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정인승 선생 등은 대신 화동에 있는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갔다. 조선어학회사무실에 가서 뽕얇게 쌓여 있는 먼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정인승 선생 등이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 8.3. 임시총회를 열고 해방된 조국에서 할 일을 정하다

조선어학회는 8월 25일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고 국어 운동에만 전념한다는 학회의 슬로건을 결의함과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어학회가 할 일로 다음을 결의했다.

첫째, 종전의 사전편찬 사업을 계속한다.

둘째, 초·중등학교의 임시 국어 교과서를 편찬한다.

셋째, 국어 교사 단기강습회를 연속 개최하여 교사를 양성한다.

넷째, 새 목표에 맞게 조선어학회의 진용을 새로 갖춘다.

학회는 정인승 선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의 내용을 신문에 내기로 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매일신보 하나만 남아있었는데 학회는 매일신보에 결의 내용을 발표했다.

결의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뜻밖의 효과를 거두었는데 당시 총독부의 학무국에 근무하던 김세영은 조선인 직원에게서 거둔 국방헌금 82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매일신보를 읽고 민족문화운동에 써 달라고 학회에 보내와서 이 돈으로 학회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 8.3.1 국어 모르는 사람에게 강습회 열어 국어를 가르치다

국어 사용과 교육이 금지된 뒤에 갑자기 찾아온 해방은 국민의 문자 생활에 큰 혼란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각급 학교·관청·회사·은행·사회단체들은 한글학회에 강습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요청에 따라 학회의 회원들은 경향 각처의 한글강습회 강사로 나갔다. 각 지방의 요구는 더욱 밀려들어 보낼 사람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 8.3.2. 국어 교사를 양성하다

해방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 우선 그동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던 국어 교육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현황이었다. 그런데 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국어 교원이 모자라는 실정을 단시일 안에 보충하기

위해 1945년 9월 11일부터 다음 해 1월 18일까지 세 차례의 한글강습회를 열고 사법부를 두어서 1천 8백 36명의 교원을 양성해 내었다.

### 8.3.3. 국어 교과서를 집필 제작하다

국어 교사 양성과 함께 필요한 것은 국어 교과서의 편찬이었다. 학회는 9월 1일부터 교과서 집필을 착수했다. 그때 제작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3·4·5학년용 『초등국어교본』, 초등학교 5·6학년용 『초등국어교본』, 중학교 1·2학년용 『중등국어교본 상』, 중학교 3·4학년용 『중등국어교본 하』, 중학교 1·2학년용 『중등국어교본』이었고, 교사용인 『한글 교육 지침』 외에 초등학교 3·4·5·6학년 및 중학교용으로 『한글 첫걸음』의 집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학생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한글 첫걸음』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즉 이 시대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모두가 한글을 배우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모르는 것은 같은 처지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선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모든 교육보다 급했다. 그래서 정인승 선생은 하루라도 빨리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모든 교육에 앞선다고 생각해서 공통과목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같은 교과서로 같은 교육을 받게 했다.

### 8.3.4.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령을 우리말로 바꾸다(교육 용어 우리말로 만들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교육에 쓰는 구호들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바꾸어야 했다. 그래서 정인승 선생은 일본어로 된 구호를 우리말 구호로 바꾸었는데 ‘차렷’, ‘열중쉬어’ 등이 정인승 선생에 의해 만들어진 구호이다.

정인승 선생은 이 구호를 정한 일을 두고 뒤에 “이 사이에 학교에서 쓰는 구령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차렷, 열중쉬어 등등인데 ‘차렷’이라는 구령은 정신을 차리고 의복·행장을 차린다는 뜻에서 두고두고 봐도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어의 기오쓰께나 영어의 어텐션보다 훨씬 발음이나 의미가 좋은 것 같다.”고 회고했다.(〈국어운동 50년〉에서)

### 8.3.5. 한글학회에서 집필한 교과서는 교육부로 보내 국어 교육의 터전으로 삼았다

학회에서 집필한 교과서의 원고가 완성되고 인쇄에 넘기려 할 때 미군정청의

문교부장<sup>2)</sup>인 앤더슨 소장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찾아왔다. 학회를 찾아온 앤더슨은 문교부 직원들에게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진척된 것이 없으면서 당장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재가 없어 큰일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런 뒤에 조선어학회에서 교과서 편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도 답답해서 왔으니 문교부의 책임자로서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학회에서는 기왕에 조선 민족의 교육을 위해 집필한 원고이고 관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를 모두 넘겨주기로 했다. 앤더슨은 떨 듯이 기뻐하며 원고를 받아갔고, 교재가 출판된 뒤에 학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중앙청에서 국어 교재 수여식을 크게 열기도 했다.

앤더슨의 요청에 따라 학회에서 한 사람이 인쇄에 참여했는데 정인승 선생이 참여했다. 인쇄는 총독부에서 어용인쇄소로 사용하던 조선인쇄주식회사에서 했다. 책을 만드는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1945년 11월 6일에 해방 후 첫 번째의 국어 교과서인 『한글첫걸음』이 간행되었다. 『한글첫걸음』은 지은이 한글학회, 발행인 군정청 학무국으로 출판되었다. 본문 용지는 갱지이고 제본은 호부장본이며 편형은 국판이고 활자는 전문(본문 문장) 4호 활자로 했고, 가로쓰기로 했다.

『한글 첫걸음』이 출판된 뒤인 11월 20일에는 『초등국어독본(상)』이 출판되었는데 두 책이 출판되자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교과서 증정식을 열었다.

### 8.3.6. 쉽 없는 노력으로 사전 편찬의 일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글강습회를 열고, 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전 편찬의 일은 계속되었다. 1946년에 들어 사전 원고의 정리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원고 총 분량의 6분의 1 정도가 탈고되어 인쇄에 들어갔다. 인쇄는 을유문화사가 맡았다. 이렇게 해서 1947년 한글날(10월 9일)을 기하여 『우리말 큰사전』 첫째 권이 세상에 얼굴을 보이게 되었다.

### 8.3.7. 록펠러 재단의 인쇄물자 원조

문제는 물자 부족에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정으로 책을 만들 종이도 잉크도 절대로 부족했다. 을유문화사가 무리를 해서 사전의 첫째 권은 억지로 만들

2) 현재의 문교부 장관에 해당됨. 당시 미군정 시절에는 부장을 한국인 한 명과 미국인 한 명을 두어 두 명의 부장이 있었다. 당시 한국인 문교부장은 유억겸 연희전문 교수가 맡고 있었다.

어 냈지만, 당시의 물자 부족은 더 이상 사전을 편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국의 록펠러재단에서 신생국의 보람 있는 문화 사업을 위해 원조를 해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회는 이 소식을 듣고 록펠러재단에 물자 원조를 요청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원조를 요청하자 록펠러재단에서는 조사단이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실정을 알아보고 갔다. 그리고 1948년 12월에 록펠러재단의 이사회에서 사전편찬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통지가 왔다.

사전편찬 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모처럼 좋은 일을 해 보려다 힘이 부쳐 어쩔 수 없이 고심만 하고 있던 을유문화사 측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록펠러 재단에서 보내온 물자는 종이와 잉크, 그리고 제본에 필요한 실과 표지를 만들 종이 등 4만 5천 달러 상당의 것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배편으로 보내온 이 물자로 『큰사전』 여섯째 권까지 각 2만 책씩을 인쇄할 수 있는 물량이었다.

## 9. 6·25 이후의 사전 편찬

### 9.1. 6·25 사변이 모든 노력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록펠러재단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한글학회는 1949년 봄부터 『큰사전』의 둘째 권 인쇄를 시작하여 5월 5일에 발행을 했다.

1950년 6월 1일에는 셋째 권의 조판과 교정을 마쳤고, 6월 25일에는 2만 책 분량의 인쇄를 마치고 제본 중이었으며 넷째 권의 조판도 끝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에 뜻하지 않은 6·25사변이 일어났다.

6·25는 나라 전체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다. 한글학회에도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한글학회의 을지로 새 회관 건물과 출판사에 보관하고 있던 원조물자가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제본을 기다리던 셋째 권과 조판을 끝내고 인쇄를 기다리던 넷째 권 모두가 잿더미가 되었고, 편찬위원들은 각자 흩어져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 9.2. 9·28 수복 뒤에 원고 사본을 만들어 비상시를 대비했다

9·28 수복은 흩어졌던 편찬위원들을 서울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였다. 그런데 최현배 선생 댁에 숨겨놓았던 4·5·6째 권의 원고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편찬위원들이 모였다 하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원고가 잿더미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사전편찬위원들은 11월 12일부터 10여 명의 필경사를 동원해서 원고 1벌을 베꼈다. 1개월 동안 밤을 새워 베낀 결과 모든 원고의 베낌벌(사본)이 만들어졌다. 베낌벌(사본)은 두 겹의 독에 넣어 혜화동에 있는 최현배 선생 책의 땅속에 묻고, 원본은 천안의 유제한 선생 책에 묻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 9.3. 피난 시절에도 사전 편찬의 일은 계속했다

정인승 선생은 6.25가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수복이 된 뒤에 전주에 머물면서 전시연합대학과 명륜대학<sup>3)</sup>에서 국어학의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1951년 4월 전북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개교한 뒤에 교무처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분교의 출강도 맡았다.

정인승 선생은 학교의 일과 강의로 바쁜 중에도 사전 편찬의 일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때 전주에는 권승욱 선생이 전주여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정인승·권승욱 두 선생이 원고를 정리했고, 서울에서는 정태진·유제한 두 선생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서울에 있던 정태진·유제한 두 선생은 셋째 권과 넷째 권의 교정을 마치고 지형을 뒀다. 그런데 1952년 11월 2일 정태진 선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인승 선생은 원고 수정을 위해 서울에 있던 유제한 선생을 전주로 내려오게 해서 전주에 임시사무소를 차리고 1953년 5월 26일까지 다섯째 권과 여섯째 권의 원고 수정을 마쳤다.

원고 수정을 마쳤으나 문제는 인쇄할 물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록펠러재단에서 3만3천 달러의 물자를 준다는 약속을 해왔다.

### 9.4. 한글 파동으로 사전 만드는 일이 중단되었다

1953년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글 간소화’를 강요하는 ‘국무총리훈령 제8호’가 공포되었다. 한글 간소화 정책이 발표되자 간소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때 간소화 정책에 반대한 단체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등인데 한글학회에서도 1953년 5월 24일 “과학적으

3) 전북대학교의 전신. 호남의 거부 유직양이 세워져 국가에 헌납했다. 유직양의 아들은 국회의원을 지낸 유청이고 유청의 아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유훈근인데 유훈근은 가수 김상희의 남편이다.

로 법칙이 확립된 현행 맞춤법을 버리고 구식 맞춤법을 쓰라 하면 학술 진리의 존엄성을 모독하여 전문학자들의 총의를 짓밟는 권력의 문화 교살이다”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9.4.1. 정부에서도 강하게 밀고 나갔다

한글 간소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했다.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으로 있던 김법린을 해임시키고 이선근을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간소화(안)’을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록펠러재단에서 지원하는 물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1953년 ‘유네스코’가 ‘운크라’와 합동으로 한글학회의 사업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기로 한 82만 1천 달러의 원조를 외면해 버렸으며, 1954년 7월 2일에는 이선근이 비밀리에 작성한 ‘한글 간소화(안)’을 국무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 9.4.2. 강해진 반대 운동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책을 포기해서 사전 편찬 계속할 수 있었다

한글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국회로 번져서 1954년 6월 8일 송방용 의원을 포함한 12인이 긴급 동의안을 마련하고 채택해서 6월 10일 이선근 장관을 국회로 불러 추궁했다.

국회의 반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대로 강행하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가 거세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9월 19일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에 부치고자 한다”는 중대 담화를 발표하여 한글 간소화 방침을 철회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간소화 방안을 철회한 배경에는 유제한 선생의 개인적인 로비 영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9.4.3. 한글 파동이 종결되고 록펠러재단의 지원이 있어 사전 편찬 완결되었다

록펠러재단의 원조가 끊겨 실의에 빠져있을 때 록펠러 재단에서 3만 6천 4백 달러의 인쇄물자를 보내주겠다고 통보했다. 록펠러재단의 통보에 따라 1956년 4월 1일부터 각지에 흩어졌던 편찬위원들을 모으고 다시 증원해서 편찬의 일을 계속했다.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1·2·3권을 간행하고, 4·5·6권을 간행하고 부록까지 간행해서 1957년 10월 9일 『큰사전』은 완질의 형태를 갖추었다. 『큰사전』이 완

간된 것은 1936년 이래 21년간의 인고의 결과였다.

#### 9.4.4. 『큰사전』이 완간된 뒤에 『중사전』과 『소사전』을 편찬하다

『큰사전』이 완결된 뒤에 일반 대중을 위한 사전 편찬에 들어가 1958년 6월 15일 『중사전』을 완성하고, 1960년 4월 30일에는 학생용 사전인 『소사전』을 간행했다. 『소사전』은 단순히 올림말의 숫자를 줄인 것이 아니고 교육 용어, 과학 용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용어를 보완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한 사전이다.

#### 9.4.5. 사전 편찬이 끝난 뒤에 대학 교수, 대학 총장과 국어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국어 발전에 힘썼다

정인승 교수는 사전 편찬이 끝난 뒤에는 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총장, 국방부의 중앙 지명 제정위원, 문교부의 한글전용 특별 심의회 전문위원회 주간, 문화공보부의 방송 용어 심의위원회 위원, 학술원 회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 국역 교열위원, 문교부의 국어 조사연구 위원회 위원, 한글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 수정위원 등 한글과 관련된 일을 맡으며 국어 발전을 위해 힘을 쓰셨다.

평생 국어 발전을 위해 힘쓰던 정인승 선생은 1986년 7월 7일 오전 11시 40분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서거하셨다. 모란공원묘원에서 영면하시다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안장되셨다. 고향 생가터에는 전라북도과 장수군의 예산으로 ‘건재 정인승 기념관’이 건립되어 추모하고 있으며, 선생께서 서거하신 뒤 10년, 정인승 선생 100세 때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10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되셨다. 문화 인물로 선정되신 뒤에 이를 기리기 위해 정인승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한말연구학회에서 『건재 정인승 전집』 7권을 간행하였다. 이 전집은 우리나라 국어학자들로는 처음으로 간행된 전집이고 또 제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전집이라는 의미가 있다.

## 10. 맺음말

건재 정인승 선생은 침략자에게 나라를 빼앗겨 나라의 말과 글과 얼이 없어질 암담한 상황에서 나라의 말과 글과 얼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이고 지사이며 교육자이며 학자이고 겨레의 스승이시었다. 우리가 오늘 독립된 나라에서 겨레의 말과 글과 얼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정인승 선생을 비롯한 조선어학회의 애국지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아래는 정인승 선생의 외증손녀가 부시 대통령 앞에서 읽은 수필의 일부인데, 정인승 선생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초를 겪는 삶을 사셨다. 정인승 선생의 외증손녀의 글의 일부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자유’에 대한 나의 이해는 곧 ‘언어’에 대한 이해로 강하게 연결된다.

나의 증조부께서는 1940년대, 일본 정부에 의해 한글 사용이 금지되던 시절의 한국에서 최초의 한글 사전을 편찬하다 체포되셨다. 증조부께서는 만약 언어가 억압받는다면 사람들의 이념을 형성하고 나누는 매개체인 언어로 인해 이념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셨다. 그는 자신의 동포들이 모국어로 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그럼으로써 한국인들이 이념을 가질 고유한 권리를 지켰다.

.....

나는 21세기의 자유는 나이와 인종·성·지위 등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 같은 언어를 이용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젊고 자유롭다. 나는 말한다.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가끔은 틀리기도 하지만 나는 나의 고유한 언어로 말한다. 나는 말한다. 그리고 또 나는 듣는다.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에이브러햄 링컨 박물관 개관행사에서 읽어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절찬 박수를 받은 이미한 양의 에세이)

#### <참고 문헌>

- 김승곤(1996). 「건재 정인승 선생의 생애와 학문」.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김승곤(1997). 「교육자로서의 건재 정인승 선생」. 나라사랑 제95집.
- 김일근(1997). 「인간 건재 선생의 편모」. 나라사랑 제95호.
- 류제한(1997). 「건재 정인승 선생과 나」. 나라사랑 제95집.
- 리의도(1996). 「건재 선생의 ‘의문·해설 한글 강화」.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리의도(1997). 「건재 정인승 선생의 애국운동」. 나라사랑 제95집.
- 박병순(1997). 「건재 정인승 스승님의 추모」. 나라사랑 제95호.
- 박지홍(1997). 「인간 건재 선생의 이모저모」. 나라사랑 제95호.
- 이강로(1996). 「건재 선생이 사전 편찬에 남긴 이야기」.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이강로(1997). 「우리말 큰사전과 건재 선생」. 나라사랑 제95집.
- 정인승(1972).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일보 제2223호~2247호. 『건재 정인승 전집』 6권.

- 정인승(1983). 「내 나이 여든 일곱에」. 『건대학보』36.
- 정인승(1997). 「국어운동 50년」. 전북일보 연재. 『건재 정인승 전집』 6권.
- 정재도(1997). 「건재 선생의 생애와 사상」. “건재 정인승 특집호”. 나라사랑 제95집.
- 조오현(1995). 「정인승」. 주시경학보 17집.
- 조오현(1996). 「나의 스승 건재 정인승 박사님」. 국립국어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 조오현(1997). 「기능주의 관점에서 살핀 건재 선생의 학문」. 나라사랑 제95집.
- 한글학회(1986). “건재 정인승 선생 구순 기념 특집”. 한글 제191호.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1부 주제 발표

## 환산(한메, 한뫼) 이운재의 국어 연구와 국어교육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hgy435@hanmail.net

### 1. 들어가기

백과사전류나 환산 이운재(1888~1943)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그는 일제강점기 국어학자이자 역사학자, 한글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다. 환산(桓山)은 ‘한뫼’, 즉 ‘큰 산’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이운재가 중국 유학 시절 『상해독립신문』(1922.8.29.)에 ‘국치가(國恥歌)’를 발표할 때 사용한 필명이었다. 이 시절부터 그는 ‘한메’, ‘한뫼’, ‘환산’ 등의 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일보』 1921년 6월 11일자 독자문예란에 ‘한메生’이라는 필명의 ‘별과 꽃’은 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필명은 『한글』 제4권 제9호(1936) ‘최현배 씨의 <시골말 캐기 잡책>’이라는 서평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이에 비해 ‘한뫼’라는 호는 『동아일보』 1930년 9월 6일자 기사 ‘조선어문 공로자 소개(5)’에서 ‘실제 방면에 남달리 치중해 온 이운재 씨’라는 제목 아래 “한뫼 리운재(李允宰) 씨는 마산(馬山) 출생으로 일찍이 북경 국립대학(國立大學)을 졸업하시고 마산 현재 호신학교(豪信)에서 다년간 교무주임으로 계시는 동안 한편으로 한글 연구에 몰두하셨고 학생들에게도 한글 보급을 적극적으로 식히었으며, 상경하여서는 삼년 동안 조선어사전 편집에 종사하셨으며, 현재 연희전문학교(專門學校) 강사로 한글

교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글 연구에 있어서 조선말의 실제 방면에 치중하여 표음 형식을 주창하는 분으로 단어 수첩에도 공로가 만했다. 또 『동광(東光)』(휴간 중), 『신생(新生)』과 가튼 한글로 쓰는 잡지가 처음에는 모다 씨의 손을 거쳐 나왔다.”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되듯이, ‘한메’와 함께 섞어 쓴 것으로 추정된다.

환산 이운재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흥원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43년 9월 12일 함흥형무소로 이감되어 그해 12월 8일 서거하신 애국지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학회에서는 광복 이후 『한글』 제11권 제2호(1946.5.)에서 그를 추모하는 특집을 내었고, 1973년 12월 외솔회의 『나라사랑』 제13호에서도 그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한글』에 수록된 추모글은 김윤경의 ‘환산 이운재 님 무덤의 비문’, 신영철의 ‘아아, 한메 이운재 선생’, 서명호의 시조 ‘환산 스승님’ 등과 같이 ‘환산’과 ‘한메’를 섞어 썼으며, 『나라사랑』에는 ‘묘비명 환산 이운재님 무덤의 비문’, ‘환산 논집’(이 논집에서 김선기는 ‘한뫼’로 지칭하였으며, 하동호는 ‘환산’으로 지칭함), ‘환산 글모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광복 이후 언론에서는 ‘한메’, ‘한뫼’보다는 ‘환산(桓山)’이라는 호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일보』 1946년 3월 9일 ‘옥사한 어학자 이운재 선생의 유족을 구하자’, 1946년 4월 4일 기사 ‘이운재 선생 장의(仗義)’ 등에서는 모두 ‘고 환산(故桓山) 이운재 선생’으로 지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67년 『경향신문』에 연재된 ‘나의 사우록(師友錄)’ 제18~19회(1976.11.20.~22.)에서 노산 이은상(李殷相)은 이운재를 ‘환산’으로 지칭하며, “내 학문과 인격 모두 그에서 감화(感化), 가난 극복을 배웠고 절개 지켜 사는 것도, 어린 땀 은사(恩師) 커서는 동지(同志)”, “무저항의 저항...술한 인상(印象)·일화(逸話)가 아쉬워, 자기의 사상·외로움을 내게만은 이야기하며”라고 회상한 바 있다.

환산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은 시점은 1992년 10월 ‘이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된 때이다. 1990년 문화부 신설 이후 한국인 재발견 운동 차원에서 문화 인물을 선정하여 기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10월의 문화 인물’은 ‘세종대왕’(90년), ‘주시경 선생’(91년), ‘환산 이운재’(92년), ‘외솔 최현배’(93년), ‘일석 이희승’(94년), ‘한결 김윤경’(95년), ‘건재 정인승’(96년), ‘열운 장지영’(97년), ‘석인 정태진’(98년) 등 국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에서는 『한뫼 이운재 선생 기념 문집』을 발행했는데, 이 책자에는 추모하는 글 3편과 이운재가 쓴 어문 규범, 사전 편찬, 국어 연구와 관련한 10편의 글이 실려 있다. 환산의 글을 정리한 사례는 1973년 『나라사랑』 제13호 ‘환산 글모이’에서 시작된다. 이 특집호에는 ‘논설’ 19편, ‘사학’

3편, ‘전기’ 4편, ‘희곡’ 1편이 실려 있다. 이 점에서 국립국어연구원(1992)의 기념 문집에서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거나 종합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그 후 1998년 국가보훈처에서 ‘12월의 독립운동가’로 환산을 선정하고 그의 활동을 기념한 적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환산의 학문적 업적을 규명한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어학자, 역사학자, 한글운동가 또는 독립투사로 추앙 받는 환산이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별반 존재하지 않는다. 『한글』 제4권 9호, 『나라사랑』 제13호에 수록된 추모 성격의 논집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환산에 대한 연구로는 민두기(1987)의 ‘이운재의 현대 중국(1922~23) 현장 보고 5종’(『동명』 소재 환산 기고문 중심), 고영근(1988)의 국어학사 재조명 차원에서 정리한 ‘이운재’, 이희승(1992)의 ‘인간 이운재-인물평전’, 고영근(1992)의 ‘이운재의 사상 체계’, 구자황(2007)의 ‘근대 복본의 성격과 위상-이운재의 『문예독본』을 중심으로-’, 이장렬(2004)의 ‘환산 이운재의 출생지와 <구주탄생>’ 등 자료 중심의 논문 일부 및 박용규(2014)의 『우리말 우리 역사 보급의 거목 이운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기획물), 구자황·문혜윤(2014)의 『이운재 문예독본』 해제·번역,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의 『한뫼 이운재 글모음』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환산의 국어학과 관련된 연구는 고영근(1988)에서 다룬 ‘맞춤법, 사전편찬, 문자사’ 차원의 분석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환산의 국어 연구 성과보다 실천적 업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들어가기가 다소 장황해졌지만, 환산 연구는 ‘어떤 호를 쓸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역사학자이자 애국계몽가로서, 국어학자이자 한글 보급 투쟁가로서 그리고 암울한 시대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교육해 온 교육자로서 좀 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대임이 분명하다. 다행스럽게도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은 환산이 남긴 대부분의 글을 정리한 적절한 자료라는 점에서 환산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 책 또한 환산의 학문적 업적 분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그가 남긴 단행본을 비롯한 일부 논설 및 작품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정리한 환산의 글과 추가 발굴본을 합쳐 그의 학문 세계를 개괄하고, 1933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동아일보』에 22회에 걸쳐 연재한 ‘한글철자법-신철자편람의 해설’, 193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선일보』에 31회에 걸쳐 연재한 ‘지상강습 한글마춤법통일안 해설’, 1933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아일보』에 4회에 걸쳐 연재한 ‘모어운동개관’ 등의 국어학적 가치 및 『문예독본』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둔다.

## 2. 환산(한매, 한뫼) 이운재의 학문 세계

### 2.1. 환산의 삶

조선어학회(1946)의 『한글』 제94호(제11권 제1호, 1946.4.)에 실린 ‘환산 이운재 선생 약력’이나 제95호(제11권 제2호, 1946.5.)에 실린 ‘환산 이운재 님 무덤의 비문’ 등을 참고하면 환산은 1888년 12월 25일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으며, 김해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합성학교 교원을 지내다가 1911년까지 대구 계성학교를 다닌 뒤, 마산 창신학교, 의신여학교에서 7년간 교원을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 평안북도 영변 승덕학교 교원, 3.1운동 직후 보안법 위반으로 투옥(3년 징역에서 1년 6개월 수감), 북경대학 사학과 수학(3년간), 마산 야소교 청년 면려회 활동 등이 이어진다.

1910년 국권 상실 이전의 환산과 관련한 기록은 1936년 『학등』 제4권 제1호에 수록된 ‘나의 중학시대’ 등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어렸을 때 사숙(私塾)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대구 선교사 학교인 계성중학교를 찾아가 일등반에서 공부했으나 별반 배울 것이 없어 1년을 더 허비하다가 대구 동문외(東門外) 춘잠학교(春蠶學校)로 옮겨 또 일년을 공부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볼 때 김해공립보통학교 졸업과 계성학교, 춘잠학교 수학 과정이 학교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계성중학 시절 처음 ‘단발(斷髮)’을 경험했다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1907 직후의 일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대한매일신보』에 등장하는 세 편의 환산 이운재와 관련된 기록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매일신보』의 이운재 관련 기록

ㄱ. 勞働夜學: 金海郡 沓谷 涵英學校 教師 리允幸 氏가 妙年 英才로 教育上에 熱心호야 城內 普通學校에 夜學校를 設立호고 勞働者를 多數 募集호야 實地 學文을 教授호미 不過 一旬에 生徒가 五拾名에 達호였다고 該郡 來人이 稱頌하더라. - 1908.5.26. 잡보

ㄴ. 農會夜學試蹟: 金海郡 桃花洞 農務會에서 農夫를 教育하기 爲하야 夜學校를 設立호고 科程은 國漢文 歷史 算術 體操요 教師 李允幸씨가 名譽로 教授호지 四五朔에 學員이 六十餘 名에 達호지라. 晝以耕호고 夜以學호며 去月 三十日에 第壹回 試驗을 經호얏는디 甲班 優等生에 韓殷錫 金柱 等二人이요, 及第生은 鄭敬九 趙卜東 等 四人이요 乙班 優等生은 鄭明讚 金德春 等二人이요 及第生은 리聖德 리光斗 等四人이요 丙班 優等生은 裴海中 金富光 等二人이요 及第生은 李三明 리盛完 等七人이라더라. - 1908.8.5. 잡보

ㄷ. 慶尙南道金海郡 基督明德女學校 義捐人 姓名: 慶尙南道金海郡 基督明德女學校 義捐人姓名金額이 如左 洪 朴廷秀 具貞植 各四十圓 徐琪杓 三拾圓 梁弘默 裴相진(中略) 基督明德學校 任員 具光瑞 李允宰 告白 -1909.3.16.~17. 잡보

이 세 자료를 통해 볼 때, 1908년 당시 이운재는 김해군 답곡 함영학교 교사로 야학운동을 전개했으며, 도화동 농무회의 야학교 강사를 역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명덕여학교 임원으로 의연금 모금에 감사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처럼 이운재는 국권상실 직전부터 애국계몽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그 주된 대상은 야학을 비롯한 교육활동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환산과 한헌샘 주시경의 관계인데, 환산은 국어 연구와 한글운동과 관련하여 주시경을 항상 스승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제7권 제9호(1935)의 ‘한글운동의 선구자 주시경 선생’에서 “선생이 가신 지 이십여 년인 오늘에 이르러 한글 과학운동이 점점 더욱 늘어가며 통일의 완성이 가까이 오게 됨은 오로지 선생의 끼치신 은택임을 잊을 수 없으리니 선생은 훈업(勳業)은 조선어가 존재하는 때까지 영원히 빛날 것이다.”<sup>2)</sup>라고 적고 있다. 그는 1930년대 『동아일보』, 『한글』의 ‘한글 질의’에 대한 응답자로서 주시경의 음운·어휘·문법론을 빈번히 인용한다. 이 점은 환산의 국어 연구가 본질적으로 주시경 학문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셈이다.

환산이 주시경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경력은 나타나지 않는다.<sup>3)</sup> 그럼에도 환산이 주시경을 스승으로 여긴 것은 애국성을 바탕으로 역사 연구와 한글운동에 몰두하면서 주시경의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를 체득한 결과이며, 그 스스로도 국권 상실기 애국계몽가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음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

1) 박용규(2013), 『우리말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운재』, 역사공간, 166쪽에서는 1906~07년까지 대구 계성학교 수학, 1907년 김해군 보통학교 연말시험에서 4학년 우등생에 뽑힘, 1908년 김해군 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5월 김해군 답곡 소재의 함영학교 교원으로 근무·아울러 김해군 부삼면 도화동의 농부 수십 명이 조직한 농무회가 세운 농민 야학교에서 학도 60여 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국문 한문 역사 산술 체조 등의 과목을 교육함이라고 정리하였다.

2) 이운재(1935), 한글 運動의 先驅者 周時經 先生, 『삼천리』 제7권 제9호, 93쪽. 연세학풍사 엮단·김도형 편(2016), 『한뢰 이운재 글모음』, 선인, 654쪽.

3) 고영근(1992), 이운재의 사상체계, 『주시경학보』제10집, 탐출판사, 35-39쪽. 이 논문에서도 환산이 주시경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환산이 『한글』 창간호(1932)에 ‘한글을 처음 내면서’에서 ‘한헌샘 스승’이라고 지칭한 것이나 『삼천리』 1935년 7월호 ‘한글운동의 선구자 주시경 선생’ 등을 근거로 환산의 사상이 주시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自由의 大韓每日申報를 祝호노라]<sup>4)</sup>

自由- 自由- 我的 生命又치 愛重호며 寶珮又치 嗜好호는 自由로다. 大抵 自由는 天下에 公理요 人生의 要具니 可히 一時도 缺치 못호 者라. 萬- 完全호 自由精神이 無호면 雖生이나 是死요 雖強이나 是弱이오 雖貴나 是賤이오 雖興이나 是亡이니 엇지 猛省치 아니호리오. 觀호라 我韓이 今日悲慘호 境에 瀕호은 何를 怨호여 誰를 尤호리오. 余가 貴報를 愛讀호지 四五年이 된지라. 其筆鋒의 剛直호 和 記事의 明晰호이 令人感服호야 人人이 歡迎호고 處處이 誦道호은 更說을 不待어니와 惟一觀念이 不無호엇도다. 何者오 報名顛頭에 大韓二字를 戴호였스니 是가 丁寧히 大韓機關의 報紙오 且報館도 是大韓이오 記事도 是大韓이오 國語文章이 莫非大韓이니 大韓機關의 報紙가 無疑호도다. 然이나 發行 兼 編輯人下에 英國人 三字가 有호였스니 純全호 大韓機關의 報紙로써 엇지 外國人의 名義를 借호 理가 有호리오. 余 | 貴報創刊 以來로 每時 思惟호기를 是가 精神上 大韓每日申報가 아니라 形式上 大韓每日申報로 看做호야 慨然의 嘆을 不禁호엇더니 隆熙四年 六月 十八日 早朝에 貴報를 披覽호시 眼이 發行 兼 編輯人下에 先着호지라 眼을 拭호고 詳見호니 英國人 萬咸은 何處로 飛去호고 李章薰의 三字만 在호지라. 余 愕然히 驚호야 必是 活字의 誤植인가 호야 疑雲이 惹起호더니 論文欄에 云 英人 萬咸은 撤廢歸國호고 我國에서 巨額으로 該機械를 買收호야 繼刊호다호니 壯哉며 美哉라. 今日에야 비로소 眞箇精神上 大韓每日申報를 見호겟도다. 自由를 愛호는 者야 誰가 攢賀치아니호리오. 然이나 閭論巷說이 處處에 浪藉호야 英人 萬咸이 日人에게 賣渡호였스니 從此로 申報는 日人機關이 되리라 호며 或은 我人이 主幹호면 可觀의 說이 無호리라 호는지라. 余도 其眞的 理由는 不知호나 但 其推想으로 觀호더라도 公明正直호 申報가 엇지 如許호 鄙劣等行爲를 忍爲호리오. 此는 自國을 凌視호고 外人을 依賴호던 習慣으로 如是 誤解호인지 貴報를 憎惡호던 魔輩의 訛傳인지 可히 信聽호 바 아니로다. 嗚呼라 貴報가 七個 星霜의 沿革호 事를 溯考호것디 英人 裴說 氏가 創刊호였고 次後에 萬咸 氏가 繼刊호더니 何幸 帝國紳士 李章薰 氏가 自由의 大勝捷을 奏호고 安樂幸福호 榮光을 發輝호니 壯호도다. 自由의 大韓每日申報여! 今後에는 貴報가 自由로 더브리 死生休戚을 同히 홀지어다. 孔聖이 云 「三軍之師는 可奪어어니와 匹夫之志는 不可奪」이라 호니 勇敢的 精神으로 百折不屈호고 剛勁的 氣像으로 冒險前進호야 不偏不倚호는 自由의 志氣를 奮發호였스면 賁育의 勇으로도 自由를 侵犯치 못호며 孫吳의 謀略으로도 自由를 抗拒치 못호리로다. 余가 微忱을 盡호야 茲에 祝意를 敢表호고 編輯諸公에게 告호노니 願컨디 諸公이 堂堂호 獨立筆을 秉호고 自由의 大韓每日申報를 日노 數千萬枚를 刊出호야 國魂을 喚醒호며 民志를 振興케 호고 自由의 精神을 愈久不變호고 自由의 氣像을 愈久勿墜호지어다. 如斯히 호면 將來 神舊舊疆에 自由鍾이 鎗鳴호고 仙李新春에 自由花가 燦爛케 堯 者 | 其惟自由의 大韓每日申報인디. 自由 | 自由 | 我的 生命又치 愛重호며 寶珮又치 嗜好호는 自由로다. 東萊府 沙下面 私立養正學校 教師 李允幸.(【번역】 자유-자유 - 나의

4) 『대한매일신보』 1910.8.7.

생명같이 애중하며 보배같이 좋아하는 자유로다. 대저 자유는 천하에 공리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도구이니 가히 잠시라도 없지 못할 것이다. 만일 완전한 자유정신이 없으면 비록 살아도 이는 죽은 것이요, 비록 강해도 이는 약한 것이요, 비록 귀하나 이는 천한 것이요, 비록 흥하나 이는 망한 것이니 어찌 맹성하지 아니하겠는가. 보라. 우리 한국이 금일 비참한 지경에 이름은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리오. 내가 귀 신문을 애독한 지 사오년이 되었는데, 그 필봉의 강직함과 기사의 명석함이 사람을 감복시키고 사람마다 환영하고, 곳곳이 그 길을 암송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직 관념이 없지 아니하였다. 어찌된 것인가. 신문명 앞에 대한(大韓) 두 자를 머리에 두었으니 이것이 정녕 대한 기관의 신문지요, 또 신문사도 대한이요, 기사도 대한이요, 국어 문장이 대한이 아닌 것이 없으니 대한 기관의 신문지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 겸 편집인 아래 영국인 세 자가 있으니 순전한 대한 기관의 신문지로 어찌 외국인 명의를 빌릴 까닭이 있는가. 내가 귀 신문 창간 이래로 볼 때마다 생각하기를, 이것은 정신상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형식상 대한매일신보로 간주하여 개탄을 금하지 못하더니 융희 4년 6월 18일 아침에 귀 신문을 열람할 때 눈이 ‘발행 겸 편집인’ 아래 먼저 가는지라, 눈을 씻고 자세히 보니 ‘영국인 만감’은 어디로 날아가고 이장훈 세 자만 있었다. 내가 깜짝 놀라 필시 활자의 오식인가 하여, 의심이 일어나더니 논문란에 이르기를 영국인 만감은 신문사 문을 닫고 귀국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액으로 그 기계를 매수하여 계속 간행한다 하니, 장하고 아름다운 일로다. 금일에야 비로소 진정 정신상 대한매일신보를 보겠도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가 찬양 축하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민간의 논의나 풍설이 곳곳에 낭자하여 영국인 만감이 일본인에게 매도하였으니 이로부터 <신보>(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인의 신문이 될 것이라고 하며,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 주간을 하면 가히 볼 만한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나도 그 진짜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다만 그 생각만으로 보더라도 공명정직한 신보가 어찌 이러한 비열한 행위를 참아 하겠는가. 이는 자국을 멸시하고 외국인에게 의뢰하던 습관으로 이처럼 오해하는 것인지, 귀 신문을 증오하던 나쁜 무리들이 와전한 것인지 가히 믿을 바가 아니다. 아, 귀 신문이 7년 동안 지내온 일을 살펴보면 영국인 배설 씨가 창간하고, 그 후에 만감 씨가 계속 간행하더니 다행히 대한제국의 신사 이장훈 씨가 자유의 대승첩을 아뢰고 안락 행복한 영광을 발휘하니 장하다. 자유의 대한매일신보여. 금후에는 귀 신문이 자유로 더불어 사생휴척을 함께 할지어다. 공자 성인께서 이르기를 “삼군의 장수는 가히 뺏을 수 있으나, 필부의 뜻은 빼앗지 못한다.” 하니, 용감한 정신으로 백절불굴하고, 강직한 기상으로 모험전진하여 불편불의(不偏不倚)하는 자유의 뜻과 기상을 분발하면 분육(위나라 용사 맹분과 하육: 맹자 공손추편)의 용맹으로도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며, 손오(손자와 오자)의 모략으로도 자유를 향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되 이에 축하의 뜻을 감히 표하고, 편집자 여러분께 고하고자 하니, 원컨대 여러분이 당당히 독립의 붓을 잡고 자유의 <대한매일신보>를 날로 수천만 매를 간출하여 국혼(國魂)을 불러 일깨우며 민지(民志)를 진흥케 하고, 자유의 정신을 더 오래도록 변하지 않게 하고, 자유의 기

상을 더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하면 장래 신단(神壇)의 옛 영토에 자유의 종이 다시 올려퍼지고 신선과 같은 봄바람에 자유의 꽃이 찬란하게 할 것은, 오직 자유의 <대한매일신보>일 것이다. 자유, 자유, 나의 생명같이 귀중하며 보배같이 좋아하는 자유로다. 동래부 사하면 사립 양정학교 교사 이윤재.)

이 논설은 환산의 글을 전수 조사한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환산이 남긴 가장 오래된 논설로 보인다. 이 글은 『대한매일신보』의 경영진이 영국인에서 이장훈(李章薰)으로 바뀐 것을 기념하여 기고한 논설이다. 이 시기 환산은 보통학교 교원이자 야학 교사로 『대한매일신보』를 애독하며 ‘대한정신’을 기르고 보급하였다. 이 신문은 1904년 영국인 베텔(Bethell, E. T. 한국 성명은 배설 裴說)이 창간한 것으로, 1908년 신문지법 공포 직후 베텔과 양기탁이 구속되고 이어 영국인 만함(Marnham, A. W. 萬咸)이 경영하던 신문이었다. 그러나 1910년 6월 14일 국권 상실 직전 만함이 갑자기 판권 일체를 넘기고 떠남에 따라 이장훈이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신문 통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신문을 경영하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우나, 환산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신문을 경영함으로써 ‘국혼을 환성(喚醒)하며 민지를 진흥케 하고, 자유의 정신과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논설은 국권 상실 이후 세 번의 투옥과 역사 연구, 국어 연구와 한글통일, 한글 보급에 평생을 바친 환산의 삶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용규(2013)에서 ‘학자로서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다’, ‘우리말글 연구와 보급운동’, ‘민족주의 역사가로서의 활동’, ‘일제에서 벗어날 열쇠를 쥐어 주다’라고 하였듯이, 환산은 국어와 역사 연구, 한글통일과 보급을 위해 평생 자신을 희생한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였다. 특히 환산은 일제강점기 40여 종 이상의 신문·잡지에 글을 발표했으며, 자신이 직접 글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한글 맞춤법 보급 차원에서 각종 출판물의 교열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34년 창립된 진단학회의 경우 기관지 『진단학보』에 한 편의 논문도 게재한 것이 없으나 창립 위원이자 편집 교정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1935년 1월 1일자 기사 ‘민족문화의 금자탑-조선어사전 출판’에서는 사전 편찬과 관련된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5) 진단학회(1934), 『진단학보』 제1호, 진단학회, 234쪽, 편집 후기. “이번에 特히 멀리 東京서 研究에 精進하시는 우리 會員 李相佰 氏로부터 貴重한 論文을 寄來하여 이를 本誌에 실리게 된 것을 感謝히 여기며, 또 綴字 校正, 句讀點 其他 編輯에 있어 特히 李允宰 委員에 負擔이 많음을 告하여 둔다.”

[民族文化의 金字塔 - 朝鮮語辭典 出版]<sup>6)</sup>

(전략) 그러나 조선어학회는 그동안 밤에 드러안져 문자적 연구에만 골몰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글의 완성의 다른 한 필수 사업인 ‘보급화 운동’에도 크게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그 본격적 운동은 과학화의 완성을 보게 되는 금년부터다. 보급화 운동에는 그동안 실행도 했거니와 일수삼오년을 잡아들면서 맹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이 네 가지로 립안되어 있다. 첫째 그 기관지인 『한글』의 충실 확대화요, 둘째가 전조선적으로 그리고 자주자주 <한글강습회>의 개최와 다른 강습회에 강사의 제공이다. 그리고 셋째가 어떠한 곳임을 물론하고 출판 회사 혹은 신문 잡지사에서 한글로 간행물이나 서적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조선어학회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교정(校訂)’보아주는 일을 얼마든지 자진해서 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한글운동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그것에는 성인교육용과 초등교육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필요에 응하여 리용케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조선어학회의 4대 사업에서 환산은 빠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천했다. 『한글』 창간호에 ‘한글을 처음 내면서’를 수록하고,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나, 1930년대 각종 한글 강습회의 강사로 활동한 일, 앞서 언급한 『동아일보』 1930년 9월 6일자 ‘조선어문 공로자 소개(5)’에서 『동광』, 『신생』 등의 잡지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쳐서 나왔다고 보도한 것<sup>7)</sup>, 계몽운동 교재와 『문예독본』의 편찬 등은 환산이 조선어학회 활동 취지를 실천한 사례가 될 것이다.

## 2.2. 환산의 학문 활동과 특징

‘조선어문공로자 소개’에서 밝힌 것처럼 이운재의 학문 활동은 역사 보급과 한글통일, 계몽 등의 실천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그가 보인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역사와 국어 분야에 대한 학술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환산의 학설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의 경우 박용규(2013)에서 1929년 『경신』에 게재된 ‘조선역사개설’, 1930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성웅 이순신’ 등의 역사물을 대상으로 환산의 역사학이 ① 통사(通史) 중심, ② 인물사 중심, ③ 정치사 중심의 서술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으나, 그가 갖고 있던 역사의식과 역사교육과의 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국어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한글

6) 『조선일보』 1935.1.1.

7) 『동아일보』 1930.9.6. 조선어문공로자 소개(5).

통일·표준어 제정 및 보급 활동 속에 드러난 환산의 국어 연구에 대해서는 별반 주목한 성과가 없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환산이 남긴 글을 전수 조사하고 그 가운데 국어학 및 국어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 『한피 이윤재 글모음』에서는 환산의 글 163종 572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환산이 남긴 ‘한글 철자법 편람 해설’, ‘질의 응답’ 등과 같은 연재물뿐만 아니라 신문·잡지의 짤막한 인터뷰 기사까지 대부분을 망라하고, ‘1. 사론·사화(史論·史話, 54종), 2. 한글 연구와 한글운동(47종), 3. 수양동맹운동(10종), 4. 중국신문화운동(9종), 5. 역사기행·지리(13종), 6. 문학작품·회고·설문(28종)’으로 분류한 뒤, 수록지명과 호수, 연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도 『문예독본』(1931, 진광사), 『학생계몽대용 한글공부』(1933, 동아일보사), 유고집 형태로 발행된 『도강록』(박지원 저, 이윤재 번역, 1946, 대성출판사), 『표준조선말사전』(김병제 공편, 1946, 아문각), 『성웅 이순신』(1946, 통문관) 등 5종의 단행본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자료집에는 『시대일보』 19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연재된 ‘중국 민의 측량’(4회), 『한글』 제2권 6호 이후(1934~37년 사이)의 ‘물음과 대답’(총15회)에서 누락된 것이 있고,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7일 논설, 『문장』 제1권 10호(1939.11.)부터 10회에 걸쳐 연재한 박지원의 ‘도강록’ 번역, 『한글』 제4권 3호(1936) ‘문예독본 개간에 대하여’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환산이 남긴 글은 총175종(단행본 포함) 598편이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175종의 기초 자료를 ‘분야’와 ‘문종’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sup>8)</sup> 분야는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문자’(51종)에는 대부분 한글 관련 자료이나 일부는 다른 나라의 문자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시켰으며, ‘역사’(58종)는 역사 해설, 역사 이야기,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희곡), 역사 기행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자주 독립, 청년 수양과 교육 등을 주제로 한 논설류를 한 부류로 묶어 ‘계몽’(32종)으로 처리하였으며, ‘문학’(7종)은 문예 이론이나 문학 교육 관련 자료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창작물인 ‘시’나 순수 기행문 등은 ‘기타’(51종)로 처리하였다. ‘문종’은 ‘논설문(65종), 논문(8종), 설명문(14종), 전기문(10종), 교재(14종), 기사, 극, 번역물, 수필, 시, 편지, 기타’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설문’과 ‘논문’, ‘설명문’은 경계가 모호하나 자료 중심 논증적인 글은 ‘논문’으로 처리하고, 환산의 주장이 중심을 이룬 것은

8)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의 체제에서는 환산이 남긴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관련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역사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신문화 운동과 역사 기행 등은 내용상 분류라기보다 그의 행적과 관련된 분류여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분류가 필요했다.

‘논설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철자법 해설’과 같은 자료는 ‘설명문’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환산 글 모음의 분야별·문종별 분포]

문종 분야	기사	교재	극	기타	논문	논설	번역	사담	사전	설명	수필	시	전기	편지	계
역사		2	2		1	25		16			4		8		58
문자		9		1	5	22			1	11			1	1	51
계몽	5	2		3	1	16				2	1		1	1	32
기타				12		1				1	9	4			27
문학		1		1	1	1	3								7
계	5	14	2	17	8	65	3	16	1	14	14	4	10	2	175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환산의 관심은 ‘역사’와 ‘문자’ 특히 ‘한글’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역사물 가운데 ‘세종대왕’에 대한 글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한다면, 산술적 차원에서 역사물이 한글에 대한 관심보다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32종의 계몽 논설 가운데 상당수에서도 한글 보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면, 환산의 삶은 국어 연구와 한글통일, 한글 보급을 통한 민족 계몽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환산이 남긴 글의 출처이다. 앞서 ‘조선어문공로자 소개’에서 언급한 대로, 환산은 잡지 교정을 통한 한글 보급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그가 남긴 자료의 분포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데, 자료의 출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문·잡지·출판사를 합쳐 40종에 이를 정도로 1920~30년대 대부분의 출판물에 이른다. 신문·잡지로 『동아일보』(34), 『한글』(20), 『동광』(16), 『신생』(13), 『신동아』(13), 『별건곤』(8), 『신가정』(7), 『동명』(7), 『삼천리』(5), 『아희생활』(4), 『조선중앙일보』(3), 『조선일보』(3), 『신민』(3), 『시대일보』(2), 『조광』(2), 『학등』(2), 『동방평론』(2), 『한빛』(2), 『학생』(2), 『중앙』(2), 『시조』, 『종교교육』, 『경신』, 『예수교회보』, 『진생』, 『청년』, 『박문』, 미상, 『문장』, 『문예시대』, 『문예독본』, 『조선농민』, 『조선문단』, 『상해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신민』, 『신여성』, 『신학세계』(이상 1종) 등이 있으며, 단행본은 진광사, 한성도서주식회사(후에 통문관), 동아일보사, 대성출판사, 아문각이 있다. 출처의 분포가 이처럼 폭넓은 것은 그의 투철한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한글 연구가, 한글 운동가로서의 면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1910년대 3종, 1920~1925년 10종, 1926~1930년 46종, 1931~1935년 80종, 1936~1940년 22종, 1945년 이후 3종의 분포를 보인다. 이는 환산의 애국계몽 활동이 1910년 이전부터 비롯되어,

1920~30년대 일관된 활동을 보이며, 그의 순국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 3. 환산(한메, 한뫼) 이운재의 국어 연구

#### 3.1. 국어 연구 특징과 음운·문법·어휘 연구

환산은 국권 침탈기 야학운동을 비롯한 애국계몽활동을 출발점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역사와 한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3.1운동 직후 마산 야소교 청년면려회 활동을 하다가 1921년 중국 유학을 했는데, 그 때까지도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는 역사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그는 중국 유학시절에도 최남선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던 『동명』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했는데, 주요 내용은 ‘몽고 민족의 독립운동’,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계와 정계의 큰 충돌’, ‘경한철(京漢鐵) 종합원의 총동맹파공의 전말’, ‘민중혁명화하는 중국의 학생운동’ 등과 같이 독립운동과 정치적인 문제였다. 이때 연재한 자료 가운데 ‘중국에 새 문자’(『동명』 제10호, 제11호)는 한자의 폐단과 관련한 것으로, 환산이 남긴 최초의 문자 관련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쓰(胡適)의 ‘건설적 문학혁명론’을 번역·소개하기도 했는데(『동명』 제2권 제16호~제20호) 이 논문은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로 문학에서 국어의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다. 환산의 북경 유학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1923년 7월 귀국하여 마산 노동농우회, 기독교회, 면려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부인야학과 동화 가극대회 등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환산의 한글 보급은 1924년 3월 거창읍내 기독교청년회에서 주최한 ‘조선어강습회’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때 이운재는 조선어법과 문법(성음론, 품사론, 문장론, 논찬, 번역, 조선어학사, 표준어, 문자용법, 속기법)의 전반을 맡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된다.<sup>10)</sup> 마산 지역에서의 조선문 강습은 1926년 6월 7일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제2차 투옥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환산은 1927년 6월 계명구락부에서 주도한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말 어휘 수집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 시기 그는 서울 경

9) 『조선일보』 1921.6.24. 신간 소개에서는 이운재가 지은 『조선의 넋적 偉人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으나, 그가 지은 최초의 단행본으로 추정된다.

10) 『동아일보』 1924.3.24. 조선어강습회.

11) 『동아일보』 1927.6.6. 조선어사전편찬-계명구락부.

신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어와 작문을 가르쳤으며, 1929년에는 계명구락부 사전편찬소를 탈퇴하고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과 상무위원에 선임되어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어 강습과 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글통일과 관련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는데, 한글철자법 통일과 관련한 그의 업적이 처음 나타난 것은 『문예독본』(1931, 진광사) 부록에 수록된 ‘한글 철자 일람표(一覽表)’이다. 이 일람표는 1933년 통일안 이전의 자료로, 환산이 계명구락부의 활동 경험과 『동광』, 『진생』, 『신생』 등의 잡지 교정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sup>12)</sup>, ‘1. 된시옷은 쓰지 아니함(ㅍ ㅑ ㅓ ㅕ 등으로 대신 씀), 2. ·는 쓰지 아니함(ㅏ ㅓ ㅡ ㅣ 등으로 대신함), 3. 바침(ㄱ ㄴ ㄷ ㄹ ㅂ ㅅ ㅇ ㄹ ㅓ ㅕ ㅗ ㅛ ㅜ ㅠ 에 더 써야 할 바침), 4. 어간의 불규칙(몸말의 불규칙, 씀말의 불규칙), 5. 어미의 불규칙, 6. 어근, 7. 홀소리의 고름, 8. 당소리의 고름, 9. 줄임말, 10. 한자음을 표음적으로 씀, 11. 구두점, 12. 구절 떼는 법’으로 구성되었다.<sup>13)</sup>

이후로 환산은 『동아일보』 1930년 11월 26일부터 1931년 11월 13일까지 ‘한글 질의란’의 응답자로 86회에 걸쳐 답변서를 게재하였고<sup>14)</sup>, 1932년 2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20회에 걸친 답변을 쓰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답변서를 작성할 때 환산은 주시경의 문법서(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와 최현배(조선어 품사 분류론)를 빈번히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산의 국어 연구가 주시경과 외솔 문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 답변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1932년 『신생』 제5권 제3~4호에 연재한 ‘한글 철자법 강좌(1)~(2)’, 『동아일보』 1933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회에 걸쳐 연재한 ‘한글 철자법 - 신철자편람 해설’, 조선어학회의 통일안 공포 이후 『조선일보』 193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회에 걸쳐 연재한 ‘지상강습-한글마춤

12) 『동아일보』 1930.11.25. 김윤경, ‘훈민정음 발표 제484회 주년 기념일을 당하여 그 과거를 회고함(6)’에서는 “丙寅年 五月에는 『東光』誌가 創刊되어 한글 整理, 研究, 實行에 貢獻이 클 뿐 아니라 整理된 新文法體를 印刷物로 實行한 嚆矢를 짓게 되었다. 그 뒤로 『眞生』, 『新생』도 이 예를 따아 文法體로 쓰게 되었다. 그 다음해(1927) 二月에는 朝鮮語研究發表 機關誌로 申明均氏 編輯下에 『한글』이 創刊되어 貢獻한 바가 크었다. 또한 同年 六月에는 啓明俱樂部에서 辭典編纂에 着手하게 되어 十數年 前에 光文會에서 周時經 氏가 始作하였던 것을 繼續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통일안 이전 맞춤법 통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며, 환산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동인지 『한글』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환산이 관여했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문예독본』 부록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13) 이 일람표는 환산의 독창적인 이론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그 당시 한글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2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안 개정철자법에서 반영되지 않은 된소리 표기법과 어간·어미의 불규칙 현상 등을 체계화한 것은 환산의 업적이라고 할 것이다.

14) 이 질의란은 환산 이외에 건재 정인승이 담당하기도 하였다.





## [된시옷 관련 이론]

ㄱ. 당소리(子音) 열넋자 가운데 ㄱ ㄷ ㅂ ㅅ ㅈ의 다섯 자에는 특별히 되게 나는 소리가 있어 이것을 ㅅ하나를 여러 자의 왼쪽 어깨에 붙이어 써서 ‘된시옷’이라고도 하고 또 같은 글자를 짝지어 써서 병서(並書)라도도 합니다.(중략) 된시옷을 폐하자는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신생』 제3권 제5호~제6호, 신생사, ‘한글강좌’ 제7장 1932.5.~6.

ㄴ. 당소리(子音) 가운데 ㄱ ㄷ ㅂ ㅅ ㅈ에는 특별히 된 소리 밖에 一種 된소리(硬音)가 있다. ㅅ이란 당소리를 그 왼쪽에 붙이어 써서 이것을 된시옷이라 名稱한다. 이 된시옷법이 본대부터 잇었든 것이 아니요 近年에 생긴 법이다. 지금은 이것이 한 습관이 되어 누구든지 된소리를 쓸 때에는 아무 의심없이 의례히 된시옷으로만 쓰게 된다. 이 된시옷이란 것이 애초에 歷史上으로나 聲音上으로나 아무 根據가 없이 되는 대로 그저 無法하게 쓰는 것인즉, 이걸 가지고 긴 이야기거리를 삼는 것이 한 부질없는 짓인 줄 아나, 아직도 된시옷 쓰기를 몹시 우기는 이가 있는 듯하므로, 그 無知를 깨우칠 겸, 된시옷의 絶對不可하다는 理由를 간단히 말하려 한다. - 『동아일보』 1933.5.3. 한글 철자법-신철자편람 해설(12).

‘한글 강좌’ 제7장에서 환산은 ‘역사상 근거가 없음’, ‘음리상 적절하지 않음’의 두 가지 근거를 토대로 된시옷 표기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시기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환산의 설명은 표기법의 역사와 된소리 표기의 음가 고찰 차원에서 과학적이다. 먼저 역사상의 근거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ㄱ ㄷ ㅂ ㅅ ㅈ ㅊ’ 등의 병서와 ‘ㅂ계, ㅈ계, ㅊ계의 합용병서’가 존재했음을 구별한 뒤, 본래 된소리 표기는 병서(각자병서)로 하였으며, 합용병서의 경우 ㅂ계 또는 ㅂ계가 많았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병서는 이른바 ‘된비읍’이라고 불려야 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된비읍 표기가 사라진 것은 표기법의 역사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리상 된비읍이나 된시옷은 본래 자체 글자로서 음가를 갖고 있었으나, 된소리 표기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한글 통일 과정에서 이를 살려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환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된시옷이 된소리가 아님 증명]

ㄱ. ㅅ이란 소리가 원래 마찰음(摩擦音)이니(훈민정음에는 치음齒音이라 함) ㄱ ㄷ ㅂ ㅅ에 비교하여 소리의 남이 극히 엷음으로 된소리(硬音)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ㅅ을 경음(硬音)이라 말하는 이도 잇지마는 그는 음리에 어두운 것입니다. - 『신생』 제3권 제5호, 위의 글.

ㄴ. 옛적에 된소리를 어떻게 적었는가. 歷史的으로 살피어 보자. 된소리를 쓰는 것이 一定치 아니하여 並書도 쓰고, 된비읍도 쓰고, 된시옷도 썼다. 옛적 책에는 된시옷보다 된비읍을 쓴 것이 도리어 많음을 본다. (중략) 요새 말로 보드라도 ‘뱀

쌀, 입쌀, 찹쌀, 좁쌀, 볏씨, 뭍쓸눔' 같은 말은 본대 '밭, 씨, 쓰'이든 것의 ㅂ이 우  
 으로 올라간 것이요, '입때, 접때, 부름뜨다, 흠뜨다, 납뛰다' 같은 말은 본대 '띠,  
 ㅼ, 뽀'이든 것의 ㅂ이 우으로 올라간 것이요, '입짹, 입쪽' 같은 말은 본대 '뽹, 쪽'  
 이든 것의 ㅂ이 우으로 올라간 것이다. '뽻, 뽼, 뽽' 같은 것도 아 語音上으로 關係  
 가 있는 듯하다. -『동아일보』 1933.5.3. 위의 글.

이 설명에서는 '마찰음 ㅅ이 된소리가 되기 어려움', '옛적 된소리를 적는 방  
 식에 병서(각자병서), 된비읍, 된시옷' 세 가지 유형이 있었음을 전제로 된시옷  
 표기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된비읍'과 '된시옷'은 본래 된소리(경음)  
 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시했는데, 이는 'ㄴ계'로 표기한 다수의 어휘  
 에서 'ㄴ' 소리가 화석화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근거는 15세기 이후  
19세기까지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산은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다수의 경서 언해 자료, 『두시언해』  
 등을 참고한 표기 사례와 현대 국어의 어휘를 통하여 합용병서가 본래 제 글자  
 소리를 갖고 있었음을 증명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환산은 'ㄴ계' 합용병서(된시  
 옷)도 본래 제 글자 소리를 갖고 있었음을 일본어와 비교하여 논증하고자 했는  
 데, 그 사례가 『왜한삼재회도』에 수록된 조선 고대어와 일본 가나(假名) 대조  
 어휘 가운데 '地(땅): ヌタク(스다구)'의 관계를 예시함으로써 ㄴ계 병서의 제  
 글자 소리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평북 지방에서 '떡'을 '시도  
 기'(씩)라고 함으로써 된시옷이 된소리가 아니라 제 글자 소리였음을 주장한  
 다.<sup>20)</sup> 이와 같은 논증은 환산의 국어 연구가 단순히 한글통일을 위해 다른 사람  
 의 학설을 수용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국어의 본질과 역사를 과학  
 적으로 규명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둘째, 환산의 문법 연구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산은 자신의 문법 연구  
 를 책으로 펴낸 적이 없으므로, 그의 문법 연구를 살피기 위해서는 '한글 철자  
 법(신철자편람) 해설', '한글마춤법통일안 해설' 등의 연재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들 자료에서도 환산이 형태론의 기본이 되는 '형태소', '낱말(단어)', '낱말  
 만들기' 등의 개념을 제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앞서 '글씨의 종류'에서 '고나(음  
 운)', '낱내(음절)', '낱말(단어)'의 개념이 사용되었듯이,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산이 사용한 '낱말' 개념은 다음과 같은 자  
 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낱말의 개념]

ㄱ. 한 개의 낱말(單語) 가운데에는 여러 개의 낱말이 모여서 된 것도 있고 그

20) 『동아일보』 1933.5.4. 한글 철자법-신철자편람 해설(13).

리하지 아니한 것도 있다. 가령 ‘옷걸이’(衣架)라 하면 ‘옷(衣)’, ‘걸(掛)’, ‘이(者)’ 이러케 세 개의 낱말이 한데 모이어서 한덩이의 큰 낱말을 이룬 것이오, ‘오또기’(不倒翁)라는 말을 가지고 ‘오’, ‘또’, ‘기’ 이러케 셋을 각기 떼어놓고 보면 어느 것이나 다 아무 뜻이 없이 낱말될 性質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 ‘옷독이’로 써 놓고 보더라도 역시 ‘옷독’, ‘이’ 이것에 별로 뜻이 있지 아니하고, 혹 ‘오뚝이’라 하면 ‘오뚝(兀然)’, ‘이(者)’로 써, 낱말의 性質이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1933.4.30. 한글철자법(신철자편람)의 해설(9)

ㄴ. 複合語에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 흔히 된소리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을 소리에 맞도록 쓰려고 된소리 나는 그 자리에 곳 두 낱말 사이에 ㅅ을 끼어넣어 써서 이것을 中間스이라 하니, 곳 ‘모스자리’(秧板), ‘봄스바람’(春風) 같은 것이다. -『동아일보』 1933.5.8. 한글철자법(신철자편람)의 해설(15)

ㄷ. 부나비(火蛾) 화살(弓箭)과 같이 ㄹ이 脫落된 것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ㄴ이 ㄹ로 變換한 것이라든지 황소, 황새와 같이 ‘한’이 ‘황’으로 變換한 것이라든지, 其他 語源의 變形되는 것들을 다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이같이 낱말의 原形을 徹底히 보전하자 함이 극히 난처할 일이 아닌가. 비록 여러 낱말이 어울려서 된 것이더라도 한 개의 單語化한 그대로 處理하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동아일보』 1933.5.19. 한글철자법(신철자편람)의 해설(18)

ㄹ. 三. 文字의 각 單語는 띄어 쓰되, 토는 그릇 말에 붙여 쓴다. 【해설】 한 文章은 여러 개의 單語라 모여서 되는 것이다. 그 밑에 單語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길게 연해 쓰면 첫째 같은 소리의 말로 뜻이 混同되기 쉽고 또 讀書 能率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띄어 쓰는 대로 한 가지 標準을 세워야 할 것인즉 한 單語의 標準으로 하고 토는 옷 말에 붙여 쓰는 것이 가장 표준하기 좋다는 것이다. 세상에 띄어 쓰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이 맞춤법에서는 이것을 가장 重要히 친다. 그 쓰는 방법에 대하여는 六一項에서 六五項까지를 보라. -『한글』 제2권 8호(1934)에 실린 ‘한글마춤법 통일안 해설’의 ‘띄어쓰기’ 해설.

형태론적 차원에서 환산은 ‘낱말(단어)’이 ‘뜻을 가진 최소의 언어형식’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는 낱말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떼어놓을 경우 그 자체로서 ‘덩이’를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여러 개의 요소가 합쳐진 낱말(복합어)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구별한다. 특히 ‘중간 ㅅ’이라고 부른 사이시옷 표기는 복합어 형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음가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규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원이 변형된 낱말’은 그 자체로써 ‘단어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규정한다. 『조선일보』 193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재된 ‘지상강습 한글마춤법통일안 해설’은 통일안 전반에 관한 해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sup>21)</sup>, 환산의 문법 연구를 살필 수 있는 적절

21) 1933년 10월 29일 공포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은 총칙,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론은 제1장 ‘자모’,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4장 ‘한자어’, 제5장 ‘약어’,

한 자료이다. 그 가운데 각론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토’, ‘제2절 어간과 어미’, ‘제3절 규칙 용언’, ‘제4절 변격 용언’ 등에서는 그가 사용하는 문법적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ㄱ. 토는 體言이나 用言이나 혹은 어찌씨(副詞) 같은 데 붙어서 그 말들의 關係를 밝히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토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쓰이는 範圍도 매우 넓어서 어떤 말이든지 이 토가 없이는 되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토가 우리말에 특별히 重要的 特性이 있으니 우리말이 中國말이나 西洋 말과 아주 다른 點은 주요히 이 토에 말미암음이라 할 것입니다. 言語學者가 世界의 言語를 그 形態上으로 보아 세 가지로 나누니, 一. 孤立語(Isolating language), 二. 屈折語(Inflexional language), 三. 膠着語(Agglutinative language)입니다. - 『조선일보』 1933.11.29. 지상강습 한글마춤법통일안 해설(15)

ㄴ. 用言이 무엇이라 함은 이미 前項에서 대개 말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말하지 아니하거니와 用言이 體言과 달라 活用하는 것이 特徵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部分이 있으니, 하나는 語幹(Stem)이요, 하나는 語尾(Termination)입니다. 語幹은 그 말의 實質的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固定하여 바꾸이지 아니하는 部分이요, 語尾는 그 말의 形式的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文法的 關係를 맺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바뀌이는 部分입니다. - 『조선일보』 1933.12.1. 지상강습 한글마춤법통일안 해설(17)

ㄷ. 用言이란 것이 근본 單一한 中心 觀念으로 되는 것이 그 原形이지마는 다른 말이 와서 그 語幹에 ㅁ어서 그것을 돕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補助語幹이라 합니다. - 『조선일보』 1933.12.2. 지상강습 한글마춤법통일안 해설(18)

이 시기 환산의 문법 용어와 개념은 통일안과 일치된다. 독립적으로 품사에 관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낱말’에 ‘체언’과 ‘용언’이 있음을 구별하고, 체언의 중심을 이루는 ‘이름씨’, 용언의 중심을 이루는 ‘움즉씨’, ‘어떻씨(형용사: 이 용어는 『조선일보』 1933.11.22. 10회 설명)’,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토’를 설정한다. ‘토’는 체언에 붙는 것(조사)과 용언에 붙는 것(어미)을 함께 이르지만, 그 기능은 명백히 구분된다. 즉 환산의 문법 연구는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등 통일안의 기초를 이루는 당시의 문법 연구 경향을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

제6장 ‘외래어 표기’, 제7장 ‘띄어쓰기’, 부록 1 ‘표준어’, 부록 2 ‘문장 부호’ 등 총65항과 두 개 항목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환산의 지상강습은 ‘총론’, 각론 제1장 ‘자모’,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의 제10항까지만 연재되었다. 『조선일보』 1933.12.12. 제2회 연재에서 총론 3번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와 관련하여 “이 항목은 이 아래 제7장(제1항)에서 자서히 말하겠기로 여기에는 略합니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안 전체를 해설하고자 했으나, 연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환산의 어휘 연구는 맞춤법(철자법) 보급 활동뿐만 아니라 사전편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1927년 조선광문회에서 추진한 사전편찬 사업<sup>22)</sup>의 고어 어휘 수집과 주해 작업을 시작으로, 1930년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3)</sup> 사전 편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휘 수집과 분류, 주해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어휘의 개념과 분류 체계 등에 대한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어휘의 분류]

ㄱ. 辭典은 다른 著書와 달라, 萬般科學과 一切 常識을 모두 包括 收藏하게 된 것이므로, 한 가지의 專門 知識만 가지고는 도저히 成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곧 辭典에 收容되는 語彙는 一般語 專門語 特殊語 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一般語라 함은 우리가 日常 使用하는 말들이요, 專門語라 함은 歷史語, 制度語, 風俗語, 典故語, 哲學語, 宗教語, 藝術語, 考古語, 美術語, 工藝語, 博物語, 天文語, 數學語, 理化語, 機械語, 經濟語, 法學語, 產業語, 醫藥語, 音樂語, 印刷語, 建築語 其他 專門 學術에 關係된 말들이요, 特殊語라 함은 古語, 地方語(사투리), 隱語 등과 같이 常用하지 아니한 特殊 方面의 말들이다. 이것이 어찌 한 사람의 힘으로써 능히 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므로 朝鮮語辭典編纂會에서는 一般語는 編纂員이 註解하고, 專門語는 延專, 普專 其他 各學界에 註解를 委囑하고, 特殊語는 夏期休暇에 歸鄉하는 各 中等學校 學生에게 맡기어 地方語를 蒐集하게 하며, 古書 數百冊 中으로써 古語를 찾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語彙의 蒐集과 註解는 거의 마친 셈이다. -『동아일보』 1935.12.21. 朝鮮語辭典編纂은 어떻게 進行되는가 (하).

ㄴ. 표준말이라 함은 본디 英·美의 Standard Speech에서 온 말입니다. 獨·佛에서는 이것을 Meinsprache Langue Commune이라는, 獨 共通語라는 意味의 名稱을 使用하나, 우리는 표준말이란 것을 쓰기로 합니다. 한 나라의 말에는 다 標準語

22)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稿本) 말모이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2-1, 한국언어학회, 67-84쪽.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기획·편찬되었으나 끝내 출판되지 못한 사전으로, 1910년 한샘 최남선이 중심이 된 조선광문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라고 밝혔다.

23) 『동아일보』 1935년 12월 20일~21일 ‘朝鮮語辭典編纂은 어떻게 進行되는가’. 이 글에서 환산은, “지금으로부터 한 二十餘年 前에 朝鮮廣文會에서 맨 처음으로 辭典 編纂을 시작하고 四五年間의 繼續으로 語彙 蒐集에서 註解에까지 상당히 進行하여 가는 중 여기에 專力하던 金料奉 氏가 海外에 나가게 되고 其他 여러 가지의 事情으로 하여 그만 中止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으며 그 原稿 <말모이>는 모두 散佚되고 남은 것이 얼마 있지 아니하다. 七年前에 啓明俱樂部에서 朝鮮語辭典編纂部를 두고, 編輯員으로 專門 語彙에 崔南善 氏, 漢文 語彙에 鄭寅普 氏, 用言 語彙에 林圭 氏, 外來語 語彙에 卞榮魯 氏, 新語 語彙에 梁建植 氏, 古語 語彙에 筆者, 이렇게 各部門을 맡게 되고 註解에는 韓澄 氏 및 筆者가 맡고”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환산은 1910년대 조선광문회의 사전 편찬 사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며, 1927년 고어 어휘 편집 및 주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30년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는 발기인이자 간사를 맡았으며, ‘이극로, 김선기, 한징, 이용기’와 더불어 각 부문의 어휘를 분담 집필하였다.

와 方言이 있는데, 그 나라의 中央 곳 首府의 말을 標準語로 삼는 것이 보통이요, 그 밖의 말은 다 方言으로 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首府는 政治的, 文化的 中心이며, 또 物資와 人衆이 集散하는 대이므로, 그곳의 言語는 모든 方言의 混成 이요, 中和이기 때문입니다. 朝鮮의 方言은 地方을 따라 각기 다르나, 그 分布된 區域을 大別하면 다섯으로 나눌 수 있으니, 一. 關北方言(咸北·咸南), 二. 關西方言(平北·平南), 三. 中部方言(黃海·江原·京畿·忠淸), 四. 湖南方言(全北·全南), 五. 嶺南方言(慶北·慶南)입니다.-『조선일보』 1933.11.12. 지상강습 한글마춤 법통일안 해설(2).

이 두 자료는 어휘론에 대한 환산의 이론을 적절히 나타내 준다. 즉 어휘는 단어들의 집합 개념으로 사전편찬의 기본 단위가 된다. 어휘에는 ‘일반어, 전문어, 특수어’가 있으며, 일반어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휘, 전문어는 학술 분야를 비롯한 전문 분야의 어휘, 특수어는 방언이나 고어 또는 은어 등의 어휘를 지칭한다. 특히 환산은 고어와 지방어에 관심이 많았으며, 한국어의 방언을 5대 권역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환산의 국어 연구는 그 자신이 문법서를 출간한 적은 없지만 주시경 문법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통일안 제정에 기여한 점,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어 문법을 간명하고 쉽게 해설하고자 한 점 등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2. 국어사와 한글운동사 연구

고영근(1988)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환산의 국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문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환산의 관심이나 철자법(통일안 이전부터 통일안까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훈몽자회』, 『언문지』를 비롯한 국어학사 관련 문헌 고증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환산은 일제강점기 한글통일과 보급운동과 관련한 역사에 대한 시대구분을 시도하여, 한글운동사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문자사 또는 국어사·국어학사 차원과 관련한 환산의 이론을 살펴보자. 그는 1920년대 각종 한글 강습과 한글통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비롯하여 표기법 통일을 위한 문자 변천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 가운데 ‘·’ 음가의 변화, ‘구개음화와 단모음화에 대한 이해’, ‘각자병서와 합용병서의 음가 추정’ 등은 문자사의 차원뿐만 아니라 음운사 연구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겹홀소리에 대한 ‘합



는 어디든지 그 본음대로 읽는 대가 없다”거나 “옛적에는 그 본음대로 발음하였기 때문에 다 썼지마는 지금은 다 다른 소리로 변화하였으니”라는 설명에서 통시적 차원의 음운 변화를 전제로 표기 통일을 피하고자 한 셈이다.

환산의 된시옷(된비읍)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각자병서(並書)와 합용병서의 용법과 음가 추정, 합용병서(ㄴ계, ㄷ계, ㄹ계)의 음가 변화에 따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된시옷 표기의 등장 과정을 논증함으로써 이른바 된시옷 표기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특히 ‘ㄴ계(ㄴ, ㄷ, ㄹ, ㄹ), ㄴ계(ㄴ, ㄷ)’을 예시하면서 “이것은 아무 意味가 없이 그러케 쓴 것이 아니요 반드시 語音上 그러할 만한 理由가 있어서 쓴 것”, ‘ㅅ(地), ㅅ(餅), ㅅ(骨), ㅅ(夢)’ 같은 말들도 “단순히 된소리만 볼 것이 아니라 語音上 꼭 ㅅ하고 關係가 있어서 그러케 쓴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들 표기가 제 글자의 소리값을 갖고 있었음을 주장한다.<sup>27)</sup> 이러한 소리는 후대 된소리로 변화했는데(그렇기 때문에 표기와 음이 불일치함) 그 증거를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와 유희의 『언문지』에서 찾고 있다. 신경준은 “정음 23모 중에서 이제 속에는 曉 見들의 13모를 바르게 익혔을 뿐이요, 匣 羣들의 전탁성(全濁聲)은 심모(審母) 즉 ㅅ(즉 된시옷이란 것)를 왼쪽에 붙여 적어 群母는 ㅅ으로 쓰고, 定母는 ㅅ으로 쓰니 잘못이다. 대개 우리와 일본의 자음은 전탁(全濁)이 아주 없고, 다만 강운(江韻) 중 쌍자(雙字, 즉 ㅅ: 원문대로라면 禪母)로 부르니 이는 속음의 틀림이요 본래는 審母(즉 ㅅ)에 속한 것이다.”<sup>28)</sup>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희의 『언문지』에서는 “이전 속간의 부녀자들이 된소리를 나타낼 적에 다 된시옷을 하고, 사줄(빛줄=옆의 뜻: 율긴이)에만은 짝골(雙形)됨을 피하여 된비읍을 한다. 이 된시옷과 된비읍도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리 된소리를 예사 맑은소리가 같은 소리의 받침 아래에 와서 그 받침을 이으면, 그 받침과 합하여 되는 것이니, 이를테면 ‘각가’가 ‘가까’로 되며, ‘갑바’가 ‘가빠’로 됨과 같다. 그러한데 ㅅ 받침 아래에서도 예사맑은소리가 또한 된소리로 되나니 ‘갓가’가 ‘갓까’로 되며 ‘갓바’가 ‘갓빠’로 됨과 같다. 또 사줄의 ㅅ이 ㅄ받침을 이을 적에도 또한 된소리가 나나니, ‘갑사’가 ‘갑빠’로 됨과 같다. 그러나 제소리를 잇는 것은 옷받침이 아래로 내려와서 짝골(보기: ㄱ ㅄ)이 되니, 이는 아모 더덜(加減)이 없지마는, ㅅ받침, ㅄ받침을 잇는 것은 옷받침이 제대로 잇는데, 아래의 첫소리에 ㅅ 또는 ㅄ이 군더더기로 생긴다. (갓바- 갓까, 갑사 - 갑빠) 그러므로 짝골을 따르는 것이 이치에 옳으니라.”<sup>29)</sup>

27) 『동아일보』 1933.5.3.~5.4. 위의 글(12)~(13).

28)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 조선기념도서출판관, 277쪽.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운해)』는 ‘경세성음수도’, ‘울려창화도’로 구성되었으며, 전자는 훈민정음도해 서(序)로부터 어사중성(語辭終聲)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부분은 ‘초해(初解)’의 일부이다.

29) 김윤경(1938) 위의 책, 592쪽 번역문 참고.

라고 설명하였다. 이미 영정조부터 순조 때에 ‘된시옷’, ‘된비읍’이 된소리로 발음되며, 표기상 합용병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환산의 국어사 연구는 음운사 자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설을 인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국어학사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글운동사와 관련한 환산의 이론을 살펴보자. 환산은 문자 정책의 성격과 관련하여 『동명』 제1권 10호~11호(1922.11.5.~11.12.)에 ‘중국에 새 문자’(상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환산은 중국의 한자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문자(주음부호)’를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주음자모(注音字母)에 대하여 “字母의 난함과 音順의 별립은 恰似 우리나라의 訓民正音を 模倣한 것 같다. 그러나 結橫의 整然함을 보든지 外觀의 美를 보든지 우리 訓民正音에 比하면 아조 霄壤(소양)의 懸隔(현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音符文字가 象形文字보다 훨씬 發達되며 努力이 強盛함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환산의 이 논문은 문자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 중국 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미 이 시기부터 훈민정음에 대한 조예가 깊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 환산은 한글통일과 보급운동에 헌신하면서 ‘한글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몇 편의 논문을 남겼다. 예를 들어 『신생』 제2권 제10~11호(1929) ‘한글 강의 제2~3강, -정음으로 언문에, 언문으로 한글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정음’이라는 명칭(세종대왕~조선 초기)으로부터 ‘언문’(시대를 명시하지는 않음)과 ‘한글’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기까지를 ‘정음시대, 언문시대, 한글시대’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은 『동아일보』 193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한글운동의 회고’에서 명료해진다.

[한글운동의 회고]<sup>30)</sup>

대성 세종께서 문자 訓民正音を 發布하신 지 이에 4백 86稔을 당하였도다, 이 光輝 있는 업적이 조선 문화 사상에 영원히 남아 있어 우리가 두고두고 이것을 紀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찌르지 아니한 반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글의 消長盛衰의 지나간 자취를 회고하며 미상불 감개를 금치 못하겠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에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결코 無意味한 일이 아님을 안다. 내가 이제 우리 글의 발생으로부터 여러번 變遷을 지나 오늘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1. 正音時代(創定期), 2. 諺文時代(沈滯期), 3. 國文時代(復興期), 4. 한글時代(整理期) 등 4기로 나누어 그 개요를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환산은 제1기 정음시대(세종 28년부터 성종조까지)에는 훈민정음

30) 『동아일보』 1932.10.29. 이운재, 한글운동의 회고(1).

창제, 세조 당시의 불경 언해, 성종조의 두시 및 황산곡 언해 등의 업적이 있었음을 기술하고, 제2기 언문시대(연산군부터 고종 30년) 훈민정음 박해와 능멸로부터 최세진, 신경준, 유희, 강위의 한글 연구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시켰다. 제3기 국문시대(갑오경장 이후)의 특징으로는 지식영의 ‘신정국문’과 학부의 ‘국문 연구의정안’을 요약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4기 한글시대(주시경 이후) 드디어 ‘한글’이라는 명칭과 함께 한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이 환산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외솔 최현배가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sup>31)</sup>에서 언어학적 관점에서 국어의 역사와 문자사를 설명한 바 있고, 한결 김윤경도 『동광』 제17호(1931.1.)부터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문자사를 연재한 바 있다.<sup>32)</sup> 환산의 한글운동사에 대한 논문도 외솔 이후 한결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굴·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정음’, ‘언문’, ‘국문’, ‘한글’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한글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 과정을 기술하는 준거로서 시대 구분 용어를 적용하고자 한 점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4. 환산(한메, 한뫼) 이운재의 국어교육

### 4.1. 독본 편찬과 문예교육

환산은 역사학과 사담(史談) 등의 독서물뿐만 아니라 문예를 통한 대중 계몽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환산의 문예 이론은 『동명』 제2권 제16~20호(1923.4.15.~5.6.)에 연재한 ‘胡適 씨의 建設的 文學革命論’부터 출발한다. 이 논문은 ‘국어의 문학, 문학의 국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쓰의 문학론을 번역학

31) 『동아일보』 1922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22회 연재. 이 연재물은 우리글의 가로쓰기, 제1장 우리말과 글의 과거(제1절 우리말과 글의 유래, 제2절 우리말과 글에 대한 과거 우리 祖先의 태도, 제3절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 제2장 우리말과 글의 이제(現在)(제1절 우리말의 발달에 대한 우리의 책임, 제2절 將來의 문제), 제3장 문자의 연구(제1절 조은 글(文字論), 제2절 조흔 글씨(書體論), 제3절 다른 나라의 國字改良 運動, 제4절 우리글 가로쓰기, 제5절 솟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

32) 김윤경의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은 『동광』 제17호(1931.1.) ‘머리말, 제1편 緒論’, 제19호(1931.3.) ‘언어의 분류’, 제21호(1931.5.) ‘우알알타이 어족의 특징’, 제22호(1931.6.) ‘조선어의 범위’(조선어의 형성과 문자 발생 관련), 제23호(1931.7.) ‘정음 이전의 조선글’, 제24호(1931.8.) ‘정음 이전의 조선글-今日까지 전한 文字’, 제25호(1931.9.) ‘조선 古文字로서의 口訣’, 제26호(1931.10.) ‘訓民正音의 創定’, 제27호(1931.11.) ‘訓民正音의 本文’, 제32호(1932.4.) ‘訓民正音의 性質과 價値’, 제33호(1932.5.) ‘훈민정음 起源論’, 제34호(1932.6.) ‘훈민정음 起源論(續)’, 제35호(1932.7.) ‘훈민정음 起源과 諸學說’, 제36호(1932.8.) ‘훈민정음의 變遷 過程’, 제37호(1932.9.) ‘한글의 양대 수난 - 연산군의 폭압과 崔世珍의 反切’, 제39호(1932.11.) ‘한글 發展과 基督教의 貢獻’, 제40호(1933.1.) ‘최근의 한글 運動’ 등 18회에 걸친 방대한 국어사·문자사 관련 연구물이다.

글이다. 그 이후 『조선문단』 제3-2~ 3-4호(1926.6~7.)에 ‘중국극 발달 소사(小史)’를 연재했는데, 이는 중국의 극문학사에 해당한다.

국어교육사의 관점에서 환산의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문예독본』(1931. 진광사)의 발간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환산은 『동아일보』에 다수의 역사담을 연재하고, 독서에 관한 독자들의 질의에 답변서<sup>33)</sup> 및 ‘독서여록’<sup>34)</sup>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대중계몽 차원에서 환산의 국어교육 활동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문예독본』은 그 당시 학교교육의 조선어과 교육이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등 이상 학교의 보습 교재 또는 일반 대중에게 한글을 통한 조선정신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한 책이다. 이 책 상권의 예언(例言)은 다음과 같다.

[例言]<sup>35)</sup>

一. 이 책은 中等程度 以上 모든 學校에서 朝鮮語科의 補習과 作文의 文範으로 쓰기 위하여 編纂한 것입니다.

一. 材料는 作家의 이미 發表한 作品-小説, 戲曲, 詩歌, 評論, 感想, 紀行, 小品, 隨筆, 解說, 傳説, 逸話, 童話 등에서 文章이 純實·穩健하며 또 敎訓的 意味가 있는 것으로 採擇하엿습니다.

一. 上卷은 좀 平易하게, 下卷은 程度 稍高하게 하엿으니 이에 따라 어느 學年부터든지 다 使用하게 될 것이며, 또 이 한권으로써 一年을 쓰기에 分量이 좀 過하다는 嫌이 잇으나 適宜히 取捨함이 잇기를 바랍니다.

一. 綴字와 句讀를 統一키 위하여 모두 고치었으며 原文 拔抄와 部分 削除를 濫行함에 있어서는 作家 諸氏에게 대하여 크게 미안한 바이나 이 책의 性質上 不得已 그러하게 된 것임을 너그러이 諒察하시기를 바랍니다.

一. 材料 選擇에 대하여는 尙虛 李泰俊·樹州 卞榮魯·鷺山 李殷相·頌兒 朱耀翰 여러 知友의 도움이 많었으므로 이에 특히 諸氏의 勞를 銘謝합니다.

이 ‘예언’은 책의 편찬 목적, 제재 선정 원칙, 구성 방식, 표기와 원문 발초 및 수정 사항, 편찬에 도움을 준 이에 대한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편찬 목적에서 ‘중등 이상 학교의 조선어과 보습과 작문 문법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책이 발행된 이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한글 질의란’에서는 책을 구입하는 방법과 관련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33) 『동아일보』 1931.1.19. ~ 12.13. ‘讀書質疑’.

34) 『동아일보』 1931.1.19.(1)~2.23.(5) 讀書餘錄 - 史上警句. 이 연재물은 5회에 걸쳐 우리 역사에서 격언에 해당할 만한 구절을 발췌하여 소개한 글이다.

35) 구자황·문혜운 편(2009), 『근대독본 총서2-문예독본』, 경진, 12쪽. 『문예독본』(1931, 진광사) 초판은 단권으로 출판되었으나, 구자황·문혜운 편(2009)에서는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상권(1932), 하권(1933)을 대본으로 하였다.

환산의 『문예독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독본을 통한 조선 문예 및 맞춤법 보급을 목표로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언’에서 밝힌 ‘동화, 사화, 동요, 시조, 기행문, 소품, 송(頌), 소설, 희곡, 일화’ 등이다. 1932년 재판(再版)을 기준으로 할 때 상권 25편, 하권 18편이 수록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최남선의 『시문독본(時文讀本)』(1916, 1918, 1922, 신문관)이 문예보다 논설·설명의 비중이 높는데 비해 『문예독본』은 책명 그대로 ‘문예’를 중심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문사(文士)’로 불리는 작가들의 관심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다음 두 편을 참고해 보자.

[이 책에 대한 작가들의 반응]

ㄱ. 李允宰氏 最近 編纂에 係한 『文藝讀本』이란 一卷이 나의 案頭에 와 있게 됨으로 暫時 披閱하여 본즉 李春園, 廉想涉, 鄭爲堂, 李鷺山, 其他 多數한 名士의 詩文이 滿載되야 있다. 나는 千年 以前의 中國 古文學 批評이라든지 歐洲 今後의 文壇狀況이라든지에 對하여는 責任있는 言論을 할 自信이 있는 同時에 朝鮮 現下의 諸作品에 對하여는 얼마동안 傍觀만 하라 하는 中임으로 曰可曰否할 勇氣와 興況은 업고, 다만 良心의 嚴命에 依하여 其中 毗盧峯 時調 中 第二首를 “藝術의 自談”이라고 激賞하여 마지 않는 同時에 그 作者에 對하여 深大한 嚮望心을 가지려 할 畚이다. -『조선일보』 1931.5.24. (婆心語) 薊篁生, 近事雜感.

ㄴ. 제일권을 발행할 때부터 예약하였든 때며 一年 前부터 나온다 나온다 하든 책이다. 그 서문에 가르되 “문장이 순실 온건하며 또 교훈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첫권보다는 정도가 조금 높게 운운”. 이런 책이 흔히 가지는 整然한 氣分을 이 책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색채 그 경향 그 사상이 서로 다른 近二十人의 文인 의 글을 실었스때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겠다. 그러나 통일을 도모하려 한 그 노력은 볼 수가 있다. 더구나 “중등 정도 이상의 학교에서 조선어과의 보습과 작문의 문법으로 쓰기 위하여” 편찬한 것인 이상에는 그런 점은 좀 너그러히 볼 수도 있을 것이다. 編者는 학교의 교편은 잡고 있다. 하나 教育家는 아니다. 내용 선택에 대하여 助言을 하였다는 鷺山 尙墟 樹州, 頌兒의 諸君도 文人이지 교육자가 아니다. 그 때문에 엄격한 교육가로서는 좀 舐릴만치 그 내용이 방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책의 결점이라면 결점시오 한편으로 보아서는 또한 長點이랄 수도 있다. 학교의 교재로 보와도 文學靑年들이 한 참고서거리로나 볼 만한 책이다. 스테 부록으로 달린 ‘한글철자법 일람표’는 그 울코 그림은 둘째 문제이고 요령 있게 되었다. 한글철자법의 연구생에게 또한 한 寶典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1933.5.23. (讀書室) 金東仁 ‘李允宰 文藝讀本 卷二’

『조선일보』에 실린 이 두 편의 글은 이운재의 『문예독본』을 읽은 문사들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중국 고문학과 서양 문학 이론을 연구한 학자로 추정되는 계

항쟁이라는 필명의 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독본에 수록된 노산 이은상의 ‘금강행발초(金剛行拔艸)’ 가운데 ‘비로봉(毗盧峯)에 올라’ 2수를 평가한 부분이 나오며, 김동인(金東仁)이 ‘문학청년들이 참고로 볼 만한 책’, ‘한글 철자법 연구생의 보전(寶典)’이라는 평가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국어교육론이나 문학교육론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문사들의 주관에 따른 평가라고 할 것이다. ‘독본(讀本)’이 근대 이후 편찬자가 ‘정수’라고 여기거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글을 뽑거나 지은 책으로, 그 책에 담긴 지식과 사상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계몽적 성격을 띠는 점<sup>36)</sup>에서 환산의 『문예독본』은 그 시대 문예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계몽운동’ 차원에서 이 책은 ‘예언’에서 언급했듯이, ‘철자와 구두(句讀) 통일’을 목표로 하였다. 김동인의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었듯이, 출간 이후 안서 김억(岸曙 金億)은 『문예독본』의 통일 작업을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言語, 言語, 言語]<sup>37)</sup>

文筆을 至難의 業이라 하였스니 이를 두고 니름인가. 『文藝讀本』의 例言을 보면 ‘句讀의 統一을 위하여 모두 고쳐노라’는 條目이 있다. 이것은 그 事業이 單純히 材料의 蒐集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材料를 編纂者가 文範으로의 讀本이라는 眼鏡을 通하여 取捨選擇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文體와 內容과 用語에 對하여 統一로의 嚴密한 대패를 使用치 안아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그런 지라 編纂者의 努力은 어렵은 글 字의 解釋이나 文句 가튼 것의 出處와 說明에만 어질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든지 文範으로의 讀本을 製作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치 아니하고는 讀本 編纂이란 效果는 업는 徒勞에 지내지 아니하는 일이다. 이러한 意味로의 例言을 본지라 筆者는 安堵된 期待를 가졌든 것이다. 그러나 開卷 첫 페이지에 意外의 疑心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업섯스니 첫재에 句讀가 조금도 統一이 업고 둘째에 合成語를 엮던 째에는 分離도 식혀놋코 엮던 적에는 合成도 식혀 노 핫고, 셋재에는 語根을 根本으로의 한글 用法이라든지 句讀點이 거의 不規則하다 할 만한 것이다. 다른 冊과도 달라서 이러한 讀本은 그 性質로 보아 잘못이건 올 낀 始終이 一貫해야 할 것이다. 그러치 아니하면 무슨 必要로 이러한 讀本이 要求 될 것인가.

이 글에서 안서는 독본이 재료상 ‘문범(文範)으로서의 기능’, 표현상 ‘통일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점에서 『문예독본』 ‘예언’의 편찬 의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철자 통일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한

36) 구자항·문혜운 편(2009), 앞의 책, 5쪽. ‘독본이라는 근대의 창’.

37) 『조선일보』 1932.2.11.~12. 金岸曙, 言語·言語·言語.

셈이다. 환산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 철자 통일 차원에서 이 책의 개정본을 간행했는데<sup>38)</sup>, 맞춤법 보급 차원에서 이 독본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4.2. 고전 번역과 국어교육

환산이 한글 맞춤법 제정 및 보급과 표준어 사정에 열정적이었던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른바 ‘조선학(朝鮮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선학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중반 최남선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39)</sup>, 이에 따라 조선의 전설이나 고전 읽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sup>40)</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산은 『동아일보』에 연재한 ‘독서여록’에서 한국 고전에 등장하는 다수의 ‘경구(警句)’를 인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31년 1월 19일 ‘독서여록-사상경구(史上警句)’에서는 “남의 재앙을 다행히 녀김은 어진 것이 아니다(幸人之災不仁也)”라는 『삼국사기』 혁거세의 경구와 “내가 힘이 세어 그런 게 아니라 활 그것이 든든치 못하다(非予有力弓自不勁)”라는 고구려 유리왕의 태자 해명(解明)의 경구 등을 풀이하였다.<sup>41)</sup> 이는 환산이 한국 고전에 대한 조예가 깊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체는 1939년 10월 이후 『문장(文章)』에 연재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발췌한 ‘도강록(渡江錄)’ 번역일 것이다. 이 번역물은 제1권 10호, 11호, 제2권 2호, 3호, 4호, 5호, 6·7합호, 8호, 11호, 12호 등 10회에 걸쳐 연재된 후, 광복 이후 1946년 대성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환산은 제1회 연재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朝鮮漢文古典譯抄- 渡江錄]<sup>42)</sup>

渡江錄은 燕巖集(燕巖 朴趾源 著) 中 熱河日記의 一部이다. 熱河日記는 朝鮮 正祖(西紀 一七八〇) 여름에 朝廷에서 淸國 乾隆帝(高宗) 七旬 賀筵의 祝賀 使節로 正使 朴明源, 副使 鄭元始, 書狀官 趙鼎鎭 等を 淸國으로 派送하였다. 使臣이

38) 『한글』 제4권 제3호, 조선어학회, 1934.6. 문예독본 개간(改刊)에 대하여. 이 독본은 1945년 이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몇 차례 다시 발행하였다.

39) 허재영(2017), 일제강점기 조선학에 대한 관심과 제4차 교육령기의 조선적인 교과서 연구, 『한국민족문화』6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87-213쪽.

40) 김경남(2019), 일제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동방학』4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49-184쪽.

41) 『동아일보』 1931.1.19. 독서여록-사상경구(1). 이 연재물은 2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42) 『문장』 제1권 제10호, 문장사, 1939.11.

燕京(北京)에 이른즉, 淸帝가 避暑次로 이미 熱河로 갔는고로 使臣은 거기에서 또 발길을 돌리어 熱河까지 간 것이다. 燕巖 朴趾源 先生은 이때에 隨員으로 갔었는데, 先生의 旅行中 日記 및 그곳 名士들과 談論한 것이 아울러 二十六卷으로 되어 있다. 이 渡江錄은 鴨綠江을 건너 遼陽까지 이르는, 곧 六月二十四日부터 七月九日까지 十五日間의 日記이다. 이것은 勿論 純漢文體이다.

熱河日記는 내가 愛讀하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文章社의 干囑을 孤負하기 어려워 외람히 이것을 한글로 옮겨 써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拙劣한 붓의 힘이 原書의 뜻의 百分之一도 따르지 못함을 恨하는 바이며, 이 가운데 萬一이라도 誤譯이 있다면, 그 罪는 마땅히 譯者가 질 것이다.

이 글은 열하일기에 대한 소개와 번역자로서 환산의 겸손함이 나타난다. 형식상 문장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번역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그가 보인 고전에 대한 관심과 대중계몽 의식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번역 작품이 등장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 이 번역본에서 원문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번역 대목마다 주요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한 점이 특징이다.

‘들어가기’에서 밝힌 것처럼, 환산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전 번역 활동이 더 이어질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도강록’은 정부 수립 이후 『중등국어 2』<sup>43)</sup>부터 한동안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 까닭은 압록강을 건너 구련성을 지나 때로는 노숙하고 때로는 말을 몰아 평원을 지나는 여정이 지닌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課)의 끝에는 역자 이운재라는 이름과 함께 “한글 학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서 돌아가시다.”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제시한 주석까지 충실히 활용하고 있다.

광복 이후 환산의 글 가운데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는 『중등국어교본』 중권<sup>44)</sup> 제9과 ‘한글 창제의 고심’이 더 있다. 이 교재(教材)는 군정청 학무국 발행본으로부터 군정청 문교부 발행본, 그리고 군정청 문교부의 『중등국어 2』 등에 실렸는데, 세종대왕에 대한 환산의 연구가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던 까닭으로 보인다.

## 5. 나오기

이 글은 환산(한메, 한뫼) 이운재의 학문 세계를 개괄하고, 국어학자 및 국어 교육자로서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지금까지 환산에

43) 문교부(1949), 『중등국어 2』,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제27과.

44) 조선어학회(1946), 『중등국어교본』 중권, 군정청문교부·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한글운동가, 역사 계몽가라는 점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환산의 국어 연구에서 문자사, 맞춤법, 사전편찬 등의 업적에 주목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국어 연구가 주시경 문법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글 통일에 이바지하고, 어휘 연구와 한글운동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간명한 이론 체계를 구축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환산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기초 자료를 재조사하고, 그의 학문 세계와 국어학·국어교육 연구 차원에서 환산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산의 삶을 재조명하는 데 필요한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세 편의 기사와 ‘자유의 대한매일신보를 축(祝)하노라’라는 논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자료인데, 이들 자료를 통해 환산의 애국계몽 활동이 일제강점기 이전 국권 침탈의 위기에서 올곧게 형성된 것임을 증명한다.

둘째, 환산이 남긴 글을 재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환산이 남긴 글은 선행 연구에서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의 『한피 이윤재 글모음』에 수록된 163종 573편의 글 이외에 단행본과 다수의 연재물이 더 확인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총 175종 598편이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의 글을 분야별, 문종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환산이 남긴 글은 ‘역사 관련 자료’(58종), ‘문자 관련 자료’(51종), ‘애국 계몽 논설’(32종) 등의 분포를 보인다. 문종으로 볼 때 연재 형식의 논문이나 논설(73편), 계몽운동 교재(14편) 등 그의 학문 연구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글의 출처별 분포인데, 환산의 글은 1910~1930년대 말까지 40여 종의 신문·잡지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환산이 한글통일과 보급운동에 헌신하면서 대부분의 한글 신문·잡지 교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셋째, 환산의 국어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의 언급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천성’을 전제로 한다. 일제강점기 각종 조선어강습과 사전편찬 작업을 거치면서 그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닦은 셈이다. 그러나 그의 국어 연구는 ‘고나’, ‘날내’, ‘홀소리 체계’(10모음 체계), ‘닿소리 체계’의 설정 등 음운 연구 차원에서 주시경 문법을 계승하면서도 한글 표기 변천과 관련된 음운사적 고찰, 그 당시 현실 음의 고증 등 연구 방법의 차원에서 발전된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된시옷 논쟁과 관련하여 15세기 된소리를 표기하던 각자병서와 제 글자 소리를 갖고 있던 합용병서의 대립 관계가 조선 중기 이후 이른바 된시옷 계통의 표기가 된소리 표기를 대신하게 되어, 음운과 문자의 불일치가 생겨난 과정을 명료하게

규명하고 있다. 즉 된시옷 또는 된비읍이라고 불리는 표기는 본래 제 글자 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것이 된소리 표기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합용병서의 음가가 제 글자 소리를 모두 유지했음을 밝힌 것은 국어 음운사 연구의 진전된 모습에 해당한다. 형태론적 차원에서 별도의 이론을 제시한 적은 없지만, 그가 남긴 다수의 글을 종합해 볼 때, ‘최소자립형식’으로서 ‘낱말’의 개념을 인식하고, ‘토의 용법’(조사와 어미를 토로 처리하고 있지만, 두 가지 언어형식의 기능을 명백히 구분함)을 체계화하였다. 이들 개념과 체계는 주시경·김두봉 문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휘 연구 차원에서 사전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기초 자료를 ‘일반어, 전문어, 특수어’로 구별하고, 특수어 가운데 ‘고어’와 ‘지방어’ 주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넷째, 환산의 국어 연구에서 주목할 사실은 국어사 및 한글운동사와 관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업적을 ‘문자사’ 차원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자사 자료가 본질적으로 음운사, 어휘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훈민정음』, 『훈몽자회』, 『언문지』 등 다양한 문헌을 근거로 음운 변화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 것은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주목할 업적으로 평가한다. 한글 운동사에 대한 시대 구분과 각 시대의 한글에 대한 태도를 기술한 것도 독창성 여부를 떠나 국어학사 기술 차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산의 국어교육은 『문예독본』을 편찬한 사실, 독서질의 답변서를 통한 지식 보급, 고전 부흥 차원에서 진행한 ‘도강록’ 번역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독본 편찬은 그 자체로서 한글통일과 보급 활동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독본의 내용 구성과 영향력은 국어 교과의 범위를 넘어 대중 계몽의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업적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어학과 국어교육 연구 차원에서 환산의 업적을 재평가해야 할 대상이 매우 많다. 더욱이 그는 1910년대부터 1943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서거하기까지 세 차례 투옥되었을 정도로 평생 지조 있는 선비이자 겨레의 스승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따라서 재평가 작업이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한글운동가라는 기존의 평가를 뒤집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88), 이윤재-국어학사 재조명, 『주시경학보』 제2집, 탑출판사, 192-205쪽.  
 고영근(1992), 이윤재의 사상 체계, 『주시경학보』 제10집, 탑출판사, 33-58쪽.

- 구자황(2007), 근대 독본의 성격과 위상(2)-이운재의 문예독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197-203.
- 구자황·문혜윤(2014), 『이운재 문예독본』, 경진.
- 국립국어연구원(1992), 『한메 이운재 선생 기념 문집-1992년 10월 문화 인물』, 국립국어연구원.
- 김경남(2019), 일제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동방학』4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49-184쪽.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신문관.
- 김두봉(1922), 『김더조선말본』, 상해 새글집.
-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86), 『국문연구의정안』, 탑출판사.
-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 조선기념도서출판관.
- 문교부(1949), 『중등국어 2』,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민두기(1987), 자료 소개-이운재(1888-1943)의 현대 중국(1922-1923) 현장보고 5중,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집』11, 서울대 동양사학과, 229-266쪽.
- 박용규(2014), 『이운재-우리말·우리 역사 보급의 거목』, 역사공간.
- 박지원·이운재(1946), 『도강록(渡江錄)』, 대성출판사.
- 성원경(1972), ‘漢字韻으로 본 ·音價의 再考’, 『국문학논집』5·6 합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3-36쪽.
- 연세학풍사업단·김도형 편(2016), 『한피 이운재 글모음』, 선인.
- 외솔회(1973), 『나라사랑』 13호, 외솔회, 1973.12.
- 이극로(1937), ‘·음가에 대하여’, 『한글』 제5권 8호, 조선어학회, 3-5쪽.
- 이승녕(1949), 『조선음운론연구 제1집 ·음가고』, 을유문화사.
- 이운재(1939), 『문예독본』, 한성도서주식회사.
- 이운재(1946), 『성웅 이순신』, 통문관.
- 이운재·김병제(1948), 『표준조선말 사전』, 아문각.
- 이은상(1976), 나의 사우록, 『경향신문』 1976.11.20.~22.
- 이장렬(2004), 환산 이운재의 출생지와 ‘구주탄생’, 『지역문화연구』10, 경남부산지역문화학회, 185-204.
- 이희승(1992), 『인간 이운재-인물평전-』, 국립국어연구원 10월의 문화 인물.
- 조선어학회(1946), 『중등국어교본』 중권, 군정청문교부·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주시경(1908), 『국어문전음학』, 박문서관.
- 주시경(1914), 『말의 소리』, 신문관(석판본, 역대한국어문법대계 1-13, 탑출판사).
- 진단학회(1934), 『진단학보』1, 진단학회, 편집후기, 234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최현배(1940), 『한글갈』, 정음사.
- 허재영(2017), 일제강점기 조선학에 대한 관심과 제4차 교육령기의 조선적인 교과서 연구, 『한국민족문화』6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87-213쪽.
- 小倉進平(1924),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 (본문에 인용한 환산의 글 목록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1부 주제 발표

## 백수 정열모의 언어 의식과 국(어)학적 성과

이상혁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leesh@hansung.ac.kr

### I. 들어가기

근현대사에서 조선은 질곡과 고통의 역사를 함께했다. 조선은 근대화 과정에서 열강의 회유와 침략에 시달렸다. 동북아시아에서 준동한 제국주의 세력은 조선의 판도 안에서 그들의 야욕을 드러냈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국권 상실과 동시에 우리말의 지위도 ‘국어 조선어’에서 조선반도의 ‘방언 조선어’로 추락하였다. 일본은 근대화라는 구실로 조선을 지배했으나,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저항도 36년간 지속되었다. 일반 민중과 독립운동가 등은 물론이고 지식인 계층도 식민지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투쟁으로 맞섰다.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민간단체 조선어학회와 그 구성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우리말과 글을 수호하고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식민지 조선의 연구자들도 학문적, 실천적 노력을 이어갔다. 그것은 조선어 규범화를 위한 언어정책적 활동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학자들은 자신들의 조선어학서 저술에 힘쓰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말기에 일어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많은 어문학자들이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옥고를 치렀으며, 그들의 희생과 노력은 해방 후 우리말과 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

조선어학회 수난 80돌을 맞이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어학회 회원 중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백수 정열모를<sup>1)</sup>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회원 중에서 복을 선택한 연구자는 3명이다. 조선어학회 간사장 고루 이극로, 그리고 이만규와<sup>2)</sup> 백수 정열모이다. 고루에 대한 평가는 국어학과 역사학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어학자이자 복한 문법 체계에 크게 기여한 정열모에 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백수 정열모의 이력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의 생애를 4기로 나누고, 그의 언어 의식과 국(어)학적 성과를 시대순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가 복을 선택한 1950년대 이후의 연구도 국어학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리할 것이다. 결국 이 발표는 국어학자 정열모를 넘어서는 국학자 정열모에 대한 거시적인 국어학사적 논의라 할 수 있다.

## II. 본론

### 1. 백수 정열모의 생애와 언어관

#### 1.1. 백수 정열모는 누구인가?

정열모의 생애를 정교하게 잘 정리한 글은 유목상(1993)과 최기영(2003)이다. 최기영(2003)에서는 그의 논문에서 백수의 생애는 유목상(1993)에 기댄 바 크다고 했으며, 최경봉(2011)에서는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 자료는 유목상(1993)과 최기영(2003)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1950년대 이후의 정열모에 대한 언급은 최호철(2002)에서 자료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복을 선택한 여러 국어학자들의 계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상혁(2007) 등에서도 정열모의 초기 문법론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적 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김민수(1989)은 정열모의 『신편고등국어문법』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였으

1) 정열모(鄭烈模, 1895~1967). 호는 백수(白水). 이 글에서는 우리말 표기법에 따라서 ‘정열모’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의 다양한 저술에서는 ‘鄭烈模, 정렬모, 정열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필명으로 ‘烈, 醉夢, 살별, 醉夢生, 취몽중, 백수’ 등을 사용하였다. 복의 인명 표기에서는 ‘정렬모’이다. 다만, 이 글에서 서지 사항 등 원문 그대로 밝힐 때는 그 원문 표기에 입각하여 적고자 한다. 그의 호는 그가 김천에서 교장에 취임한 후 본적지를 김천(金泉)으로 옮기시고 ‘泉’자를 파자(破字)하여 ‘백수(白水)’라고 호를 삼았다고 한다. 유목상(1993:192) 참조.

2) 이만규는 국어 및 한글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적극 활동했고, 월북 이후 복의 교육성 보통교육국장을 맡았으며, 평양에서 창립된 조선어문연구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나, 이 글에는 그의 이력에 대한 정교한 주석이 있다. 이러한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가 일부를 수정하여 덧붙인 백수 정열모의 이력을 재정리해 보았다. 이에 따라 그의 학문적, 사회적 활동과 연계하여 그의 생애를 크게 4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기>

1895년 11월 1일, 충북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20-3, 장기(長鬢) 정(鄭씨 해운(海潤)의 셋째 아들로 출생  
1911년 회인(懷仁) 보통학교 졸업  
1912년 3월 조선어강습원 중등과(제5회) 수료  
1914년 3월 조선어강습원 고등과(제2회) 수료  
1915년 3월 경성 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제2종) 수료  
1916년 경성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마침(추정)  
2018~2020년 평안북도 자성보통학교, 의주보통학교 교원 임용(추정)  
2021년 3월~1925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사범부 국어한문과 재학 및 졸업  
1922년 4월 15일 대종교에 입교  
1925년 서울 중등학교 조선어, 일본어 교원 임용

<2기>

1926년 조선어학회 한글강습회 강사로 활동  
1927년 2월 동인지 『한글』 동인으로 활동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 편찬위원  
1930년 '한글마춤법 통일안'의 제정위원  
1931년 3월 김천 고등보통학교 교원, 4월 교무주임  
1932년 1월 김천 고등보통학교 2대 교장(~1943.3.7.)  
1935년 1월 표준어 사정위원  
1942년 10월 20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1944.9.30. 공소 소멸로 석방)

<3기>

1945년 8월 18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김천지방위원장 추대  
1945년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 참여.  
1945년 9월 9일 고려청년당 고문으로 추대  
1945년 9월 조선어학회 국어강습회 강사, 한글문화보급회 회장  
1945년 9월 숙명여자전문학교 교수 및 10월 문과과장 취임  
1945년 10월 조선어학회 사단법인 기성회 상임이사  
1946년 2월 한글문화사 대표

- 1946년 3월 국학전문학교 초대 교장 취임
- 1947년 6월 홍문(弘文)대학관의 관장 취임(1948년 8월 홍익대학관으로 교명 바뀜.)
- 1949년 1월 대종교 정교(正敎)로 대형(大兄)의 교호(敎號)를 받음.
- 1949년 6월 홍익대학 초대 학장 취임(1950년 2월 사임)
- 1948년 4월 문화인 108인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 동참
- 1949년 5월 민족자주연맹 서울시 연맹 부위원장
- 1949년 10월 한글학회(조선어학회의 개칭) 이사
- 1949년 12월 22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김천시 후보로 출마, 낙선
- 1950년 5월 대종교 원로원 참의(參議)
- 1950년 6월 한국전쟁 중 월북? 납북?

<4기>

- 1955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교 언어학 교수
- 1958년 4월 과학원 언어학 연구실 교수
- 1961년 통일 민주주의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원
- 1964년 4월 과학원 후보원사
- 1965년 1월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실 교수, 후보원사
- 1967년 8월 14일 향년 73세로 사망

정열모 생애의 1기는 그가 태어나 교육을 받고 어문 교육자로 성장한 1925년 까지이다. 그는 주시경이<sup>3)</sup> 설립한 조선어강습원을 수료하여 그의 제자로서 그리고 교원으로 조선어 교육에 힘을 썼다는 점이다. 최기영(2003)에서는 잡지 『靑春』 제13호(1918.1)의 독자 문예로 실린 시조 3편의 필자가 ‘慈城 정열모’였음을 밝혔고, 잡지 『曙光』 제6호(1920.7)에는 현상문예로 ‘義州 정열모’가 등장한 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평안북도에서도 교원 생활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교원의 역할 이상의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어문민족주의적 태도가 이미 20대 중반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2003)의 시각은 정순기·정용호의<sup>4)</sup> 언급과 대체로 일치한다.

3) 이 시기에 백수는 대종교에도 입교하여 종교적인 면에서도 주시경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했던 대종교의 흐름은 해방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정열모의 이력 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준식(2013:93)에 따르면, 주시경학파는 새로운 세대에게 언어민족주의를 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주시경학파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글운동을 다른 차원의 민족운동과 결합시키려고 한 것이다. 주시경학파의 사람들은 일찍이 1909년에 만들어진 대동청년단이라는 비밀 결사에도 가입했고 민족종교인 대종교에도 입교했다. 심지어 주시경은 해외망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시경 학파의 일부 성원들은 사실상 정치혁명을 지향하는 비밀결사의 성격을 꾸리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1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이력은 그의 일본 유학이다. 이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조선의 청년 지식인이 적지 않았으나, 그도 역시 일본의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고등사범부 국어한문과에 입학하여 졸업하면서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력이다. 후일에 국어학자가 된 최현배, 유응호, 김수경 등도 일본으로 유학의 길을 떠난 바 있는데, 그것은 선진 교육학 및 언어학 학문에 대한 열망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청년 지식인, 특히 국어학 전공자의 유학은 그들이 어문민족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친일’이라는 시선보다는 새로운 과학적 언어학 및 교육학 등에 대한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식민지 시대에 국어학자들의 어문민족주의적 태와 실증적 혹은 과학적 언어학의 지향은 양립 가능한 것이었다.

그의 생애와 이력 2기는 그가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에 1926년 조선어학회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이다. 어문민족주의의 태도로 조선어를 바라본 정열모는 일본 유학을 통해서 소위 과학적 언어학에 대한 지식도 습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스럽게 그의 활동은 조선어학회 동인지 『한글』과 여러 잡지와 신문 등에 투고한 글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훈민정음에서 조선어의 정체, 언어와 문자, 그리고 표기법(철자 원리), 방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1927년 2월 동인지 『한글』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백수 문법’의 효시라고 일컬을 수 있는 『朝鮮語文法論』을 그 잡지에 1927년부터 1928년까지 6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 연재 논문은 그를 국어학자로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 편찬위원과 1930년 ‘한글마춤법 통일안’의 제정위원의 역임은 조선어문에 대한 그의 실천적 활동을 대변하는 이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28년 총독부 학무국에서 열린 “제3차 교과서 철자법 제정을 위한 철자법 개량 조사위원회”에서 정열모는 신명균, 이병기 등과 함께 건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철자법 개량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1930년에 다른 학자들과 함께 형태주의로 철자법 개정을 이끌었다.<sup>5)</sup> 그런데 1935년 1월 표준어 사정위원을 끝으로 그의 국어학 관련 연구 활동은 중단되었고, 국어학 관련 논설 등의 글도 1935년까지만<sup>6)</sup> 발표되었다.

4) 정순기·정용호(2000:43)에서는 정열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정열모는 일찌기 북부국정일대인 자강도의 자성과 중강 일대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독립운동자들과 연계가 깊었으며, 조선인혁명군 지하공작원인 오중화와 깊은 연계가 있어 반일 애국주의교양을 남달리 많이 받은 진보적인 언어학자였다.

5) 최경봉(2011:163) 참조.

6) 1935년 정열모는 “「아니」의 格位는 무엇?”이라는 논문을 『한글』 24호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후,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국어학은 물론이고 문학 관련 글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생애 1기에 시작한 문학가의 면모를 이 시기에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었다. 동요, 동시, 시조, 동화, 번역 소설, 수필 등은 1기 후반부터 2기 전반부까지 다양하게 발표한 문학 장르들이었다. 1925년 전후부터 국어학 관련 글과 논설, 논문 말고도 이러한 글을 꾸준히 저술했다는 것은 그의 관심이 다방면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부터 정열모의 국학자 면모가 비로소 드러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5년 이후부터는 문학 관련 글조차 1945년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1937년부터 1941년에 이르는 시기에 발표한 수필류가 있을 뿐이다.<sup>7)</sup>

그의 생애 2기 후반부, 다시 말하면 1935년~1945년까지 정열모는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인 글이나 논설 등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이 시기는 이미 그가 1931년 3월 김천고등보통학교 교원, 4월 교무주임을 역임하고, 1932년 1월부터는 김천고등보통학교 2대 교장으로 있었던 시절이었다. 국학자 정열모가 아니라 중등교육 행정가이자 교육자 정열모였다. 그는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sup>8)</sup> 옥고를 치렀다. 일제가 일으킨 이 사건으로 10월 1일 이극로, 이운재 등 11인이 구속되었다. 학회의 주동인물과 후원자 등은 줄줄이 검거되었고, 정열모 역시 10월 20일 김천에서 잡혀 그 역시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고초를 겪었다. 그는 기소가 되어 예심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장지영 등과 함께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고 1944년 9월 30일 공소소멸로 풀려났다. 식민지 시대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애 2기 후반부에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학자로서 어문민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김천 고등보통학교 2대 교장직을 사임했다. 영어의 몸 이후 그의 삶은 궁핍했다.

그의 생애 3기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로 한정해 보았다. 시기는 가장 짧았으나, 그는 또다른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바로 이 해방 공간에서 그는 국어학자로 자신을 다시 소환했다.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은 그렇게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제강점기의 교육 및 교육 행정의 경험이 적지 않았던 그는 전문학교 교장과 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9월 숙명여자전문학교 교수가 되었고, 1946년 3월 국학전문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1950년 2월 사임에 사임하기까지 그는 1949년 6월부터 홍익대학<sup>9)</sup> 초대 학장직

7) '정열모, 『十年』, 『朝光』 1941년 9월호'에서는 백수답지 않은 오점이 발견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최기영(2003:492)을 참고할 것.

8)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박용규(2012),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한글학회. / 박용규(2014), 『조선어학회 33인』, 역사공간 참조.

9) 1947년 6월 홍문(弘文)대학관, 1948년 8월 홍익대학관으로 교명이 바뀐 후에 홍익대학이 되었다.

도 맡게 되었다. 1949년 1월에 대종교 정교(正敎)로 대형(大兄)의 교호(敎號)를 받은 그는 주시경학파의 주된 일원으로 대종교와 함께했고 관련 대학에서 교육 행정가를 역임한 것이다. 물론 당시는 생겨난 각 대학은 교수 요원은 물론 운영자를 선임하는 것도 힘겨운 시대였다.

정열모는 1945년 9월 조선어학회 국어강습회 강사, 한글문화보급회 회장을 필두로 10월 조선어학회 사단법인 기성회 상임이사, 1946년 2월 한글문화사 대표, 1949년 10월 한글학회<sup>10)</sup> 이사를 역임하였다. 이극로, 김병제, 이만규 등이 1948년까지 조선어학회 활동을 마치고 북을 선택한 것과 달리 정열모는 남쪽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시기까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전공은 달랐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 수많은 학자들의 월북은 당시 지식인들의 또 다른 선택이었다. 혼란스러운 남쪽을 벗어나 어떤 이상을 갈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정열모는 1949년 10월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니 그는 학회를 지킨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 혼란스럽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이 시기에 그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김천지방위원장(1945년 8월 18일)에 추대되기도 하였고 무수히 많은 당이 출현하던 1945년에 한국민주당 발기인, 고려청년당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정치인 정열모의 또 다른 면모였다. 1948년 4월 문화인 108인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에 동참하고, 1949년 5월 민족자주연맹 서울시 연맹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기관이 중도 계열의 정치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열모는 1949년 12월 22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익대학 학장직을 사임한 후 그는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김천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리고 그 해 6월 한국전쟁 중 북을 선택했다. 이제 정열모의 생애는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었다.

유목상(1993)에서는 1950년 6·25 동란 직후인 7월 중순 쯤 담요 한 장을 준비하고 ‘교육 받으러 갔다 곧 오겠다.’ 하시더니 이후 종무소식이었다는 둘째 자부의 증언을 언급하면서 일설에 의하면 이극로 선생의 권유로 북행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유목상(1993)은 정열모를 철두철미한 민족주의자이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정열모의 월북에 대해서는 남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11)</sup> 1949년까지 대종교의 다양한 직책을 맡은 것, 그가 활동한 민족자주연맹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내건 중간파 조직이라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최기영(2003)에서는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한 뒤, 정열모는 남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열모는 좌익 활

10)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 개칭된 것은 1949년 10월 2일이었다.

11) 최기영, 「백수 정열모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월북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원치 않은 월북이나 납북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가 해방 이후 관여한 사회·문화 단체와 그 주변 인사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해방 직후 중도 좌파인 여운형이 이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김천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 민족자주연맹에 참여한 구성원 중 홍명희, 이극로 등의 노선에도 정열모 역시 동의하고 서울시 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당시 한자 폐지 문제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보수적인 국어문화보급회에 맞선 한글문화보급회 회장을 해방 직후부터 맡고 있었다는 점은 그의 사상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 이력이다. 조선어학회 회원 중 이극로, 김병제, 이만규, 전몽수, 김수경 등의 월북 역시 그에게는 가볍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도 계열의 민족자주연맹 활동을 하면서 1949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열모는 구속되었고,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적의 간계와 경찰의 강압으로 포기를 하는 등 그의 정치적 여정은 험난했다. 이러한 점은 그가 남쪽 정치 현실에서 다소간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직접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경봉 외(2007)의 김민수 교수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50년에 돌발한 6·25 한국전쟁으로 참여하던 많은 학생이 사라져서 전체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에서는 안문구, 김삼불,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김하명 등이 월북했어요. 안타깝게도 문리과대학 민영철, 정희선, 김종익, 박내수, 김세하 등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희선 군은 예과에서 본과로 진입해서 구제로 졸업을 했는데 월북한 정열모 선생 자체였어요.”<sup>12)</sup>

우리는 북을 선택한 정열모의 생애 4기를 불과 35년 전까지는 쉽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자료가 본격적으로 공개되고 확인되면서 월북 후의 그의 국어학 연구와 활동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1955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교 언어학 교수, 1958년 4월 과학원 언어학 연구실 교수, 1961년 통일 민주주의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원, 1964년 4월 과학원 후보원사, 1965년 1월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실 교수, 후보원사를 역임하였다. 1950년 북을 선택한 이후 어문민족주의자, 국어학자의 삶에서 사회주의자로서 조선어학자로 변신하여 그는 생애 4기를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1967년 8월 14일 향년 73세로 사망했다.

12) 최경봉·이상혁 외,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채록 자료), 2007.

## 1.2. 정열모 언어 의식

그의 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열모는 국어학자의 삶으로만 살아간 학자는 아니었다. 문학과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의 삶이 그 생애 전반에서 드러났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자를 시작으로, 우리말글과 표기법, 문법에 관심을 기울여 국어학자가 되었고, 교육 행정가와 정치 활동을 겸하면서 사회 실천가의 면모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가 북을 선택한 후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조선어학자’의 삶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그런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언어 의식은 어떠했고 어떻게 변모했을까? 각 시기마다 그가 남긴 논설, 책의 서문 등을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정열모의 언어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주시경의 문하생이었다. 초기 주시경학파의 연구자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그도 대종교와 무관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그 사상적 흐름을 월북 전까지는 철저히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최경봉(2005)에서는 ‘이극로, 김두봉, 유열, 정열모’ 등이 당시 민족주의적인 종교였던 대종교의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그리하여 북쪽의 민족주의적 경향의 국어학 연구는 이러한 토대에서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태도와 흐름의 맥락에서 초창기부터 정열모는 다음과 같이 국어를 정의하고 있다.

“어느남다른 組織을 갖춘文法으로 統一된言語를 國語이라고하고 그文法을 國文法이라 한다. 이를테면 日本語, 英語, 支那語는모다 國語이요 그 文法은모다 國文法이다. 그러나 그國이라는 것은 法政上의 國이아니므로 朝鮮語는 역시 한 國語이지 方言語이 아니요, 英人의國語와 米人의 國語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sup>13)</sup>

당시 우리의 조선어가 일제에 의해 방언의 지위로 떨어진 형국에서 그는 국가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말 조선어는 방언임을 부정하고 국어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어에 걸맞는 문법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정열모 스스로는 어문민족주의적 태도를 분명하게 들어내고 있지 않으나, 비록 나라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선어도 국어의 지위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열모의 『조선어문법론』 자체는 어문민족주의적 태도에 입각해서 서술된 문법 저술은 아니지만, 그의 내면 의식 속에는 우리의 ‘조선어’가 ‘국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새 時代의 모든 學術研究는 要컨대 많은 研究材料를 蒐集하여 그 材料의

13) 鄭烈模, 朝鮮語文法論, 한글1-3, 1927.

歴史的 比較的 研究로 因하여 그것을 分解하고 이것을 綜合하여 歸納的으로 어느 法則을 發見한다는 科學的 方法을 밟아가지 아니하면 안된다 (중략) 우리는 國語의 研究에는 歴史的 研究와 比較的 研究와의 두 方法이 並行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략) 國語學이 그 研究上에 다른 모든 科學의 補助를 받는 것과 같이 國語學도 역시 다른 모든 科學에 대하여 有力한 研究資料를 提供하는 것은 勿論이어나와 國語 教授의 實際的 方面에 대한 國語學의 貢獻은 實로 多大한 것이다.<sup>14)</sup>

그의 내면적인 어문민족주의적 태도와는 별개로 정열모는 조선어를 연구하고자 할 때는 과학으로서 조선어를 연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국어일지라도 그 국어에 대한 연구는 학술 연구이고 그 방법은 귀납적으로 언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어 연구에서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국어학을 과학 학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이러한 의식은 소쉬르 이후 언어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되고 구조주의가 넓게 서구에 확산된 시기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의 이러한 언어 의식은 해방 후에 간행된 그의 문법서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이러한 태도는 1920년대 정열모의 언어관이 어문민족주의적 태도에만 매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국어를 바라보는 언어관, 그리고 국어 연구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실천적 학문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다. 그 역시도 그런 태도를 취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는 또 다른 지점에서 국어학과 그에 대한 연구는 실천적인 태도를 넘어 체계적인 과학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법가로서 국어학자 정열모는 당시에 조선어사전 편찬위원과 한글마춤법 제정 의원이었던 만큼 우리말 철자법 제정에 대한 당시 표기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시각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물론 이 시기는 조선어학회가 주도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총독부의 표기법이 표음주의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공은 조선어학회로 넘어온 시점이었다.

“첫째 改正의 目標를 어대다 둘 것인가?가 問題일 것이다. 이에 對한 議論은 하나들이 아니겠지마는 가장 核心的인 根據는 朝鮮語의 本質로 보아 合理的일 것과 實用的일 것이니 이 主張을 가지고 朝鮮語 綴字를 議論한다면 거기 必然한 標準이 생기게 될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그대 우리는 다음 가튼 立論을 하게 된다. 첫째 바침에 잇서서는 初聲復用終聲主義를 取하여라. 이것은 決코 訓民正音의 先例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現代의 朝鮮語 性質로 보아 가장 合理

14) 鄭烈模, 「朝鮮語研究 正體는 무엇?(二)」, 한글1-3, 1927.

的인 까닭이다. 萬一 이 主義를 버리고 所謂 時俗體를 따른다는 것은 不完全한 文學 所有者가 音韻 다른 外國語를 적는 것처럼 겨우 彷彿한 綴音을 할 따름이오. 完全한 言語의 性質을 들어내지 못하는 셈인즉 뒤집어 생각한다면 完全한 우리 文字를 불구가 되게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하략)”<sup>15)</sup>

물론 해방 후 정열모의 표기를 보면<sup>16)</sup> 그가 온전한 형태주의를 주창한 연구자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920년대 아직 제대로 우리의 표기 규범이 수립되기 전에 위에서 그가 보여준 표기 의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받침을 쓰고자 할 때 초성자를 다시 종성자에 써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初聲復用終聲主義’라고 표현했으나, 『훈민정음』 <예의>의 ‘終聲復用初聲’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신이 결코 훈민정음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 아님을 언급한 것은 15세 표기 양상으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형태주의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어 (표기) 본질로 보아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으니, 받침에 대한 그의 표기 의식은 확고해 보인다. 그가 편찬한 『현대조선문예독본』(1929)년은 그가 생각한 표기법을 실제로 시험하는 텍스트였다.

二, 本書의 綴字法에는 가장 審慎한 用意를 하였노라. 그러나 아직 貧弱한 우리 出版界에 있어서 여러가지 不備가 만코 또 時俗이 朝鮮語의 새綴字法을 理解하지 못하는 嫌疑가 있으므로 不徹底하나마 慣用에 多少整理를 加하였노라.<sup>17)</sup>

이 독본에서 그는 이 책의 철자법은 가장 신중하게 다듬은 표기를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출판계의 현실을 여러 곤란한 현실과 관습적 표기를 아주 부정하지 않으면서 새 표기를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진호(2022)에 따르면 이 독본의 표기에서 강조한 것은 ‘말의 몸’을 잡아 써야 한다는 원칙에 어느 정도 따랐음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한의 시, ‘빗소리’에 등장하는 표기 ‘비가 옵니다’는 이 독본에서 ‘비가 옵니다’로 표기하고 있고, ‘어둔’을 ‘어두운’로 바꿔 표기하고 있는 등 독본에서 다수의 형태주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표기가 형태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어의 새 표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진호(2022)에서는 『현대조선어문예독본』을 철자법의 혼란을 바로잡고, 바른

15) 鄭烈模, 「綴字法 改正에 대한 意見」, 조선일보, 1928.11.2.

16) 『신편고등국어문법』 본문에서 한글 전용으로 한자어를 표기한 부분은 그의 형태주의적 태도를 다소 의심케 한다. 다음과 같다.

17) 鄭烈模, 凡例, 『現代朝鮮文藝讀本』, 殊芳閣, 1929.4.2.

문장의 전범을 제시하는 일의 일환으로 문학 작품에 표기법을 적용해 보면서 궁극적으로 한글의 정리와 보급을 목적으로 간행된 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독본의 표기 양상은 온전한 형태주의를 실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당시는 아직 표기법 규범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역시도 새로운 철자법 전체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해방 이후 정열모는 그의 문법서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의 ‘첫째편 총론(도론말), 첫째장 언어(말), 첫째절 말의 본질과 이모저모’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언어관을 피력했다.

말 말은 소리나 글씨를 보람으로 하여 생각을 나타내는 방편물이다. (중략) 말이 소리루 나오는 것을 소리말 이라하고, 글씨루 적힌 것을 글씨말 이라 한다. 글말(문어)이거나, 입말(구어)이거나, 입으로 발음 하면 소리말 이요, 글씨로 쓰면 글씨말 이다. (중략) 글씨말은, 그것을 읽으면 소리말이 된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맘으로 읽을 적이 있다. 그런때는 글씨말 그대로 이다. 쉽게 말할 적에는 글씨를 소리의 보람이라고 하지 마는, 따져서 말하면, 글씨를 소리의 대신이라고 할지 언정, 꼭이 소리의 보람은 아니이다. 소리를 내지 아니하여도, 직접 뜻을 알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안다.<sup>18)</sup>

여기서 정열모는 말은 ‘음성과 글자(문자)를 보람(징표)로 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소리말’과 ‘글씨말’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어와 구어가 입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실현되면 소리말(음성언어)이고, 글자로 구현되면 글씨말(문자언어)로 보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글씨(문자)를 소리의 징표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소리의 시각적 기호, 문자는 소리의 징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언술의 함의는 소리와 글씨 모두 말의 형식들이기 때문에 정열모는 그 두 요소로 언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의미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언급을 통해서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소리의 알음(지각)이 생긴다. 그 알음이 꼬들린(把持) 것을 소리의 맘표(心象)이라고 한다. 이 맘표는, 여느때는 가마니 있다가도, 같은 소리를 듣거나, 무슨 다른 질림으로 말미암거나 하여 다시 이르켜 진다. 그리하여 그 맘표에 어느 뜻이 잡아매여 있으면, 이것을 말의 맘표 이라 한다. 우리는 맘가운데 막연한 생각(뜻)만 생길 적도 있지 마는 분명한 생각(뜻)은 반드시 말의 맘표와 함께 생긴다. 이를테면 꽃은 보고 “꽃”이라는 생각이 생긴 때는 “꽃”이라는 말의 맘표가 이르켜진다. 이 이르켜 진 말의 맘표는 말의 주관적 요소이기는

18)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1946, 4쪽.

하나 아직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관적 말이라고 한다.<sup>19)</sup>

그는 언어의 본질, 말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소리의 mam표(心象)를 제기하였다.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앎(지각)’이라고 하였다. 그 지각이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작용, 혹은 경험에 의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가 때때로 재현하는 작용’이 이루어진 것을 mam표(심상)이라고 했다. 이 mam표는 그리고 주관적인 말로 규정했다. 주관적인 말이라는 표현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 mam표(심상)은 곧 정열모에게 ‘의미’에 해당한다. 그는 소리와 글씨만으로는 ‘의미’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어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朝鮮語文法論』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그의 언어관이다. “인류의 사상이 음성으로 나타난 것이니 인류사상의 음성적기호이라하여도 좋다”고 그가 ‘言語와 文字’ (1927)에서<sup>20)</sup> 남긴 언어의 범박한 정의와도 거리가 있다. 자연스럽게 그가 수용한 구조주의 개념론(conceptualism)과 맞닿아 있다. 심리주의 의미론의 시각에서 언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1927년 당시에는 이런 개념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없었으나, 그는 그의 문법학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시적 전제로 자신만의 언어관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학사에 이 경향을 보이는 입장은 구조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 이론과 오그덴-리차드(C.K Ogden & Richard)의 의미 삼각형 이론인 바, 이 두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두 이론은 1916년, 1923년에 각각 등장했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로 되어 있다고 했다. 앞것이 소리영상이고 뒤것이 개념으로서 의미이다. 그리고 언어란 이 둘이 합쳐져서 양면성을 가진 심리적 실체물이다. 이 이원성에 의미적 실체인 대응물(referent)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의미의 삼각형이 된다. 정열모의 시각은 두 언어학자의 개념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열모에게 개념(copcept, thought of referrence)은 곧 mam표(심상)이다.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가장 편리하고 또 거의 완전한 방법은, 생각과 잡아매인 소리의 mam표-주관적인 말-를 전함에 있다. 소리의 mam표를 남에게 전함에는 mam표 그대로로는 아니된다. 이것을 입 밖에 소리로 내서, 이것으로, 상대한 사람의 맘 속에 있는 소리의 mam표를 이르켜, 상대한 사람의 맘에, 내 맘 가운데 있는 주관적 말과 같은 주관적인 말을 생기게 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다. (중략) 글씨는 결코 소리의 보

19)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1946, 4~5쪽.

20) 鄭烈模, “語와 文字” 동인지 『한글』 1-4.

람이 아니다. 소리의 보람 일 것 같으면 소리를 내어 보지 아니하고는 의미를 모를 것이다. 소리를 내지 아니하여도 의미를 아는 것은 소리의 보람이 아니라, 소리의 발표의 보람인 까닭이다.<sup>21)</sup>

그는 문법서를 서술했으나, 그 개별 문법의 완성을 위해 언어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은 의의미론적이어서 이채롭다. 언어 자체의 정의는 물론이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생각과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발표(심상)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글씨(문자)를 소리의 보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문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이 형성되는 것은 소리의 발표, 즉 심상(의미)의 형식으로 본 것으로 그가 일본 문법을 통해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해방 이후에 정열모의 문체는 한글전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표기 의식이 자신의 텍스트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해방 전에 저술한 『현대조선어문예독본』은 『한글문예독본』으로 탈바꿈했다. 그에게서 한글은 단순하게 글자 한글을 넘어서는 당시의 사회적 언어, 랑그로서 조선어에 대응하는 용어였다.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의 언어 의식 전환을 시사한다. 한자 폐지를 반대한 국어문화보급회와는 결이 달랐던 정열모는 한글문화보급회의 회장으로 몸소 한자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이었고, 그는 일반언어학적 언어관의 철학과 실천적 한글 전용의 표기 의식을 두루 갖춘 언어학자로 거듭났다.

“남이야 어찌 보든지 우리 자신으로서 자주독립의 완전한 표상으로 이 기회에 기어코 국문과 국자만 순용하도록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결코 배타주의에 서가 아니라 자주주의에서 올시다. 혹 이것을 국수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제 것으로 제 살림을 하자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인가요?”<sup>22)</sup>

결국 언어관과 표기 의식에 대한 그의 시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백수는 어문민족주의의 시각과 일반언어학의 과학적 언어학의 관점을 모두 간직한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기법을 중심으로 조선어에 대한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문법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언어학으로서 조선어 연구, 문법학을 바라본 학자였다. 언어에 대한 언어민족주의와 과학적 언어학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준식(2013)이 거론한 언어민족주의와 과학적 언어학의 불안한 동거라는 논의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백수 정열모는 그 대립에서 자유로운 연구자였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으로서 언어학을 견지하면서도 어문민족주의적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21)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1946, 5쪽.

22) 정열모, 「한자폐지에 대하여」, 『大潮』 1-2, 1946, 127~128쪽.

보아야 한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해방 공간에서 마르크스 언어학과 실증적 언어학의 두 갈래로 갈리고 전자 계열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까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언어학과 어문민족주의적 태도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정열모는 민족주의 어문학자 이극로, 주경학파의 김두봉, 유학파로 실증주의 언어학자에서 마르크스 언어학자로 면모한 김수경, 유응호 등의 월북에 영향을 받아 그 역시도 같은 길을 간 것은 아닐까?

## 2. 백수 정열모의 국(어)학적 연구와 성과

정열모의 학문적 업적과 성과를 국어학에만 한정할 수 없다. 그의 이력과 활동을 통해서 그시기를 위에서 구분해 본 결과 그의 업적은 국학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단순하게 국어학적 성과만으로는 정열모의 일면만을 볼 수밖에 이 장에서는 각 시기별 그의 업적을 일람하고 국어학자 정열모가 아닌 질곡의 시대를 관통한 국학자 정열모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기영(2003)에서 이미 목록화한 그의 다양한 업적과 성과를 시기와 내용에 따라 다시 정리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관심과 지향은 국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열모는 자신이 국학전문학교 초대 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음은 논설로 자신의 국학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민족정신은 그 대부분이 언어를 통하여 발로되는 것이요 그 정신 발노의 전통적 역사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학이라 하면 얼른 국어 국사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지마는 실상은 국어 국사는 국학연구의 기초가 되고 입문이 되는 것이지 국어 국사 연구가 국학의 전체는 아니다. 정치·문학·공예 심지어 의복 음식까지 모두 민족사사의 발노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국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학 연구하는 것은 다만 옛 것을 찾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옛 것을 알아서 새 길을 찾고 아름다이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sup>23)</sup>

### 2.1. 교육자, 문학가로 학문을 시작하다

그는 국어학,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글과 논문, 저서 등을 남겼다. 그가 남긴 단행본도 국학 전반의 저술이었다. 그의 첫 번째 단행본 저술은 국어학이 아닌 ‘번역 동화’인 『바이올린 天才』(1928)이었다.<sup>24)</sup> 최기영(2003)에서 정열모를 아

23) 정열모, 「국학이란 무엇인가」, 『國學』 1, 1946, 3쪽.

동문학가로 소개하고 그의 작품을 평가한 것은 이 번역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행본은 아니었지만, 다른 번역 소설 『薔薇』, 『貧民回歸』도 동인지 한글에 1927년부터 1928년까지 연재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단행본 저술은 아니나, 1918년 기록상 나타나는 그의 최초의 글 역시 국어학이 아닌, 문학 작품 시조 3수였다. 『靑春』이라는 잡지에 ‘秋色, 萍況, 偶咏’이라는 제목의 시조를 남겼다. 특히 이 시조들은 그가 평안북도 자성과 의주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남긴 작품들이었다. 그 이후에 그는 시조와 시를 1926년까지 『시대일보』와 『매일신보』에 10편 정도를 발표하였다. 그의 본격적인 저술 이전에 그는 문학가이기도 했다. 동시와 동요 역시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잡지 『新少年』에 20여 편을 남겼다. 최기영(2003)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그를 국어학자 이전에 1920년대 대표적인 아동문학가로 평가할 것이라고 봤다.<sup>25)</sup> 이 시기까지 정열모의 저술과 연구는 교육자이자 (아동) 문학가의 면모와 대체로 일치한다.

## 2.2. 민족주의자로 과학적 언어학, 국어학의 길을 걷다

앞에서 정열모의 언어 및 표기 의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쏟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현대조선어문예독본』(1929)를 통한 한글 교육의 일환이었다. 『현대조선어문예독본』(1929) 표지 다음에는 “少年期에서 靑春期로 올라가는 모든 절문이와 밋 그네를 子女로 거나리느신 滿天下 父兄에게 드리는 맘의 선물”이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 독본의 성격을 정열모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독본 학습자인 아동과 청소년, 심지어 그 부모까지 관심을 두고 이 책을 보라는 의미이다. 이 독본을 통한 그의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一, 本書는 모든 中等程度學校生徒의 自學自習으로 因한 讀書力을 養成하기 爲하여 平易한 文字로된 趣味記事를 만히 取하되, 材料는 될수있는데까지 多方面에서 求하엿노라. 그리고 學年이 나아감을 駢아 各各 內容을 다르게 하엿스니 第一卷에서는 童心을, 第二卷에서는 自然鑑賞을, 第三卷에서는 人文을, 第四, 五卷에서는 文藝와 思想을 中心으로 하엿노라.<sup>26)</sup>

이 저술 자체는 말 그대로 문예독본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강진호(2022)에서는 총독부 간행의 독본은 문장을 단순하게 나열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24) 이 작품은 『新少年』 잡지에서 1925년 7월호~1929년 9월호까지 11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1930년에는 『愛國者』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25) 최기영(2003:478) 참조.

26) 烈模, 凡例, 『現代朝鮮文藝讀本』, 殊芳閣, 1929.4.2.

한계를 문예문을 통해서 대체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은 정열모의 민족주의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글 보급 운동,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간행된 이 독본 그를 본격적인 어문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저술이다. 범례에 드러난 대로 2권부터 5권은 실제로 간행되지는 못하고 해방 후 1946년에 『한글문예독본 첫권』, 『한글문예독본 담권』(신흥국어연구회)으로 간행되었다. 첫권은 『현대조선어문예독본』(1929)의 수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자로서 언어 실천 운동을 펼친 그였지만, 그것에만 만족할 수 없는 문법 지식을 체득하고 있었던 정열모는 『朝鮮語文法論』을 동인지 『한글』에 1927년부터 1928년까지 연재했다. 이 저술은 그를 국어학자로 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봉(2016)에서는 그의 이 저술을 세 가지 면에서 국어학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문법학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규정했다는 점, 문법학의 전체 체계와 관련하여 문법 단위를 정의했다는 점, 문법학의 분과를 나누면서 문법학을 체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국어학 논설, 논문 등은 잡지 『新民』을<sup>27)</sup> 통해서 지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주목할 것은 동인지 성격으로 1927년 창간된 『한글』에서<sup>28)</sup> 1928년 9호까지 매호 논문을 게재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자신의 국어학적 역량을 드러냈다. 연재한 『朝鮮語文法論』 논문 말고도 그는 는 훈민정음, 언어와 문자, 국어와 방언 관련 논설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국어학 관련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참고한 견해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연구자의 양심적인 학문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나는 이 一文을 朝鮮語學概要이라 한 論文의 序說로 쓴 것이다. 以下 各號에 서 本論의 各 部分에 對한 意見을 쓰려하거니와 이 論文을 써 감에 恩師 安藤氏 意見을 多數히 參酌함이 있음을 특별히 말하여 둔다. <sup>29)</sup>

동인지 『한글』에서만 아니라 나중에 창간된 조선어학회 학회지 『한글』에서도 대명사, ‘아니’ 부정 부사의 ‘格位’에 대한 국어학 논문도 1935년까지 발표하였다. 학술 잡지 말고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광』, 『별건곤』 등에도 학술적 논문은 아니나, 철자법, 방언 관련 국어학 논설 등을 남기면서 대중적 글쓰기 활동도 병행하였다. 또한 국어학자를 넘어 국학자로서 면모를 보인 정열모는 동인지 『한글』에서는 번역 소설, 『조선일보』와 잡지 『新少年』, 『朝光』 등에서는

27) 鄭烈模(1926), “正音頒布八回甲을 當하여,” 『新民』 13.

28) 鄭烈模(1927), “聲音音學上으로 본 正音.” 동인지 『한글』 창간호.

29) 鄭烈模(1927), “朝鮮語研究의 正體는 무엇?, (동인지) 『한글』 1-2/3.

수필, 동시 등의 작품을 1930년까지 남겨서 대중들의 교양 교육에 힘을 썼다.

그리고 그의 어문민족주의적 태도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명되었다. 김천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일제 말기에 교육행정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에게 국어학 연구 등은 잠시 유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과학적 언어학에 입각한 조선어 연구의 결과물로서 문법론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문법 체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된 셈이다. 교육행정가로서 학교 현장에 있었던 그는 불의의 사건으로 일제말기에 힘겨운 삶을 보냈지만, 그 기간이 그의 문법학이 구축되는 숙의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의 저서 『신편고등국어문법』의 ‘머리에 두는 말’에 따르면 그 시기를 스스로 ‘밭 갈고 나무하는’ 생활로 회고했다<sup>30)</sup>.

### 2.3. 새로운 계열의 문법학자의 탄생

정열모는 일본 유학 과정에서 일본 문법학의 한 경향을 받아들였다. 이미 정열모의 『朝鮮語文法論』(1927~1928)에서 그 대강의 면모가 드러났고, 해방 후 『신편고등국어문법』으로 완성되었다. 이 문법학의 경향은 주시경과 최현배와 다른 것이었다. 특히 조사와 어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는데 정열모는 일본의 마츠시다(松下大三郎 1930)을<sup>31)</sup> 수용하면서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았다. 김민수(1980:296)에서는 정열모의 문법을 제1, 2유형과는 제3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관점은 분단 이후 북쪽 문법 체계 수립의 근간이 되었다. 정열모는 『신편고등국어문법』의 머리에 두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이십년전에 서울 중등학교에 재직할 때 생도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책임을 가져 한편으로는 문예복본의 재료를 모으고, 한편으로는 문법교재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일본 국학원대학 교수 마쓰시다씨의 표준일본문법이란 책을 읽어, 그때까지 내가 가진 문법상 의견과 부합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성스러이 읽어 얻은 바가 많았으니, 이 책은 조직은 전적으로 그를 모방한 것이다. (중략) 나의 국어연구 벽은 한힌샘스승으로 말미암아 찢어 트고 히뭇 김두봉님으로 말미암아 뼈가 썩고 주산 신명균님으로 말미암아 살이 붙었다고 스스로 믿는 바인데, 내가

30) “일찍이 주산 신명균님과 말본책 함께짓기를 약속하였었는데 그님이 뜻밖에 구끼고 그 후 세상이 이롭지 못하고 내몸이 또한 한가롭지 못하여 다시 생의도 아니하였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감옥에 가치었을 때 다행이 생각이 전일 할 수 있으므로 옛기억을 일으켜 안을 세웠다가 놓여 나와서 밭갈고 나무하는 여가에 생각을 점점 정돈하여 오던 중, 해방 후 바쁜 틈을 타서 책으로 만들게 된 것인데...(하략)”.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머리에 두는 말, 1946, 한글문화사.

31) 마츠시다의 『標準日本文法』의 초판은 1924년이고 개정판은 1928년에, 그것을 수정한 정정판은 1930년에 출간되었다. 김민수(1989)에서는 백수가 1930년 정정판을 참고하여 집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와 같은 새 안을 새운 것은 선배의 지은 길에 배반함이 아니라, 선배의 뜻을 받아 새길을 열고자 함이니 헛되이 새것을 지어 남의 시비를 사자는 것이 아니요, 한생각, 한군대로 치우치기 쉬운 학파의 누습을 깨트려 연구는 자유로이 할것이란 암시를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sup>32)</sup>

김민수(1989)는 1927년의 『朝鮮語文法論』에서 비롯된 이 책에서는 『朝鮮語文法論』과는 달리 성음학을 제외한 것이었다. 진정한 문법학의 저술인 셈이다. 마츠시다 문법의 차용에 불과하고 용어 자체의 혼란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신편고등국어문법』은 마츠시다의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형태소 수준의 ‘낱뜻’, 최소자립형식으로 정의한 단어 수준의 ‘감말’의 규정한 것, 단어 단위를 기준으로 5품사(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를 수용하여 조선어에 적용한 것은 1유형과 2유형과는 다른 견해였다.

조사를 품사로 설정하지 않고 활용과 마찬가지로 격(빛)으로 본 것도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조사를 포함한 토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로 보려했던 것이고 결국은 북한 문법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 앞에서 본 그의 구조주의적 언어관과도 연관되어 있다. 고영근(1985)에서는 『신편고등국어문법』에 대한 서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열모는 형식보다는 의미를 존중하는 서술방식을 많이 택함으로써 오늘날 생 의미론과 화용론에 바탕을 둔 문법연구와 접맥시킬 수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이전 문법서의 規範文法적 성격을 탈피하여 科學文法의 수립을 부르짖고 音聲論을 문법체계에서 제외한 것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저자의 문법관은 1927년 「한글」(동인지)에서 발표한 “朝鮮語文法論”에 어느 정도 굳어 있었다.”<sup>33)</sup>

정열모의 『신편고등국어문법』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었다. 김민수(1980)을 필두로 여찬영(1981), 강복수(1982), 고영근(1983, 1985), 이광정(1987), 김민수(1989) 등은 북을 선택한 문법학자 정열모의 문법론을 다루기 어려운 시기에 그에 대한 학적 평가를 이룬 1980년대의 연구 성과들이다. 90년대에는 정기호(1992), 정기호(1991), 정기호(1996)을 통해서 한 연구자가 정열모 문법의 윤곽, 말본 전체의 연구, 일본 마츠시다 문법과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영목(1999)는 정열모 문법의 통사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박혜진(2002)의 석사학위 논문, 이정택(2006)에서는 조사 중심으로 주시경, 최현배 문법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규수

32)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머리에 두는 말, 1946, 한글문화사.

33) 고영근(1985), 정열모, 「신편고등문법」 해설, 『역대문법대계』 제1부 제25책.

(2008) 등이 역시 정열모 문법을 개괄적으로 탐색했다.

일본 문법의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나이키 토시오(2010)는 석사논문을 통해서 마츠시다 『표준일본문법』과의 대조를 바탕으로 정열모 문법이 마츠시다 문법을 차용한 정도에 따라서 계량화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오오이 히데아키(2017)는 20세기초 한국어 문법 형성사라는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일본 문법과의 관계분석을 논하면서 정열모 문법을 다루었다.

## 2.4. 다시 조선어학의 통시와 공시를 넘나들다

월북한 정열모의 국어학 연구는 다시 다양한 분야로 전개된다. 국어학 연구 방향은 크게 문법론과 국어사, 그리고 주시경에 대한 회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북을 선택한 그가 남긴 논저, 논문과 논설 등은 20여 편 정도가 최기영(2003)에서 파악되었다. 아래 목록은 1950년 이후 정열모의 국어학 연구 목록에서 빠진 15편 정도의 저서와 논문 등을 추가한 것들이다.

정열모, 송서룡, 조선어문법(2), 과학원출판사, 1963<sup>34)</sup>

고전독해에서 주체성을 살리자-향가의 처용가를 중심으로, 『조선어문』, 1959년 3호.  
부성분의 바로쓰기, 『말과 글』, 1959년 11호.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조선어는 더럽혀지고 있다. 『말과 글』, 1960년 8월호.  
24절기, 『말과 글』, 1962년 8호.

언문 변증설, 『조선어학』, 1963년 1호.

조선어품사분류의 원칙, 『조선어학』, 1964년 1호.

통합관계와 문장의 종류. 『조선어학』, 1964년 1호.

어원풀이 『마늘』과 『버선』, 『말과 글』, 1964년 5호.

어원풀이, 『말과 글』, 1964년 7호.

올해에는 조선말구조의 특성을 밝혀보겠다, 『말과 글』, 1965년 1호.

조선어문장론에서 제기된 주어와 술어의 문제, 『조선어학』, 1965년 4호.

조선말에서 토의 발달이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 『어문연구』, 1966년 4호.

추가로 제시한 위의 연구 저술 중에서 문법서 한 종이 눈에 띈다. 송서룡과 함께 저술한 정열모의 유일한 공저 문법서이다. 그 실체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북한 문법학사의 흐름에서 보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상준(1947, 1948), 조선어문연구회(1949)의 ‘조선어문법’과 “조선어문법(1),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0년”이 목록에서 확인되는 바, 그 후속 문법서로 추정

34) “조선어문법(1),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0년”이 이미 출간된 바 있다.

된다.<sup>35)</sup> 다소 특이한 것은 1947년에 출간된 박상준의 『조선어문법』(1947년 초판, 1948년 재판)은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1945.8-1995.8)<sup>36)</sup>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정열모의 『신편고등문법』(1946)은 그 목록에서 빠져 있다. 1950년 이후에 월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중에서 “조선어품사분류의 원칙, 『조선어학』 1964년 1호”에서는 품사 분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로 그의 3유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말은 체언, 용언, 관형사, 부사(개념적표현의 품사)와 감동사(비개념적표현의 품사)다섯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본적인 분류의 토대우에서 문법현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가할 필요에 의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품사 분류 원칙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그의 분류 원칙이 북의 규범문법의 토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체언 속에 명사, 대명사, 수사, 사를 하위 분류하고 있고, 용언에서는 동사, 형용사를 하위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존재사’도 거론하고 있는 것 역시 이채롭다. 『신편고등국어문법』의 품사 분류 체계가 계승된 것이었다.

정열모는 북으로 간 후 공시 국어학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어사로 대표되는 통시 국어학에 집중한 흔적도 발견된다. 단행본으로 『국어문법: 인민학교 제2학년용』(1957, 교육도서출판사), 『국어문법: 인민학교 제3학년용』(1957, 교육도서출판사)를 간행했으며, 『신라향가주해』(1954, 국립출판사), 『향가연구』(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조선어 고어 역사』(1965, 고등교육도서출판사)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저 『조선어문법(2)』(1963, 과학원출판사)를 포함하면 6권을 집필한 것이다. 이 중에서 향가 연구에 대한 그의 연구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는 류렬, 홍기문과는 달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Ⅲ. 마무리

이상으로 백수 정열모의 생애, 그리고 그의 언어관과 국(어)학적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를 4기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의 활동을 그의 이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는 1기에 교육자와 문학가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주시경의 문하생으로 그 활동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자연스럽게 어문민족주의자의 단초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일본 유학 이후 다른 한편으로 국어학자의 면모를 갖춘 백수는 과학적 언어학으로 국어학을 인식하면서 그 자신만의 문

35) 1960년대에는 바로 그 다음 해인 1964년 김수경, 렬중률, 김백련, 송서룡, 김영환의 공저로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가 간행된 바가 있다.

36) 김영환·권승모 편,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1945.8-1995.8),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1996.

법 구상의 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시대의 지식인이 언어 실천가와 언어 연구자의 두 길을 걸어간 것은 당대 지식인의 필연이었으나, 그는 몇몇 연구자들과 그 선두에 있었다.

그는 또한 정열모의 언어 의식을 그의 논설과 논문, 그리고 문법서의 서문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았다. 특히 해방 후에는 그의 문법서 총론에서 드러난 그의 구조주의적 언어 철학은 그 영향이 일본 문법에 힘입은 바가 크더라도 제3의 문법학을 수립해 간 그의 언어 의식의 총체이다. 이 시대에 좌우 대립의 혼란한 정국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그가 북을 선택한 후에는 향가 등의 국어사 연구의 업적을 남김으로써 공시 국어학과 통시 국어학을 두루 섭렵한 그의 학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를 조망하면서 국어학자 정열모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문학에도 관심과 열정이 깊었던 국학자의 면모도 살펴보게 되었다.

언어정책은 국가가 주도할 수 있으나,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언어 계획은 민간단체와 그 구서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열모는 조선어학회의 회원으로 일찍이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언어 계획과 그 실천 운동을 함께 한 어문민족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는 언어학을 과학적이고 독립된 학문적 영역으로 이끈 구조주의 언어학을 수용하고 평생 자신만의 문법학을 수립한 언어학자이자 국어학자의 길을 걸었다. 시대의 질곡 속에서 사회주의자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갈망이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민족어 확립에 자신의 몸을 던진 국어학자이자 국학자의 소임을 다한 지식인임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간노 히로오미(1998), “북한의 문법학의 계보와 소련언어학과의 관계(1945~1990)”, 『동방학지』 98.
- 강복수(1982), 『국어문법사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 강영주(2013), “국학자 홍기문 연구4: 해방 직후 홍기문의 활동”, 『역사비평』 102.
- 강진호(2022), “문예독본과 한글 문장의 정리와 보급-정열모의 『현대조선문예독본』(1929)”, 『현대소설연구』 제86호.
- 고영근(1983/1990), 『국어 문법의 연구-그 어제와 오늘-』, 서울: 탑출판사.
- 고영근(1985), “정열모, 「신편고등문법」 해설”, 『역대문법대계』 제1부 제25책, 탑출판사.
- 고영근(2001), 『한국어 언어연구』, 역락.
-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2022). 『독립을 향한 집념(고하 송진우 일대기)』, 재단법인 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 나이키 토시오(2010), 「백수 정열모 선생의 『신편고등국어문법』 연구 : 마쓰시다 『표준 일본문법』과의 대조를 바탕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김민수(1980), 『신국어학사』, 일조각.
- 김민수(1989), “정열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주시경학보」 4.
-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병제(1960), “해방 후 15년 동안 조선 언어학의 발전”, 「조선어문」 4월호.
-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서울: 정음문화사.
- 김영환(1996), 『조선언어학사 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영환, 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 김윤경(1938/1946), 『조선문자급어학사』, 진학출판협회.
- 김진형(1999), “서평: 정열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형태론」 1-1, 박이정.
- 민지원(2022), “정열모의 「아니」의 格位는 무엇?의 국어학사적 의의”, <어문논총> 40,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 박용규(2012),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한글학회.
- 박용규(2014), 『조선어학회 33인』, 역사공간.
- 박혜진(2002). 「신편고등문법의 통사론의 특성」,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 서민정 외(2009), 『주변의 탐색 : 북한 국어학과 국어학자』, 박이정.
- 여찬영(1981), “백수 문법에 대하여(1)” 금포 조규설 교수 회갑기념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 유창균(1993), 『국어학사』, 대구: 형설출판사.
- 오오이 히데아키(2017), 「20세기초 한국어 문법 형성사 연구 : 일본 문법과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목상(1993), “백수 정열모 선생”,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
- 이광정(1987), 「국어 품사 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이광정(2008), 『국어문법연구3 : 한국어 품사 연구』, 역락.
-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집, 민족어문학회.
- 이상혁(2011),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 39집, 우리어문학회.
- 이상혁(2016), “홍기문의 훈민정음 번역과 국어학사의 한 경향”, 「한국어학」 73, 한국어학회.
- 이상혁(2018), “북한의 훈민정음 연구 성과와 전망-해방 직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JKC)」 40.
- 이익환(198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이정택(2006), “주시경, 최현배, 정열모의 조사 체계 비교”,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 이준식(2013), “해방 후 국어학계의 분열과 대립— 언어민족주의와 ‘과학적’ 언어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준식(2014), “분단 시대의 앓의 체제, 그 너머 : 지식인의 월북과 남북 국어학계의 재편: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8.

- 이현희(1982). “조선어학회의 국학 진흥 운동”, 『나라사랑』 제42집.
- 이현희(1992).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어학연구』 28-3, 657~685쪽.
- 아타가키 유타(2020),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하여 :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저항하여, 『역사비평』 132.
- 임경화·고영진 율김(2013),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미쓰이 다카시 지음)』, 연세근대한국학총서 88, 소명출판.
- 양근용(2010), 「근대국어학 형성기 언어의식 연구」, 인천대 박사학위 논문.
- 정광(1999), “구소련의 언어학과 초기 북한의 언어 연구”, 『언어정보』 2,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 정기호(1991), “정렬모 말본의 윤곽”, 『동남어문논집』 1, 동남어문학회.
- 정기호(1992), 「정렬모 말본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 논문.
- 정기호(1996), “정렬모 말본과 마쓰시다 말본의 비교”, 우전 김형주 선생 회갑기념 논총.
- 정순기·정용호(2000), 『조선어학회와 그 활동』,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출판사.
- 정인승(1982), “민족사로 본 조선어학회 사건”, 『나라사랑』 제42집.
- 정재환(2013), 『한글의 시대를 열다-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경인문화사.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최경봉 외(2007),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채록 자료), 2007.
- 최경봉(2009), “김수경의 국어학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 최경봉(2011), “2011년 동송학술재단이 선정한 언어학자, 정렬모”, 동송학술재단자료집.
- 최경봉(2012), “국어학사에서 유응호의 위상과 계보”,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 최경봉(2012), “조선어학사의 수난과 현대 한국어의 발전”,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행사 발표 자료집』, 국립국어원.
-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 최경봉(2020), 박승빈 문법의 계보와 국어학적 위상, 『한국어학』 89, 한국어학회.
- 최규수(2005), 『주시경 문법론과 그 뒤의 연구들』, 박이정.
- 최규수(2008), “정렬모 문법론의 특징”, 『한글』 281.
- 최기영(2003), “백수 정렬모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나라사랑』 103.
- 최호철(2002), “자료 발굴과 소개 :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한국어학』 17, 한국어학회.
-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 한영목(1999), “정렬모 문법의 통사론 연구”, 『어문연구』 31, 어문연구학회.
- 板垣竜太(2021), 北に渡った言語學者 金壽卿(1918~2000), 人文書館.



## 제2부 주제 발표

해방 후, 조선어학회 한글운동의 원천이 된 조선어학회 사건/ 정재환

사이스 표기의 이모저모/ 리의도

다시 찾는 어학자 권영달의 학문과 생애/ 고영근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2부 주제 발표

## 해방 후, 조선어학회 한글운동의 원천이 된 조선어학회 사건

정재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mcstory@daum.net

### 1. 서론

1942년 10월 1일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의 동화정책에 맞서 사전 편찬, 조선어의 근대적 정리와 통일 등 어문운동을 전개하던 조선어학회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은 사건이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사건의 전모, 언어 독립운동이라는 학회 어문운동의 성격과 의미 등이 규명되었다.

김상필(1982), 김계곤(1996) 등에서는 김운경, 이희승, 최현배, 이병기, 정인승, 이인 등 사건 관련 기록에서 달리 기술되어 혼란스러웠던 사건의 전모를 규명·정리했고, 김구진(1982)은 학회의 어문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김석득(2006)은 일제의 식민언어관과 조선의 민족주의언어관이 충돌한 사건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정승교(2006)에서는 사건이 민족 말살을 기도한 일제 동화정책의 파탄의 증거라 지적했다. 법학자 정공식(2006, 2017)은 검경 수사와 재판의 불법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치안유지법으로 심판한 일제의 판결이 역설적으로 학회에 독립운동 단체라는 영예를 선사했다고 평가했다.<sup>1)</sup>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대어 사건의 전모를 간단히 기술하고, 재판에 넘겨

진 사건 피고인들의 대응 전략을 변론하면서, ‘민족어 수호’라는 학회 어문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완결된 학회의 언어 독립운동이라는 민족 서사가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해방 공간에서 펼친 학회의 한글운동이 성과를 내는 결정적 동력이자 밑거름, 원천이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조선어학회 어문운동은 독립운동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함흥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문구였다. 1942년 3월 홍원 전진역에서 불심검문에 걸린 박병엽에 대한 가택수사에서 일기장을 입수한 홍원경찰서는 같은 해 8월, 국어 상용(일본어 상용)이 강요되던 학교에서 ‘국어’를 쓴 학생을 야단친 불온한 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취조 과정에서 박영희는 해당 문구에 대해 ‘조선어라고 쓸 것을 국어라고 잘못 적었다’라고 진술했고, 이는 총독부 시책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홍원경찰서는 포기하지 않고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끔’ 민족정신을 불어넣은 불순한 교사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그 결과 영생여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던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원 정태진이 참고인 신분으로 9월 5일 홍원경찰서에 출두했는데, 일경은 정태진에게 고문을 가해 ‘조선어학회는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이며, 조선어 연구나 사전 편찬의 목적은 배달민족의 얼을 살려 조선 독립의 터전을 삼으려는 데 있다’라는 억지 자백을 받아내었고, 조선어학회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섰다.<sup>2)</sup>

1) 김상필, 「조선어 학회 수난 사건의 전모」, 『나라사랑』 42호, 외솔회, 1982 ; 김구진,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해 본 민족 문화 운동」, 『나라사랑』 42, 외솔회, 1982 ; 김계곤, 「조선어학회 수난의 전말」, 『한힌샘 주 시경 연구』 9, 한글학회, 1996 ; 박영신, 「조선어학회가 겪은 ‘수난’ 사건의 역사·사회학-학회 조직의 성격과 행위 구조」,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2 ;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10 ; 정승교, 「일제는 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나? - 기만적 동화정책의 파탄」,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 정공식,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2) 김상필, 「조선어 학회 수난 사건의 전모」, 『나라사랑』 42호, 외솔회, 1982, 75~85쪽 ; 훗날 박영희는 당시 교실 벽면에 걸린 ‘국어 상용’이란 표어를 누군가가 거꾸로 뒤집어 걸어 놓았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모두를 호되게 꾸짖었던 것인데, 그날 밤 다소 감상적인 마음이 되어 일기를 썼다고 말했다. (김계곤, 「조선어 학회 수난의 전말」, 『한힌샘 주 시경 연구』 9, 한글학회, 1996, 131~132쪽.)

10월 1일, 정인승, 이중화, 장지영, 이극로, 최현배, 한징, 이운재, 이희승, 김윤경, 권승욱, 이석린 등이 검거되었고, 1943년 4월까지 신병으로 구속을 면한 권덕규와 안호상을 제외하고, 이우식 김법린, 정열모, 이병기, 이만규, 이강래, 김선기 등 31인을 검거했으며, 백낙준, 곽상훈, 방종현, 정세권, 김두백, 민영옥, 임혁규 등 관련자들도 구인되어 곤욕을 치렀다.<sup>3)</sup>

구속(31인)	불구속(2인)
권승욱, 김도연, 김법린, 김선기, 김양수, 김윤경, 김종철, 서민호, 서승효, 신윤국, 안재홍, 안호상, 윤병호, 이강래, 이극로, 이만규, 이병기, 이석린, 이우식, 이운재, 이은상, 이인, 이중화, 이희승, 장지영, 장현식, 정열모, 정인섭, 정인승, 정태진, 최현배, 한징	권덕규, 안호상

(조선어학회 사건 33인)

홍원경찰서는 학회 관련자들에게 고문을 가해 원하는 자백을 얻어냈지만, 기소하기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물증도 없어 입건은 어려웠다. 하지만 총독부로부터 위험 분자는 모두 검거하여 처벌하라는 예비검속령이 내려오자, 학회를 엄중 조치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하고는 폭언, 협박, 폭력, 고문 등을 동원해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몰아갔다.<sup>4)</sup>

1943년 3월 15일경 경찰은 이극로 등 24명을 기소, 권승욱, 김종철, 서승효, 신윤국(신윤모), 윤병호, 이석린 등 6명을 기소유예, 권덕규와 안호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중지를 요구했다. 1943년 9월 초 아오야기 고로(靑柳五朗) 검사의 취조가 시작되었고, 1943년 9월 18일, 검사는 김도연, 김법린 등 12명을 기소유예 처리하고, 이극로, 최현배를 비롯한 16명은 기소하여, 예심에 회부했다.<sup>5)</sup>

1944년 2월부터 가을까지 진행된 예심에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서 내용은 고문 때문이었다고 진술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식적인 예심이 끝난 것은 1944년 9월 30일이었다. 예심판사 나카노(中野虎雄)는 ‘조선어학회가

3) 관계자들이 검거된 날짜와 인명은 자료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 회고자들이 기억에 의존한 탓도 있고, 양력과 음력을 구분 없이 기록한 탓도 있다 ; 한글학회,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1993, 246~247쪽 ;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2006.10, 29~30쪽.  
 4)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7~24쪽 ; 이석린, 「조선어학회 사건과 최현배 박사」, 『나라사랑』 1, 1971, 108쪽 ; 이극로, 『고투 40년』, 범우, 2008, 141쪽 ; 이희승, 『일석이희승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영사, 2001, 149쪽.  
 5)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62~64쪽 ; 최영희, 김호일 편저, 『애산 이인』, 애산학회, 1989, 184쪽 ;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05~106쪽.

경찰 기소	검찰 기소
김도연, 김법린, 김선기, 김양수, 김윤경, 서민호, 이강래, 이극로, 이병기, 이만규, 이우식, 이윤제, 이은상, 이인, 이중화, 이희승, 장지영, 장현식, 정열모, 정인섭, 정인승, 정태진, 최현배, 한징	김도연, 김법린, 김양수, 이극로, 이우식, 이윤재, 이인, 이중화, 이희승, 장지영, 장현식, 정열모, 정인승, 정태진, 최현배, 한징
24인	16인

(검정 수사와 기소자 명단)

10여 년간 해온 어문운동을 심모원력을 포함하는 점진적인 독립운동'으로 규정하여, 사망으로 기소가 소멸된 이윤재와 한징, 면소된 장지영과 정열모를 제외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태진, 김양수, 김도연, 이우식, 이중하, 김법린, 이인, 장현식, 정인승 등 12명을 원심에 회부했다.<sup>6)</sup>

정인승의 기억에 따르면,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주임 판사 니시다(西田勝吾)와 2인의 배심판사 주재로 9회에 걸쳐 공판이 열렸다.<sup>7)</sup> 변호사는 함흥의 한격만, 박원삼, 유태우 등 3인과 경성에서 온 일본인 나가시마(永島雄藏)였다. 변호인들은 1937년 발생한 수양동우회사건 재판에서 '간접 목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판례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피고인들도 '사전 편찬이 어떻게 독립운동인가?'라고 반문했지만,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등은 독립 목적 결사 조직, 목적 수행 행위 등으로 치안유지법 저촉, 이중화 김법린은 이에 가담한 죄, 이우식, 장현식, 김도연, 김양수, 이인 등 학회 후원자들은 행위 실행뿐만 아니라 목적 사항 실행을 협의하고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8~4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1945년 1월 16일 주임판사 니시다가 내린 최종 선고는 장현식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였다.<sup>8)</sup>

6)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24~125쪽 ; 장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역사와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346쪽 ; 이희승, 『일석이희승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영사, 2001, 154~155쪽 ; 최영희, 김호일 편저, 『애산 이인』, 애산학회, 1989, 186쪽 ;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65~67쪽.

7)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68~73쪽.

8) 김윤경, 「동우회 수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최영희, 김호일 편저, 『애산 이인』, 애산학회, 1989, 193~194쪽 ;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68~73쪽 ; 고등법원판결문을 검토한 김석득은 장현식에 대한 원심 판결을 '무죄'로 추정했고, 정공식 역시 '무죄'로 기술하고 있다. (정공식,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75쪽 /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2006.10, 38쪽.).

실형 5인	이극로	징역6년	최현배	징역4년
	이희승	징역3년6월	정인승	징역2년
	정태진	징역2년		
집행유예 6인	김도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법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양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우식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인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중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무죄 1인	장현식	무죄		

(1945년 1월 16일 원심 판결)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7인은 석방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은 5인 중 정태진은 4-5개월이면 만기 출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를 포기했지만, 1월 18일 네 사람은 고등법원에 상고했다. 검사 사카모토(坂本一朗) 역시 1월 21일,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장현식을 상고했다. 본디 재판은 삼심제가 원칙이었지만 1941년 반체제행위를 능률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개정된 신치안유지법에 의거해 복심 없이 고등법원으로 직행했다.<sup>9)</sup>

상고란 부당한 판결에 불복하거나 형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고를 함으로써 함흥을 벗어나고, 서울로 가면 가족들의 면회도 수월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7월 20일째가 되어서야 8월 12일에 재판을 연다는 통보가 왔지만, 변론은 서류로 제출해야 했고, 재판은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궤석재판으로 진행되어, 8월 13일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sup>10)</sup>

## 2.2. 조선어학회 변론에 대한 변론

피고인들은 검정 수사에서 협박과 고문 등에 의해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예심판사와 원심 재판정에 선 사건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했고, ‘학회 활동은 어디까지나 학술 활동’이라 항변했다. 하지만 예심판사 나카노는 ‘어문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했으며, 원심 재판부는 기소된 12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적용된 법조는 치안유지법 제1조와 제5조 위반이었다.<sup>11)</sup>

9)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68~73쪽 ; 이성구, 「치안유지법 개악과정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7,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983, 38-40쪽.

10)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08~109쪽.

11)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지도자 등”을, 제5조는 “위 결사의 목적을 수행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국체의 변혁’은 통치권자인 천황의 절대성에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재판 자료는 「예심종결결정문」과 원심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조선고등법원 소화 20년 형상(刑上) 제59호」이 남아 있으나, 원심 재판에 관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양쪽의 공방, 판결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한 정공식에 따르면, 예심의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판결이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다음은 예심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민족운동의 한 가지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도모하는 하나의 민족 운동인 동시에 가장 심모원려를 포함한 민족 독립 운동의 점진형태이다. (중략) 표면적으로는 문화운동의 가면 하에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단체로서 본 건 검거까지 십여 년의 긴 세월을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해서 조선어문운동을 전개하여 왔던 것으로 (중략) 다년에 걸쳐 편협한 민족 관념을 배양하고,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그 기도하는 바인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 신장에 기여한 바 뚜렷하다. (중략) 그 중에서도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과 같은 것은 광고(曠古)의 민족적 대사업으로 촉망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종결결정문. 1944. 9. 30.

판결문에 따르면, 사전 편찬을 비롯한 학회의 어문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통일·보급을 도모하는 민족운동의 한 형태이며, 심모원려를 포함한 독립 운동이며, 학회는 문화운동의 가면을 쓰고, 민족의식의 양양을 통해 독립을 위한 실력 신장에 기여했으며, 사전 편찬은 민족적 대사업이었다.

정공식(2006)은 조선어학회 사건을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단체 조직 및 활동 행위로 몰고 간 사법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고,<sup>14)</sup> 김석득(2006)은 ‘어문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예심 판결이 학회의 민족주의 언어관을 정확히 투사했으며, 학회의 어문운동은 말-글-얼의 철학 아래 민족 문화의 발전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평가했으며,<sup>15)</sup> 한인섭(2012) 또한 ‘학회 간부들이 내면으로부터 열망했던 것들을 정확히 간파한 예심 판결은 학회의 ‘어문운동을 민족운

---

을 피하는 행위는 일본의 통치권·영토권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10~111쪽.)

12)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은 심모원려한 민족독립운동이며, 방언의 표준어화·문자의 통일 보급은 조선독립 행위, 어문운동은 표면상 문화운동이나 이면은 비합법적 독립운동이며, 어휘의 채록과 주해는 조선독립의 목적에 따라 민족정신과 민족의식 고취와 양양이라는 관점에서 어휘 약 15만의 원고를 작성했다.-이상은 고등법원판결문에서 드러난 원심 판결 요지. (정공식,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88쪽.)

13) 나주정씨월헌공파중회, 『석인 정태진전집(상)』, 서경출판사, 1995, 606-607쪽.

14)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27쪽.

15)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2006.10, 33쪽.

동이자 독립운동'이라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sup>16)</sup>

말-글-얼의 철학은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언어사상관에 기반한 것인데, 이는 “영역인 땅은 독립의 터전이요, 겨레인 사람은 독립의 몸이요, 겨레의 말은 독립의 성(性)이다. 이 ‘성’이 없으면 몸이 있어도 몸이 아니요, 터전이 있어도 터전이 아니다. 국가의 흥하고 쇠함도 국가의 있고 없음도 모두가 말(성)이 있고 없음에 달렸다.”라고 한 주시경의 언어관과 일치한다.<sup>17)</sup>

흥미로운 점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성쇠는 민족 자체의 성쇠와 관련되는 것 → 약소민족은 필사적으로 이의 보존과 발전에 노력하고 방언의 표준어화, 문자의 통일 및 보급을 희구하며 →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약소민족에게 독립의욕을 낳게 하고’라며 학회를 심판한 예심 판결 역시 언어사상관을 바탕으로 한 판결이라는 것이다.<sup>18)</sup>

그런데 구속자들은 예심과 원심에서 ‘어문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순수한 학술운동’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학회의 활동을 단지 순수한 학술활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회가 사전편찬회를 조직할 때부터 독립의 염을 품었다는 사실은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와 당사자들이 남긴 기록이나 주변인들의 회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8년 주시경이 조직한 ‘국어연구학회’의 후신인 조선어학회가 식민지배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조선어의 정리와 통일, 조선어 사전 편찬, 한글강습, 기관지 『한글』 발행 등 어문운동을 전개했고,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 조직 당시 발표한 취지서를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의 발전을 꾀한 민족은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성과로서 사전을 편찬,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는데, 사전을 편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sup>19)</sup>

16)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601~602쪽.

17) 주시경: 국어문법 서, 1910. 김석득에서 재인용(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0, 21쪽.).

18)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종결결정문」. 1944. 9. 30.

19) 조선어학회, 『한글』 31, 1936.2, 7-8쪽. ;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263-264쪽. ; 취지서를 작성한 것은 발기인 중 1인인 이은상이었다. (국어연구소, 『국어생활』 3, 1985년 겨울, 11쪽.)

마이클 로빈슨(1979)이 지적했듯이, 3.1운동 실패 이후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략을 제시하거나 실천할 자유가 없었기에,<sup>20)</sup> 조선어 사전편찬회 역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사전을 만든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사전편찬회가 편찬 의도를 명쾌하게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유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취지서에 담긴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취지서에서 지칭한 ‘낙오된 조선 민족’은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조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어지는 ‘갱생의 첩경’에서 갱생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독립’을 뜻하며 첩경은 ‘지름길’을 의미하니, 이는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조선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지름길’을 뜻한다. 그리고 ‘독립의 지름길’은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해야 하는데, 최선의 방책이 사전 편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사전 편찬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취지서는 민족의 말과 글, 얼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어 학자들이 자신들의 무기들 들고 독립 운동에 나선다는 것을 선언한 출사표였으며, 이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기까지 10여 년간 줄기차게 펼친 학회의 어문 운동은, 사전 편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난제뿐만 아니라, 총독부의 감시와 통제, 억압에 저항하며 초지일관, 은근과 끈기, 불굴의 투지, 헌신과 희생으로 추진한 어문운동이자 조선 독립운동이었다.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주도한 이극로는 일찍이 언어 문제를 민족 문제의 중심으로 파악했다. 유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미국에서 만난 장덕수에게 ‘귀국 하면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고, 귀국 후 스스로 조선어연구회를 찾아가 회원이 되었으며, 민족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어문운동의 제일보로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했다.<sup>21)</sup>

1936년 4월부터 사전 편찬에 참여한 정인승 역시 우리 말글 살리기를 민족 문제의 중심으로 파악했다. 훗날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을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의 편찬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긴요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것도 일본이 우리의 말과 글을 말살해 버리기 전에 이루어 내야 할, 무엇보다 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술회했는데,<sup>22)</sup> ‘우리 말글이 말살되기 전에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시 사전 편찬원들이 공유했던 위기의식이자 사명감이었다.

20) 마이클 로빈슨, 「최 현배와 한국의 민족주의 언어·문화·국가 발전을 통하여」, 『나라사랑』 33, 외솔회, 1979. 9, 48~49쪽.

21) 조선일보, 1937. 1. 1, 「玉에서 티 골르기」; 이극로, 『고투 40년』, 범우, 2008, 111쪽.

22)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106쪽.

이윤재는 사전편찬실을 찾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글을 써 두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해 두면,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후세에 이것을 근거하여 제 글과 말을 찾아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라 했고,<sup>23)</sup> 한징은 “원고를 속히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큰사전을 하루빨리 활자화하여 얼른 세상에 퍼뜨려야지 까딱했다가는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왜놈들 하는 짓이 날로 수상해.”라고 말했다.<sup>24)</sup> 단편적인 증언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학회가 시종일관 독립의 염을 품고 사전 편찬에 전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정에 선 피고인들이 학술활동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처벌을 피하려 한 것은 사전 편찬이 현재진행형이었기 때문이다.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사전 첫째권의 출판 허가를 받은 것은 1940년 3월 12일이었고, 1942년 3월부터 사전 형태로의 편집과 조판 작업에 들어갔다. 1942년 9월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주해를 완료한 낱말이 약 16만, 미완료가 약 5천이었다.<sup>25)</sup> 우여곡절과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출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현행범이어서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끝냈다는 점’에서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편찬과 기관지 『한글』 발행 등 학회가 추진하고 있던 어문운동은 현재진행형이었고, 중단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조선어학회 사건 이전에도 학회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심했다. 정인승에 따르면, 거의 날마다 일인경찰들이 사전편찬실을 드나들었고, 회의를 하기도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sup>26)</sup> 정치 수완이 좋은 이극로가 친일거두와 경찰과 총독부에 대한 교섭을 맡았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왜놈 형사한테도 뇌물도 주었다. 이석린은 친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어떡하든지 국어의 사전을 완성해야 했다. 어떡하든지 우리말의 명줄을 이어야 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처럼 총독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학회는 총독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며, 학회의 모든 활동이 학술활동임을 대외에 표방하면서 학회를 지키며 활동을 유지했던 것이다.<sup>27)</sup>

23) 이석린, 『『한글』지와 이윤재 선생, 기관지 『한글』지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13, 외솔회, 1973, 57쪽.

24) 권승욱, 「효창 한징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한글』 114호, 한글학회, 1955. 10, 30쪽.

25) 『한글학회 50년사』에는 3월 13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3월 12일이다(동아일보, 1940. 3. 13, 「조선어사전 출판인가」;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272쪽.)

26)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111쪽.

27) 이석린, 「화동 시절의 이런 일 저런 일」,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 1993,

1936년 10월 28일 한글날,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발표에서 안창호가 축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잃은 조선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우리 말글 뿐이니, 우리 말글 보급·발달에 힘써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때, 경찰서에 불려간 이극로는 ‘학회가 하는 일은 다른 나라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조선어학회 사건 검거 당시 이극로는 이석린에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전 만드는 일을 해왔다.’라고 말하라고 당부했다.<sup>28)</sup> 대표로서 학회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이극로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학술 활동 강조’, ‘사전 편찬은 생계형 사업 강조’가 총독부의 사찰과 통제에 대응한 학회의 수미일관한 방책이었다.

검경의 추궁대로 ‘독립운동’임을 인정한다면 유죄 판결은 당연하고, 수년간 옥살이를 피할 수 없다. 고통스러운 옥살이도 모면하고 싶은 것이었겠지만, 사전 편찬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거 당시 학회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었고, 멈출 수 없는 것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사건이 해결되어 자유를 되찾고, 사전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제의 포승줄에 묶여 영어의 몸이 된 관련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을 것이다.

1945년 1월 16일, 원심 판결은 무죄를 선고 받은 장현식 외 11인 모두 유죄였다. 원심 역시 어문운동을 독립운동으로 판단했다. 정태진을 제외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은 상고했고, 상급심의 변호인은 丸山敬次郎(서울: 이극로, 정인승), 박원삼(朴元三, 함흥: 최현배), 安田幹太(서울: 최현배, 이희승) 등이었는데, 학회는 정치적 결사가 아닌 학술단체이며 독립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활동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sup>29)</sup>

### 2.3. 조선어학회 사건, 해방 후 한글운동의 원천이 되다

함흥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은 8월 13일 상

23~28쪽 ; 총독부는 1941년 12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임시취체법’에 응하는 ‘조선 임시보안령’을 제정해 황국신민서사를 신지 않은 신문·잡지 등을 불온문서로 간주해 발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임시보안령, 조선총독부제령 제34호, 1941. 12. 26., 제정, 시행 1941. 12. 26.)

28) 이석린, 「화동 시절의 이런 일 저런 일」,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 1993, 23~24쪽 ; 이석린, 「조선어학회 사건과 최현배」, 『나라사랑』 1, 외솔회, 1971, 93쪽.

29) 위 판결에 대해 정궁식은 형사법의 목적은 심정이 아닌 행동을 처벌하여 국가의 폭력으로 부터 인간의 행동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버리고, 사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는 잠재적 범죄자인 조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행동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는 심정형법(心情刑法)으로 '거대한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 평가했다. (정궁식,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90~103쪽.)

고가 기각된 것도 모르고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8월 17일,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옥문을 나선 이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것은 8월 19일 밤늦은 시각이었다.<sup>30)</sup> 건강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다음날인 8월 20일 불교선학원에 모여 학회의 재건과 활동에 대해 의논했다.<sup>31)</sup>

이후 거듭된 모임에서 학회는 정치 불 관여 방침을 세우고, 본래의 임무인 국어운동에 전념하기로 했으며,<sup>32)</sup> 8월 25일,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초등과 중등 국어 교과서 편찬, 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국어강습회 실시, 기관지 『한글』 속간, 국어사전 편찬 완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sup>33)</sup> 즉각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10월 발생했지만, 당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1940년 8월 1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동시 폐간된 이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유일한 한국어 신문으로 발행되고 있었는데, 1942년 10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건 관련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sup>34)</sup> 1926년생으로 1942년에 17세였던 국어학자 김민수 교수도 “일제하에서는 이 사건이 민족분리 운동이기 때문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비밀리에 사상범이라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들은 잘 모르고 잘 몰랐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라고 술회한 바 있다.<sup>35)</sup>

이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을 인지한 것은 피검자의 가족, 사건 관련자, 주변인 정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민중에게 알려지고, 학회가 조선총독부의 민족 말살정책에 맞서 한글 보급에 진력하고,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민족어 3대 규범을 제정하는 등 민족어 수호를 위한 어문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민중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것은 해방 후 쏟아져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은 조선어학회 사건·한글날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한글강습회 개최나 한

30) 철제 정문이 열리더니 제일 앞에는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나머지 분들은 서로 부축하고 나오셨다. (중략) 그런데 이때가 오뉴월 더위가 한창인 때라 바지를 걷어 올렸는지 반바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드러낸 팔다리는 미라의 그것이었고 맞아서 멍든 자국, 피부병 흠집 등 영양실조와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근업, 「이근로 선생과 조선어학회 수난 (2)」, 『한글새소식』 463, 한글학회, 2011. 3, 16쪽.)

31) 김윤경, 「조선어학회 수난기」, 조선어학회, 『한글』 94, 1946.4, 62-63쪽.

32)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132쪽.

33) 김윤경, 「조선어학회 수난기」, 조선어학회, 『한글』 94, 1946. 4, 63쪽 ;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20쪽.

34)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430쪽. 549-550쪽.

35) 국사편찬위원회, 김민수 구술, 「해방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 2007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7\_009\_김민수\_11, 42쪽.

자 폐지 운동 등 학회의 주요 활동과 주요 인물의 발언, 심지어 학회의 총회와 강연회 등에 관한 소식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해방 후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맞이한 한글날 기념식 관련 기사에서 민족어마저 없애려고 했던 일제의 만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조선어학회 사건, 특히 옥사한 이운재와 한징에 대한 이야기와 추모사 등을 게재하여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어를 지킨 조선어학회·탄압받은 국어학자들·독립운동 순국자’ 등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 ① 말과 글조차 없애려는 압정 하에 근근이 지켜오던 우리 민족의 최대 영광의 한글날이 잊어진지 8, 9년에 세계 인도의 심판이 내려...36)
- ②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글을 없애버릴라는 포악한 계획 아래 우리말연구의 권위자들인 조선어학회 제씨를... 함흥감옥에 투옥하였던 사실은... 10여 년 동안 어학회 제씨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일구어진 우리말광의 원고마저 계획적으로 없애버렸으므로...37)
- ③ 일본경찰의 포악무도한 강압 하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중에서 불행이 별세한 이운재 한징 양씨의 추도회가 있을 것으로 일반 유지도 참석하기를 바란다 한다.38)

①은 해방 후 처음 맞는 한글날 기념식(민중일보), ②는 10월 2일 극적으로 발견된 사전 원고(자유신문), ③은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한 이운재와 한징 추모식에 관한 보도인데(자유신문), 자유신문 10월 9일자에서는 이운재와 한징에 대한 추모 기사를 실으며, “오로지 우리말 한글을 위하여 인생을 바쳐 오다가 필경에 고문의 찢죽 아래 한만흔 생명까지 희생당한 고 이운재 한징 양 선생을”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순국한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학회에 대한 동정과 존경의 염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39)

1946년 3월, 옥사 후 가매장했던 이운재를 위한 「환산선생안장준비회」가 결성되었을 때, 조선일보는 ‘일찍부터 조선민족해방운동에 실명을 바친’ 인물로,40) 자유신문은 ‘원생애를 밝혀서 한글을 직히고 조선문화의 옹호발전과 민족정신 배양을 위하여 높은 절개를 직혀오다가 왜적의 독수에 걸여 1943년 12월 8일 마춤내 함흥감옥 독방에서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저항자, 독립투사, 순국자’라는 이운재 개인에 대한 추앙과 함께 일제강점기 학회의 민족어 수호 투쟁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고취시켰다.41)

---

36) 민중일보, 1945. 10. 3, 「식전으로 강연으로 가두행렬로 10월 9일 반포기념일에 성연」  
 37) 자유신문, 1945. 10. 6,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말광) 天下에 해방된 원고」  
 38) 자유신문, 1945. 10. 8, 「이, 한 양선배 어학회 추도식」  
 39) 자유신문, 1945. 10. 9, 「존귀한 희생자 이운재, 한징 양씨 옥사」  
 40) 조선일보, 1946. 3. 10, 「고인도 지하서 미소」  
 41) 자유신문, 1946. 3. 9, 「한글 사수한 李允宰 선생」

또한 학회가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다가 일제에 의해 탄압 받았다는 점에서 해방 후 사전 편찬에 대한 언론과 민중의 관심은 각별했고, 이는 10월 2일 사전 원고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뿐만 아니라,<sup>42)</sup> 1947년 10월 9일 한글날 발간된 『조선말큰사전』 제1권에 관한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오늘까지 한글을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도 곳곳하게 지며온 조선어학회에서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조선어학회가 편찬하여 온 조선말큰사전”이라 했고,<sup>43)</sup> 동아일보는 “조선어학회의 이십 년의 혈투의 성과인 조선어대사전 제일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민족어 수호자로서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역사는 다시금 강조되었다.<sup>44)</sup>

이처럼 민족어 수호 투쟁이라는 학회 활동에 대한 보도는 일회성 또는 일시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해마다 10월이면 맞이하는 한글날 관련 기사와 학회 활동,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거듭 반복되었다.<sup>45)</sup> 김민수 교수가 해방 후 학회는 ‘민족운동가로서 존경과 송양을 받았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회고했듯이,<sup>46)</sup> 언론의 빈번한 보도가 해방 공간에서 ‘존경과 송양의 대상으로서 학회의 상’을 만들어내고, 학회가 추진한 어문운동에 대한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원천이자 동력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해방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제 35년간 잃어버렸던 조선어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문맹 상태의 조선인들에게 조선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sup>47)</sup> 학회는 즉각 한글 강습에 착수해 전국 각 학교, 관청, 은행, 회사, 공장, 사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강사를 파견하였으며, 강사가 부족해 학회 회원이 아닌 강사를 섭외해 보낼 정도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뜨거웠으며, 강사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sup>48)</sup>

학회는 한글강습회에서 1933년 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적극 보급하면서, 학회가 편찬한 교과서는 물론 기타 언론·출판물 등에 적용되게끔 노력했는데, 100% 찬성과 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42) 자유신문, 1945. 10. 06, 「사람 따라 ‘말’까지 목살이 창고에 간헐던 ‘우리’ 사전(말광) 천 일하에 해방된 원고」

43) 경향신문, 1947. 10. 9, 「조선말큰사전 어학회서 반포식」

44) 동아일보, 1947. 12. 2, 「중간2주년기념특집 해방 후 3주년 회고와 전망」

45) 자유신문, 1946. 10. 9, 「조선어학회의 고투사」 ; 경향신문, 1946. 10. 9, 「조선어학회가 걸어온 길」 ; 경향신문, 1946. 10. 9, 「조선어학자들」 ; 중앙신문, 1947. 10. 9, 「세계에 빛나는 우리한글날, 세상떠나신 한글학자들」 ; 자유신문, 1947. 10. 9, 「민족정신계승 명심하자사의 수호」

46)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김민수, 「해방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 2007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7\_009\_김민수\_11, 48쪽.

47) 이극로, 「조선어학회의 임무」, 『민중조선』 1호, 1945. 11, 44쪽.

48)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정재도, 「해방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 2007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7\_009\_정재도\_11, 28~31쪽.

「통일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피력한 글쓰이가 “조선어학회의 부단한 노력과 지대한 공적에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데서도 학회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sup>49)</sup>

학회가 추진한 한자 폐지 운동 또한 만만치 않은 반대에 직면했다. 1945년 11월 30일, 학회를 중심으로 각계 인사 1,171명이 참여한 ‘한자폐지실행회’가 ‘문맹 퇴치, 우리 말글로 새 문화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초등 교과서 한자 폐지’ 등을 요구하며 활동을 시작하자,<sup>50)</sup> 한자 폐지에 대한 사회 여론이 조성되었고, 미군정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분과위원회에서는 한자폐지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당시 제9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최현배, 장지영, 조진만, 조윤제, 피천득, 황신덕, 웰치(Welch, J. C.) 중위, 김성달 등이었는데,<sup>51)</sup> 한자 폐지를 적극 주장한 것은 최현배, 장지영 등 학회 회원이었고 조진만, 피천득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sup>52)</sup>

전부 10개 분과로 이루어진 조선교육심의회에는 초등분과에 이극로, 이호성, 교육행정에 최두선, 교육이념분과의 백낙준 등 학회 회원이 포진해 있었고, 교육이념분과의 안재홍은 조선어학회 사건 수난자였다. 심의 과정에서 교과서분과위원 조윤제의 반대, 1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제3분과 교육행정 위원이었던 현상윤(보성전문학교 교장) 등이 반대했지만,<sup>53)</sup> 한자 폐지를 주도한 학회 인사와 한자 폐지 찬성자들의 협력에 의해 1945년 12월 8일 조선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초등, 중등교육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고, 한자는 안 쓰기로 한다.’라는 결정을 담은 한자폐지안이 가결되었다.<sup>54)</sup>

조선교육심의회가 초중등 교과서 한자 폐지를 결정하자, 학회를 중심으로 한자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과 한자 폐지 반대파 간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1946년 1월 미군정청 사회과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시민의 생각을 물었다. 응답자 중 일반 시민의 찬성률은 85.2%였고, 교육자의 찬성률은 56.7%을 보여 조선어학회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다시금 확인되었다.<sup>55)</sup>

49) 경향신문, 1948. 4. 11, 「추종과 비판 어학회에 주는 말」

50) 한글문화보급회, 『한글문화』 창간호, 한글문화보급회, 1946. 3, 33-34쪽 ; 민중일보, 1945. 12. 4, 「한자폐지, 발기인회에서 구체안토의」

51)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 엮음,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56-57쪽 ; 중앙신문, 1945. 12. 3, 「한자폐지실행회 발기총회 개최」 ; 동아일보, 1945. 12. 3, 「한자철폐하자」 ; 조선일보, 1945. 12. 3, 「漢字 폐지 발기 총회에서 국문 전용 실행을 가결」

52) 최현배, 「한글을 위한 수난과 투쟁」, 『나라사랑』 10, 외솔회, 1973. 3, 189쪽.

53)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418쪽. ; 이응호, 『언어정책의 역사적 연구: 한글전용 대책편』, 서울: 한글전용국민실천회, 1969, 14-15쪽.

54)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418쪽. ; 이응호, 『언어정책의 역사적 연구: 한글전용 대책편』, 서울: 한글전용국민실천회, 1969, 14-15쪽.

55) 동아일보, 1946. 1. 11, 「한자폐지를 일반은 찬성」

한자 폐지에 찬성한 이유로, 한자는 학습하기 어려운 글자, 문맹률 78%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써야 한다, 한글을 새 문화의 표현 기관으로 삼아 대중문화와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학회의 주장에 대한 공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일반 시민이 85.2%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데에는 독립운동 단체이자 국어학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전문 학술 단체인 학회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민심이 한자 폐지 찬성으로 표출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자층은 한자 폐지에 부정적이었다. 1946년 1월에 창간호를 낸 『신천지』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자 전폐에 대한 가부를 묻은 조사에서는 응답자 23인 중 김남천(소설가), 임화(평론가), 백남운(학술원 원장) 등 15인이 반대했고, 노천명(시인), 김영수(소설가) 등 6인만이 찬성했다. 분명하게 구부로 답하지 않은 2인은 한자 전폐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sup>56)</sup> 물론 과도한 한자 사용 제한이라든가, 한자의 점진적인 폐지가 아닌, ‘전폐’의 가부를 물었기 때문에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식자층의 한자에 대한 선호와 의존성은 강했다.

식자층에서는 한자 폐지 반대 의견이 거셌지만, 한자를 모르는 대다수 민중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sup>57)</sup> 학회는 ‘한자 폐지-한글 전용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했으며, 1948년 7월 24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sup>58)</sup> 호응이라도 하듯이 1948년 9월 29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권태희 외 138인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sup>59)</sup> 10월 1일 열린 제79차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131, 가 86, 부 22로 통과되어,<sup>60)</sup> 1948년 10월 9일,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했다.

한글전용법이 제정·공포되자, 학회는 한글전용법 제정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대통령에게 한글전용법의 공포를 한글날에 거행하도

56) 서울신문사출판국·국학자료원, 『신천지』 창간호,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 2, 32-35쪽.

57) 권태희 의원은 제헌헌법이 국한문으로 작성된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내일 공포될 헌법은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글로써 기록되어있지 않고 외국말인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가장 적은 수효인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의 다수인, 적어도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한문을 이해할 수 없는 다수의 근로자와 부녀자층과 청소년층은 읽을래야 읽을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는 기막힌 사실이 바로 의사당 문 밖을 나가면 볼 수 있는 뚜렷한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우리 한글을 주문으로 삼고 한자를 곁에 써서 공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제1대 제1회 제3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8. 7. 16.)

58)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421~422쪽.

59) 대한민국국회,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제1대국회 제1회 제78차 국회본회의 (1948년 09월 30일)

60) 경향신문, 1948. 10. 2, 「한글전용법률안 1독회」; 동아일보, 1948. 10. 2, 「공문서는 한글, 당분간 병용키로」

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sup>61)</sup>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한자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공문서 한글 전용조차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글을 공식 문자, 대중 문자로 선택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해방 공간에서 학회의 한글 운동이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 3. 결론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동화정책에 맞서 조선어 연구와 한글 보급 등 어문운동을 전개했다.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했으며, 사전 편찬의 선행 과제로서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등 민족어 3대 규범을 제정해 조선어를 근대적 체계를 갖춘 언어로 정립했다. 학회의 활동은 합법적이었지만, 1942년 10월 1일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편찬원 중 이운재와 한정은 옥중 순국했다.

해방 후 학회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한글 운동에 전념했다. 한글강습회를 열어 민중을 문맹으로부터 구제하고, 1933년 학회가 제정한 맞춤법 통일안을 적극 보급하였으며,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미군정의 협력을 얻어 한글 교과서를 편찬·보급하는 등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글을 교육과 민중 계몽, 새 시대 건설의 수단으로 삼자고 주장하면서 한자 폐지 운동을 추진하였고, 1948년 정부는 한글전용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족어 회복을 위한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 국어 전문 교사 양성을 위한 세종중등국어교사양성소 설치 등도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해방 3년 동안에 학회가 이룬 성취였다.

해방 후 쏟아진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학회는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어를 지키다 수난 받은 독립운동 단체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학회에 대한 민중의 존경과 지지의 정서를 형성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한 우리 문자 한글을 널리 사용해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한자를 모르는 대다수 민중에게 호소력이 컸고, 국어학의 권위자들이 모인 단체로서 전문성도 대중 설득의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독립운동 단체로서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 된 학회의 위상은, 해방 정국에서 학회가 추진한 한글 운동이 결실을 맺도록 이

61)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423쪽.

끈 동력이자 밑거름, 원천이었다.

### <참고 문헌>

#### [논문]

- 김윤경, 「조선어학회 수난기」, 조선어학회, 『한글』 94, 1946. 4.  
이석린, 「조선어학회 사건과 최현배」, 『나라사랑』 1, 외솔회, 1971.  
이석린, 「〈한글〉지와 이윤재 선생, 기관지 〈한글〉지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13, 외솔회, 1973.  
최현배, 「한글을 위한 수난과 투쟁」, 『나라사랑』 10, 외솔회, 1973.  
이석린, 「〈한글〉지와 이윤재 선생, 기관지 〈한글〉지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13, 외솔회, 1973.  
마이클 로빈슨, 「최 현배와 한국의 민족주의 언어·문화·국가 발전을 통하여」, 『나라사랑』 33, 외솔회, 1979. 9.  
김상필, 「조선어 학회 수난 사건의 전모」, 『나라사랑』 42호, 외솔회, 1982.  
김구진,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해 본 민족 문화 운동」, 『나라사랑』 42, 외솔회, 1982.  
이성구, 「치안유지법 개악과정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동양사학과논집』 7,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983.  
김계곤, 「조선어 학회 수난의 전말」, 『한한샘 주 시경 연구』 9, 한글학회, 1996.  
장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역사와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박영신, 「조선어학회가 겪은 ‘수난’ 사건의 역사·사회학—학회 조직의 성격과 행위 구조」,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2.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0.  
정승교, 「일제는 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나?—기만적 동화정책의 파탄」,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정공식,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 [단행본]

- 한글문화보급회, 『한글문화』 창간호, 한글문화보급회, 1946. 3.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 역음,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최영희, 김호일 편저, 『애산 이인』, 애산학회, 1989.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한글학회,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1993.

- 나주정씨월헌공파총회, 『석인 정태진전집(상)』, 서경출판사, 1995.  
한말연구학회 편, 『건재 정인승 전집 6 국어운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이희승, 『일석이희승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영사, 2001.  
이극로, 『고투 40년』, 범우, 2008.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신문 및 잡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신문, 민중일보, 민중조선, 한글새소식, 국어생활, 신천지.

[자료]

- 대한민국국회, 국회의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제1대 국회 제1회 제78차 국회본회의 (1948년 09월 30일)  
김윤경, 「동우회 수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contents/independenceFighter/detail.do?isTotalSearch=Y&independenceFighterId=9-AH0954-000&sortNo=4>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종결결정문」. 1944. 9. 30.  
「조선고등법원 소화 20년 형상(刑上) 제59호」 1945. 8. 13.

[구술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정재도, 「해방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 2007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7\_009\_정재도\_11.  
국사편찬위원회, 김민수 구술, 「해방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 2007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7\_009\_김민수\_11.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2부 주제 발표

## 사이시 표기의 이모저모

### 리의도

춘천교육대학교 명예교수  
daegok@cnue.ac.kr

### 1. 들머리

2022년 5월 20일 어느 국회의원이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 용어의 표기는 교육부 장관이 문화부에서 제정한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예컨대 현행 초·중등 수학 교과서에서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이런 부류를 편의상 ‘스 덧붙인 낱말’이라 일컫기로 함—으로 표기한 것을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기댓값”—이런 부류를 ‘스 안 붙인 낱말’이라 일컫기로 함—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에서 문제 삼은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 들은 1988년 1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시한 「한글맞춤법」 제30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물이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여 1999년 10월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그러한 표기 규정을 철저히 반영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은 2009년께부터는 교과서 발행에도 관여하여 그 표기 규정을 따르도록 애쓰고 있다고 한다. 또 웬만한 문서편집기에는 제30항을 표준으로 하는 자동 수정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함에도 2022년, 그에 반하는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기댓값”을

지지하는 ‘법률안’이 나온 것이다. 이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사이스 표기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또는 난맥상을 지적한 여론과 글이 끊이지 않았고 연구보고서도 여럿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중매체에 나타난 사이스의 표기 실태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울러 『표준 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오늘날의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사이스를 포함한 합성어’ 처리의 문제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의 토대로서 사이스 표기 규정의 변천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사이스 표기 규정의 변천

### 2.1. 사이스 표기 규정들

㉠ 1921.03.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大要」. 조선총독부 학무국.

- 14. 二語가 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되, 그 사이에 促音 現象이 生할 時는 ‘일스군 [日雇]’ 등과 如히 二語의 中間에 스을 삽입하려고 하는 자 잇스나, 本書에 대하여는 각각 경우에 의하여 스을 上語의 末에, 又는 下語의 初에 附하기로 함.

- 例 (1) 동짓달 [冬至月], 열짚달 [第十月]
- (2) 외양<sup>한</sup> [廐], 모<sup>짜</sup>리 [苗圃], 기<sup>빨</sup>1) [旗脚]

㉠에서는 표기 방법으로 2가지를 규정했으며, 앞말이 닿소리로 끝난 경우에도 일부 적용하였다.

㉡ 1930.02. 「언문철자법」. 조선총독부 학무국.

- 5. 二語가 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되, 그 사이에 促音 現象이 生할 때에는 左와 같이 書함.

- (1) 上語가 中성으로 終한 경우에는 上語에 中성으로서 「스」을 附함.  
例 동짓달 [冬至月], 담뱃대 [煙管], 못자리 [苗圃]
- (2) 上語가 中성으로 終한 경우에는 他語와 혼동되기 쉬운 경우에 한하여 中間에 「스」을 附함.  
例 장스군 [市場人] ……‘장군(將軍)’과 혼동하기 쉬움.  
문스자(文字) ……‘문자(文字)’ [‘숙어’의 뜻] 와 혼동하기 쉬움.

附記

本文의 경우를 漢字로 書할 時는 中間 기타에 스을 書하지 아니함.

㉡에서는 앞말이 홀소리로 끝난 경우에만 스을 받침으로 적기로 하고, 앞말이

1) 이러한 표기는 이 규정에서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민간에 통용되고 있던 것을 채택한 것이다.

중성으로 끝난 경우에는 앞뒤 말의 중간에 스을 적되, 적용의 경우를 극히 제한하였다.

㉔의 규정을 적용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은 1930년 3월 31일 제1권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권씩 발행하여 1935년 3월 제6권까지 전부 발행하였다. 『중등학교 조선어독본』은 1933년 3월 28일에 제1권, 12월에 제2권, 1935년 3월에 제3권, 1936년 2월에 제4권이 발행되었으며, 『중등교육 여자 조선어독본』은 1936년 3월 15일에 제1권이 나오고, 1939년 봄에 전부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 신문과 잡지도 대체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㉔ 1933.10. 「한글마춤법 통일안」 첫판. 조선어학회.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스는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스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예 뒷간 곳집 나뭇배 담뱃대 깃발 잇몸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㉔의 규정은 고유어만을 표기 대상으로 상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㉔에서 그랬듯이, 「통일안」 첫판에서도 선행 요소의 끝이 닿소리일 때에는 스을 받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잇소리 발음을 유도하는 데에 ‘사이스’ 표기가 필수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공인한 것이다.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㉔ 1937.03. 「한글맞춤법 통일안」 고친판. 조선어학회.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스’ 소리는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스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무지 적지 아니한다.

〈홀소리 밑	닿소리 밑〉	〈홀소리 밑	닿소리 밑〉
뒷간 [廁間]	문간 [門間]	콧날 [鼻線]	칼날 [刀刃]
곳집 [倉庫]	움집 [土幕]	뒷내 [後川]	앞내 [前川]
나뭇배 [載木船]	소금배 [載鹽船]	냇물 [川水]	강물 [江水]
담뱃대 [煙竹]	견양대 [見樣木]	잇몸 [齒齦]	알몸 [裸體]
깃발 [旗旋]	글발 [字跡] …		

㉔ 1940.06. 「한글맞춤법 통일안」 새판.<sup>2)</sup> 조선어학회.

2) 이 새판과 관련하여, 최현배(1961.10 : 일러두기 9)에 이러한 진술이 있다: “중일전쟁이 최고조로 달하여 감에 따라, 왜경의 조선에 대한 압박이 더욱 혹독을 더하여, 우리 사람들은 전연 자유를 잃고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고 집회 언론은 전연 불가능의 질식 상태에 있었던 그때에, 경찰에 잡혀 가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이 『큰사전』 원고를 정서하는 계단에 다달아, 소멸의 위기에 들어가는 조선말이 뒷사람들에게 쉽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와 같이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왜경의 검거, 구속, 악형, 위협의 끝에 전연 자유를 잃었던 나 스스로는 이 ‘개정판’의 성립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니, 이 점은 다른 회원들도 많이 같은 형편이었을 줄로 믿는다.”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위스말의 끝소리가 홀소리나 ㄴ, ㄹ, ㅁ, ㅇ인 때에 ‘사이스’ 소리가 나는 것과, 아래스말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중간에 ㅅ을 놓아 표한다.

- (1) ‘사이스’ 소리가 나는 것  
뒤스간 문스간, 고스집 움스집, 이스새 발스새, …, 코스날 이스몸 …  
& 들스보 [架樑] 굴스대 [轉軸] 날스짐승 …
- (2) ‘사이스’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아래스이 대스읏 속스읏 답스요 물스읏 들스읏 …

ㄷ에서는 앞뒤 낱말의 중간에 ㅅ을 적기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편찬해 오던 ‘조선어사전’의 최종 원고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정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간행되지 못했으며, 6년 후에 위의 규정을 개정했으니, “뒤스간, 문스간, 대스읏”과 같은 표기는 일반에 널리 시행되지는 않았다.

ㄷ 1946.09. 「한글맞춤법 통일안」 일부개정. 조선어학회.

제30항. 복합 명사나 복합 명사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가나, 또는 다시 구개음화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위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에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                        |                        |
|------------------------|------------------------|
| 〈위 말이 홀소리인 것〉          | 〈위 말이 닿소리인 것〉          |
| ① 냇가 ㄹ날 ㄹ등 잇몸 ㄷ불       | ① 길가 손등 움집 들보          |
| ② 잇과(理科) ㄷ법(加法) ㅎ수(號數) | ② 상과(商科) 감법(減法) 권수(卷數) |
| ③ 아랫이 ㄷ읏 베곷읏           | ③ 집읏 물약 관절읏            |

조선어학회는 광복 후에 ‘조선어사전’의 원고를 집고 가다듬었는데, 그럴 때에 규정 ㄷ를 적용하였다. “뒤스간, 문스간, 코스등, 손스등, 대스읏”과 같은 표기는 “뒋간, 문간, ㄹ등, 손등, ㄷ읏”으로 고쳐지고, 일부 한자어도 “냇과(內科), 잇과(外科), 잇과(理科), ㄷ법(加法), 인훗병(咽喉病), ㄷ점(焦點)”과 같이 표기하였다.<sup>3)</sup>

ㄷ 1950.04. 「조선어 신철자법」. 평양 조선어문연구회.

제30항. 합성어의 사이에서, 위’의 말이 모음이거나 ㄴ, ㄹ, ㅁ, ㅇ일 때에 종래의 소위 ‘사이스’ 소리가 나는 것과, 아래’말의 두음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중간에 絶音符 “ ’ ”로써 表한다.

- (1) 소위 ‘사이스’ 소리가 나는 것  
뒤간 [廁間] 문간[門間] 코’날 [鼻線] 코’등 [鼻脊] 손’등 [手背] 이’몸 [齒齦] …  
& 들’보 [架樑] 굴’대 [轉軸] 날’짐승 …
- (2) 소위 ‘사이스’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3) 이와는 달리 “인어과(人魚科), 장미과(薔薇科), 돌고래과(科), 미나리과(科), 송어과(科)” 등으로 처리한 것도 있다.

아래'이 [下齒] 대'잎 [竹葉] 담'요 속'잎 발'이랑  
[附記] 한자어로서 이에 준할 만한 경우에도 絶音符로써 表할 수 있다.  
리'과(理科) 가'법(加法) 호'수(號數) 상'과(商科) 감'법(減法) 권'수(卷數),  
관절염(關節炎)

ㄱ은 앞의 ㅁ을 대폭 수정한 내용인데, 앞말이 홀소리이든 닿소리이든 가리지 않으며, 앞뒤 낱말의 중간에 절음부(·)를 부가하기로 규정하였다. 아주 새로운 방법이었다.

㉞ 1966.07. 「조선말규범집-맞춤법」. 조선공화국(북한) 국어사정위원회.  
제18항. 종전에 써오던 사이표(·)는 발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앤다.

㉞에서는 ㄱ에서 채택했던 사이표(·)를 아주 없앴다. 아주 새로운 방법인데, 오늘날까지 조선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sup>4)</sup>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 관하여, 『조선말규범집 해설』(1971 : 52)에서는 “1) 사이소리현상이 문화어, 특히 고유말에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2) 한자말의 경우에는 새로 늘어나는 경향이 커서 사이표를 치는 문제가 글을 쓰는 데서나 글을 읽는 데에서 매우 복잡하다.”고 하였다.

㉞ 1988.01. 「한글맞춤법」. 대한민국 문교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나룻배, 못자리, 쇧조각, 조갯살,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아랫니, 텃마당, 잇몸,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뒷웃, 두렛일, 베갯잇, 깃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콧병, 아랫방, 텃세, 콧병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제삿날,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텃간(退間), 횡수(回數).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여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㉞의 규정을 적용

4) 다만, 나중의 「조선말규범집-맞춤법(1988.02)」 제15항에서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셋별(금성) : 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 비바람(비와 바람)”라고 하였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합성어에 받침을 붙인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그 이전에 “넛과(內科), 윗과(外科), 잇과(理科), 갓법(加法), 인훗병(咽喉病), 좃점(焦點)”로 표기하던 것을 “내과, 외과, 이과, 가법, 인후병, 초점”으로 고쳤다.

## 2.2. 사이스 표기 규정 일람

2.1에 올린 ㉠~㉣의 내용을 사잇소리 현상 가운데서 된소리되기(경음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발음에서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요소의 첫머리(닿소리)가 된소리로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기의 실제’에 보인 낱말 중에는 그 규정에서 예시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적 처리이다.

<표 1> 합성의 경계에 ‘사이스’ 적기 규정의 변천 일람표

규정	표기 방법	표기 적용의 대상		표기의 실제
		앞말의 끝 소리	적용 대상 낱말	
㉠ 1921.03.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앞말의 받침으로 ㅅ 표기(㉠). 뒷말의 첫머리에 ㅅ 표기(㉡).	홀소리인 경우에 적용. 닿소리인 경우는 부분적으로 적용.	고유어가 관여된 합성어. (두 말이 모두 한자에 기반한 합성어는 고려하지 않은 듯.)	동짓달 ⑥외양간
㉡ 1930.02. 「언문철자법」	㉠. 앞뒤 말의 중간에 ㅅ 표기(㉢).	홀소리인 경우에 적용. 닿소리인 경우는 필요(훈동 방지)에 따라 적용.	고유어가 관여된 합성어. 두 말이 모두 한자에 기반한 합성어에는 부분적으로 적용.	동짓달 ㄱ듯 ㅅ듯 ⑥장수군(市場人) : 장군(將軍)
㉢ 1933.10. 「한글맞춤법 통일안」 첫판	㉠.	홀소리인 경우에 적용.	고유어가 관여된 합성어.	뒷간 ㄱ기발 ㄱ잇몸 문간 ㄴ글발 ㄴ알몸
㉣ 1937.03. 고친판	”	”	”	”
㉤ 1940.06. 새판	㉢.	끝 소리를 가리지 않고 적용.	”	뒤스간 ㄱ기스발 문스간 ㄴ글스발
㉥ 1946.09. 일부 개정	㉠.	홀소리인 경우에 적용.	합성에 관여된 말의 어종에 상관없이 적용.	뒷간 ㄱ기발 ㄱ잇몸 문간 ㄴ글발 ㄴ알몸 잇과(理科), 넛과(內科)
㉦ 1950.04. 「조선어 신철자법」	앞뒤 말의 사이에 절음부(′) 표기(㉣).	끝 소리를 가리지 않고 적용.	”	뒤간 ㄱ기발 ㄱ이몸 문간 ㄴ글발 ㄴ알몸 리과(理科) 내과 상과(商科) 부인과 총무과(總務課)
㉧ 1966.07. 「조선말 규범잡-맞춤법」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음(㉤).	”	”	뒤간 ㄱ기발 ㄱ이몸 문간 ㄴ글발 ㄴ알몸 리과(理科) 내과 상과(商科) 부인과 총무과(總務課)
㉨ 1988.01. 「한글맞춤법」	㉠.	홀소리인 경우에 적용.	고유어가 관여된 합성어에 적용. 두 말이 모두 한자에 기반한 합성어에는 적용하지 않음(다만, 여섯 낱말에는 적용).	뒷간 ㄱ기발 ㄱ잇몸 문간 ㄴ글발 ㄴ알몸 이과(理科), 내과(內科), 상과(商科), 부인과, 총무과(總務課)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 공식적으로 채택한 표기 방법은 ㉠~㉣의 다섯 가지였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앞말의 받침에 ㅅ 표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발음 현상이 동일하더라도 앞말의 끝 소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홀소리인 경우만 표기하고 있다.

또, 합성어를 구성하는 말이 고유어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차별화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앞뒤의 말이 모두 한자에 기반한 합성어에는 사이스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규정이 이처럼 복잡한 것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기본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 했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2.3. 사이스 표기 규정에 대한 반론

「한글맞춤법 통일안」 고치판(1937.03)이 발표된 직후, 이극로는 「훈민정음의 ‘중간 ㅅ’ 표기법」(1938.11)이란 소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는 「통일안」 제정 위원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ㅅ 대신에 ㅇ 쓰기를 주장한 것이다.

- (1) “‘중간ㅅ’은 무엇을 표기하자는 것인가? 한갓 문장부호가 아니요, 소리에 관계된 것을 표기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문폐쇄음으로서 만국음 성기호의 [ʃ]에 해당하는 음이다.”

“성음론에 좇아서 ‘중간 ㅅ’의 표기법을 논하다면 성문폐쇄음인 ‘ㅇ’을 중간에 놓는 것이 합리로는 가장 합리하다.”

그런가 하면 최현배(1940.05 : 491~492)에서는 사잇소리 처리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 (2) “우리 조선어학회에서 그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토의할 적에, 이 사잇소리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 의견의 현저한 결정적 대립도 없으면서, 중의의 귀결을 얻은 보지 못하여, 여러 번 翻案하였음도 이 문제의 난처성을 보이는 것이요, 그 결정된 안도 재래의 버릇과 찌는 편의를 보아서 된 일종의 假案에 불과한 것이니, 결코 아주 잘 된 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아니한다. 그 뒤에 다시 고친 案도 또한 그러하다.”

“나는 이상에서 『훈민정음』의 맞춤법을 논하여 사잇소리를 풀이하였다. 이만

5) 오늘날 조선공화국(북한)에서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음)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면 사잇소리에 관한 고전적 음성적 해설은 무던히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현대적, 어법적 해설 및 표기법적 처리의 합리적 성과는 아직도 후일의 學的 精進을 요하는 남은 문제임을 말하여 둔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후에 쓴 최현배(1961.10:111~117)에서는 훈민정음 초창기에 ‘끓음소리’를 나타내는 데에 쓰던 ㅎ을 쓰는 것이 편익이 많으며 ㅅ 대신 ㅎ 쓰기를 제안하였다. 이극로의 주장과 같았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 3. 일간신문에 나타난 빈도 비교(1920~2021년)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국립국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이스’은 오늘날 사상 유례없는 위력을 떨치고 있다. 아래 (3)은 두어 달 전에 『부산일보』 이진원 기자(교열부장)가 올린 자료이다. 모두 「한글맞춤법(1988.01)」 제30항을 적용한, ‘바른’ 표기, ‘규범’ 표기이며, 이른바 ‘맞는 말’이다.

- (3) 답샷길, 모랫길, 출죠킨길, 하곶길<sup>6)</sup> / 곶곶값, 고웃값, 근샷값, 기댓값, 변숯값, 최곶값, 최댓값, 최솟값, 최젓값, 함숯값 / 고깃값, 비룻값, 뱃값, 사곶값, 석웃값, 신샷값, 우웃값, 원자곶값, 채숯값, 휘발곶값 / 며느릿값, 사윗값, 신붓값 / 태곶적 / 만환가게 / 갯과, 고양잇과, 딱샷과, 박샷과, 솟과, 황샷과 / 낚싯바늘, 시곶바늘 / 공붓벌레 / 장맛비 / 나랏돈, 화샷돈 / 막넛누이, 막넛동생, 막넛사위, 막넛삼촌, 막넛손자, 막넛자식 / 갈빳국, 돼곶국, 만곶국, 뭇국, 시래곶국, 팻국 / 궁둥잇깃, 다릿깃, 머릿깃, 손사랏깃, 엉덩잇깃, 우스곶깃 / 가곶빳, 경곶빳, 파곶빳, 노른곶빳, 도곶빳, 마곶빳, 모곶빳, 복송곶빳, 비곶빳, 산곶빳, 상곶빳, 섷빳, 젓빳, 칭곶빳, 포곶빳.

그런데, 위와 같은 표기를 마음 편히 받아들이는 한국인이 몇이나 될까? 짐작하건대 「한글맞춤법(1988.01)」 제30항의 원래 취지도 이런 방향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무한정하고 거침없는 사이스의 확대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제안과 주장이 있었는데, 그 확장을 반대하는 견해와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낱말의 글에서도 사이스 표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표기를 자주 접한다. 무신경하거나 부주의한 결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례로 보이는 것도 있다. 들머리에서 언급한 ‘최대값’, ‘최소값’은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최대값 : 최댓값”, “최소값 : 최솟값”의 출현 빈도를 일간신문에서 조사하여 보

6) ‘성곶길’, ‘순곶길’ 들을 더할 수 있다.

았다.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교적 일상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매체라고 판단한 때문이며, 거기에 더하여 검색이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의 다섯(7)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발행 기간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표 2-1>에서 보듯이, 시기별 변화 양상도 확인하기 위하여 시기를 넷으로 나누었는데, 기간 ①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된 1920년대로부터 정부에서 현행 「한글맞춤법」을 고시하기 전까지, 약 68년 동안이며, ②는 「한글맞춤법」을 시행한 때로부터 국립국어원 편찬의 『표준 국어대사전』을 발행하기 11년 동안이며, ③은 『표준 국어대사전』 발행 이후 11년 동안이며, ④는 그 이후 11년 동안이다.<sup>8)</sup>

<표 2-1> 일간신문에서의 출현 빈도 변화 (1920~2021년)

		최대값	최댓값	모두(건)
①	1920.03.05. ~ 1988.12.31.	100 % (7)		(7)
②	1989.01.01. ~ 1999.12.31.	100 % (20)		
③	2000.01.01. ~ 2010.12.31.	83 % (53)	17 % (11)	(64)
④	2011.01.01. ~ 2021.12.31.	38 % (45)	62 % (72)	(117)
		최소값	최솟값	
①	1920.03.05. ~ 1988.12.31.	100 % (7)		(7)
②	1989.01.01. ~ 1999.12.31.	100 % (18)		(18)
③	2000.01.01. ~ 2010.12.31.	92 % (55)	8 % (5)	(60)
④	2011.01.01. ~ 2021.12.31.	46 % (53)	54 % (63)	(116)

<표 2-1>에서 보듯이, 「한글맞춤법」을 고시하기 전인 ①의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②의 동안, 곧 사이스 표기 규정을 시행한 초기 11년 동안에도 다섯 일간신문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100%였다. 그 후 11년, 곧 ③의 동안에도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83%, 92%이었으며, 최근 ④의 11년 동안에 ‘최댓값’, ‘최솟값’의 빈도가 점차 늘어났으나, 여전히 ‘최대값’이 38%, ‘최소값’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신경하거나 부주의해서 빚어진 결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다. 사용자의 의도가 개입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죄값 : 죄값”의 출현 빈도도 함께 조사했는데, 그 양상이 앞의 두 낱말과는 매우 다르다. ‘죄값’은 1939년 9월 30일치 『동아일보』에 처음으로 1번 출현하였고, ②의 동안에 겨우 9%의 비중

7) 각각의 창간일은 이러하다 :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경향신문 1946년 10월 6일, 매일경제(신문) 1966년 3월 24,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15일.

8) ①과 ② 동안의 빈도는 ‘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③과 ④ 동안의 빈도는 각기 그 신문의 ‘지면 보기’를 통하여 확인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거듭 출현한 경우는 1건은 셈하였다.

을 차지했는데, ③의 동안에는 54%에 이르렀고 ④의 동안에는 91%에 이르렀다.

나아가 일상성이 매우 짙은 “김치국 : 김칫국”<sup>9)</sup>, “북어국 : 북엇국”, “선지국 : 선짓국”, “순대국 : 순댓국”<sup>10)</sup> 등의 출현 빈도도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검색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2-2>는 그 결과이다.

<표 2-2> 일간신문에서의 출현 빈도 변화 (1920~2021년)

		김치국	김칫국	모두(건)
①	1920.03.05. ~ 1988.12.31.	59 % (248)	41 % (171)	(419)
②	1989.01.01. ~ 1999.12.31.	12 % (25)	88 % (187)	(212)
③	2000.01.01. ~ 2010.12.31.	8 % (22)	92 % (249)	(271)
④	2011.01.01. ~ 2021.12.31.	2 % (9)	98 % (383)	(392)
		북어국	북엇국	
①	1920.03.05. ~ 1988.12.31.	100 % (58)		(50)
②	1989.01.01. ~ 1999.12.31.	99 % (145)	1 % (1)	(146)
③	2000.01.01. ~ 2010.12.31.	70 % (163)	30 % (70)	(233)
④	2011.01.01. ~ 2021.12.31.	33 % (78)	67 % (156)	(234)
		순대국	순댓국	
①	1920.03.05. ~ 1988.12.31.	89 % (99)	11 % (12)	(111)
②	1989.01.01. ~ 1999.12.31.	90 % (65)	10 % (7)	(72)
③	2000.01.01. ~ 2010.12.31.	45 % (182)	55 % (222)	(404)
④	2011.01.01. ~ 2021.12.31.	35 % (265)	65 % (500)	(765)
		선지국	선짓국	
①	1920.03.05. ~ 1988.12.31.	96 % (52)	4 % (2)	(54)
②	1989.01.01. ~ 1999.12.31.	75 % (30)	25 % (10)	(40)
③	2000.01.01. ~ 2010.12.31.	64 % (66)	36 % (37)	(103)
④	2011.01.01. ~ 2021.12.31.	13 % (9)	87 % (61)	(70)

<표 2-2>는 ‘김칫국’, ‘북엇국’, ‘순댓국’, ‘선짓국’ 등이 일간신문의 지면에서 세력을 확장해 온, 시기별 변천상을 잘 보여 준다. ‘김칫국’은 ①의 동안에 이미 41%를 차지했으며, 곧장 88%에 이르러 최근의 ④에 이르러서는 98%를 차지하였다. ‘북엇국’, ‘순댓국’, ‘선짓국’ 등의 변천 양상은 대체로 비슷하며, 모든 기간을 통하여 ‘김칫국’의 세력에 못 미쳤다. 최근의 ④ 동안에도 ‘북어국’, ‘순대국’, ‘선지국’에 각각 33%, 35%, 13%를 내어 주고 있다.

9) “김치국/김칫국”의 빈도는 ‘김치의 국물’을 뜻하는 낱말과 ‘김치를 넣어 끓인 국’을 뜻하는 낱말(3.4.3 참고하실 것)을 가리지 않고 합하여 셈하였다. 하지만 ‘김치국수’, ‘김치국밥’, ‘김치국물’ 등은 셈에 넣지 않았다.

10) ‘순대국밥/순댓국밥’, ‘순대국밥집’ 등은 셈에 넣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의 다섯 일간신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종 대중매체로 범위를 확장하여 위의 네 낱말의 출현 빈도를 확인해 보았다. <표 3>이 결과인데,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 동안 각종 대중매체(여러 신문과 방송)의 기사에 출현한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네이버 검색창을 통하여 조사했으며, 한 기사에 2번 출현하더라도 1건으로 셈하였으며, 같은 매체의 동일한 기사는 1건으로 셈하였다.

<표 3-1> 2022년 7~8월 대중매체에서의 출현 빈도

	건	%	%	건	
김치국	2	1	99	163	김칫국
북어국	3	4	96	78	북엇국
순대국	216	62	38	133	순댓국
선지국	2	10	90	21	선짓국

<표 3-1>을 <2-2> ④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김칫국’은 물론이요 ‘북엇국’과 ‘선짓국’의 비중도 90% 대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순댓국’은 오히려 65%에서 38%로 낮아진 것으로 나온다. 사이스의 거침없는 세력 확장과 사이스 표기의 혼란상을 동시에 확인시켜 준다.

내친김에 요즈음 사용 빈도 부쩍 늘어난, ‘~값’이 후행 요소인 낱말(?)들의 출현 빈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그것을 정리한 결과가 <표 3-2>이다. 이 말들은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올림말로 등재하지 않았고, 『우리말샘』에서 다룬 것들이다. 이외에도 『우리말샘』에는 수많은 ‘~값’들이 올림말로 탑재되어 있다.

<표 3-2> 2022년 7~8월 대중매체에서의 출현 빈도

	건	%	%	건	
우유값	45	22	78	159	우윳값
원유값	151	55	45	126	원윳값
석유값	23	64	36	13	석윳값
휘발유값	380	66	34	194	휘발윳값
채소값	184	37	63	309	채솟값
배추값	73	37	63	125	배춧값
소값	19	95	5	1	솟값
돼지고기값	33	55	45	27	돼지고깃값
소고기값	12	86	14	2	소고깃값

그런데 ‘휘발유값’의 출현 빈도(380건)를 조사할 때에는 띄워져 있는 ‘휘발유 값’(이런 것은 소수)도 함께 셈하였다. ‘휘발유값’을 피하려 한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이스의 표기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례로 보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4) ㄱ. 휘발유 가격(⇔휘발유값), 돼지고기 가격(⇔돼지고기값).

ㄴ. (1) 휘발유·경유 값 (강원일보 2022.08.15)

ㄴ의 “휘발유·경유 값”은 『대구일보』(2022.08.30)의 표기인데, “휘발유값경유값”(제30항을 적용한 표기)을 줄여서 이렇게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신문에 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ㄴ. (2) 휘발유·경유값 (강원일보 2022.08.15)

(3) 휘발유·경유값 (이데일리 2022.08.30)

(2)는 제30항을 적용하지 않은 표기이며, (3)은 제30항을 지켰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요컨대, (4)ㄴ은 현행 ‘사이스’의 표기 규정이 빚어낸 혼란상이기도 하지만, 글을 다루는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 4. 현행 사이스 표기의 문제점

### 4.1. 표기 규정의 불균형

#### 4.1.1. 앞말 끝의 소리에 따른 차별

(5) ㄱ손+등[등] → 손등[퐁] …… ‘손등’

ㄴ코+등[등] → 코등[퐁] …… ‘코등’

ㄱ소금+국[국] → 소금국[꺄] …… ‘소금국’

ㄴ순대+국[국] → 순대국[꺄] …… ‘순댓국’

ㄱ물+값[값] → 물값[꺄] …… ‘물값’

ㄴ소+값[값] → 소값[꺄] …… ‘솟값’

(6) ㄱ친정(親庭)+집[집] → 친정집[꺄] …… ‘친정집’

ㄴ전세(傳貰)+집[집] → 전세집[꺄] …… ‘전셋집’

(7) ㄱ배꼽+점(點)[점] → 배꼽점[꺄] …… ‘배꼽점’

ㄴ꼭지+점(點)[점] → 꼭지점[꺄] …… ‘꼭짓점’

### 4.1.2. 말씨(어종)에 따라 차별

- (8) ㄱ최고+점[점] → 최고점[점] …… ‘최고점’ (←最高點)  
 ㄴ최고+값[값] → 최고값[값] …… ‘최곳값’ (←最高값)  
 ㄱ최저+가[가] → 최저가[가] …… ‘최저가’ (←最低價)  
 ㄴ최저+값[값] → 최저값[값] …… ‘최저값’ (←最低값)  
 ㄱ월세+방[방] → 월세방[방] …… ‘월세방’ (←月賃房)  
 ㄴ월세+집[집] → 월세집[집] …… ‘월세집’ (←月賃집)
- (9) ㄱ커피+값[값] → 커피값[값] …… ‘커피값’ (←coffee값)  
 ㄴ배추+값[값] → 배추값[값] …… ‘배춧값’ (←배추값)
- (10) ㄱ문제+점[점] → 문제점[점] …… ‘문제점’ (←問題點)  
 ㄴ꼭지+점[점] → 꼭지점[점] …… ‘꼭짓점’ (←꼭지點)

위와 같은 차별적 처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특히 고유어를 차별한 것은 무리였다. 그런가 하면, ① 앞말의 끝이 닿소리인 경우, ② 앞뒤 요소가 모두 한자에 기반한 경우(와 서양 외래어 뒤)에는 사이스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이스 표기가 필수적 방법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의 표기 실태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사정은 이해하나, 사이스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 4.2. 사이스의 위치 문제

다 알다시피, 합성어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후행 요소인데, 사이스는 앞말의 일부(받침)로 표기한다. 이것은 합리가 아니다. 이치로만 본다면 된소리로 바뀌는 그 소리에 표기하는 것이 옳다. 예컨대 2.1에 올린 ‘외양싼’, ‘모짜리’, ‘기썰’ 등이 그런 방법이다.

발음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생각을 아주 바꾸어 ‘최고쩨’, ‘최저까’, ‘월세쩨’, ‘꼭지쩨’ 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한데, 찬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점’, ‘가’, ‘집’의 형태가 달라지는 점을 드는 이가 많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최고’가 ‘최곳’으로, ‘최저’가 ‘최저’으로, ‘월세’가 ‘월세’으로, ‘배추’가 ‘배춧’으로, ‘꼭지’가 ‘꼭짓’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것이 제30항이다.

## 4.3. 형태의 동일성은 파괴<sup>11)</sup>

11) 예사글씨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형태이고, 고딕글씨는 나중의 『우리말샘』에 탑재된 형태이다. 『우리말샘』에서는 빗금 뒤의 형태, 예컨대 ‘막내동생’은 “맨끝

- (11) **막내**, **막내둥이**, **막내딸**, **막내며느리**, **막내아들**, **막내아우**, **막내손주**, **막내숙부**  
 /// **막넛누이**, **막넛자식**, **막넛동생/막내동생(비규범)**, **막넛사위/막내사위(방언)**,  
**막넛삼촌/막내삼촌(비규범)**, **막넛손자/막내손주(방언)**
- (12) **고추**, **고추감주**, **고추기름**, **고추김치**, **고추나물**, **고추나뭇과**, **고추바람**, **고추밭**,  
**고추쌈**, **고추씨**, **고추잡채**, **고추장**, **고추김밥**, **고추김치**, **고추나물**, **고추바람**,  
**고추밥**, **고추볶음**, **고추부각**, **고추술**, **고추쌈**, **고추장아찌**, …… /// **고춧가루**,  
**고춧대**, **고춧물**, **고춧잎**.
- (13) **김치**, **김치냉장고**, **김치말이**, **김치밥**, **김치보시기**,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찌**  
**개**, **김치각**, **김치전골**, **김치광**, **김치국물**, **김치국밥**, **김치덮밥**, **김치류**, **김치만**  
**두**, **김치조림**, **김치찜**, …… /// **김칫거리**, **김칫국**, **김칫독**, **김칫돌**, **김칫소**.
- (14) **배추**, **배추겉절이**, **배추김치**, **배추꽃**, **배추명충나방**, **배추밭**, **배추벌레**, **배추상**  
**추**, **배추쌈**, **배추씨**, **배추알**, **배추저나**, **배추전**, **배추절임**. **배추좁나방**, **배추즙**,  
**배추통**, **배추흰나비** /// **배춧국**, **배춧속**, **배춧잎**, **배춧값**.
- (15) **북어**, **북어구이**, **북어냉국**, **북어냉탕**, **북어무침**, **북어장아찌**, **북어조림**, **북어죽**,  
**북어찌개**, **북어찜**, **북어탕**, **북어포**, **북어무김치**, **북어무침**, **북어보푸라기**, **북어**  
**장아찌**, **북어조림**, **북어죽**, **북어찌개**, **북어찜**, **북어탕**, **북어포**, **북어채**, ……  
 /// **북엇국/북어국(북한)**.
- (16) **순대**, **순대곱창**, **순대국밥**, **순대찜**, **순대볶음**, **순대곱창볶음**, **순대전골**, **순대골**  
**목** /// **순댓국**, **순댓국밥(비규범)**, **순댓국집**.
- (17) **소**, **소가죽**, **소간**, **소갈비**, **소갈비구이**, **소갈비찜**, **소갈이**, **소거간(꾼)**, **소거름**,  
**소걸음**, **소겨리**, **소고기**, **소고기장조림**, **소고뼈**, **소구유**, **소귀**, **소기름**, **소꼬리**,  
**소날**, **소대가리**, **소달구지**, **소도둑**, **소몰이**, **소뼈**, **소 웃음** /// **숯값**.
- (18) **나라**, **나라굿**, **나라글자**, **나라꽃**, **나라님**, **나라당주**, **나라말/나랏말(비규범)**, **나라**  
**글**, **나라일(북한)** /// **나랏돈**, **나랏무당**, **나랏밥**, **나랏빛**, **나랏일**.
- (19) **죄**, **죄감**, **죄과**, **죄면**, **죄목**, **죄상**, **죄수**, **죄인**, **죄질**, **죄책감**, **죄스럽다**, **범죄**,  
**사기죄**, **살인죄** /// **죄값**.
- (20) 포유강> 소목> **숯**과 {영양, 소, 들소, 물소, 염소, 양 따위}  
 포유강> 식육목> **갯**과 {개, 늑대, 여우, 너구리 따위}  
 소나무강> 소나무목> **소나무**과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따위}  
 장미강> 장미목> **장미**과  
 미나리목> **미나리**과> 미나리속
- (21) 포유강> 토끼목> **토끼**과 {토끼, 멧토끼, 굴토끼 따위}  
 포유강> 고래목> **돌고래**과 {범고래, 쇠돌고래, 알락돌고래 따위}  
 포유강> 고래목> **긴수염고래**과 {흰긴수염고래, 긴수염고래, 흑등고래 따위}

의 아우. 규범 표기는 ‘막넛동생’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막내동생’은 ‘비규범 표기’라는 뜻이니, 이런 형태는 ‘비규범’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낱말에 따라 ‘북한어’라고도 풀이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북한’으로 표기한다.

두족강> 살오징어목> 오징엇과 {회살오징어, 한치오징어, 참오징어 따위}  
 이매패강> 익각목> 진주조갯과 {갈색띠진주조개, 진주조개}

- (22) “김치국밥 「명사」 김치국에 밥을 만 음식. 또는 김치국에 미리 밥을 말아 끓인 음식.” (우리말샘)  
 “배춧국 「명사」 배춧를 넣고 끓인 국.” (표준국어대사전)  
 “짬뽕 「명사」 지은 짬에 대하여 치르는 대가.” (표준국어대사전)

발음대로 적지 않는 것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기본형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규정 제정에 참여한 이들은 ㅅ 하나 덧붙이는 정도는 기본형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까짓 ㅅ이 형태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쉬이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도 쓸데없는 번거로움과 부담을 주고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사이스이 적지 않은 장애가 된다고 한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언어에서 형태는 발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4.4. 사전 처리에 드러난 문제

##### 4.4.1. 발음 표시에 나타난 문제

1.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뒷말의 첫 당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합성어-물론 앞뒤 요소가 모두 한자에 기반한 합성어는 제외-는 의 발음을 아래(긴소리 표시는 생략)와 같이 표기해 놓았다.

- (23) □ ‘ㅅ 안 붙인’ 낱말    □ ‘ㅅ 덧붙인’ 낱말<sup>12)</sup>  
 ‘물범과’ [물범과]    ‘갯과’ [개과/괘과]  
 ‘해장국’ [해장국]    ‘순댓국’ [순대국/순댓국]  
 ‘김장독’ [김장독]    ‘김칫독’ [김치독/김칫독]  
 ‘노을빛’ [노을뵈]    ‘장미빛’ [장미뵈/장미뵈]  
 ‘금줄’ [금줄]    ‘전깃줄’ [전기줄/전깃줄]

위의 가로줄 각각의 낱말 짝은 ‘과(科)’, ‘국’, ‘독’, ‘빛’이 후행 요소인 합성어인데, □의 낱말들에는 발음을 2가지씩 달아 놓았다. 그것은 「표준어 규정-표준 발음법(1988.01)」 제30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표준 국어대사전』과

12) 여기 □쪽의 발음 표시는 「표준어 규정-표준 발음법(1988.01)」 제30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우리말샘』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실제 발음을 몇 번씩 들어 보아도 그 차이를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 1988년 9월에 발표한 『「표준어 규정」 해설』에서도 “이 발음 규정을 정함에는 논란이 극히 심하였다.”(『표준발음법』 제30항)고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예컨대 ‘깃발’의 표준 발음은 [깁빨]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기빨]도 표준으로 허용하였다<sup>13)</sup>고 풀이하였다. 그 극심한 논란의 원인은 시작점 ‘기빨’인가, ‘깃빨’인가? 이 다른 데서 빚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해장국’과 ‘순대국’을 예로 하여 □쪽과 ▣쪽을 비교해 보자. ‘해장’과 ‘국’, ‘순대’와 ‘국’이 각각 합성하면 후행 요소 ‘국’의 초성이 된소리로 교체되어 [꾹]으로, 다시 말하면 [해장꾹], [순대꾹]으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현상을 흔히들 ‘사잇소리 현상’이라 하며, 그 합성의 경계에 끼어드는 소리는 보통 [ㄷ]로 보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나 성문폐쇄음 [ʔ]<sup>(㉞)</sup>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어쨌든 현행 규정인 「한글맞춤법(1988.01)」 제30항에서는 그 끼어드는 소리 [ㄷ]를 ㅅ으로 표기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을 한정했으니, 선행 요소의 끝이 흡소리일 때에만 그 아래에 받침으로 적기로 하였다. 그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사전에서 ‘해장국’과 ‘순댓국’을 각각 표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순댓국’은 이른바 사잇소리 현상을 반영하여 표기 형태를 바꾼 결과물이다. ‘순댓국’만이 아니라, 오늘날 『표준 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여러 사전에서, 앞말이 흡소리이며 사잇소리 현상을 보이는 합성어는 ‘ㅅ 덧붙인’ 형태, 곧 ‘갯과’, ‘김칫독’, ‘장밋빛’, ‘전깃줄’ 등을 표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쪽의 발음은, 『표준어 규정』 해설』에서 풀이한 바와 같이, “순댓국 [순댓꾹]”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이다. 그것은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갯김치[갯김치]”, “게맛살[게맛살]”, “웃감[웃감]”, “갯죽[갯죽]”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을 비교하여 보이면 (24)와 같으니, [순대꾹]은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 있다.

- (24) 갯김치 [→ 갯김치 → 갯김치]  
       게맛살 [→ 게맛살 → 게맛살]  
       순댓국 [→ 순댓국 → 순댓꾹]  
               ⋮              ⋮  
               [대표음되기] [된소리되기]

13) 그런데 「표준어 규정-표준 발음법(1988.01)」 제30항은 “(후행하는)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따르면 [기빨]이 원칙이되 [깁빨]도 표준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된다. 이처럼 규정과 해설의 내용이 상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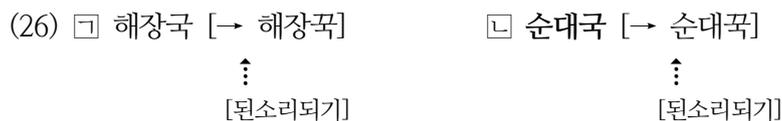
위에서 보듯이, **ㅅ**을 덧붙여 표기한 형태, 곧 “갯과, 김칫독, 순댓국, 장밋빔, 전깃줄” 등의 발음 과정에 사잇소리 현상은 없다. 사잇소리 현상은 ‘개+과’, ‘김치+독’, ‘순대+국’, ‘장미+빔’, ‘전기+줄’ 등을 각각 ‘갯과’, ‘김칫독’, ‘순댓국’, ‘장밋빔’, ‘전깃줄’로 형태를 바꾸어 적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과정에 필요한 개념이다.

2. 그런데, **ㄷ**쪽(**ㅅ** 덧붙인 낱말)의 발음을 위와 같이 처리하고 보면,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ㄷ**쪽(**ㅅ** 안 붙인 낱말)과의 불균형이 드러난다.<sup>14)</sup>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합성어임에도 선행 요소에 따라 표기를 차별화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위와 같은 불균형과 뒤엉킴은, (26)<sup>15)</sup>에서 보듯이, 기본형태를 살려 ‘순대국’으로 표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물론 ‘개과’, ‘김치독’, ‘장미빔’, ‘전기줄’ 들도 마찬가지이다.

3. 그 합성어에 사잇소리 발음 현상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이스’을 붙였음에도, “순댓국[순대쪽/순댓쪽]”과 같이, 다시 발음 정보를 주는 것도 문제이다. 표기에 발음 현상을 반영했다면 따로 발음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합리이다. 두루 알다시피, 한자 ‘女’의 본음은 [네]이지만 ‘女子’에서는 [여]로 발음되므로 한국어사전에서는 ‘여자’로 올리고 따로 발음 정보를 주지 않는다. ‘순댓국’으로 표기하는 ‘여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발음 정보 [순대쪽/순댓쪽]을 주는 것은 ‘사이스’ 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하여 여느 낱말들과 같이 발음 정보를 제공함에도 기본형태 ‘순대’를 파괴하면서까지 ‘순댓국’으로 가는 것은 합리가 아니며 상식도 아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음성 자료의 유통이 일상화한 오늘날의 환경을 충

14) **ㄷ**쪽의 변동 과정에 ‘/ㄷ/ 첨가’를 추가하여, “해장국[→해장<sup>ㄷ</sup>국→해장쪽]”으로 풀더라도 **ㄷ**쪽의 과정과 다른 점은 마찬가지이다.

15) 각주 14에서 밝힌 대로, “해장국[→해장<sup>ㄷ</sup>국→해장쪽]”, “순대국[→순대<sup>ㄷ</sup>국→순대쪽]”으로 풀 수도 있다.

분히 고려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 4.4.2. 올림말 처리의 문제

1. 대다수 한국어사전에서 ‘사’, ‘씻’, ‘새’, ‘씻’을 각각 올림말로 다루고 있다. 『표준 국어대사전』의 풀이를 올리면 아래와 같다.

(27) 시-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ㅋ’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씻-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ㅋ’인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ㅋ’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씻-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ㅋ’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 붙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의미는 같지만 분포하는 환경이 다르므로 제각각 접두사로 등재하고, (( )) 속에서 보듯이 그 환경을 자세히 풀이하였다. 사전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의미의 방언 어휘도 제각각 올림말로 등재하며, 대사전일수록 그런 어휘가 많다. 『우리말샘』에는 수많은 방언이 올림말로 탑재되어 있는데, ‘고추’의 방언으로 아래의 19개가 등록되어 있다.

(28) 고초, 고치, 꼬초, 꼬추, 꼬치, 식초, 후추, 당가리, 당가지, 대끼지, 땡가지, 땡거지, 당개지, 땡개지, 땡구지, 땡그지, 땡꼬지, 땡추, 땡가지.

그런데, ‘고춧’을 올림말로 등재한 사전은 없다. ‘고추’와 ‘고춧’의 관계는 ‘사’와 ‘씻’, ‘새’와 ‘씻’의 관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함에도 사이스 덧붙인 형태, 예컨대 ‘고춧’, ‘순땡’, ‘김칫’, ‘장땡(薺薇)’, ‘전깃’ 들을 올림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합리일까?

하지만, 그런 형태들을 모두 올림말로 등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그리고 대중에게 친밀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2. 그런데, 어느 대사전에서 ‘순땡국’의 형태를 ‘순대ㅅ+국’으로 표기해 놓았다. 그렇다면 ‘ㅅ’이 형태소가 되는 셈인데, 정작 그 사전에는 형태소 ‘ㅅ’을 올림말로 다루지 않았다. 또, ‘순대ㅅ’라는 표시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본다면

누구나 ‘스’이 ‘순대’에 부속된 요소로 이해할 것이니,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

#### 4.4.3. 이른바 ‘북한어’ 처리와 관련된 문제

『우리말샘』에는 ‘북한어’라고 명기한 올림말이 더러 등재되어 있다. ‘김치국’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김치국<sup>[1]</sup>’, ‘북어국’의 내용을 각각 ‘김칫국<sup>[1]</sup>’, ‘북엇국’과 함께 올리면 아래와 같다.<sup>16)</sup>

- (29) 김치-국<sup>[1]</sup> 「명사」 「북한어」 ‘김칫국’의 북한어.  
 김칫-국<sup>[1]</sup> [김치꼭/김칫꼭] 「명사」 김치의 국물. <sup>17)</sup>
- (30) 북어-국 「명사」 「북한어」 ‘북엇국’의 북한어.  
 북엇-국 [북어꼭/북엇꼭] 「명사」 북어를 잘게 뜯어 파를 넣고 달걀을 풀어 끓인 장국.

‘김치국’, ‘북어국’에는 발음을 따로 달지 않았다. 편찬 방침이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남한의 어문 규정에 길든 사람은 그 각각의 발음이 [김치국], [북어국]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북한의 사전들에서는 “김치국[-꾹]”, “북어국[-꾹]”으로 기록하고 있다. 발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sup>18)</sup>

그런데 ‘장마비’에 대한 처리는 (30)과 좀 다르다. 아래에서 보듯이, 동일한 의미임에도 별개의 낱말, 곧 ‘장마비<sup>[1]</sup>’과 ‘장마비<sup>[2]</sup>’로 처리하였다. (29)~(30)과 균형이 맞지 않을뿐더러,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처리가 아니다.

- (31) 장마-비<sup>[1]</sup> 「명사」 장마 때에 오는 비. ⇒규범 표기는 ‘장맛비’이다.  
 장마-비<sup>[2]</sup> 「명사」 「북한어」 ‘장맛비’의 북한어.  
 장맛-비<sup>[1]</sup> [장마뻘/장맛뻘] 「명사」 장마 때에 오는 비.

‘북한어’의 문제는 아니나, 위의 ‘장마비<sup>[1]</sup>’의 처리와 관련하여 짚어 둘 점이 있다. ‘비규범 표기’ 낱말인 ‘장마비<sup>[1]</sup>’를 올림말로 등재했으니,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16) ‘김칫국’과 ‘북엇국’은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부터 등재되었다.

17) “김치국<sup>[2]</sup>/김칫국<sup>[2]</sup>”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치를 넣어 끓인 국’을 뜻하는 낱말이다.

18) ‘북한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리의도. 2013.09.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 제301호 143~218쪽. 한글학회.
- 리의도. 2022.02. 「어문 규범 갖추기에 쏟은 조선어학회의 노력」. 『우리 말글에 쏟은 정성과 노력』 507~583쪽. (주)박이정.
- 리의도. 2022.02. 「우리 말글살이의 새 길을 닦은 한힌샘 주시경」. 『우리 말글에 쏟은 정성과 노력』 21~56쪽. (주)박이정.
- 리의도. 2022.02. 「조선 어문에 쏟은 백연 김두봉의 정성과 노력」. 『우리 말글에 쏟은 정성과 노력』 57~167쪽. (주)박이정.
- 송창선. 2022.03.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규정의 몇 가지 문제」. 『말과 글』 제170호 11~15쪽. 한국어문기자협회.
- 안정애. 2022.03. 「사이시옷 유감」. 『말과 글』 제170호 22~25쪽. 한국어문기자협회.
- 이극로. 1938.11. 「훈민정음의 ‘중간 ㅅ’ 표기법」. 『한글』 제61호 10~11쪽. 조선어학회.
- 이진원. 2022.07.27. 「바른말 광 (969) : 사이시옷」. 『부산일보』.
- 최현배. 1940.05. 『한글갈』. 정음사.
- 최현배. 1961.10. 『한글 바로적기 공부』. 정음사.
- 최형용. 2022.03. 「‘돌레길’인가 ‘돌렛길’인가?」. 『말과 글』 제170호 6~9쪽. 한국어문기자협회.
- 한용운. 2022.03. 「남과 북의 사잇소리 표기법」. 『말과 글』 제170호 16~21쪽. 한국어문기자협회.
- 홍성호. 2022.07.25. 「‘올렛길’과 ‘올레길」.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제764호 제18면.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2부 주제 발표

## 다시 찾는 어학자 권영달의 학문과 생애

고영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omorph@hanmail.net

### 1. 들어가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 철자법을 그나름대로 정립하고 우리말 전반에 걸쳐 연구한 정당(井堂) 권영달(權寧達)(창씨명 幸田寧達) 선생(1901~1945?)의 학문과 생애를 추적함으로써 우리 어문 운동사와 국어학사 및 우리 언어철학사의 한 구석을 메우고자 한다. 정당은 경성고상(옛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신)을 다니다가 6·10만세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경북 예천의 대창학원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朝鮮語文正體』(1941)를 간행한 바 있다. 그 뒤에는 일본 경찰관에게 쫓겨 다니다가 해방 며칠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그 사이 정당의 철자법 이론을 소개하고 그의 우리 어문 연구 업적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행한 바 있다(고영근 2022가, 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선어학회 수난> 80주년을 맞아 앞의 두 논고에서 논의된 정당의 우리 철자법과 우리말 연구를 되짚어 보고 우리 후학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당의 우리 어문에 대한 업적은 크게 다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高音의 本質과 記寫法」: 硬音辨證을 읽고서, <中外日報> 1929. 9.5~23. (『역문』<sup>1)</sup> ③22, 제3부 제10책에 다시 조판하여 실림)
- (2) 「朝鮮文 綴字法」: 標準樹立에서 批評에로, <중외일보> 1930. 10. 18~26. 3면. (『역문』 ③22, 제3부 제10책에 다시 조판하여 실림)
- (3) 『朝鮮語文正體』(幸田寧達), 1941, 德興書林 [역문 ①58. 제1부 23책]

(1), (2)는 1929년 9월과 1930년 10월에 <中外日報>에 발표된 것인데 『역대 한국문법대계』 ①58(고영근 해설)에 실림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3)은 일제 말기 우리 민족 어문이 탄압을 받던 1941년에 창씨 개명한 “幸田寧達”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 대하여는 필자의 「일제 강점기의 권영달 (1901~1945?)의 우리 어문 연구」(『진단학보』 138, 205-236)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 (4) 『朝鮮文綴字法』 (유고)

이 책은 권씨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자필 유인본이다, 저자 권영달은 위의 원고본을 먼저 완성하고 그 일부의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중외일보>에 연재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에 <중외일보>에 연재된 것은 전문을 볼 수도 없거니와 판독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모본인 자필 원고본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학술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그 내용을 장을 달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이밖에도 박승빈 학파가 주재하던 『正音』에 발표한 글도 있고 권씨 가문에 전래되는 “한글짚틀”(사진)이라는 반절 본문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필자가 올 봄에 집필한, 앞서 언급한 두 편의 논문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정당 선생의 우리 어문관의 특수성과 그가 근대 국어학사에 끼친 바의 공적을 드러내어 보고자 한다.

## 2. 어문관의 특수성—『조선문철자법』을 중심으로—

정당의 철자법 이론이 가시화되어 있는 『朝鮮文綴字法』은 대체로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이 나오기 이전인 1931~2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크게 제1장 총론과 제2장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론에서는 “심의(心意)와 언어와 문자”를 다루었다. “심의(心意)”는 ‘뜻’ 내지 ‘생각’을, ‘언어’는 음성으로 실현된 ‘말’을, ‘문자’는 표기 체계를 가리킨다. 저자는 생각인 ‘心’과 음성 실현체인 ‘言’과 표기형인 ‘文’이 삼각형을 이

1) 『역문』은 『역대한국문법대계』(1986, 2015)의 줄임말이다

루어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의미’와 입으로 발성하는 “음성”과 이를 글자로 적는 “문자”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정당은 “중용”(中庸)의 태도를 표방하면서 편견을 지양(止揚)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당이 중용의 태도를 표방한 것은 주시경학파와 박승빈학파가 철자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1930년대 초의 우리말 연구 학계의 사정을 두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披瀝)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각론에서는 17개 항목에 걸쳐 자신의 철자법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영근(2022가)로 미루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정당은 단어의 개성(21-34쪽)을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다른 단어와 접촉할 때 노출되는 개성이고 후자는 단어의 유래를 밝힐 때에 드러나는 개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테면 전자는 ‘뉘(葉), 높-(高)’와 같이 명사와 형용사의 어간부를 밝히는 표의적 표기를 가리키고 후자는 ‘만나’를 뜻하는 ‘맞나’와 같이 어원을 밝혀 적는 표기를 가리킨다.

둘째, 정당은 우리말의 받침을 “단식 종성”과 “복식 종성”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홑받침, 후자는 겹받침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옛 이응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돌받침이 많이 등장한다, 정당은 우리말의 받침을 210개로 잡고 있다. 받침을 이렇게 많이 둔 것은 그의 철자법 이론이 매우 표의적임을 함의한다.

셋째, 정당은 자음에 “설격적”(舌激的) 자음을, 모음에 “함이적”(含伊的) 모음을 두었다. 전자는 설음(ㄴ, ㄷ, ㄷ)과 설치음(ㅅ, ㅆ, ㅈ)을 가리키며 후자는 ‘ㅣ’를 함유하고 있는 ‘ㅑ, ㅓ, ㅕ, ㅗ’를 가리킨다. 이 원리에 따라 정당은 ‘此, 忘, 事, 葉, 有’를 뜻하는 ‘이, 잇, 일, 잎, 잇/있’을 ‘니, 닛, 닐, 님, 닛’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필자는 정당의 철자법이 극도의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한 것이 이런 예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넷째, 정당은 ‘ㅎ’의 허약성과 혼합성을 지적하였다. 정당은 ‘포켓에 넣어라’가 ‘~ 너어라’와 같이 발음됨을 근거로 하여 ‘ㅎ’의 허약성을 논증하였으며 ‘ㅎ’이 ‘ㄱ, ㄷ, ㅂ, ㅅ’과 결합하면 ‘ㅋ, ㅌ, ㅍ, 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들어 혼합성을 논증하기도 하였다. 박승빈과 총총독부 철자법에서는 ‘ㅎ’을 받침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정당은 주시경과 같이 ‘ㅎ’을 어엿한 받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은 같은 후음 계열인 ‘ㅇ, ㅎ’의 허약성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당은 당시의 한글학자들이 ‘ㅎ’의 허약성과 혼합성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부사 형성의 접미사가 붙은 말을 ‘멀리, 같이, 없이, 깊이, 특별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당은 표준형과 오철형, 곧 비표준형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표준: 멀르히	같이	없이 깊이	특별히
오철: 멀니/멀리	같이.같치	없이/업시	특별이

위에서 오철을 주장하는 편은 주시경, 장지영, 김두봉, 이규방, 월간지 『동광』 등 주시경학파이다. 이런 점을 보면 주시경학파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표의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경학파와 노선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정당은 부사 형성의 접미사는, 위에서 보다시피, 모두 ‘히’로 통일하고 있다.

#### 다섯째 ‘으’의 조절성

정당은 이른바 매개모음 ‘으’가 조절 작용의 기능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가운데서 선행(선어말) 내지 어말 어미 ‘시고, 면, 니’를 든 것은 잘못이 없으나 ‘고르-, 푸르-’를 ‘골으, 풀으’로 분석한 것은 쉽게 수궁이 가지 않는다. 문제가 없지 않으나 ‘으’에 음성조절의 기능을 준 것은 연구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으’의 기능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최현배(1935)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하다.

정당은 주시경이 1913년에 만든 “한글”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우리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면서 극도의 표의적 표기법을 지향하고 있다. 정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어의 개성을 대외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다른 단어와 접촉 관계를 맺을 때 노출되는 개성이고 후자는 한 단어의 유래를 밝힐 때 드러나는 개성이다. 현대 남북의 철자법은 대외적인 것만 취하고 있으나 우리글의 철자법을 모색하던 1920~30년대에는 어원을 밝히는 내재적인 철자법을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권영달의 철자법 이론은 우리의 정서법 연구사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업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 3. 우리말 연구의 특수성—『조선어문정체』를 중심으로—

정당 권영달 선생은 우리글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철자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문자/음성을 비롯하여 품사, 의미, 언어철학에 대하여도 일가견을 보여 주고 있다.

“序”를 보면 정당은 첫째, 자신의 견해가 당시의 어문학자들과 달리 체계적임을 밝히고 있다. 곧 시공(時空)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음질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자모의 특수성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는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곧 우리 선인들의 연구와 서양 학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아니하

고 과학적 검토를 통하여 고금 성음학과 훈민정음의 결함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책 끝의 [부록]에 마련되어 있다. 그는 주시경과 같은 명의가 “終聲復用初聲”에 근거하여 초성에 쓰이는 자음을 종성에도 쓸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받침의 수효를 늘린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당은 이성과 같은 포부로서 『조선어문정체』를 상재(上梓)하였다.

정당의 『조선어문정체』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자모

개설/양음/질음/질음과 양음

제2장 언어에 파급되는 심의의 영향

개설/규율성의 영향/조절성의 영향/편의성의 영향/단순확실성의 영향/유추성의 영향/편중성의 영향

제3장 문법의 최요점

개설/품사분류론/체용상호화

[부록]

1. 시공원리/2. 음의 질량/3.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성음/4. 조선어음과 조선문자와의 합리성/결론

우선 “序”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저자는 자기의 생각이 만 학자들과 다른 점을 적고 있다.

- (1) 체계적 관찰
- (2) 창의성의 발휘

(1)에서는 자신의 견해가 체계적 관찰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시공”(時空)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음질 문제에 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자의 자모의 특수성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과 『훈민정음』으로 대표되는 우리 선인들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아니하고 과학적 검토를 통하여 고금의 성음학과 훈민정음의 결함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책 끝의 [부록]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저자는 주시경과 같은 명의가 “終聲復用初聲”에 근거하여 초성에 쓰이는 자음을 종성에도 쓸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받침의 수효를 늘린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극복한 것이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이라고 하였다.

이성과 같은 포부로 정당은 『조선어문정체』를 상재하였다. “序” 다음에는 두 종류의 ‘圖’와 ‘表’가 나온다. 정당의 『조선어문정체』는 3개장과 부록으로 성립되어 있다.

먼저 장별을 보인다.

제1장 자모

제2장 언어에 파급되는 심의(心意)의 영향

제3장 문법의 최요점

제1장 자모에는 한글 자모 중심의 장단, 고저, 강약을 다루었다. 정당은 모음을 “양음”(量音), 자음을 “질음”(質音)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용어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쓰인 적이 없는 저자 권영달의 창안에 속하는 용어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도 정당이 얼마나 독창적인 학자였는지 알 수 있다. 정당은 아래 아의 음가를 ‘ㄱ, ㅡ’의 간음으로 처리하였다. 당시는 이극로, 이승녕, 방종현 등의 어학자들이 아래아의 음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 때였는데 정당의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정당은 ‘끄트머리, 고드밥, 오르나리-’와 같은 단어를 ‘끝으머리, 곧으밥, 올으나리’로 분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공시적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말이 아닌가 한다. 정당의 철자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원을 밝히는 표기법을 지향하고 있다. 매개모음의 형성과 그 역사가 밝혀지면 정당의 분석이 다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은 양음 (모음)을 “예성”(銳聲)과 “관성”(寬性)으로 나누고 있는데 당시 음성상징론의 관점에서 우리말 모음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논의한 당시의 이극로, 정인승의 연구를 비롯하여 이후의 이승녕, 채완, 이기원의 논의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선구적 발상을 다시금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음에 이어 질음을 보기로 한다. 정당은 질음, 곧 자음을 강도, 고도, 종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정당은 같은 질음, 곧 자음이라도 후음과 그밖의 자음은 확연히 구별된다고 보았다. 후음은 발성뿐이며 비후음은 발성과 축성을 겸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당은 ‘ㅁ, ㅇ, ㄴ, ㅅ’ 등은 ‘ㅇ’을 함유하고 ‘ㅂ, ㄱ, ㄷ, ㅈ, ㄹ’은 ‘ㅎ’을 함유하고 ‘ㅍ, ㅋ, ㅌ, ㅊ’은 ‘ㅎ’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후원원리”(喉源原理)라 부르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 거리에서 ‘어넉마삽시다’ 말을 웨치고 다니는 것은 후원원리의 여실한 발로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음성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으니 전문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바이다. 정당은 후원원리의 발견에 이어 “귀본원리”(歸本原理)도 발견하고 있다. 평음 ‘ㅂ, ㄷ’은 ‘ㅎ’을, ‘ㅍ’은 ‘ㅎ’을 함유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끝으로 정당은 중국의 질음 곧 자음에 대한 네 사람의 견해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廣韻』, 『集韻』, 『韻會』, 『洪武』 등의 중국 운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당은 중국 운서의 잘못을 『훈민정음』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중국 운학의 전문가들(강신항, 박정구, 이옥주 교수)에 의하면 저자 권영달이 중국운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언급하여 둔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의 국어학사에서 훈민정음을 중국 운학과 관련시켜 설명한 것은 정당의 연구가 처음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제3장에서는 품사론을 전개하고 있다. 제1장이 문자론과 음성론이라면 제2장은 형태론과 어휘론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의 품사론은 고영근(1977/2008)의 『조선어문정체』의 해설과 고영근(2001: 122-123)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 요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제1절 개설

제2절 품사분류론

제3절 체용상호화

제1절 개설에서는 중국의 잘못된 어음상의 규범에 구속되어 잘못된 문자적 출발을 하게 된 것과 우리 문자가 현대의 잘못된 표음문자상의 인식에 굴복되어서 그 우수성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우리 어음의 특징과 우리 문자의 표음문자로서의 우수성을 구미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문법론을 전개하였다.

제2절에서는 단어를 크게 주간어와 종속어로 나누고 주간어에는 연쇄어와 독립어를 두었다. 연쇄어에는 체어, 곧 체언과 용어, 곧 용언을 두었는데 전자에는 명사를, 후자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두었다. 그리고 독립어에는 부사와 감발사, 곧 감탄사를 두었다, 정당은 당시 우리 문법 연구를 이끌고 있던 주시경과 박승빈의 학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권영달은 우리말의 품사에 다음 다섯 개를 두었다.

명사. 동사. 형용사, 감발사, 조사

3절의 “체용상호화”는 지난 세기 60년대에 학교문법 통일과정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가리킨다. ‘이다’는 앞 부분은 조사와 같이 자립성이 없어 반드시 명사 아래 붙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면 현행 학교문법과 같이 “서술격조사”라 하여 조사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뒷부분을 보면 동사·형용사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용언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다’의 ‘이’는 잘 생략되어 용언의 자격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어떻게 보면 동사를 명사화하는 기제(機制)로 ‘먹음/감’과 같이 어미 ‘-(으)ㅁ’을 붙이듯이 명사를 동사화하는 기제로 ‘이다’가 사용된다고 하여 체언의 활용을 주장

하는 문법가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권영달은 “체용상호화”라 하여 명사에 ‘이-’가 붙어 용어화, 곧 용언화하고 동사에 ‘-(으)ㄴ’이 붙어 체언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권영달과 같은 처리법은 일제 강점기의 박상준, 이극로에게 주목된 바 있고 해방후에는 남한의 이희승의 “체언의 활용”, 북한의 “바꿈토”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최근 “형식사”라는 작은 범주에 넣은 바 있다(고영근 2018: 67).

끝으로 [부록]에 마련된 정당의 언어철학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정당은 “시공의 상호성”에서 시간과 공간은 상호의존적이지 배타적이지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정당은 이를 “시공의 상호의존성”이라고 불렀다. 곧 공간은 특정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시간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 전체를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당은 “순연한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성음”에 신비성을 부여하여 온 종래의 성음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였다, 성음에 신비성을 부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나 근거 있는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이현복교수는 말소리에 부수되는 기생적 특징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가하기도 하였고 이상익 교수는 최현배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사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정당이 음성의 어떤 면을 두고 한 말인지 우리 후학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정당은 우리 문자의 합리성을 문자유형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훈민정음이 중국 운서의 틀에 맞춘 면이 많아서 강약음의 순서가 정연하지 못하고 표기법에 오류가 많기는 하나 이는 우리 문자가 자음과 모음으로 분립되어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당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정확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당은 체계적이고 과학적 방법과 자주적·창조적 정신으로써 옛 중국과 최근의 구미의 외래적 굴레에서 탈피하는 조선 문자 연구의 재출발을 창도함에 있어 자신의 학설 근거의 체계를 도표화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정당은 자음의 명칭을 세종의 『훈민정음』, 최세진의 『훈몽자회』, 주시경의 『말의 소리』, 김두봉의 『조선말본』,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나오는 것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응], 히[흥], 히[홍]. 미[음], 비[뵤]. 뵤[뵤], 피[표], 히[응]. 기[극], 끼[꾸], 키[쿠].  
니[닌], 디[딤]. 띠[뵤], 티[틸], 시[슛], 씨[쑤]. 지[쑤], 쑤[쑤], 초[쑤], 리[릴], 르[릴]

위의 자음의 명칭은 『훈민정음』의 “終聲復用初聲”의 원리에 따라 초성에 쓰이는 자음은 모두 종성으로 쓰일 수 있음을 예로 들어 보인 것이다. 위의 규정을 초기에는 받침 규정으로 해석하다가(주시경) 뒤에 제자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며(이기문 1963), 최근에는 다시금 받침 규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정우영 2014)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지금까지 80여년 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었던 정당 권영달 선생의 철자법과 우리말 연구 업적을 지난 봄에 집필한 두 편의 논고에 기대어 어설프나마 소묘하여 보았다. 정당 선생은 1929년부터 1941년까지 13년에 걸쳐 3종의 논설과 한 권의 단행본, 그리고 한 권의 유고를 통하여 우리글 철자법, 우리의 문자인 한글의 특징과 우리말의 음운, 문법, 어휘의 제 특징을 그 나름대로 밝혀 놓았다.

첫째, 정당은 1920년대 후반에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철자법』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당시의 여론과 보조를 같이하여, 경음, 곧 된소리를 전통적 합용병서로 적자는 논의에 대하여 주시경 등의 안을 지지하는 논설을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정당은 어간은 물론, 품사를 알기 힘든 불규칙적인 어근과, 접사까지도 원형을 밝혀 적는 극도의 형태음운론적 표기법(흔히 표의적 철자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당의 견해는 유고로 전해 오는 『조선어철자법』에 가시화되어 있다.

둘째, 정당은 그의 우리 어문에 대한 견해가 집성된 『조선어문정체』(1941)에서 “시공원리”(時空原理)에서 출발하여 음의 질량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우리 어문의 자모의 특수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당은 우리의 전통적 학문과 구미의 선진 학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어문을 바라보는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정당의 이러한 어문관은 정당의 문하생인 들어가신 김경한 선생(전 성균관대 강사)의 주체성 있는 국어순화 이론서인 김경한(1972)에 잘 계승되어 있다.

정당의 저술은 그 사이 당시의 다른 어문학자들에게 인용되어 수용되거나 비판 받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정당의 이론이 너무 고답적이요 배타적인 데 까닭이 있는지 모르나 그의 저술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차분히 읽어 보면 수미(首尾)가 일관되어 있고 독창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정당의 시공 원리는 우리의 근대 철학사에서 두고두고 뒤돌아 봄직한 사유 체계였다고 믿는 바이다. 물론 세부에 들어가면 현대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으나 그 테제 (These)만은 수용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단언

하는 바이다. 정당의 철자법 연구는 우리의 철자법 연구사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업적이며 『조선어문정체』는 일제 암흑기의 우리말 연구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관념론에 근거하여 한자·한문을 수용하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두문자를 만드는가 하면 중세에는 “한글”이라는 표음 문자를 창제하여 서민들을 문자 생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오늘 선을 보인 정당 권영달 선생은 주시경 선생 등에 의하여 창도(唱導)된 어문민족주의를 머리에 이고 형태음운론적 표기법(흔히 표의적 표기법)을 지향하는 철자법을 성안하여 조선 총독부 철자법을 형태음운론적으로 개혁하는 데 조선어학회와 보조를 같이하였다. 그의 마지막 저술인 『조선어문정체』는 관념론을 바닥에 깔고 우리글의 철자법은 물론, 문자, 음운, 문법, 어휘 등 국어학의 제 영역을 아울렀을 뿐만 아니라 실증론의 관점에서 우리말의 구조를 구명한 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한글 운동사와 우리말, 곧 국어학사에서 주목해야 할 업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어원을 지나치게 의식한 철자법을 지향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현대 맞춤법으로 환골탈태하여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대에 나온, 한문으로 된 전적만 번역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곧 나오는 『이극로저작집』(전5권, 집문당)과 같이 일제 강점기에 나온 국한문 혼용의 저작물도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당은 특히 전통시대의 지나친 중국 의존과 현대의 서양 의존의 학풍을 매섭게 비판하고 우리의 말과 말을 냉철하게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군데군데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계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어문의 수호와 발전에 헌신하여 온 어문학자들을 “10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하여 행사를 치러 왔다. 정당 권영달 선생은 우리말의 사용이 금지된 일제 말기에 『조선어문정체』를 펴내어 이미 문화인물로 지정되어 행사를 치른 바 있는 최현배, 양주동에 앞서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정부는 그 사이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다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井堂(정당) 權寧達(권영달) 선생을 “시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하여 응분의 행사를 치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3일 밤 10시에 초고를 완성하고 5월 27일, 8월 28일, 9월 5, 8일에 다듬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18),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 고영근(2022가), 「권영달, 조선문 철자법 해설」, 『형태론』 24.1, 194-306.
- 고영근(2022나), 「일제 강점기의 권영달 (1901~1945?)의 우리 어문 연구」. 『진단학보』 138, 205-236.
- 김경한(1972), 『국어문제논고』, 인물연구소.
-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역문』 ③]36].
- 정우영(2014),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 구조와 ”해례편“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 103-153.
- 최현배(1935), 「用言의 語幹決定에 關한 問題」, 『한글』 3.5, 17-21.





국립한글박물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 제3부 연구 발표

‘는 거 있죠’ 구성의 통사적 특징과 기능 연구/ 김태인

신문 주제에 따른 인용명사 구문의 사용 양상 연구/ 현영희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 연구/ 김정아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원인 연구  
—언어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가람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위 분석과 제언/ 김영일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3부 연구 발표

## ‘-는 거 있죠’ 구성의 통사적 특징과 기능 연구

김태인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조교수  
zestti@hanmail.net

### 1. 문제 제기

언중들이 입말에서 사용하는 ‘-ㄴ 거 있죠’ 구성은 정규 표현으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sup>1)</sup> 하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용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1) 가. 파인애플 효능 엄청 많은 거 있죠.
- 나. 다들 다이어트 했냐고 하는 거 있죠.
- 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 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인 거 있죠.
- 미.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인 거 있지.
- 비. 너무 평화로우면 불안한 거 있지.

(1)의 예문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ㄴ 거 있죠’ 구성이 반말과 존댓말에서 두루 나타난다는 점과<sup>2)</sup> ‘-ㄴ 거 있죠’에 선행하여 결합하는 품사에는 제약이 없

---

1) 이 말은 다양한 표현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등에서도 주목받은 적 없는 구성이라는 의미이다.

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3)</sup> 이에 더하여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ㄴ 거 있죠’ 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사적 특성이다.

- (2) ㄱ. 서술의 내용이 화자가 경험한 과거 사태에 대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있었죠’가 아닌 ‘있죠’로만 나타나야만 한다. 곧 ‘-었-’의 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 ㄴ. 위와 같은 맥락에서 ‘거 있죠’가 앞에 취하는 관형사절 역시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과거형으로 나타날 경우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sup>4)</sup>
  - ㄷ. ‘-ㄴ 거 있죠’에서 ‘-지’가 빠진, 곧 ‘-ㄴ 거 있어요’와 같은 형태는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 ㄹ. ‘-ㄴ 거’와 ‘있죠’ 사이에는 그 어떤 조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조사 ‘-이’가 개재된 ‘-ㄴ 게 있죠’가 될 경우 전혀 다른 의미의 구성이 되어 버린다.
  - ㅁ. ‘-ㄴ 거 있죠’ 구성은 주어와 술어로 이분되지 않는 제언문(thetic sentence)의 면모를 보인다.

다음으로는 의미·기능적 측면이다.

- (3) ㄱ. 화자는 ‘-ㄴ 거 있죠’ 구성을 통해 어떤 사태에 대한 화자의 감정, 곧 [놀랐음], [어이없음], [당혹스러움] 등을 나타낸다. 이는 의외성(mirativity)이라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왕의 의미성분으로 포착할 수 있다.
  - ㄴ. 화자는 ‘-ㄴ 거 있죠’ 구성을 통해 해당 사태를 과거에 직접 경험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증거성(evidentiality)이라는 의미성분으로 포착할 수 있다.
  - ㄷ. ‘-ㄴ 거 있죠’를 통해 표상되는 사태는 담화에 처음 도입되는 신정보이다.

마지막으로 ‘있다’와 관련한 사전 등재 항목에 관한 문제도 살피고자 한다. ‘있죠’의 기본형 ‘있다’는 형용사와 동사의 면모를 둘 다 가지고 있다.<sup>5)</sup>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우리는 두 품사로서의 ‘있다’의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있다’는 [존재하다]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형용사로서의 ‘있다’인데, 본고와 얽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4) (구어체에서, ‘있잖아’, ‘있지’ 꼴로 쓰여)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강조·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반말에서는 ‘-ㄴ 거 있지’이고 존댓말에서는 ‘-ㄴ 거 있죠’이지만 본고에서는 후자로 대표 꼴을 삼아 논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있죠’는 ‘있지’와 통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거 있죠’ 앞에 나타나는 관형사절은 ‘-ㄴ/는/은’ 더 나아가 드물게는 ‘-었던/-던’ 등으로 실현될 것이나 본고에서는 ‘-ㄴ’을 대표형으로 삼는다.

3) (1ㄱ)은 형용사가 (1ㄴ, ㄷ)은 동사가 (1ㄹ, ㅁ)은 계사 ‘이다’가 (1ㄴ)은 소위 ‘하다’류 형용사가 ‘-ㄴ 거 있죠’에 결합하였다.

4) 예를 들어, (1ㄹ)을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였던 거 있지.’로 하면 본래의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인 거 있지.’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5) 이에 대하여는 황화상(2013)을 참조하였다.

- ㄱ. 그 사람 있잖아 엄청난 부자래.
- ㄴ. 그 소문 있지 사실이래.
- ㄷ. 있지, 그 소문 들었니?
- ㄹ. 순희 있지, 철수를 좋아한대.

(4)에서 예시되는 ‘있다’ 역시 모두 ‘-지’<sup>6)</sup>가 개재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곧 ‘-는 거 있죠’ 구성과 ‘있잖아, 있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더불어 사전의 ‘있잖아’와 ‘있지’의 의미 기술은 미진한 면이 있다. 담화에 새로운 주제를(그것이 개체가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도입할 때 언중들은 이 표현을 쓰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강조·확인”할 때 쓰는 것으로만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 역시 본고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펼쳐놓았으니 이제 이를 정리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우선 (2ㄱ)에서 언급한 ‘-었-’이 개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2장에서 다룬다. 이를 통해 ‘-는 거 있죠’가 우연적 구성의 증거성 표지이며 의외성의 의미 자질도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3ㄱ,ㄴ)의 문제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있지’ 구성의 발달 과정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 논의는 (2ㄱ,ㄴ,ㄷ)이 다 걸려있다. 이에 (2ㄱ)의 ‘-었-’이 개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2ㄴ)의 ‘과거 사건에 대한 보고임에도 관형사절의 시제가 왜 현재로 나타나야 하는지’, (2ㄷ)의 ‘있죠’에서 ‘-지’가 반드시 개재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본다.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 ‘있잖아, 있지’의 끝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는 거 있죠’의 제언문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논한다. 이때 (2ㄹ)에서 제기한 ‘-는 거’와 ‘있죠’ 사이에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다루어질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2ㄹ), (3ㄷ)과도 연결되는데 ‘-는 거 있죠’가 제언문으로서 어떤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통사 구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대해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며 매듭짓고자 한다.

## 2. ‘-는 거 있죠’ 구성의 화행 운용소 설정과 증거성

### 2.1. ‘-는 거 있죠’ 구성의 증거성과 의외성

박진호(2011)에서는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지니는 문

6) ‘있잖아’도 ‘있지 않아요’를 원천(source)으로 하여 문법화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지’가 들어 있다는 것에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법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구나’나 ‘-네’, ‘-더-’ 등이 이러한 문법 요소에 해당한다. 해당 논의의 끝에서는 증거성이나 의외성을 부가적으로 가지는 우연적 구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가령 ‘-게 생겼-’, ‘-은가 보-’, ‘-은/을 것 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진호(2011: 21-22)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어는 증거성이나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요소가 딱 짜인 체계로 존재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에 박진호(2011)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에서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부차적으로라도) 지니고 있는 것들의 종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는 거 있죠’ 구성이 가지는 의미성분, 곧 의외성과 증거성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sup>7)</sup>

박진호(2011: 3-8)에서는 기왕의 증거성 논의를 정리하여 증거성의 개념 공간을 ① 시지각, ② 기타 지각, ③ 내성(內省), ④ (지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 ⑤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 ⑥ 전문(傳聞)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ㄴ 거 있죠’가 담당하는 증거성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자.<sup>8)</sup>

- (5) ㄱ. 투톤 염색 노랑으로 했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시각)  
 ㄴ. 멤버들 목소리 너무 좋은 거 있죠.(청각)  
 ㄷ. 방안 가득 꽃향기 솔솔~~. 작업하는 내내 넘 향기로운 거 있죠.(후각)  
 ㄹ. 꼬시래기 효능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있죠.(미각)  
 ㄴ. 타건감이 너무 부드러운 거 있죠.(촉각)  
 ㄷ. (가만 생각해 보니)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내성)  
 ㄸ. (교실에 누군가 젖은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밖에 비오는 거 있죠.(추리)  
 ㄹ. (1월의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하이니) \*내일도 영하인 거 있죠.(추론)  
 ㄺ. (연우 친구에게 들었는데요) \*연우는 대학에 안 간다는 거 있죠.(전문)

이상 (5)의 예문들을 통해서 보면 ‘-ㄴ 거 있죠’가 담당하는 증거성의 개념 영역 및 그 특성이 박진호(2011, 15-17)에서 설명하고 있는 ‘-더-’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위 예문의 ‘-ㄴ 거 있죠’는 ‘-더라고요’로 아무런 의미 차이 없이 치환될 수 있다. 박진호(2011)에서 ‘-더-’의 제약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ㄴ 거 있죠’ 역시 동일한 제약을 가진다. 이 제약의 핵심은 결국 ‘-더-’나 ‘-ㄴ 거 있죠’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태만을 표상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5ㄸ)은 화자가 밖에 비가 오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경우 성립이 되지 않는다. (5ㄹ) 역시 화자가 일기 예보를 들었으면 모를까 일반

7) 이에 증거성과 의외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박진호(2011)로 미루도록 하고 본고에서는 ‘-ㄴ 거 있죠’와 관련한 사항만 다루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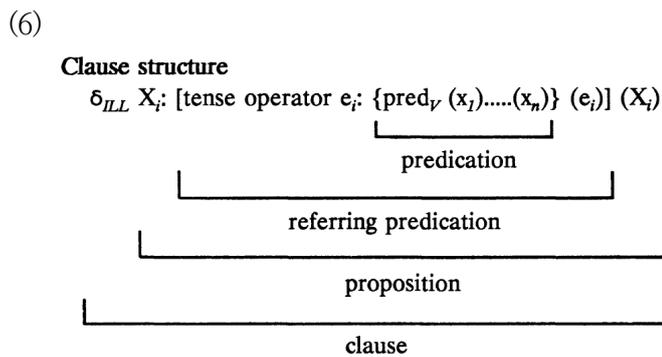
8) (5ㄱ~ㄷ)의 예문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온 예문임을 밝힌다.

적 추론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5스) 역시 화자가 연우의 발화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이지 전문으로서의 정보 지위는 가지지 못한다.<sup>9)</sup> 요컨대 ‘-더-’와 마찬가지로 ‘-ㄴ 거 있죠’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깨달은 사실을 표상한다.

해당 사실이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라는 점에서 ‘-ㄴ 거 있죠’는 의외성의 의미 자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박진호(2011: 16)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구나’나 ‘-네’가 현재 시점에서 의외성을 표상한다면 ‘-더-’나 ‘-ㄴ 거 있죠’는 과거 시점에서의 의외성을 표상한다. 이때 ‘-ㄴ 거 있죠’ 구성의 독특성이 드러난다. 곧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태에 대한 표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있었죠’가 아닌 ‘있죠’로 드러나고, ‘거 있죠’가 취하는 관형사절 역시 현재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2.2절과 3장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자.

## 2.2. 화행 운용소로서의 ‘-ㄴ 거 있죠’ 구성의 특징

Co Vet(1990)에서는 기능 문법(Functional Grammar, FG)의 관점에서 문장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상하고 있다.



(6)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문장이든 우선 서술부(predication)가 존재한다.<sup>10)</sup> 이 서술부는 시제 운용소에 의해 결속되고 하나의 정보가 되어 명

9) 전문(hearsay)의 지위는 더 고찰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의 경우 전형적인 전문에 의한 증거성 표지는 ‘I heard’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화자가 해당 내용이 참임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Song 2013 참조). ‘-더라고요’가 되었든 ‘-다는 거 있죠’가 되었든 아직은 ‘해당 발화 현장에 있어서 발화 사건을 겪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형적인 전문 증거성 표지로 발달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하겠다. 그 트리거(방아쇠)가 되는 맥락은 행위주(agent)와 화자가 괴리되는 맥락이 등장할 때이다. 가령 ‘단우는 (연우가) 대학에 안 간다는 거 있죠’, ‘단우가 (연우는) 대학에 안 간다더라고요’와 같은 문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말뭉치를 통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10) 이 서술부는 ‘서술어가 필수 논항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떡다(연우, 밥)’과 같은 식이다. 이 구성체를 무엇으로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명제가 문장(절)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sup>11)</sup> 자연 언어는 늘 문장 너머에 화자가 존재한다(Co Vet 1990: 126 참조).<sup>12)</sup> 이 화자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상정하지 않고는 양태(modality) 범주나 화행 범주를 설명할 수 없다. Ross(1970)나 Sadock(1974) 등이 모든 발화에 수행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수행문 가설을 주창한 것도 화행 층위에 존재하는 화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한다. 수행문 가설에 따르면 화행의 내용이 되는 명제는 ‘I Vp you that -’과 같은 형식에서 that이 이끄는 절로 종속(subordinate)된다. 후술하겠지만, 이 that 절을 이끄는 바깥 껍데기 ‘I V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 Vet(1990)은 화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문법 요소를  $\delta_{ILL}$ 이라는 운용소로 표상하고 이 운용소가 명제를 결속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sup>13)</sup> 화행의 종류에 따라 절은 다음과 같이 달리 표상될 수 있다.

- (7) ㄱ.  $\delta_{DECL} X_i: [Past e_i: \{walk_v (d1x_i: Peter(x_i))_{Ag}\}(e_i)](X_i)$   
 -“Peter walked”  
 ㄴ.  $\delta_{INT} X_i: [Past e_i: \{walk_v (d1x_i: Peter(x_i))_{Ag}\}(e_i)](X_i)$   
 -“Did Peter walk?”

(7ㄱ)은  $\delta_{ILL}$ 이 평서문(declarative)으로서 명제 X를 결속하는 것을, (7ㄴ)은 의문문(interrogative)으로서 명제 X를 결속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장을 의미 층위로 갈라 본다면 가장 바깥쪽에 화행 층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화자와 직결되는 운용소  $\delta_{ILL}$ 는 명제 안에 부정소(NEG)가 있다고 해도 그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화행 층위라면 운용소뿐만 아니라 위성(satellite)<sup>14)</sup>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어에서는 평가부사어 ‘다행히’에 이러한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이환목 1976 참조).

- (8) ㄱ. 연우가 떡을 먹었어요.

늘 있어 왔다. 본래 기능 문법에서는 이를 핵 서술부(nuclear predication)라는 지위를 부여했다(Dik 1997: 78). 김태인(2019)에서는 이를 핵 서술 단위로 명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서술부에 관한 개념사 연구는 김태인(2019)의 2.2.2절을 참조하라.

11) 명제와 문장(절)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제법 복잡하다. 이 역시 김태인(2019)로 미루도록 한다.

12) 화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화행 층위에 관하여는 김태인(2019)의 2.2.5절을 참조하라.

13) 여기서 ILL은 illocutionary force(언표 외적 효력)의 약어이다.

14) 절을 구성해 나가는 층위들은 문법적 운용소(operator)와 어휘적 위성을 가지게 된다. 가령 ‘어제 연우가 밥을 먹었어요’라는 절에서는 ‘-었-’이 시제 운용소가 되고 ‘어제’는 ‘먹다(연우, 밥)’ 서술부에 붙는 어휘적 위성이 된다. 같은 식으로 ‘다행히’는 명제 층위에 작용하여 화행 층위로 확대시키는 어휘적 위성이 된다.

- ㄴ. 연우가 떡을 먹지 않았어요.
- ㄷ. 다행히, 연우가 떡을 먹지 않았어요.

(8ㄴ)은 부정소가 어디에 걸리는가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곧 ‘연우가 떡을 먹지 않았어요’ 다음에 ‘단우가 먹었어요. / 빵을 먹었어요. / 밭아 버렸어요’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8ㄷ)의 ‘다행히’는 이러한 부정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8ㄷ)은 ‘연우가 떡을 먹지 않은 사실’ 그 자체를 화자가 다행스럽게 여긴다는 해석만이 가능한 것이다. 부정소가 명제 내부에서 작용한다면 ‘다행히’는 일종의  $\delta_{ILL}$  운용소와 호응하는 화행 층위의 위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Co Vet(1990: 128)에서 언급하는  $\delta_{ILL}$ 이라는 운용소인 화자와 문장 속 주어가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비대칭성(asymmetry)이다.

- (9) ㄱ. I heard that Mary won the prize.  
     ㄴ. I hear (that) Mary won the prize.
- (10) ㄱ. Peter heard that Mary won the prize.  
     ㄴ. Peter hears (that) Mary won the prize.
- (11) ㄱ. I did not hear that Mary won the prize.  
     ㄴ. \*I do not hear (that) Mary won the prize.

(9)의 문장은 Mary가 상을 탔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들었음(들어서 알았음)을 나타낸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듣다’에 해당하는 ‘hear’의 시제가 현재이든 과거이든 그 해석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동일성은 화자와 ‘hear’의 주어인 ‘I’가 일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자와 ‘hear’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10)은 각 시제에 따라 해석 역시 달라진다. 한편 ‘I hear’ 틀에 부정소 ‘not’을 적용했을 때 과거 시제로 나타나는 (11ㄱ)은 가능하지만 (11ㄴ)은 가능하지 않다. 시제가 중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9)나 부정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남을 보여주는 (11ㄴ)을 통해 Co Vet(1990)은 ‘I hear’가 (통째로 굳어진) 운용소  $\delta_{ILL}$ 임을 주장한다. 수행문 가설에서 that 절을 이끄는 바깥 껍데기 ‘I Vp’가 곧 양태-화행 층위의 운용소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는 Anderson(1986: 273-312)의 논의를 논거로 드는데, 곧 화자와 일치하는 일인칭 주어 ‘I’와 현재 시제의 지각 동사의 조합은 화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증거성 표지로 발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한국어에도 증거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맥락에서 과거 사태에 대한 보고임에도 시제가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예가 제법 발견된다.

- (12) ㄱ. 애가 갑자기 자기는 빠지겠다고 그러는 거야.
- ㄴ. \*애가 갑자기 자기는 빠지겠다고 그런 거야.<sup>15)</sup>

- (13) ㄱ. 아니,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 집에 속 가는 거 봐요.
- ㄴ. \*아니,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 집에 속 가는 거 봤어요.

- (14) ㄱ. 단우가 오늘은 혼자 밥 먹겠대요.
- ㄴ. \*단우가 오늘은 혼자 밥 먹겠었어요.

- (15) ㄱ. 단우만 혼자 집에 속 가는 거 있죠.
- ㄴ. \*단우만 혼자 집에 속 가는 거 있었죠.

(12)~(15)의 예는 ‘-고 그러는 거야’나 ‘-ㄴ 거 봐요’, ‘-대요’, ‘-ㄴ 거 있죠’ 구성이 증거성을 나타내며 과거에 경험한 사태에 대한 보고임에도 현재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국어는 일인칭 주어 ‘I’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인식 주체(개념화자, conceptualizer)를 전면으로 내세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차이로, 한국어와 같은 부류의 언어와 영어와 같은 부류의 언어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것이다.<sup>16)</sup> 다만 특이한 것은 ‘I hear’ 틀의 경우 ‘I heard’가 허용된 반면 ‘-ㄴ 거 있죠’는 ‘-ㄴ 거 있었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ㄴ 거 있죠’가 모종의 쓰임으로부터 통째로 굳어져서 발달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나아가 ‘-ㄴ 거 있죠’ 구성 역시 부정소의 영향권과 관련하여도 ‘I hear’과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6) ㄱ. 단우만 혼자 집에 속 안 가는 거 있죠.
- ㄴ. \*단우만 혼자 집에 속 가는 거 있지 않죠/없죠.

15) 이 예문은 (12ㄱ)과는 다른 의미로 성립한다.

16) 여기에는 제법 복잡한 설명이 요구된다. Langacker(1990)에서 논의한 것처럼 I-모드(Interactional mode of cognition) 언어가 있고, D-모드(Displaced mode of cognition) 언어가 있다. I-모드 언어는 사태 내부에 사태를 개념화하는 주체를 두는 반면 D-모드 언어는 사태 외부에서 탈주체화한 개념화 주체를 둔다. 이에 따라 주어의 명시화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어는 ‘아, 추워’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I’m cold/It’s cold’로 주어를 명시한다(박종후 2016: 189-190).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박종후(2016)의 5.3.1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수련(2010)의 논의도 큰 참조가 된다. 어쨌든, ‘I hear’ 틀에서 ‘I’가 한국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한국어는 화자와 일치하는 개념화자 ‘I’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I-모드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부정의 영향권이 ‘-ㄴ 거 있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6ㄱ)은 ‘단우만 혼자 집에 쫓 가는 것’에 대하여만 부정소 ‘안’이 영향을 미치고 바깥 틀인 ‘-ㄴ 거 있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해석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바깥 틀 ‘-ㄴ 거 있죠’에 부정소를 적용한 (16ㄴ)은 적절한 문장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ㄴ 거 있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영어의 예에서 ‘I hear’(일인칭 주어 ‘I’와 현재 시제의 지각 동사의 조합)가 문장 바깥 층위인  $\delta_{ILL}$ 이며 통째로 증거성 표지로 기능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ㄴ 거 있죠’ 역시 ‘I hear’와 같이 양태-화행 층위에 작용하는 운용소  $\delta_{ILL}$ 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의외성]을 가지는 증거성 표지로 발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이때 ‘-ㄴ 거 있죠’는 그 구성이 통째로 문법화했기에 ‘-었-’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제약을 가진다. 영어든 한국어이든 증거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현재 시제가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은 언어가 가진 전위성(傳位性, displacement)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위성은 언어의 핵심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전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발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과거와 미래의 일을 자유자재로 대화의 소재로 도입한다(Hockett 1958: 579). 이때 ‘지금, 여기’의 이야기가 아닌 ‘과거, 거기’의 이야기라도 생생함을 추구하는 맥락에서는 화자는 전략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전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화자가 증거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맥락이야말로, 이 ‘생생함을 추구하는 맥락’이라 할 것이다.<sup>18)</sup> 이어서 이 언어의 전위성에 깊게 얽혀 있는 ‘-ㄴ 거 있죠’ 구성의 면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ㄴ 거 있죠’ 구성의 기원과 전위성의 발현

서술어 ‘있다’가 실현하는 기본 구조는 ‘X가 있다’이다. 이 X 자리에는 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들’<sup>19)</sup>, 곧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들어올 터이다. 주지할 것은, 현대 존재론은 이 세계에 개체(individuals)뿐만 아니라 속성(properties), 명제(propositions), 사실(facts), 사건(events), 사상(states of affairs) 등과 같은 존재자들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김영정 1997: 111-112). 이는 언어학, 특히 의미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주로

17) 무엇인가에 대해 ‘있다’라고 말하려면 화자는 반드시 그 존재하는 개체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각 동사와 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18) 현재 시제의 역사적 현재 용법도 같은 사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19) 서술어가 ‘먹다’라고 한다면 ‘X를 먹다’의 X 자리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Lyons(1977: 438-452)의 존재자(실체) 구분이 통용된다.<sup>20)</sup> 이제 이 X의 자리에 개체, 곧 1차 실체가 오는 예들을 보이고, 이어 2차 실체, 사건이 오는 예들을 보일 것이다. 이 가운데 후자가 우리가 논구하는 ‘-ㄴ 거 있죠’ 구성과 관련된다.

말뭉치에서 찾은 예들을 살펴보자.

(17) ㄱ. 요기 보면은, 손톱 있지?

ㄴ. 그리고 그~ 메일 발송하는 광고 메일 있지 않습니까?

ㄷ. 니가 좋아하는 엽기토키 있지?

(17)의 예들에서 보다시피 해당 예들은 ‘거 있죠’ 앞에 1차 실체인 개체를 취한다. 다만 발화 현장에 해당 개체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17ㄱ)과 (17ㄴ, ㄷ)이 갈린다. 한편 이 개체는 일반 명사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내핵관계절’이라고도 불리는 ‘-ㄴ/는/은 거’로도 나타난다. 다음이 말뭉치에서 찾은 해당 예들이다.

(18) ㄱ. 삼십일 쪽에 제일 위에 엑스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ㄴ. 나머지 것들 제가 쪽~ 적어드린 거 있죠?

ㄷ. 비디오 스캔 뜯 거 있지?

(18) 역시 ‘-ㄴ/는/은 거’가 가리키는 대상이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18ㄱ)과 (18ㄴ, ㄷ)으로 대별된다.

‘있다’ 서술어에 있어서만큼은 ‘-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은 (17ㄱ)과 (18ㄱ)과 같이 현장에 해당 실체가 있고 이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서로 확인하는 경우이다.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에게도 가시적이기에 양자에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지’가 개입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는 화자도 이미 알고 있고 청자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박재연 2006: 200-201). 박재연(2006: 204-207)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바 이 ‘-지’가 의문문에 사용이 되면 “화자가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문장”이 된다. 박재연(2006: 206)의 예를 다음과 같이 보인다.

20) 1차(first-order)는 개체이며, 2차(second-order)는 시공간을 점유하는 사건이고, 3차(third-order)는 명제, 사실이다. 기능문법에서는 이에 0차와 4차를 추가한다. 0차는 개체가 지닌 속성이고 4차는 화행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Dik(1997)을 참조하라.

- (19) ㄱ. 철수 지금 피병 부리는 거야?  
    ㄴ. 철수 지금 피병 부리는 거지?

(19ㄴ)은 화자가 '철수가 피병 부리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19ㄴ)은 청자 역시 '철수가 피병 부리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개체에 대해 확인할 때에도 '있지'는 사용될 수 있다. '-지'는 화자와 청자의 특정 실체에 대한 머릿속 정보 지위에 연동되지 특정 실체의 현장 유무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17ㄴ, ㄷ), (18 ㄴ, ㄷ)의 '있다'의 논항이 되는 실체가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아무 문제없이 쓰였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과 (18)을 설명하면서 해당 실체가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던 것은 우리의 논구 대상이 되는 '-ㄴ 거 있죠' 구성이 해당 실체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맥락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ㄴ 거 있죠'가 표상하는 사건이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20) ㄱ. 나머지 것들 제가 쪽~ 적어드린 거 있죠?  
    ㄴ.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인 거 있지.  
    ㄷ. 삼십일 쪽에 제일 위에 엑스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20)은 앞에서 언급된 것들을 다시 가져와 본 것이다. (20ㄱ)의 '적어 드린' 일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관형사절의 시제도 '적어드린'으로 나타나지 '적어드리는'과 같이 현재 시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20ㄴ)에서 '세 명이 다 킹카인' 것을 확인한 것은 화자가 과거에 3대3 미팅을 나갔을 때, 곧 과거의 일이다. (20ㄱ)과 같은 논리로 '세 명 다 다 킹카였던 거 있지'로 발화를 수정하면 (20ㄴ)이 본래 전하려던 내용과 상당히 멀어져 버리게 된다. (20ㄴ)의 시제 양상은 현장에서 화자와 청자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20ㄷ)와 같다. (20ㄷ)는 관형사절의 시제도 '되어 있었던'이 아닌 '되어 있는'으로 나타나며 '있었죠'가 아닌 '있죠'로 실현된다. 요컨대, 우리의 논구 대상이 되는 '-ㄴ 거 있죠' 구문은 화자와 청자가 현장에서 해당 실체를 확인하는 맥락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보고할 때 그 생생함의 추구를 위해 청자에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해당 사건을 소환한 것이다. 곧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자는 발화 전략으로 언어의 전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ㄴ 거 있죠' 구성에 얽혀 있는 여러 특이점들이 매끄럽게 설명된다. 곧 (2ㄱ, ㄴ, ㄷ)에서 제기한 '-었-'의 개재 여부 문제, 관형사절의

시제 문제, ‘-지’의 개재 문제, 더 나아가 ‘-는 거 있죠’의 ‘거’ 뒤에 조사가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이러한 특이점들에 해당된다.

(1)의 예들을 다시 불러와 본다.

- (21) ㄱ. 파인애플 효능 엄청 많은 거 있죠.
- ㄴ. 다들 다이어트 했냐고 하는 거 있죠.
- ㄷ.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 ㄹ.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인 거 있죠.
- ㅁ.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인 거 있지.
- ㅂ. 너무 평화로우면 불안한 거 있지.

(21)에서 보듯이 ‘-ㄴ 거 있죠’ 구성에서 ‘있다’의 논항으로 나타나는 ‘-ㄴ 거’ 명사절은 2차 실체인 사건을 표상한다.<sup>21)</sup> 화자는 해당 사건을 화자와 청자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제시하며 청자에게 이 실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이때 ‘-ㄴ 거 있죠’가 표상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이다. 그렇기에 ‘-ㄴ 거 있죠’에 청자 기지 가정을 나타내는 ‘-지’가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ㄴ 거 있죠’ 구성에서 ‘-지’를 빼면 본래의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ㄴ 거 있죠’가 (17ㄴ,ㄷ)이나 (18ㄴ,ㄷ)과 같이 현장에는 없지만 서로 정보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 구성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17ㄱ)이나 (18ㄱ)과 같이 현장에서 가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부터 촉발된 구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가 아닌 ‘있다’로 나타나는 것도, ‘-ㄴ’ 관형사절이 대체로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이유도<sup>22)</sup>, ‘-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이유도 여기서 다 해명이 된다. 증언부언이지만, 화자와 청자는 해당 사건을 눈앞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호작용 속에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사전에 등재된 ‘있지, 있잖아’는 일종의 ‘전위성 표지(displacement marker)’로도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없으면서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며, 어떤 실체를 담화에 새롭게 도입시킨다. 청자는 해당 실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를 받아들인다. 요컨대 ‘있지, 있잖아’는 이러한

21) ‘-ㄴ 거’ 명사절이 사건을 표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태인(2022)를 참조할 수 있다. 김태인(2022) ‘ㄴ/는/은 거’를 명사화소로 적극 수용하고, ‘ㄴ/는/은’의 관형사절이 사건 아니면 명제를 표상한다고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세계에서 다른 사건의 원인(causal efficacy)이 된다. ‘-ㄴ 거 있죠’ 구성의 ‘-ㄴ’은 명제로 해석되지 않고 사건으로 해석된다.

22) 과거 시제인, 가령 ‘꿨던/학생이었던/집에 간’ 등도 가능하지만 현재 시제와 다른 해석이다. 주의해야 한다.

상호주관성(intersubjectification)을 나타내는 표지로 문법화한 것이다.

혹자는 위의 논의에 반발하며 ‘-ㄴ 거 있죠’ 구성이 (17ㄱ)이나 (18ㄱ)과 같은 현장 지시적인 쓰임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범언어적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기본적 방향은 주관화(subjectification)의 기제를 강하게 따른다(Traugott 1989, 2003 참조). 곧 가시적이며 현상적이어서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키던 표현이 화자의 심리적 표상, 주관과 관련한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 설정인 것이다. 유추를 통해서도 본고의 주장은 더욱 뒷받침된다.

(22) ㄱ. 아까 연우를 봤어요.

ㄴ. 개 맨날 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 봐요!

ㄷ. 연우는 친구랑 노나 봐요.

‘보다’는 (22ㄱ)과 같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1차 실제 ‘X를 보다’의 쓰임을 최우선으로 가진다. 하지만 ‘보다’는 이런저런 구문을 형성하여 (22ㄴ)의 예처럼 증거성 표지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주관화의 경로를 통해 (22ㄷ)과 같이 ‘~으로 간주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보다’의 쓰임으로 확장된다. ‘보다’의 이러한 쓰임의 확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다’가 그러하듯 ‘있죠’ 역시 그러하다.

## 4. 제언문으로서의 ‘-ㄴ 거 있죠’ 구성의 특징

### 4.1. ‘-ㄴ 거 있죠’ 구성의 제언문적 속성

우리가 논구하는 의미와 기능을 가진 ‘-ㄴ 거 있죠’는 ‘거’ 뒤에 조사가 나타날 수 없다. 다음의 차이가 그러하다.

(23) A: 무슨 일 있어요?

B: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

A: 아, 그랬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군요.

(23)에서 나타나는 ‘-ㄴ 거 있죠’가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격 조사가 붙어 있지 않다.<sup>23)</sup> (23)의 B 화자는 ‘단우가 혼자 밥 먹는 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A 화자에게 이에 대해 전달한다. 그러므로 A 화자에게 있어서 ‘단우가 혼자 밥 먹는 사건’은 신정보가 된다. 하지만 다음은 어떠한가.

23) 이를 편의상 ‘무조사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24)A: 저기요,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게 있죠?

B: 네,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됐나요?

(24)의 A 화자의 발화에서는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것’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로 융합형 ‘게’로 나타났다. 이때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것’은 청자 B도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이다. 그렇기에 (24B)와 같이 ‘알고 있다’와 같은 답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ㄴ 거 있죠’ 구성은 조사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조사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의미·기능으로 성립한다.

본래 ‘-ㄴ 거 있죠’ 구성을 촉발했던 (17ㄱ)과 (18ㄱ)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보자.

(25)ㄱ. 요기 보면은, 손톱 있지?

ㄴ. 삼십일 쪽에 제일 위에 엑스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25)의 예문을 보면 화자는 ‘있지’ 구문을 통해 발화 현장에서 청자에게 1차 실체를 확인시키면서 그 1차 실체에 대한 대화로 청자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렇게 보면 (25ㄱ)이나 (25ㄴ)은 담화에서 관계적 신정보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ㄴ 거 있죠’ 구성과 다른 것은 조사 ‘이’가 개재된 형태 ‘손톱이 있지?’나 ‘엑스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또 말뭉치에는 이와 비슷한 용례들이 많이 검색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2차 실체인 사건을 취하는 ‘-ㄴ 거 있죠’ 구성은 조사가 개재되는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곧 문법화를 통해 굳은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법화를 통해 얻게 된 기능은 다름 아닌 제언문으로서의 기능이다.

본고에서 집중해야 하는 논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24)의 ‘-ㄴ 게 있죠’와 같은 부류는 맥락화된 존재문으로 다루어야 할 듯하다.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게 있죠?’라는 문장은 어떤 주제를 담화에 도입하는 데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존재문에서의 명사구는 한정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서술어가 한정적인 명사구를 취하는 예가 있는데 이를 Abbott(1992: 2)에서는 맥락화된 존재문(contextualized existential)이라 칭한 바 있다. 어떤 담화를 이어가던 대화 참여자들이 이전의 담화 상황에 활성화되어 있던 개체에 대해 잠시 언급하지 않다가 해당 개체를 다시 담화에 끌어올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존재문이 이에 해당한다. (24)의 예가 바로 여기에 부합한다.

다시 (23)의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26)A: (편의점 카운터에서) 아저씨, 담배 있죠?

B: 네, 뭘로 드릴까요?

(27)A: 아저씨, (그) 담배(가) 있죠.

B: 네, 그 담배가 어떻게 됐어요?

A: 기껏 주셨는데, 땅에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있죠’가 취하는 논항을 ‘-는 거’가 아닌 명사구로 바꾸어 (26)과 (27)에 제시하였다. 동일하게 ‘담배 있죠?’가 발화에 나타나지만 그 해석이 상이한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27)의 ‘(그) 담배(가) 있죠’는 (24)의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와 평행하게 해석되는 맥락화된 존재문이라 할 것이다. 곧 화자와 청자가 둘 다 인식하고 있던 개체가 잠시 담화의 화제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담화에 재도입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4)의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 맥락에서 주격 조사 ‘이’가 없는 형태인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가 용인된다는 점에서 (27)의 ‘(그) 담배(가) 있죠’는 평행한 양상을 보인다.<sup>24)</sup>

한편 (26)의 ‘담배 있죠’는 전형적인 제언문의 양상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제언문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제언문의 의미에는 이견이 없는 편인데, 곧 어떤 개체에 대한 서술이 아닌 한 덩어리의 사실이나 사태를 단언하거나 제시하는 것이다(임동훈 2005, 전영철 2013 참조). 이를 통해 보면 (26)의 ‘담배 있죠’는 ‘담배’라는 개체도, 그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주요한 정보이며, 이 둘은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된다.

유명한 Sasse(1987: 566-567)의 논의에서는 제언문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일곱 가지의 유형을 제시한다.

(28) ㄱ. 존재에 대해 서술할 때

ㄴ. 설명할 때(‘무슨 일이야?’ 혹은 ‘그거 왜 그런 거야?’라는 질문에 대한)

ㄷ. 놀랍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나타낼 때

ㄹ. 보편적인 격언이나 경구에 대해 진술할 때

ㅁ. (장소나 시간에 대한) 배경을 기술할 때

ㅂ. 날씨에 대해 표현할 때

ㅅ. 신체 일부에 관해 표현할 때

24)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영철(2000)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내세우게 된다. 전영철(2000)에서는 일반적인 존재문이 되었건 맥락화된 존재문이 되었건 모두 주격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맥락화된 존재문의 경우 주격조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생략이 되어도 용인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26)의 ‘아저씨, 담배 있죠?’와 평행하게 (23)의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 역시 제언문으로 판단된다. ‘담배 있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될 것이고, 이 때 ‘어떤 사건’도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주요한 정보가 된다. 곧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는 한 덩어리의 정보로 인식되며, 문장 전체가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sup>25)</sup>

본 절을 중심으로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특정 사건을 경험했고, 이를 청자 앞에 생생하게 전달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한다. 이때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제언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화자에게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Sasse 1987). 화자는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마치 청자의 눈앞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ㄴ 거 있죠’ 구성의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ㄱ. 관형사절의 시제가 현재인 것, ㄴ. ‘있었죠’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 ㄷ. 신정보임에도 현장에서 상호 확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위해 ‘-지’를 반드시 동원한다는 것, ㄹ. 제언문이기 때문에 ‘-ㄴ 거’와 ‘있죠’ 사이에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전에서 기술되는 ‘있지, 있잖아’와 연관된 것은 바로 조사가 개입하지 않는, 다시 말해 우리의 논구 대상이 되는 ‘-ㄴ 거 있죠’이다. 앞서 살펴 보았던 (21)을 다시 가져와 본다.

- (21) ㄱ. 파인애플 효능 엄청 많은 거 있죠.  
 ㄴ. 다들 다이어트 했냐고 하는 거 있죠.  
 ㄷ.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ㄹ.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인 거 있죠.  
 ㅁ.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인 거 있지.  
 ㅂ. 너무 평화로우면 불안한 거 있지.

(21)의 예들은 다음 (29)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29) ㄱ. 있잖아요, 파인애플 효능 엄청 많아요.  
 ㄴ. 있잖아요, 다들 (저한테) 다이어트 했냐고 했어요.

25) 이는 Lambrecht(1994: 144)에서 언급한 문장 초점(SENTENCE-FOCUS)에 해당될 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문장 초점을 받는 문장의 성격은 사건 보고문이나 제시문(Event Reporting or Presentational)인데, 이 문장의 앞의 적절한 질문은 'What Happened?'이다 (Lambrecht 1994: 144). Sasse(1987)이나 Lambrecht(1994)이나 본고에서 천착하는 사건의 개념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제언문의 설명에 있어 ‘사건’이 핵심어가 되어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 ㄷ. 있잖아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 ㄹ.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었어요.
- ㅁ. 있지, 3대3 미팅 나갔는데 세 명 다 킹카였어.
- ㅂ. 있지, 너무 평화로우면 불안해.

한편 확실한 비교를 위해 (23)과 (24)를 다시 쓰기 해 보자.

(30)A: 무슨 일 있어요?

B: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 → 있잖아요, 단우가 혼자 밥 먹었어요.

A: 아, 그랬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군요.

(31)A: 저가요,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게 있죠? → \*있잖아요, 단우가 혼자 밥 먹었어요.

B: 네,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됐나요?

#### 4.2. 제언문으로서의 ‘-ㄴ 거 있죠’ 구성의 통사 구조 설정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 구문을 통사적으로 분석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이 구문을 제언문으로 처리하였다. 전영철(2013: 128)에서는 ‘이다’ 서술어가 주도하는 제언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인 바 있다.

(32) ㄱ. [[불-∅]NP [이]V]S야!

ㄴ. [[마을-∅]NP [이]V]S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김창섭(2011)의 다음의 분석을 적극 수용한 것에 기인한다.

(33) ㄱ. 선생님입니다! → [[선생님]NP [이]V 시]S다!

ㄴ. [[선생님이 곧 오실 것]NP[이]V]S다.

곧 김창섭(2011)에서는 ‘이다’를 부접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 역시 ‘-거 있죠’ 구문의 ‘있죠’를 통사적으로 부접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상정된다.

(34)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NP [있]V]S죠?

전영철(2013)에서는 (32)의 ‘불이야!’, ‘마을이다’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이유를 편입(incorporation)으로 처리하고 있다. 곧 정보 초점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이/가’와 확인 초점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이/가’ 가운데 전자의 주격 조사가 후자에 비해 약한 초점을 나타내고, 이는 주격 조사가 서술어에 쉽게 포함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마을이다’에서 ‘마을이 이다’를 상정할 수 없는 것처럼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에서도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게 있죠’는 상정할 수 없다. 이 구문에서의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는 당연히 정보 초점인데, 이는 전영철(2013)에서 말한 확인 초점보다는 약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서술어 ‘있죠’에 포함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 있죠?’는 제언문이며, 이때 ‘단우가 혼자 밥 먹는 거’는 정보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주격 조사는 부접어 ‘있죠’에 포함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 5. 결론

(생략)

### 〈참고 문헌〉

- 김창섭(2011),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 62, 47-72.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1-25.  
사례(2014), 한국어 존재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임동훈(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119-144.  
전영철(2000), 한국어 존재문의 구성,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261-280.  
전영철(2013),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68, 99-133.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윤지(2017), 관형사절이 단언을 나타내는 열린 분열문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42, 99-134.  
황화상(2013),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379-403.  
Anderson, L.B.(1986), Evidential, paths of change, and mental maps: Typologically regular asymmetries, In W.Chafe and J.Nichols, (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Ablex, 273-312.  
Co Vet(1990), Asymmetries in the Use of Tense and Modality, in J. Nuyts, A.

- M. Bolkestein, C. Vet(eds.), *Layers and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anguage Theory*, Amsterdam: Benjanlins.
- Hengeveld, K.(1990b),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Utterance*, in J. Nuyts, A. M. Bolkestein, C. Vet(eds.), *Layers and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anguage Theory*, Amsterdam: Benjanlins.
- Hockett, Charles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York: THE MACMILLAN COMPANY
- Langacker, Ronald W.(1990/2002), *Image, Concept, and Symbol: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End edition)*, Mouton de Gruyter.(나익주 옮김, 『개념·영상·상징-문법의 인지적 토대』, 2005, 서울:박이정).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yts, J., A. M. Bolkestein, C. Vet(eds.)(1990), *Layers and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anguage Theory*, Amsterdam: Benjanlins.
- Sasse, Hans-Jürgen(198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511-580.
- Traugott, E. C.(1989),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 An example of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 *Language* 65(1), 31-55.
- Traugott, E. C.(2003),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In Hickey R. (Ed.), *Motives for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4-139.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3부 연구 발표

## 신문 주제에 따른 인용명사 구문의 사용 양상 연구

현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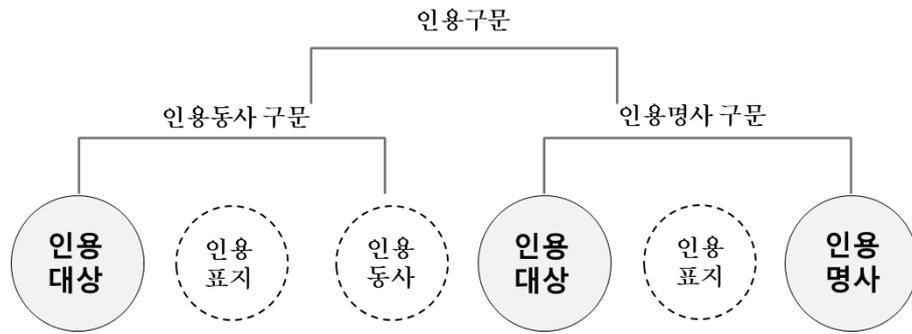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dew840713@hanmail.net

### 1. 서론

인용명사 구문은 인용동사 구문과 함께 인용구문의 일종으로 ‘인용 대상, 인용 표지, 인용명사’를 기본 구성 요소로 가지나, 인용동사 구문이 ‘인용 대상’만으로도 인용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인용명사 구문은 ‘인용 대상과 ‘인용 명사’가 반드시 함께 출현하여야 온전한 인용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인용구문 연구는 주로 인용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용명사 구문은 기존 논의에서 ‘인용’의 행위를 수행하는 기능적 관점보다는 통사·의미적 관점에서의 명칭으로써 ‘보문명사, 보절명사, 단언명사, 추상명사, 명제명사’ 구문으로 명명되어 왔다<sup>1)</sup>. 인용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인용구문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1) ‘보문명사, 보절명사, 단언명사’는 보문절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 용어이고, ‘명제명사, 추상명사’는 명제를 지시하거나 명사 자체의 추상성과 관련된 의미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현영희 (2021: 9)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용명사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용어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인용구문의 도식화(현영희 2021: 32)

위 도식에서처럼 인용구문의 필수요소는 인용 대상(내용)이며 특히 인용명사 구문의 경우 인용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가 인용대상과 필수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1) ㄱ. 유아용 침대에 사용되는 범퍼가 영아 돌연사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ㄴ. 몸에 점이 많으면 미용상으로도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혹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다.
- ㄷ. 민주진보진영 내에서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따위의 주장이 적잖은 설득력을 얻었다.
- ㄹ. 의문이 일었다. ‘그녀는 혹시 집시였을까? 주인공은 왜 그녀의 죽음을 보기만 했을까? 작가는 왜 그녀를 죽였을까?’
  
- (2) ㄱ. ∅ 주장이 나왔다.
- ㄴ. ∅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다.
- ㄷ. ∅ 주장이 적잖은 설득력을 얻었다.
- ㄹ. 의문이 일었다. ∅

예문 (1ㄱ)은 ‘인용 대상, 인용 표지, 인용명사’를 모두 갖춘 구문의 예로 인용명사 구문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1ㄴ~ㄷ)은 ‘-다는’<sup>2)</sup>과 같은 ‘인용 표지’가

통사적 용어	보문명사	남기십(1973), 강범모(1983), 이익섭·입홍빈(1983) 이홍식(1999) 안명철(1992, 1999), 방성원(2001a) 김지은(2002)
	보절명사	장경희(1987)
	단언명사	김영희(1981)
의미적 용어	추상명사	차준경(2008, 2009, 2015)
	명제명사	정주리(2004)
기능적 용어	인용명사	한송화(2013), 현영희(2019, 2020a, 2020b)
	인용도입명사	서종석 외(2005)
	기능명사	이영제(2014)

2) ‘-다는’ 관형형 어미는 ‘-자는, -라는, -냐는, -는다는, ㄴ다는, -느냐는, -으라는, -리라는, -란, -단, -ㄴ단’ 등 다양한 이형태를 가지는데, ‘-다는’으로 통합하여 지칭한다.

빠져 있는 구문이며, (1ㄷ)은 인용명사와 인용 대상이 문장 차원을 넘어 텍스트 차원에서 실현된 예를 보인 것이다. 예문 (1ㄱ)과 같이 전형적인 인용명사 구문 외에 예문 (2)에서처럼 인용 대상이 생략될 경우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내용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구문 역시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용명사 구문은 주로 문장 층위에서 수식절의 형태·통사적 특징이나 명사 자체의 의미와 명사가 지시하는 내용절과의 화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명사와 명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실현은 필수적이며 ‘인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기본 개념 아래(안경화 1995, 한송화 2013), 인용명사 구문의 실현을 결합 위치, 범위, 거리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지언어학적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인용명사 구문이 실현되는 기본 작동 원리가 바로 개념화자(conceptualizer)<sup>3)</sup>의 인지적 전략<sup>4)</sup>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Schmid 2000, 현영희 2021). 이러한 자아 중심적 해석 능력의 발현으로서의 ‘인지적 전략’은 주제 영역에 따라 다양한 구문과 기능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문 주제 영역에 따라 인용명사 및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실현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2. 예비적 논의

인용명사를 중심으로 한 인용구문 연구, 특히 말뭉치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최근에서야 진행되었고(차준경 2008, 2009, 2015; 한송화 2013; 현영희 2019, 2020ㄱ, 2020ㄴ, 2021; 박미은 2021ㄱ, 2021ㄴ), 인용명사의 의미적 분류, 기능, 사용 패턴과 관련된 전반적인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들 명사의 개념, 의미와 같은 원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특정 장르 또는 분야별 사용 양상과 같은 실제적 사용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Flowerdew 2003, Yamasaki 2008, Hirsh 2010, Kanté 2010), 본고에서는 이들 명사가 신문 주제 영역에 따라 어떠한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지 그 실제적 쓰임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전의 국내 연구들은 특정 장르(신문)를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대규모 말뭉치에서의 인용명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장르 간 또는 주제에 따라

3)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개념화자(conceptualizer)’는 장면(상황, 사태, 사건, 세계와 거의 같은 성격을 지님)의 의미 해석에 참여하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를 포함한 용어이다(임지룡 2004: 45-6).

4) 대상이나 사태를 자신의 의도나 의지에 맞추거나 자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주관적 인지 능력의 발현이다(임지룡 2007: 196-197).

인용명사의 목록과 사용 패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가 전개되지는 못하였다.<sup>5)</sup>

신문 기사문은 정보의 전달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왜곡 없이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듯하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필자의 의도를 드러낸다(G. Kress & P. Knapp 1992: 9). 또한 객관성, 사실성 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인용구문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인용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보다는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화자의 관점과 판단을 반영한다. 한송화(2013: 453)에서는 인용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 화자의 관점에 따라 피인용 사실에 다소의 변형을 가하게 되며, 어휘 선택에 인용 화자의 관점과 판단을 반영하게 되는데, 인용 화자가 피인용 사실을 단순한 ‘말, 얘기’로 판단하는지 ‘지적, 비판’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인용의 ‘-다는’ 이후의 후행 명사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수식절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드러내 주는 인용명사의 사용을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신문 기사문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장르로 인식되는 범주이지만 여러 텍스트 유형의 집합체로 보기도 하므로<sup>6)</sup> 각각의 신문 주제 영역별로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신문 주제 영역별로 인용명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sup>7)</sup>의 신문 기사문은 수집 양이 고르지 않고 특정 신문 주제의 경우 수집 양이 매우 적다. 따라서 비슷한 크기의 말뭉치로 균형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경제, 문화, 사회’ 3가지 주제 영역<sup>8)</sup> 총 643,641어절을 비교하기로 한다<sup>9)</sup>.

5) 한송화(2013: 456)에서는 발화를 인용하는 인용명사의 경우 신문 텍스트에 비해 학술적 텍스트에서 ‘말, 이야기, 기록’ 등의 객관적 인용명사의 사용이 더 많다고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장르 간의 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다.

6) 강범모(1999)에서는 신문 기사문을 순수 보도 중심의 기사문,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문, 개인 혹은 신문사의 의견이 개진되는 기사문으로 나누었고, 실제 이들 세 부류의 신문 기사문에서 각각 두드러지는 언어적 특성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장근(2001: 194-196)에서도 신문텍스트의 기본 유형을 정보 위주의 텍스트, 의견 위주의 텍스트, 대화적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김혜진(2016: 195)에서도 이러한 텍스트 유형뿐 아니라 묘사, 설명, 지시, 주장, 서사의 다양한 장르성이 각 주제와 문장 성분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7) 이하 ‘세종 말뭉치’.

8) 세종 말뭉치의 신문 주제 영역의 경우 ‘사설,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를 고려할 수 있는데, 스포츠의 경우 약 10만 어절의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어 균형적인 구성을 할 수 없어 배제하였고, ‘사설’의 경우 텍스트 특성상 ‘의견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으나 주제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매우 다양하여 특정 주제 영역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9) 연구 대상 말뭉치 구성을 상세하면 아래와 같다.

주제	파일 수	어절수
경제	6	213,006
문화	5	216,596
사회	5	214,039
총합	16	643,641

### 3. 신문 주제별 인용명사 구문 분석

#### 3.1. 신문 주제별 인용명사 의미 범주 분석

신문 주제와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과 기능이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신문 주제 영역에서 인용명사 구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인용명사’의 사용 양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명사 구문은 인용표지 ‘-다는’<sup>10)</sup>이 실현된 구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출현 빈도도 높기 때문에 신문 주제별 인용명사 구문을 분석하기 위해 ‘-다는’과 공기하는 명사를 추출하여 각 신문 주제별 인용명사의 빈도 및 의미 범주 분석을 기반으로 인용명사 구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신문 주제별 ‘-다는’ 과 공기하는 명사의 빈도

경제		문화		사회	
명사	빈도	명사	빈도	명사	빈도
지적	57	사실	54	지적	53
이야기 <sup>11)</sup>	38	말	46	사실	47
분석	34	생각	35	이유	32
방침	27	뜻	31	생각	22
평가	24	제목	29	내용	22
전망	24	<b>이야기</b>	21	<b>주장</b>	22
뜻	24	<b>주장</b>	19	말	22
판단	21	평	18	의혹	19
<b>주장</b>	18	이름	18	판단	16
입장	17	주제	16	소식	15
의미	16	용어	14	방침	15
말	16	내용	14	<b>이야기</b>	14
소문	15	의미	13	의견	12
비판	15	지적	12	진술	12
인식	15	설명	12	판결	11
사실	15	평가	10	뜻	10
의견	14	이유	9	입장	9
계획	13	후문	8	취지	9
이유	13	설정	7	이름	8
소식	11	비판	7	소문	8

10) ‘-다는’ 관형형 어미는 ‘-자는, -라는, -냐는’ 등 다양한 이형태를 가지는데, 앞으로 이들 어미는 ‘-다는’으로 통합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11) ‘이야기’의 준말 ‘얘기’도 포함되어 있음.

위 <표 1>에서는 각 신문 주제 영역별로 상위 20위까지의 고빈도 인용명사를 제시하였다.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인용명사가 전체 인용명사 총 출현 빈도의 3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sup>12)</sup>, 특히 경제와 사회 주제 영역의 경우 상위 20위까지의 인용명사가 전체 인용명사 출현 빈도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고빈도 인용명사가 ‘-다는’ 구문과 공기하여 인용명사 구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주제 영역별로 인용명사의 의미 범주를 분류해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sup>13)</sup>, 경제 영역의 경우 ‘분석, 평가, 판단’ 등의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가 상위 인용명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문화 영역의 경우 ‘사실, 내용, 이유’ 등의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가 약 39%, 사회 영역은 ‘지적, 주장, 말’ 등의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가 약 41%로를 차지하였다.

<표 2> 신문 주제에 따른 인용명사 사용 빈도 및 비율

	경제		문화		사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발화	170	39.81	125	31.81	<b>156</b>	<b>41.27</b>
생각	<b>212</b>	<b>49.65</b>	114	29.01	93	24.60
사실	28	6.56	<b>154</b>	<b>39.19</b>	120	31.75
상황	17	3.98	0	0.00	9	2.38

신문 텍스트에서의 평균적인 사용 비율과 비교해 보면<sup>14)</sup>, 경제 영역에서의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는 신문 텍스트의 평균 사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문화 영역에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의 경우 신문 텍스트의 평균 사용 비율에서는 저빈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특징적이다. 사회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가 고빈도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는 평균 사용 비율보다 낮게,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는 평균 사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정리하면, 각 주제 영역별 인용명사의 사용 비율이 신문 주제 영역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며 주제 영역별로 선호하는 인용명사의 의미 범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경제 영역은 상위 10개의 명사가 전체 인용명사 출현 빈도의 32.76%를 차지하고, 문화 영역은 28.76%, 사회 영역은 35.43%를 차지한다.

13) 의미 범주의 분류 기준 및 명칭 등에 대한 국내외 논의에 대해서는 현영희(2020: 89, 2021: 12-14) 참조.

14) 한송화(2013)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신문텍스트 말뭉치 총 242,532어절을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한송화(2013: 458)에서 제시한 신문 텍스트에서의 인용명사 사용 비율을 보면,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가 38%,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가 39%로 이 두 개 의미 범주에 속한 인용명사가 전체 사용 비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와 상황을 인용하는 명사는 각각 15%와 8%로 낮은 사용 비율을 보여 준다.

Schmid(2000)에서는 인용명사가 가진 의미의 불투명성과 추상성의 의미적 자질을 ‘비명시성(unspecific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명사가 텍스트에서 인용명사로 기능하려면 그 명사의 의미적 구조는 하나 또는 여러 ‘의미적 공백(semantic gap)’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백은 인용 대상에 포함된 정보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Schmid 2000: 76-7). 또한 인용명사는 인용 대상이 전달하는 인용 내용을 특징화(characterizing)하는 양태적 기능을 가지므로(Schmid 2000: 308, 한송화 2013: 462-469), 인용 대상이 가진 정보적 성격이 경제, 문화, 사회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인용명사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즉, 인용명사의 선택에 인용 화자의 관점과 판단뿐만 아니라 인용 대상에 포함된 텍스트의 주제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 (3) ㄱ. 1997년~98년 외환위기를 겪은 것이 오히려 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  
 ㄴ. 주5일 근무제가 처음 시행되는 데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객이나 은행 모두 다소의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  
 ㄷ.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한데다, 6월 중순 이후 주가가 20%나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경제>

예문 (3)은 경제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미 범주의 인용명사 사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생각을 인용하는 인용명사가 고빈도 인용명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만 고빈도로 출연한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는 ‘분석, 전망, 인식’ 세 가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용명사가 인용 대상을 특징화하고 구체화하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개념화자의 인지적 전략의 하나로 인용명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이러한 명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용 대상의 주제적 특성 역시 인용명사와의 공기 관계를 한정할 수 있다. 예문 (3)에서 ‘분석, 전망, 인식’의 인용 대상은 어떤 현상이나 제도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발화, 사실이나 사실에 기반한 증거, 상황에 대한 설명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명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의 범위 내에서 화자의 태도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명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예문 (4)는 문화와 사회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미 범주의 인용명사 사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 (4) ㄱ. 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권으로 읽는...'이라는 제목을 붙인 역사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문화>  
 ㄴ. 또 모녀간 세대 갈등의 화해라는 주제에 어울리듯 모녀가 춤동작을 함께

- 하는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문화>
- ㄷ. 그리고 국사책에 나오는 '운동'이라는 성격이 없는 절충적인 용어도 적절치 않습니다. <문화>
- ㄹ. 검찰이 대출비리 사건으로 구속한 한 기업인한테서 청와대 간부에게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예문 (4ㄱ~ㄷ)에서처럼 문화 분야에서는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류가 약 39%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의미 범주에 속한 인용명사 중 문화 분야에서만 고빈도로 사용된 인용명사는 ‘제목, 주제, 용어’이다. 이들 명사가 지시하는 인용 대상이 구체적인 명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 생각, 상황을 인용하는 명사류가 선택되기는 어렵다.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로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류가 약 41%로 다른 의미 범주에 비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예문 (4ㄹ)의 인용명사 ‘진술’의 경우 사회 분야에서만 고빈도로 사용된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이다. 경제나 문화 분야에서 사회 분야만큼 명사 ‘진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하는 인용 대상의 내용이 사회 분야와는 다른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3.2. 신문 주제별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

‘-다는’과 공기하는 인용명사의 목록과 빈도 분석을 통해 각각의 신문 주제별로 고빈도로 출현하는 특징적인 인용명사의 의미 범주를 살펴보았다. 3.2절에서는 모든 주제 영역에서 고빈도로 출현한 인용명사를 중심으로 각 신문 주제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표 1>의 인용명사 목록에서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에서 고빈도로 출현한 인용명사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 신문 주제별 고빈도 인용명사의 의존도

명사	경제		문화			사회		
	빈도	의존도	명사	빈도	의존도	명사	빈도	의존도
이야기	38	52.78	사실	54	37.50	지적	53	35.81
뜻	24	52.17	뜻	31	32.29	이유	32	27.66
지적	57	27.67	지적	12	23.08	뜻	10	20
주장	18	14.4	주장	19	10.11	이야기	14	18.18
이유	13	11.93	이유	9	7.03	사실	47	14.16
사실	15	11.63	말	46	5.24	주장	22	8.73
말	16	1.81	이야기	21	4.73	말	22	1.91

각 신문 주제 영역별로 상위 20위 안에 모두 출현하는 인용명사는 ‘이야기, 뜻, 지적, 주장, 이유, 사실, 말’ 모두 7개이다. <표 3>의 의존도(reliance)<sup>15)</sup>는 명사가 특정한 패턴에 의존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표 1>의 빈도는 명사가 ‘-다는’과 공기하는 단순 빈도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말(사회-1150회)’, ‘이야기(문화-444회)’와 같이 텍스트 전체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명사의 경우 텍스트에서의 총 출현 빈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다는’과 공기하는 빈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 전체에서 출현하는 빈도 대비 ‘-다는’과 공기하는 출현 빈도의 비율인 의존도가 높은 인용명사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각 신문 주제 영역별로 명사 ‘뜻’의 인용구문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명사 ‘뜻’은 모든 주제 영역에서 의존도가 높고 주로 경제 영역에서 선호하는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 범주의 하나이다.

<표 4> 인용명사 ‘뜻’의 유형 분류<sup>16)</sup>

분류 기준		유형	경제	문화	사회
문장 층위	한정적 인용명사 구문	S-다는 N(이다)	16(53.3)	21(41.2)	5(25.0)
		S-다는 N + V	9(30.0)	16(31.4)	10(50.0)
		S-는 N + V	3(10.0)	5(9.8)	4(20.0)
		np/cl(의) N	-	8(15.7)	-
텍스트 층위			2(6.7)	1(2.0)	1(5.0)
합계			30(100)	51(100)	20(100)

인용명사 ‘뜻’은 경제 영역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한정적 인용명사 구문 중에서도 인용표지 ‘-다는’과 결합한 유형(S-다는 N(이다), S-다는 N + V)이 80%가 넘는다. 다른 주제 영역도 모두 한정적 인용명사 구문이 90% 이상으로 인용 대상과 인용명사가 수식 관계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인용명사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5) ㄱ. 유통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장기

15) Schmid(2000: 54-55)에서는 견인도(attraction)와 의존도(reliance) 두 가지 통계 방법을 제시하는데, ‘견인도’는 특정 패턴 내에서 어떤 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의존도’는 명사가 여러 패턴 중에 특정 패턴과 어떤 비중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준다.

16)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은 현영희(2021: 63-4)의 분류를 따랐다. 인용명사 구문은 크게 ‘한정적 인용명사 구문’과 ‘조용적 인용명사 구문’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문장 단위에서 인용명사가 내포 또는 수식 관계를 형성하는 인용명사 구문을 말하고, 후자는 문장 또는 텍스트 층위에서 인용 대상과 인용명사가 내포 또는 수식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조용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용명사 구문을 말한다.

- 채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 ㄴ. '한양은 '한강을 낀 햇볕 잘 드는 살기 좋은 땅(성읍)'의 뜻이다. <문화>
- ㄷ. 그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회>

예문 (5)는 각 주제 영역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형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5ㄱ)과 (5ㄴ)의 인용명사 ‘뜻’은 인용명사 구문의 형식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차이도 보인다. (5ㄱ)의 인용명사 ‘뜻’은 경제 현상에 대한 해석적 의미를 의미한다면, (5ㄴ)의 ‘뜻’은 ‘한양’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며, 주로 문화 영역에서는 ‘S-라는 뜻’ 또는 ‘np/cl(의) 뜻’ 구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문 (5ㄷ)의 사회 영역의 경우 ‘S-다는 N(이다)’ 유형보다 ‘S-다는 N V’ 유형의 비중이 높는데 인용명사 뒤에 ‘-을 굽히다, -을 표명하다’ 등의 서술어를 통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인용명사 ‘사실’의 인용구문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명사 ‘사실’은 문화 영역에서 선호하는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류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인용명사이다.

<표 5> 인용명사 ‘사실’의 유형 분류

분류 기준		인용명사 구문	경제	문화	사회
문장 층위	한정적 인용명사 구문	S-다는 N(이다)	3(6.1)	8(10.1)	1(0.5)
		S-다는 N + V	19(38.8)	<b>47(59.5)</b>	46(21.5)
		S-는 N + V	9(18.4)	13(16.5)	<b>108(50.5)</b>
		np/cl(의) N	<b>13(26.5)</b>	4(5.1)	41(19.2)
	조용적 인용명사 구문	S-(다)는 것/점 + N이다	-	2(2.5)	-
		S-(다)는 것/점/테 + N + V	1(2.0)	-	-
		‘N은/는 ... S-다는 것/점이다	-	-	1(0.5)
텍스트 층위			4(8.2)	5(6.3)	17(7.9)
<b>합계</b>			49(100)	79(100)	214(100)

인용명사 ‘사실’의 경우 경제와 사회 영역은 문화 영역에 비해 의존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전체 텍스트에서 ‘-다는’ 인용 표지가 실현되는 인용명사 구문의 비율이 낮은 대신 경제 영역의 경우 ‘np/cl(의) N’ 유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사회 영역의 경우 ‘S-는 N V’ 유형의 비중이 높다. 아래는 각 영역별 해당 예를 보인 것이다.

- (6) ㄱ. 지난 12일 이코인은 대주주 지분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경제>

- ㄴ.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이등병이 선 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회>
- ㄷ. 바흐가 당대 최고의 작곡가일 뿐 아니라 가장 출중한 오르간 주자였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문화>

예문 (6ㄱ)처럼 명사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대주주 지분 매각’이 인용표지 ‘-다는’ 없이 실현되는 이러한 예가 경제 분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문 (6ㄴ)의 사회 영역에서는 ‘-다는’ 관형절 대신 ‘-는’ 관형절이 명사 사실과 수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6ㄱ) 경제 영역의 명사구 수식 관계나 (6ㄴ) 사회 영역에서 ‘-는’ 관형절과 인용명사 ‘사실’과의 공기 관계는 사실성을 명확하게 하는 반면, 예문 (6ㄷ)의 문화 영역의 ‘-다는’과 ‘사실’과의 공기 관계는 어떤 인용 대상을 ‘사실’로 개념화할 뿐 인용 대상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는’ 관형절의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이라도 ‘사실’과 어울려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 (7) ㄱ.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학벌이나 집안, 외모 등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라는 사실이 무척 건전해 보이기까지 한다. <문화>
- ㄴ. 그렇다고 부시 행정부가 갑자기 기존의 정책 노선을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간파하고 있다. <문화>

예문 (7)은 문화 영역에서 ‘-다는’ 관형절과 공기하는 인용명사 ‘사실’의 예로, 인용 대상의 내용이 [-사실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ㄱ)은 ‘믿음, 생각, 확신’과 같은 생각을 인용하는 명사로, (7ㄴ)은 ‘분위기, 입장, 상황’ 등의 상황을 인용하는 명사로 교체하여도 무관해 보인다.

#### 4. 결론

본 연구는 신문 주제 영역에 따라 인용명사 및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실현되는지 사용 빈도 및 비율을 비교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인용명사의 연구가 형태-통사적 연구에서 의미-기능적 연구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문장 단위에서 필수적 보충절로 ‘-다는’ 관형절을 요구하는 명사 이상의 인용명사의 역할을 해석하기 위해 주제별 인용명사 및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즉, 특정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인용명사류 및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 주제 영역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 영역의 경우 ‘분석, 평가, 판단’ 등의 생각을 인용

하는 명사가 고빈도로 출현하였고, 문화 영역의 경우 ‘사실, 내용, 이유’ 등의 사실을 인용하는 명사가, 사회 영역은 ‘지적, 주장, 말’ 등의 발화를 인용하는 명사가 고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텍스트에서 인용명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용 대상의 주제적 특성이 인용명사와의 공기 관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존도가 높은 인용명사 ‘뜻’과 ‘사실’의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명사에 따라 주제별로 유형의 빈도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 차이도 보였다. 이 두 명사의 비교만으로 신문 주제의 차이를 드러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연구 대상 인용명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주제별 비교를 하고 개별 명사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특성. 어학연구 19권 1호. 53-73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영희(1981), 간접 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 기능, 한글173·174호, 153-192쪽, 한글학회.
- 김혜진(2016), 코퍼스에 기반한 신문 텍스트의 장르성 고찰 -격조사와 결합한 문장 성분의 주제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59, 191~225쪽, 한국언어문화학회.
-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한국학연구총서 1.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남기심(1989),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박미은(2021ㄱ), 「인용명사의 유형과 기능」, 『한국어 의미학』, 72, 한국어의미학회, 89-122.
- 박미은(2021ㄴ), 「현대 한국어 인용명사 구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종석, 박시현, 아가다 자케비취(2008), 「인용문의 자동 검색을 위한 텍스트 연구: 한국-프랑스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4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53-76.
-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 구문의 연구-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안명철(1999), 「보문의 개념과 체계」, 『국어학』 33, 국어학회, 337-365.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홍식(1999), 「명사구 보문」, 『국어학』33: 367-397.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탑출판사.
- 차준경(2008), 추상 명사의 의미 유형 전이, 한국어학 38, 401-426.
- 차준경(2009a), 추상 명사의 의미 분류, 담화와 인지 16(2), 149-168.

- 차준경(2009b), 국어 명사의 다의 현상 연구, 제이앤씨 출판사.
- 차준경(2015), 추상 명사의 의미·화용 특성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25, 217-236.
- 한송화(2013), “-다는” 인용과 인용명사의 사용 양상과 기능 -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47-472.
- 현영희(2019), 「인용명사의 범위와 유형」, 『텍스트언어학』 46, 텍스트언어학회, 225-259.
- 현영희(2020ㄱ), 「인용명사의 분포적 특성 연구」, 『텍스트언어학』, 48, 텍스트언어학회, 235-262.
- 현영희(2020ㄴ), 「국어 인용명사 구문의 기능 연구」, 『어문론총』, 85, 한국문화언어학회, 81-106.
- 현영희(2021), 「한국어 인용명사 구문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Flowerdew, J. 2003a. Signalling nouns in discour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2 (4): 329-346. doi:10.1016/S0889-4906(02)00017-0.
- Flowerdew, J.2003b. Register-specificity of signalling nouns in discourse. In P. Leistyna & C.F. Meyer (eds.) *Corpus analysis: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use*. Amsterdam, New York: Rodopi. pp. 35-46.
- Flowerdew, J. 2009. Use of signalling nouns in a learner corpus. In J. Flowerdew & M. Mahlberg (eds.) *Lexical cohesion and corpus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mpany. pp 85-102. First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1: 3 (2006).
- Francis, G. 1994. Labelling discourse: an aspect of nominal-group lexical cohesion. In M. Coulthard (ed.) *Advances in Written Text Analysis*. London, New York: Routledge. pp. 83-101.
- Hirsh, D. 2010. *Academic vocabulary in context*. Bern, Switzerland: Peter Lang AG
- Hyland, K. 2000. *Disciplinary discourses: Social interactions in academic writing*. Harlow,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 Schmid, H.-J. 2000. *English Abstract Nouns as Conceptual Shell: From corpus to cognition*. Berlin/New York: Mouton.320.
- Schmid, H.-J. 2001. Presupposition can be a bluff: How abstract nouns can be used as presupposition triggers. *Journal of Pragmatics*, 33 (10): 1529-1552 doi:10.1016/S0378-2166(01)00027-3.
- Yamasaki, N. 2008. Collocations and colligations associated with discourse functions of unspecific anaphoric nou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3 (1): 75-98. doi: 10.1075/ijcl.13.1.05yam.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3부 연구 발표

##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 연구

김정아

University of Napoli L'Orientale  
piscean00@hanmail.net

###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되다’가 포함된 표현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논의하는 것이다. 어휘 사용 빈도 조사(국립국어원 2005)에 의하면 ‘되다’는 ‘하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동사이며 한국어교육을 위한 어휘에서도 ‘되다’는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어휘이다. 이런 만큼 ‘되다’는 (1)의 예와 같이 다양한 표현과 의미로 쓰이고 있다.

- (1)<sup>1)</sup> ㄱ. ○○○처럼 우리 주변에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거주해 내면서 한국인이 된 이들이 많으며 이들과 함께 더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앞길임을 임시한다. <스포츠 경향 2022년 5월 13일>  
ㄴ. 27만원으로 쌀도 사 먹어야 돼요. <MBC뉴스 2022년 9월 1일>  
ㄷ. 다 마셨으면 우유팩이나 두유팩처럼 물로 깨끗이 씻고 행귀서 버리면 돼요. <그린포스트 코리아 2022년 1월 8일>

---

1) 이 발표문에서 사용하는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이하 <세종 구어>, <세종 문어>)와 <메신지 말뭉치>(이하 <메신저>)의 용례를 인용한 것이다. 이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이외의 예문은 출처를 표시하였다.

- ㄹ. 자영업자인 이 아무개(29) 씨도 “퇴직 걱정 안 해도 되고, 돈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공무원 노조원들의 집단행동을 비난했다.<시사저널 2022년 9월 1일>
- ㅁ.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김 교수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라고 물었다.<쿠키뉴스 2019년 3월 22일>
- ㅂ. ○○○는 “잠깐 시간 돼요?”라며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는 “점심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다.<스타뉴스 2021년 4월 24일>
- ㅅ. 그의 행동에 놀란 ○○○는 “아, 됐어. 필요 없어. 너 착한 척하지마.”라고 장난을 쳤다.<인사이트 2019년 7월 5일>

(1)의 예와 같이 ‘되다’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어 변화, 의무, 허용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1ㄱ)은 ‘되다’의 가장 기본적인 논항 구조를 보이며 ‘한국인의 속성을 얻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1ㄴ)-(1ㄷ)에서 ‘되다’는 보조용언을 구성하여 (1ㄴ)은 의무, (1ㄷ)과 (1ㄷ)은 허용을 나타낸다. 한편, (1ㄱ)-(1ㄷ)은 주로 대화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1ㄱ)은 ‘어떻게’와 함께 쓰여 나이를 묻는 표현으로 청자에 대한 정중함이 수반되어 있다. ‘되다’는 ‘시간’과 함께 쓰여 (1ㄱ)과 같이 청자의 시간적 여유를 묻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1ㄷ)은 필수적인 결합 요소 없이 단독으로 쓰이며 ‘거절’ 의사나 ‘실망’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다’는 일상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기본 어휘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 ‘되다’를 포함한 피동 표현 사용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송창선 1996, 서민정 2018, 김현지 2019)에 주목한다면, ‘되다’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분석하고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여 한국어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되다’가 포함된 표현들을 ‘되다’ 표현이라 하기로 하고, ‘되다’의 패턴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을 살펴보고 의미와 기능을 논의할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 2.1. 선행 연구 검토

‘되다’에 대한 논의는 크게 피동에 대한 논의와 담화·화용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 문형으로서의 ‘되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량적 분석을 통한 ‘되다’의 사용 양상을 밝히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먼저 ‘되다’와 관련된 피동 연구는 김동식(1984), 우인혜(1993), 송창선(1992, 1995), 이정택(2004), 한송화(2000), 김경열(2015, 2016), 김윤신(2018) 등이 있다. 김동식(1984)는 ‘되다’의 의미가 ‘(어떤) 기준에 맞음’에서 ‘시간’의 흐름, 금지, 허용, 의무와 같은 부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했다. 즉 ‘되다’의 기본 의미가 통사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우인혜(1993)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되다’ 분석하여 현대 국어로 갈수록 피동의 쓰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행위자 위주의 표현이 많아지고 한자어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현상 때문이라고 했다. 송창선(1992, 1995)에서도 통시적인 관점에서 피동을 분석하여 ‘되다’의 피동 설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정택(2004)은 ‘되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 피동으로서 ‘되다’는 선행하는 체언만으로도 의미가 보충될 수 있으므로 ‘체언+되다’가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해 응집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송화(2000)는 ‘되다’를 ‘어떠한 것이 다른 무엇으로 바뀌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즉 변성자동사라고 설명하면서 ‘되다’의 결합 제약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열(2015, 2016)에서는 ‘되다’는 일반적인 논항 구조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합서술어의 특성을 가며 논항에 따라 ‘되다’ 구문을 설명하였다. 김윤신(2018)에서 ‘-게 되다’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고 지금까지 피동으로 논의되었던 ‘-게 되다’의 의미를 국면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담화·화용적인 연구에서는 주로 ‘되다’의 실제 사용에 초점을 두고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해영(1996), 김선희(1996), 신지연(2013), 이동혁(2015, 2016), 서민정(2018), 김혜령(2020), 우민주(2022) 등이 있다. 김선희(1996)는 ‘되다’의 피동성은 낯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공손함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해영(1996)과 윤현애(2011)는 한국어의 피동 표현은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고, 이동혁(2016)에서도 ‘-어도 되다’는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며 나아가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화용적 전략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서민정(2018)은 현대 한국어에서 피동표현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포착하고, 그 원인은 과거에 비해 설명하고자 하는 피동주가 증가하였고 행동주를 모르거나 혹은 누구나 다 아는 경우가 많으며 행동주를 밝히고 싶지 않은 상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령(2020)과 우민주(2022)는 각각 대학생과 중학생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게 되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글쓰기에서 ‘-게 되다’는 ‘책임 회피’, ‘어떠한 상황에 이름’, ‘시간의 흐름’, ‘자연스러운 결과’, ‘공손성’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김정남(2009), 김서형(2016), 김한샘·배미연(2017) 등이 문법 항목으로서 ‘되다’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남(2009)는 ‘-게 되다’의 기

본 의미를 ‘변화’로 보고 ‘-게 되다’는 이미 사실화되어 있는 일의 변화를 표현한다고 했다. 김서형(2016)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균형 말뭉치에서 ‘-게 되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변화, 피동, 공손성의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게 되다’의 실제 사용이 한국어교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한샘·배미연(201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객관화 전략을 위한 피동 표현으로 ‘피동사’, ‘-어지다’, ‘명사+되다’가 있으며 이러한 피동표현은 연구 주체와 결과를 분리함으로써 객관성을 표현한다고 했다.

한편 ‘되다’의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김지현(2019)은 단행본에 나타나는 ‘되다’를 분석하였고, 김성기(202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되다’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은일·정연창(2008), 김종명(2008), 정의상(2016)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와 한국어의 ‘되다’ 대조하여 논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되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피동으로만 논의하던 ‘되다’의 의미가 최근에는 변화, 공손, 객관화 등 다층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둘째, 단어 차원에서 ‘되다’의 용법에서 패턴화된 ‘되다’의 사용 양상이나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관점을 확대해 가고, 셋째, 다른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되다’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되다’ 표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되다’가 포함된 ‘되다’ 표현을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되다’ 표현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우선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되다’ 표현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자료는 세종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한국어교육문법, 국제통용(2017)이다.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한 ‘되다’와 관련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1〉 교재와 사전의 ‘되다’ 표현

	‘되다’ 표현	예문
세종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야 되다[1B 9과]</li> <li>▪ -어도 되다[2B 6과]</li> <li>▪ -(으)면 안 되다[2B 6과]</li> <li>▪ -게 되다[2B 12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빨리 병원에 <u>가야 돼요.</u></li> <li>▪ 책을 같이 <u>봐도 돼요?</u></li> <li>▪ 쓰레기를 <u>버리면 안 돼요.</u></li> <li>▪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u>오게 되었어요.</u></li> </ul>
서울대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야 되다[1B 11과]</li> <li>▪ -어도 되다[2B 14과]</li> <li>▪ -(으)면 안 되다[2B 14과]</li> <li>▪ -게 되다[2B 15과]</li> <li>▪ -지 않으면 안 되다[3B 15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u>해야 돼요.</u> 시험이 있어요.</li> <li>▪ 다 한 사람은 먼저 <u>가도 돼요.</u></li> <li>▪ 교실에서 음식을 <u>먹으면 안 돼요.</u></li> <li>▪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u>배우게 되었어요.</u></li> <li>▪ 저는 침대가 편하지 <u>않으면 안 돼요.</u></li> </ul>
한국어교육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 되다</li> <li>▪ -어도 되다</li> <li>▪ -어서는 안 되다</li> <li>▪ -어야 되다</li> <li>▪ -(으)면 되다</li> <li>▪ -(으)면 안 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는 아이가 밥을 끝까지 다 <u>먹게 했다.</u></li> <li>▪ 네 지우개 좀 <u>써도 될까?</u></li> <li>▪ 비행기에서 담배를 <u>피워서는 안 됩니다.</u></li> <li>▪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고 <u>꼭 쉬어 야 된다.</u></li> <li>▪ 이곳에 <u>주차하면 돼요?</u></li> <li>▪ 내일 늦게 <u>오면 안 돼요.</u></li> </ul>
국제 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야 되다</li> <li>▪ -게 되다</li> <li>▪ -어도 되다</li> <li>▪ -으면 안 되다</li> </ul>	

〈표 1〉은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되다’ 표현들이다. 공통적으로 ‘-게 되다’, ‘-으면 되다’, ‘-어야 되다’, ‘-어도 되다’를 제시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단어로서 ‘되다’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통적인 몇 가지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되다’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많이 생산하는 데 비해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제한적인 표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김성기2022: 366-367). 즉, ‘되다’는 문장에서 생산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는 제한된 표현만 교수·학습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되다’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어에 가깝운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목표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화자들의 ‘되다’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종 구어〉, 〈세종 문어〉, 〈메신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세종 구어〉와 〈세종 문어〉를 분석하여 ‘되다’와 결합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sup>2)</sup> 다음 〈표 2〉는 ‘되다’와 결합하는 3단어, 4단어, 5단어 연쇄 중 높은 빈도로 나타난 상위 10개의 예를 보인 것이다.<sup>3)</sup>

2) 〈세종 구어〉와 〈세종 문어〉를 단어로 분석하여 자주 결합하는 유형을 추출하였다. 자세한 추출 과정은 김정아(2019), (2021a)를 참고할 수 있다.

3) 이 연구에서는 조사 이외에 ‘어미’도 단어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미

〈표 2〉 〈세종 구어〉, 〈세종 문어〉에서 ‘되다’ 연쇄

	〈세종〉 구어			〈세종〉 문어		
	3단어	4단어	5단어	3단어	4단어	5단어
1	되는 거	으로 되어 있	되는 거야	게 되었	될 것이	될 것이다
2	해야 되	된다는 게	어야 되는 게	이 되었	게 되었다	이 될 수 있
3	되어 있	되는 게	이 되는 게	게 된다	게 되었다	이 될 것이
4	어야 돼	될 거 아니	되는 거죠	이 될	게 된 것	게 될 것이
5	될 거	어 봐야 되	어야 될 거 같	이 돼	이 되었다	을 수 있게 되
6	어야 될	어야 되겠다	되는 거예요	되었다	된 것이	지 않으면 안 되
7	어야 되는데	되는 거 아니	이 될 수 있	될 것	으로 되어 있	게 된 것이
8	으면 안 되	되는 거 같	될 거 같애	되었다	수 있게 되	되는 것이다
9	이 안 되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되어 있	되어 있다	된 것이다
10	안 돼	어떻게 해야 되	으면 되는 게	게 된	않으면 안 되	어서는 안 된다

〈표 1〉은 〈세종 구어〉에서는 ‘-어야’, ‘-으면 안 되-’, ‘-으로’와 함께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가지고/구’, ‘안 돼’와 같이 구어 표현도 높은 빈도를 보인다. 또 ‘말이 안 되다’와 같은 관용표현들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세종 문어〉에서는 연결어미 ‘-게’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으며 ‘어서는 안 되-’, ‘않으면 안 되-’와 같이 강조하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대화, 즉 메신저에 나타나는 ‘되다’ 표현을 살펴보았다. 메신저에 나타나는 언어는 구어와 문어의 속성을 모두 가지면서 언어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sup>4)5)</sup> 따라서 메신저 자료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속성을 모두 가진 ‘되다’ 표현의 다양한 유형과 현재 생성·변화 중인 유형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메신저 자료는 ‘모두의 말뭉치’(국립국어원 2020)에서 제공하는 1400만 어절 규모의 〈메신저 말뭉치〉(이하 〈메신저〉)이다. 이 중 ‘되다’가 포함된 문장은 모두 14,978문장이었고 엑셀에서 문장별로 정렬하여 한 문장씩 읽으며 의미와 형태를 분류하였다. 〈메신저〉에서 나타나는 ‘되다’ 표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ㄱ. 그래요? 그럼 바다 보고 바로 버스 타면 되겠다.

ㄴ. 엄마랑 이모가 영어가 되는 게 아니니.

의 의미와 결합 여부가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주로 단어와 어미, 단어와 조사가 결합된 형태의 문형, 표현들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 4)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Social Media Service: SNS)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작성한 텍스트가 웹상에서 유통되거나 공유되는 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안의정 외 2020: 49)
- 5) 김현지(2019: 103)는 ‘명사+되다’ 구성에서 ‘되다’의 생산성은 매우 크며 이것은 외래어와 합성된 ‘업그레이드되다’, ‘다운되다’, ‘디스플레이되다’, ‘포맷되다’, ‘프린트되다’ 등의 어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메신저〉에서는 외래어와 결합한 ‘되다’ 표현이 많았다.
- 6) 또한 〈세종 구어〉를 구성하고 있는 강연, 뉴스, 방송, 드라마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화라기보다는 정제된 발화로 준구어의 속성에 가깝다. 따라서 구어에서 실현되는 ‘되다’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서 메신저 자료를 활용하였다.

- ㄷ. 도저히 안 되겠다.
- ㄹ. 너 컵라면으로 돼?
- ㅁ. 햄버거 먹은 지 좀 되었는데.
- ㅂ. 저도 힐링 되고.
- ㅅ. 즐거운 주말 되세요.

(2ㄱ)-(2스)은 <메신저>에서 나타나는 ‘되다’의 출현 예이다. ‘이 되다’ 구성이 많았으며 ‘시간’과 관련된 ‘월’, ‘시’, ‘때’ 등의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힐링, 다운로드, 리셋과 같은 외래어와 결합된 유형들도 많았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말도 안 돼’와 같은 표현들도 있었으며 줄임형이나 구어체 표현들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한국어 사용자들의 ‘되다’ 사용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3)의 ‘되다’ 표현을 선정하여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 (3) -이 되다, -으로 되다, -은 지 좀 되다, 얼마 안 되다, -라고 생각되다, 됐다, 됐고, -이 어떻게 되세요?, 안 되겠다, 좋은 시간 되세요, 말이 (안) 되다, 문제가 (안) 되다, 돈이 (안) 되다, 외래어 되다, 잘 되다

### 3. ‘되다’ 표현의 의미와 기능<sup>7)</sup>

#### 3.1. ‘되다’ 표현의 유형

이 연구에서 주목할 ‘되다’ 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와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단위이다. 제2 외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표현 단위는 덩어리 표현(chunk)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교수·학습 내용이 되어 왔다. Lewis(1993)는 이러한 덩어리 표현을 다단어 항목(multi word items), Nattinger & DeCarrico(1992)는 어휘구(lexical phrase)라고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 형식을 취하면서 어휘이자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Lewis(1993:163-175)에서는 화용적인 의미 실현에 따라서 연어(collocations)와 제도화된 표현(institutionalization expressions)으로 구분하였고, Nattinger & DeCarrico(1992: 31-58)는 표현의 길이나 문법적 층위에 따라서 구 차원에서의 다어(multi words), 고정구(phrase constraints), 문장 차원에서의 상황발화(situational utterances), 축어적 텍스트(verbatim texts)

7) 이 발표문에서는 <세종 구어>와 <메신저>에서 분석한 구어 표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을 미리 밝힌다. 따라서 기존 교재와 문법서 등에서 상세히 제시되고 있는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면 되다’, ‘-게 되다’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로 구분한 바 있다.<sup>8)</sup>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덩어리 표현을 문법항목, 문형 등으로 부른다. 이미혜(2005: 47)은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구와 문장, 고정 범위로 분류하였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되다’ 표현을 기능에 따라 문법 항목과 관용표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문장을 생산하는 문법의 기능을 하며 문법적 제약이 있는 유형을 ‘문법항목’이라 하고 담화표지나 어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유형을 ‘관용표현’으로 분류하였다.

- (4) ㄱ. 문법항목: 명사+되다, 명사+가 어떻게 되세요?, 동사-(으)ㄴ지 되다, -다 고/라고/으로 생각되다
- ㄴ. 관용표현: 시간 되다, 시간 되세요, 안 되겠다, 됐다, 됐고, 말이 (안) 되다, 도움이 (안) 되다, 돈이 (안) 되다

### 3.2. ‘되다’ 표현의 의미와 기능

‘되다’는 ‘변화’를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가지지만 ‘변화’ 이외의 의미로도 사용되거나 대화에서 특별한 담화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되다’의 의미와 기능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 ① 시간에 이름

(5ㄱ)-(5ㅈ)은 ‘되다’가 시간과 관련된 명사와 결합하여 [시간에 이르다]를 의미하는 표현들이다.

- (5) N(시간명사)이 되다
  - ㄱ. 시간 잘 간다. 벌써 오후 2시 다 되어가네.
  - ㄴ. 3일째 되는 날 엄청 싸우고 왔대. ㅋㅋ
  - ㄷ. 아니, 목요일이라서, 목요일쯤 되면 매우 피곤하지.
  - ㄹ. 주말 되니 따뜻해지고 좋구먼.
  - ㅁ. 12월 되면 추울 것 같아.
  - ㅂ. 12개월 되면 슬슬 떼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8) 특히 Nattinger & DeCarrico(1992)는 담화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어휘구는 담화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며 구어와 문어의 기능적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9) 이미혜(2005)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구형: -고 싶다, -기 때문에, -지 못하다(부분 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전체 고정)
- ② 문장형: 얼마나 -(으)ㄴ지 모른다, -었을 걸, -(으)면 어떨까요?(부분 고정)  
    처음 뵙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전체 고정)

- 스. 먹을 때가 되었다 싶어요.
- ㅇ. 나 여름 되면 맨날 따러 다닌 듯.
- 즈. 겨울 되니까 이제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5ㄱ)-(5즈)에서 ‘되다’는 [시간에 이르다]를 의미한다. (5ㄱ)은 오후 2시, (5ㄴ)은 3일째 되는 날, (5ㄷ)은 목요일, (5ㄹ)은 주말, (5ㅁ)은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5ㅂ)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계절을 나타내는 (5ㅅ)의 여름과 (5ㅇ)의 겨울도 시간상 여름과 겨울에 도달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기동(1991: 226-227)은 ‘되다’와 결합하는 명사의 특성이 ‘시간’이라고 했다.<sup>10)</sup> 어떠한 사건이나 과정, 상태를 이르는 명사가 ‘되다’와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사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은 시간개념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발전’은 처음에는 작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발전’은 시간과 변화의 속성을 가진다. 아래 (6ㄱ)-(6ㅂ)의 예를 보면 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명사와도 결합하여 [시간에 이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6) ㄱ. 이젠 보조제 없이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
- ㄴ. 우리 엄마도 60 다 되어가네.
- ㄷ. 이젠 초등 고학년 되네.
- ㄹ. 만나려면 방학은 돼야.
- ㅁ. 진짜 이번 학기 돼서 한 번도 안 갔어.
- ㅂ. 크리스마스 되면 케이크가 예쁜 게 많아서 좋아요.

(6)에서도 ‘되다’는 선행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시간에 이르다]를 의미한다. (6ㄱ)에서는 보조제가 필요한 시기, (6ㄴ)은 어머니가 60세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또 (6ㄷ)은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시기, (6ㄹ)은 방학을 시작하는 시기, (6ㅁ)은 학기가 시작하고 진행된 기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6ㅂ)도 크리스마스 즈음을 뜻한다.

(5)과 (6)의 예를 통해서 ‘되다’는 시간과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와 결합하였을 때 [시간에 이르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7)의 예에서는 ‘되다’ 구문에서 실현되는 [시간에 이르다]를 확인할 수 있다.

- (7) V(으)ㄴ 지 - 되다
- ㄱ. 와, 그것도 나온 지 벌써 9년 됐대요.
- ㄴ. 이사 온 지 이 년 다 돼 가도 못 가봤어.

10) 이기동(1991)은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를 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구체명사 ② 시간 개념을 전제하는 사건, 과정, 상태 명사 ③ 감정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중 ‘되다’와 결합하는 명사는 ②의 부류라고 했다.

- ㄷ. 아, 맞다 다이어트한 지 이제 두 달쯤 되는 거 같아.
- ㄹ. 영화 본 지 꽤 됐어요.
- ㅁ. 졸업한 지도 좀 돼서
- ㅂ. 먹은 지 한참 됐어.
- ㅅ. 너 목욕탕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7ㄱ)-(7ㅅ)에서 ‘되다’는 연결어미 ‘-(으)ㄴ’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지’와 결합하여 ‘-(으)ㄴ 지 -되다’의 구조를 가지며 선행 동사를 수행한 기간 혹은 경과한 시간을 의미한다. (7ㄱ)은 출시된 이후, (7ㄴ)은 이사 온 이후, (7ㄷ)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으)ㄴ 지 -되다’는 (7ㄹ)-(7ㅂ)과 같이 정도 부사와 함께 자주 쓰이기도 한다. (7ㄹ)에서 ‘꽤’, (7ㅁ)에서 ‘좀’, (7ㅂ)에서 ‘한참’은 시간이 경과한 정도를 나타내며 대체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의미한다.<sup>11)</sup> 한편 (7ㅅ)은 ‘-(으)ㄴ 지 얼마 안 되다’로 경과된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 ② 가능, 가능성

다음은 ‘되다’ 표현 중에서 사용이나 작동의 가능 여부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아래 (8)의 예를 보면 모두 ‘명사+(이/가)+되다’ 구조를 가지면서 ‘되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사용 혹은 작동 [가능]을 의미한다.

- (8) N이 되다
- ㄱ. 아! 전화가 됐는데, 인제 전화가 안 되다 됐는데.
  - ㄴ. 카드 되냐고 안 물어봤어.
  - ㄷ. 그거 삼성페이는 돼?
  - ㄹ. 그래서 식기 세척기 살 때 100도 스팀 되는 걸로 샀어.
  - ㅁ. 뭐야, 컵라면도 돼?
  - ㅂ. 이 시간에 배달 될까?
  - ㅅ. 사람은 역시 언어가 되어야 해요.
  - ㅇ. 그러려면 일단은 영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8ㄱ)-(8ㅇ)의 예에서 ‘되다’는 모두 선행 명사의 작동과 사용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 (9ㄱ)은 전화가 작동했거나 혹은 상대방과 통화가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8ㄴ)과 (8ㄷ)은 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와 삼성페이가 사용 가능한지, 즉 카드나 삼성페이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8

11) 서울대 한국어 2B 18과에 ‘-(으)ㄴ 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되다’는 함께 제시되지 않고 있다.

ㄹ)은 식기 세척기의 기능 중에서 높은 온도의 습기로 살균할 수 있는 기능, (8ㄴ)은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 즉 컵라면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ㄷ)은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8ㄴ)와 (8ㄴ)은 언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되다’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다’는 결합하는 명사의 사용이 가능함을 표현하는데, 이는 ‘되다’가 가진 ‘완성’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우인혜(1993: 81-84)는 ‘되다’가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면 ‘완성’ 혹은 ‘자격’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즉 기계의 기능, 음식, 행위 등이 가진 속성의 완성은 곧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9ㄱ)-(9ㄴ)에서 ‘되다’는 ‘시간’과 결합하였는데 이때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 시간(이) 되다.

- ㄱ. 혹시 오늘 시간 되니?
- ㄴ. 근데 그럴 시간이 될까?
- ㄷ. 다른 애들도 시간 되면 같이 가자.

(9ㄱ)-(9ㄴ)은 ‘시간(이) 되다’의 예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시간의 여유를 확인하거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때 ‘되다’는 (8)의 예와 같이 시간 활용 여부의 [가능]을 의미한다.

### ③ 겸손/정중함

다음은 ‘되다’ 표현에서 겸손과 정중함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주로 아래의 (10)과 같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상황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쓰인다.

(10) N이 어떻게 되세요?

- ㄱ. 실례지만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 ㄴ.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 ㄷ. 요즘 관심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 ㄹ. 작가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 ㅁ.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 ㅂ. 오늘 저녁 메뉴가 어떻게 되세요?

(10ㄱ)-(10ㄷ)의 ‘명사+이/가+어떻게 되세요?’는 대체로 질문의 형태로 사용되며 주로 청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정중하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10ㄱ)-(10ㄴ)에서는 각각 나이, 가격, 관심사, 전공, 취미 등 청자의 개인적인 정보

를 묻고 있다. (10ㄴ)도 상대방의 저녁 메뉴를 물어보는 상황으로 저녁 메뉴는 청자의 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11)의 예도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타내는 ‘되다’ 표현이다.

(11) 다고/라고/으로 생각(이) 되다

- ㄱ. 무엇을 하든지 남는 거는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 ㄴ. 점이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ㄷ. 그거는 그 부정부패라는 거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ㄹ. 한두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 ㅁ.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 ㅂ.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ㄱ)-(11ㄴ)은 ‘되다’가 인용표지 ‘다고’와 ‘라고’, 조사 ‘으로’와 결합하여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예이다. (11ㄱ), (11ㄴ)은 ‘다고’가 결합하여 (11ㄱ)은 친구의 중요함, (11ㄴ)은 개념의 유사함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11ㄷ), (11ㄹ)은 인용표지 ‘라고’가 결합하여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11ㅁ)은 조사 ‘으로’, (11ㄴ)은 의문형 종결어미 ‘-(으)ㄴ까’가 결합하였다. ‘생각’뿐만 아니라 ‘판단’, ‘이해’도 화자의 의견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표현할 의도로 사용된다. 최근 수평적 사고가 늘어나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높임 표현이 점차 간략·단순화해 가는 경향이 있다. 대신 그 자리에 언어 예절로서 공손 표현이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서형 2014: 141).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방식에는 추측 표현, 간접적 표현, 완곡 표현, 반복법, 피동화, 객관화 전술, 특정한 어휘와 구절(좀, 별말씀을요)의 사용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되다’는 형식적으로 피동화를 하면서 내용상 화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쓰인다. 이러한 현상을 김은일·정연창(2008: 67)에서는 ‘의도성 비초점화’라고 했다. 행위자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생각’이나 ‘판단’, ‘이해’와 같이 화자의 주관성을 내포하는 단어가 ‘되다’와 결합함으로써 주관성을 낮추어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④ 상황 전환

부정 부사 ‘안’과 결합한 ‘안 되다’는 (12)에서와 같이 상황을 전환하는 담화표지로 쓰인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앞선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을 제안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12) 안 되겠다

- ㄱ. 안 되겠다. 난 자고 일어나야겠어.
- ㄴ. 안 되겠다. 난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야.
- ㄷ. 아무래도 안 되겠어.
- ㄹ. 아, 이거! 안 되겠다!

(12ㄱ)-(12ㄹ)의 ‘안 되겠다’는 대화에서 앞서 일어난 부정적이거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전환하고 이어질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쓰는 ‘담화표지’이다. ‘안 되겠다’는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부사 ‘아무래도’, ‘도저히’와도 자주 쓰이기도 한다. 담화표지는 형식상 낱말에서 기능이 전이된 감탄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등과 구에서 전이된 동사구가 있지만(노은희 2012:44-45), ‘안 되겠다’의 경우 문장 자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화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화제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12ㄱ)과 (12ㄴ)에서 ‘안 되겠다’는 앞선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12ㄱ)에서는 잠을 잘 것, (12ㄴ)에서는 운전과 관련된 화자의 생각을 밝히면서 이어질 화제, 즉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의 (13)과 (14)는 ‘되다’가 단독으로 쓰이면서 상황을 전환하는 예이다.

(13) 뻤어

- ㄱ. 뻤어. 난 이제 열대 과일 절대 안 먹음.
- ㄴ. 뻤어. 다 필요 없어.
- ㄷ. 뻤어. 그냥 나 혼자 갈래.
- ㄹ. 뻤어. 안 받을래.

(14) - 뻤고

- ㄱ. 그럼 뻤고.
- ㄴ. 아, 근데 이걸 뻤고
- ㄷ. 뻤고, 다음 주에.
- ㄹ. 그럼 영화는 뻤고.

(13ㄱ)-(13ㄹ)은 ‘되다’의 필수 성분인 주어나 보어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예이다. 특히 과거형 ‘뻤어’로만 쓰여 대화에서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보인다. (13ㄱ)에서 ‘뻤어’는 열대 과일을 권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고, (13ㄴ)에서는 상대방의 지원을 거절함을 의미한다. (13ㄷ)와 (13ㄹ)에서도 ‘뻤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sup>12)</sup>

12) 다만 살펴본 자료에서는 허가나 충족을 뜻하는 ‘뻤어’의 용례를 찾지 못했다. 문장 단위로 살펴본 자료에서 ‘뻤어’는 주로 단독으로 나타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

한편 (14ㄱ)-(14ㄴ)에서 ‘되다’는 ‘됐고’의 형태로 쓰이며 (13)의 ‘됐어’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 상황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대안을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상황에 주로 쓰인다.<sup>13)</sup>

‘되다’의 이러한 쓰임에 대해 김동식(1984: 415-416)은 ‘되다’의 기본 의미를 ‘기준점에 맞음’이라고 설명하면서 (13)의 ‘됐어’는 화자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면 ‘성취’, 그렇지 않으면 ‘금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김경열(2015: 219-220)은 (13)과 같은 ‘되다’의 쓰임은 맥락에 따라서 거절, 발화 금지, 거절, 허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sup>14)</sup> 즉 ‘됐다’는 대화에서 맥락에 따라 긍정과 부정, 수락과 거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문맥의존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김종택 1982, Meyer.E. 2015)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관용표현

다음 (15), (15), (17)에서 ‘되다’는 표현을 구성하는 다른 구성요소와 굳어져 새로운 의미의 인사말, 관용어로 쓰인다.<sup>15)</sup> 이러한 표현을 관용표현이라고 하는데 관용표현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사용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이다(김정아 2021b: 238). 따라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6)</sup>

(15) 여행/시간 되세요.

ㄱ. 즐거운 여행 되세요.

---

로 연속되는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됐어’의 용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3) 안의정·황은하(2020:59-60)에서는 ‘됐고’를 담화표지 기능의 화용론적 관용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다.

14) 김경열(2015: 219-220)은 ‘됐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조금 더 할까? → 됐어. 이거면 충분해. [충족]
- ② 내가 좀 도와줄까? → 됐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거절]
- ③ 내가 잘못했어. → 됐어. 그만해. [금지]
- ④ 이걸로 할까? → 됐어. 그걸로 하자. [허가]

15) 관용표현은 관습적인 의미와 고정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특징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유연하다. 민현식(2003)에서는 관용어구, 속담, 수수께끼, 설화, 유행담 등을 관용표현에 포함시켰고 문금현(1999)에서도 상용구절, 격언, 금기담, 인사말, 상투표현을 관용표현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상용구절과 인사말을 모두 관용표현이라 할 것이다.

16) Gibbs(1994)는 관용적인 표현은 많은 영어 교수들에게 최대의 적이라고 했고, Spring(1998: 281)도 관용표현은 사전에서 비체계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가르치기에도 상당히 어렵다며 관용표현 교육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 ㄴ.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실 거예요.
- ㄷ. 좋은 하루 되세요.
- ㄹ. 굿밤 되세요.
- ㅁ. 따뜻한 연말 되세요.
- ㅂ. 아직 멀었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15ㄱ)-(15ㄴ)은 ‘여행’, ‘시간’, ‘하루’와 ‘되다’가 결합한 표현으로 주로 인사말로 쓰인다. (15ㄱ)은 여행을 즐겁게 하기를, (15ㄴ)은 저녁 시간을 잘 보내기를, (15ㄷ)은 하루를 잘 보내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이다. (15ㄹ)-(15ㅂ)의 예도 역시 인사말로써 ‘밤’, ‘연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것을 기원하는 표현이다. (15)의 예들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로 ‘즐거운’, ‘좋은’, ‘따뜻한’ 등의 긍정적인 수식어가 필수적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지만 명령형으로 쓰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갖는 형태와 담화적 특징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상황과 형태, 의미적인 특성을 학습해야 한다. 다음 (16)의 예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16) 말이 (안) 되다

- ㄱ. 그러면은 말이 돼.
- ㄴ.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 ㄷ.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ㄹ. 헉, 그게 말이 돼?
- ㅁ.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이야기라서 기막혀 하면서 보고 있었지요.

(16ㄱ)-(16ㅁ)의 ‘말이 되다’는 상황이 이치에 맞거나 옳고 믿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6ㄱ)과 (16ㄴ)은 앞서 제시된 상황이 옳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말이 되다’는 (16ㄷ)-(16ㅁ)과 같이 질문의 형식이나 부정 부사 ‘안’과 쓰여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16ㄷ)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상황, (16ㄹ)은 상황을 수용할 수 없음, (16ㅁ)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을 ‘말도 안 되다’로 표현하고 있다.

(17) 도움이 (안) 되다

- ㄱ. 그래서 아마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 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걸 못 찾아서
- ㄷ. 친구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참.
- ㄹ.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ㅁ.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감상이고 도움이 안 되는 시예요.

(17ㄱ)-(17ㅁ)의 ‘도움이 되다’는 유용함을 의미한다. (17ㄱ)-(17ㄴ)에서 ‘도움

이 되다’는 대상이나 물건이 청자에게 유용함을 의미하고 (17ㄷ)은 어떠한 행동이나 물건이 친구들의 필요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또한 (17ㄹ)과 (17ㅍ)에서 ‘도움이 되다’는 ‘안’과 결합한 부정문으로 유용하지 않거나 어떠한 일에 기여하지 못 함을 의미한다.

(18) 돈이 (안) 되다

- ㄱ. 아직 그 아아템 돈이 되나?
- ㄴ.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 ㄷ. 옛날과 비교하면 사람 되었죠.
- ㄹ. 넌 큰 사람 될 거다.
- ㅁ. 너는 얼굴이 안 되잖아.
- ㅂ. 능력 되는 사람이 해야지.
- ㅅ. 뭔가 내가 힐링 되는 기분.
- ㅇ. 맞아, 특히 엘사가 더 아름답게 업그레이드 됐어.
- ㅈ. 지난번에 5천 원 받고 리셋 되었다고 했잖아.

이외에도 (18ㄱ), (18ㄴ)의 ‘많은 돈을 벌다’를 의미하는 ‘돈이 되다’, (18ㄷ), (18ㄹ)의 좋은 예의와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인간/사람이 되다’, (18ㅍ), (18ㅂ)의 우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얼굴이 되다’, ‘능력이 되다’ 등의 표현들도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되고 있다.

또한 외래어와 결합된 ‘힐링 되다’, ‘업그레이드 되다’, ‘리셋 되다’, ‘커버 되다’, ‘블랙아웃 되다’와 같은 표현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되다’는 새로운 어휘와 결합하는 조어력이 상당히 높은 단어로(김현지 2019: 103), 최근에는 외래어와의 결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어 널리 쓰이는 표현들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되다’의 패턴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을 살펴보고 의미와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되다’는 ‘변화’, ‘새로운 신분을 가짐’을 기본 의미로 하는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기동사이다. 한국어교재와 문법서 등에서 ‘되다’에 대한 문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되다’의 표현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한국어교육을 위한 ‘되다’ 표현은 문장을 생성하는 데 생산적으로 기여

하는 ‘문법항목’과 어휘나 담화표지의 기능을 하는 ‘관용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되다’ 표현은 [시간에 이르다], [가능], [겸손]과 [공손], [상황 전환]을 나타내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피동이나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던 ‘되다’ 표현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구어 표현에 초점을 두고 ‘되다’와 관련된 표현을 분석하고 대화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만 집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되다’가 갖는 의미적 관련성을 증명하지는 못 하였다. 앞으로 동사 ‘되다’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되다’ 표현이 갖는 의미·기능적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되다’, ‘하다’, ‘가다’와 같은 기초 동사가 포함된 표현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육문법 자료집, 한글파크.  
국립국어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2017), 국제통용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2019), 메신저 대화 자료 수집 및 말뭉치 구축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2022), 세종 한국어, KONG & PARK.  
김경열(2015), ‘되다’ 구성의 논항구조와 유형, 國語學 73, 국어학회, 199-228.  
김경열(2016), 복합서술어 구문과 피동, 언어와 정보 사회 29, 언어정보연구소, 69-92.  
김동식(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395-420.  
김서형(2014),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한국어 교육,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3-76.  
김선희(1996), 공손법의 원리와 실제, 논문집-목원대학교 29, 목원대학교, 5-24.  
김성기(202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되다’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89, 중앙어문학 회, 345-372.  
김윤신(2018), ‘-게 되다’ 구성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62, 한국어교육 학회, 175-201.  
김은일·정연창(2008), 한국어 ‘되다’ 구문의 영어 번역문에 대한 기능문법적 설명, 언어 과학 15-3, 한국언어과학회, 61-82.  
김정남(2009), ‘-게 되다’의 의미와 분포-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59-88.  
김종명(2008), 불어 devenir와 한국어 되다 동사구문 대조연구, 불어불문학연구 75, 한국불어불문학회, 45-492.

- 김정아(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선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2021a), 한국어 교육 항목으로서 ‘아니다’ 정형표현의 의미와 기능, 한말연구 59, 한말연구학회, 75-109.
- 김정아(2021b), 동물명 관용표현의 한국어교육 방안,(임지룡 외, 관용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37-270.
- 김종택(1982), 국어 화용론, 형설출판사.
- 김한샘·배미연(2017), 학술적 글쓰기에서 객관화 전략 사용 양상 연구-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95-126.
- 김현지(2019), 한국어 문어 말뭉치에서 ‘되다’의 계량적 연구-단행본에 나타난 문어를 중심으로-, 어문학 146, 한국어문학회, 81-110.
- 김혜령(2021), 대학생 에세이 담화에 나타난 ‘-게 되다’ 구문의 특성, 어문논집 90, 민족어문학회, 155-176.
- 노은희(2012), 본격적인 화제 전화를 위한 담화 표지 연구-‘다름 아니라’, ‘그건 그렇고’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0, 화법연구학회, 39-69.
- 민현식(2003),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 의미학회, 17-50.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서민정(2018), 한국어 피동표현의 기능과 사용 양상 변화, 한국민족문화 6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23.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TWO PONDS.
- 송창선(1992), 15세기 국어의 사동·피동 표현 양상, 어문학 53, 한국어문학회, 209-235.
- 송창선(1996), 근대국어의 사동·피동 표현 양상 연구,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연구회, 5-42.
- 안의정·김진웅·송현주(2020), 형태 분석을 위한 메신저 텍스트 처리 방안, 텍스트언어학 4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7-52.
- 안의정·황은하(2021), 사전에 없는 구어 확장 어휘 단위 표제어의 수집과 기술, 한국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41-66.
- 우민주(2022), 국어과 교과서와 중학교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게 되다’의 의미 양상 비교, 한국어문교육 38,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53-179.
- 우인혜(1993), “되다” 피동 표현의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화 11, 한국언어문화학회, 79-100.
- 윤현애(2011), 구어 장르 구분을 기반한 한국어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1), 한국문법교육학회, 106-115.
- 이기동(1991), 동사 되다의 의미 분석, 동방학지 7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5-231.
- 이동혁(2015), -어도 되다의 대화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50, 한국어의미학회,

1-25.

- 이동혁(2016), ‘-어도 되다’의 양태 의미와 허가 화행, 그리고 공손성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말글* 69, *우리말글학회*, 23-48.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택(2004),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 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의상(2016), *자막번역에 나타난 우리말 피동 번역의 사용실태 고찰-일본 드라마 수동 표현 회화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38,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301-328.
- 한송화(2002),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Gibbs, R. W. (1994), *The Poetic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익주 역(2002),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 Lewis, M.(1993), *The Lexical Approach*. Lo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김성환 옮김(2002),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 Meyer, E.(2016). *The Culture Map*, PublicAffairs.
- Nattinger, J. R. & J. S. Decarrico.(1992), *Lexical phras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press.
- Soring, K.(1998), “*Idioms in language teaching*”, In Hüllen. W, and R. Schulse(eds.), *Understanding the Lexicon: Meaning, Sense and World knowledge in Lexical Semantics*, 280-290. Tübingen: Max Niemyer.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3부 연구 발표

##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원인 연구 —언어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가람

전북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연구교수  
riverkim@snu.ac.kr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 분석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를 통해 조사 오류의 언어 외적 원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하여 높은 수준의 숙달도를 갖춘 학습자<sup>1)</sup>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학습자 역시 여전히 정확한 한국어 사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오류를 생산한다. 특히 조사는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지더라도 오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문법 요소이다.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한 민진영(2002), 이정희(2003)에서 조사 오류율이 각각 12.0%와 12.9%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영옥(2011)의 10.4%, 한상미(2014)의 10.2%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숙달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

1) 김가람(2022:293)은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를 “1,200시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서 6급을 취득한 학습자”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최고급 학습자를 규정하고자 한다.

라도 조사 오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탐색하여 다양한 변인들이 어떻게 오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한상미, 2014: 25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고급 학습자의 언어 외적 요인에 주목하여 목표어와 학습자의 모어 외에 조사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류 분석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김지민·신승용, 2012)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오류 분석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 중심의 오류 판정과 원인 분석에서 벗어나 오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귀납적으로 원인을 탐구하는 오류 분석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언어 사용자로서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오류에 대한 인식과 언어 선택 과정 등을 확인한다. 나아가 학습 맥락으로서 교육과정, 교재, 교수 방법 등을 분석하여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구하는 방법론이기에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언어 외적 요인을 밝히는 데에 적합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의 의의

최근 학위 과정의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매우 뛰어난 최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주요한 한국어 학습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어를 전공으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과 등에 진학한 유학생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은 기존의 6등급 체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자 구성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200 시간 이상의 한국어 학습 시간을 갖추고, 토픽 6급을 취득한 학습자’를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로 규정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학습자 수준이 높더라도 화석화 현상으로 인해 오류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급 학습자 중에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자신이 쓴 글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문장을 쓰고자 하는 요구가 초·중급 학습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유나, 2022: 112). 그러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연구와 정확성 교육은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한국어표준교육과정’(2020)에서도 정확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은 교육 현장과 학습자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특정한 지역과 학습자를 한정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의 특수성에 맞는 상세한 개별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확성과 관련된 논의는 쓰기 영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쓰기 영역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급 쓰기의 성취 기준에서 “5.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글자를 구성할 수 있고, 맞춤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고, 3급에서 “5. 다소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활용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최고급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한국어 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정확성 신장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류 분석 연구를 통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2. 오류 원인으로서는 언어 외적 요인의 의미

오류 분석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다. 셀린커(Selinker, 1974:121)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학습 과정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자료로 인식하면서 오류의 원인을 ① 모국어, ② 교육과정, ③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④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 ⑤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 다섯 가지 원인은 다시 ‘모국어 요인’과 ‘목표어 요인’ 그리고 ‘교육과정 요인’의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오류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정희(2003)는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의 세 가지로 오류 원인을 제시한 후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를 다시 과잉 적용과 불완전 적용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 중 교재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의 사용과 예문이 학습자의 오류를 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목표어와 모국어가 아닌 언어 외적인 요인을 오류의 원인으로 주목한 또 다른 연구는 김정은(201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가’, ‘을/를’의 학습자 오류와 교육 내용의 상호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의 교육 내용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 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을 통해 5종의 한국어 교재는 초급 단계에서 ‘이/가, 을/를’의 이형태에 치중하고, 중·고급에서는 주술, 목적의 표현 위주의 많은 예를 제공하였지만,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어휘(표현)영역에서는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의 ‘이/가, 을/를’ 관련 평가 문항이 초급 단계의 제한된 선·후행 성분에 국한하여 출제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교육 내용과 평가의 한계가 조사 ‘이/가’, ‘을/를’의 오류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오류를 분석한 별러러(2017)도 오류의 원인을 언어 간 전이 오류(모국어), 언어 내 전이 오류(목표어), 교육 과정에 따른 오류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오류의 원인을 다시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으로 세분화하였다. 오류의 원인으로 언어 외적인 요인을 탐색한 연구 가운데 교육과정 외에 언어 사용자로서 학습자의 전략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브라운(Brown, 2007)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맥락’, ‘의사소통 전략’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셸린커의 분류에 따르면 언어 간 전이는 ‘모국어에 의한 오류’이며, 언어 내 전이는 ‘목표어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학습 맥락과 의사소통 전략이 언어 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오류의 원인은 크게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언어 내적 요인은 다시 모국어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에 의한 오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언어 외적 요인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며, 교육 내용, 교수 방법, 학습자의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류의 원인이 언어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대다수의 오류 분석 연구는 언어 내적 요인에 주목하여 오류의 원인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언어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류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합의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 3.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 3.1.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절차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북의 A대학교에서 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한국어 글쓰기 교실’의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글쓰기 교실’은 2021학년도 겨울 방학 특성화 사업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이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고,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기초 한국어 글쓰기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하에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일회적인 글쓰기 지도 및 교정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3주 동안 1회당 30분씩 5회에 걸쳐 쓰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면담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최고급 학습자가 작성한 쓰기 결과물과 쓰기 상담 과정에서 수행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면담 피드백 단계에서는 오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오류 판정, 조사 선택 이유 등을 인터뷰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 및 작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및 수집 자료 정보

참여자		수집 자료 <sup>2)</sup>		
구분	국적	과제 1 (어절 수)	과제 2 (어절 수)	과제 3 (어절 수)
참여자 1	중국	156	265	209
참여자 2	중국	199	251	189
참여자 3	중국	208	248	237
참여자 4	일본	162	329	652
합계		725	1,093	1,287

학습자들이 작성한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한 면담 피드백과 더불어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외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분석하였다. 또한 개별 학습자의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학생에게도 교차 점검을 하는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3.2. 조사 오류 양상

조사 오류의 양상은 전체 오류율을 확인한 후에 어떤 범주에서 오류가 나타났는지를 오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표 2〉 오류 빈도 및 오류율

구분	과제 1		과제 2		과제 3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사용 빈도	오류 빈도
참여자 1	59	12	98	16	85	8
참여자 2	63	9	89	7	54	5
참여자 3	84	8	104	12	76	12
참여자 4	63	3	149	13	218	20
합계	269	32	440	48	433	45
오류율	11.9%		11%		10.4%	
평균	11.1%					

2) 학습자들이 작성한 3개의 작문 자료의 주제는 과제 1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 과제 2는 ‘청년 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 과제 3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각각 정보 전달하는 글, 주장하는 글, 정서 표현의 글이다.

4명의 참여자가 각각 3편의 작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전체 1,142회의 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조사 오류는 125회 나타나 조사 오류율은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율인 12.0%(민진영, 2002)와 12.9%(이정희, 2003)에 비해서 낮은 수치인 반면 중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율 10.4%(전영옥, 2011), 한상미(2014)의 10.2%(한상미, 2014)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인 조사 유형과 범주에 따른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3.2.1. 조사 유형별 오류 양상

먼저 조사 유형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구분하였고, 조사 결합형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유형별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 유형별 오류 빈도

구분		오류 빈도
격조사	주격	38
	보격	2
	관형격	15
	목적격	20
	부사격	32
	인용격	0
	서술격	3
보조사		13
접속조사		0
조사결합형		2
합계		125

조사 유형별로는 주격조사의 오류가 3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사격조사 와 목적격조사가 뒤를 이었다. 주격조사 오류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제 발전으로 인해 환경(√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출산율의(√출산율이) 저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가혹한 시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한 대책가(√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사격조사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청년의(√청년에게) 좋은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
- 다리가 골절돼서 병원에(√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 마지막에(√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원인은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3.2.2. 오류의 유형별 양상

조사 오류의 유형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누락, 대치, 첨가, 형태, 환언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대치 오류가 6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누락과 첨가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4〉 오류 유형별 빈도

유형	오류 빈도
누락	40
대치	69
첨가	9
형태	5
환언	1
합계	125

누락 오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리(√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일 수 있다.(주격조사)
- 정부와 개인의 모두 노력해야 문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목적격조사)
- 대기오염 21세기(√21세기가) 되어 심한 문제가 됐다. (보격조사)
- 부모님은 교사(√교사이기) 때문에 진짜의 면접 같은 것을 4시간 정도를 2번 해서 결국 용서해주셨다. (서술격조사)

대치 오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열대림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대기 온도가 높아져서 북극과 남극을(√남극에) 큰 영향을 준다.(부사격조사)
- 나는 두 부부의 사진을 찍은 일이(√일을) 맡았다.(목적격조사)
- 2030년에 청년층이(√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더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관형격조사)
- 그때는 내가 대학교 2학년에(√2학년이) 될 겨울 방학이었다.(보격조사)
- 집에서(√집이) 너무나 조용하고 나의 심장이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주격조사)

#### 4. 조사 오류의 언어 외적 요인

3장의 양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도 조사 사용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 피드백과 인터뷰,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면담 피드백 단계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 사용 양상 및 선택 이유를 확인하였다. 오류 문장을 제시하여 오류를 찾게 하고, 왜 오류를 범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면담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류의 판정과 조사 선택 이유 등을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조사 오류의 언어 외적 요인을 묻는 질문을 통해 조사 오류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함께 교재 및 교육과정 분석 등을 병행하여 조사 오류의 언어 외적 요인을 탐색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하였다.

##### 4.1. 전공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먼저 전공 교과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한국어 수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공 수업의 비중이 커진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최고급 학습자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학부에 진학하거나, 국외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2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목표로 전문적으로 한국어만을 공부한다. 국내 어학 기관의 경우 하루에 4시간씩 주당 20시간씩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국외에서도 한국어 전공인 경우 18-20학점 가량의 한국어 수업을 2년 동안 듣는다. 결국 한국어 학습 초창기에 집중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이수하면서 정확성에 기초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학부에 진학해서 고학년이 되거나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한국어 중심의 수업에서 전공 수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변화한다. 이때 오랜 기간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의 경우 이미 충분히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는 판단 하에 한국어 수업보다는 전공 수업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계속 한국어 수업만 들었어요. 문법, 회화, 시청각같이 모든 수업이 한국어였는데, 00대에 와서는 한국어 수업은 한 과목만 듣고, 나머지는 다 전공 수업이에요. 수업이 너무 어렵고, 교수님 설명도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1>

어학당에서 공부할 때에는 쓰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쓰기 숙제가 없어요. 읽고, 교수님 설명만 들으면 되니까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국어 더 못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이처럼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전공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유학생으로서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정확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줄어들고,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사 오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4.2. 내용 중심 접근법에 기반한 교수 방법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내용 중심 접근방법에 기초한 언어와 내용의 통합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대학의 고급 과정 한국어 교육은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고급 한국어 강좌도 마찬가지로 내용 중심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개발된 쓰기 교재를 사용하였고, 수업의 진행 역시 내용 중심 접근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내용 중심 접근방법으로의 한국어 교수는 한국어 자체보다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내용 지식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최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용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문법을 간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확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쓰기보다 읽기가 더 중요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쓰기는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어하고 읽기 많이 공부해요. <참여자 4>

교재를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번역하는 것처럼 읽고 해석하는 걸 많이 해요. <참여자 1>

이처럼 최고급 수준이 아니더라도 고급 단계에서부터 대부분의 한국어 수업이 내용 중심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교수의 초점이 내용 이해에 맞추어지게 된다. 특히 내용 이해를 목표로 하면서 어휘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최고급 학습자들은 결국 내용 중심 접근방법이 학문 목적의 고급 학습자 대상 한국어 수업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정확한 조사 사용의 기초가 되는 문법 교

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최고급 학습자들이 정확한 조사 사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 4.3. 유창성에 집중하는 학습자의 인식

전공 교과 중심으로의 교육과정 설계와 내용 중심 접근방법으로의 교수 방법의 변화는 최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공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며 학습해야 할 내용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서 최고급 학습자는 정확성에 기초한 표현보다는 이해를 중시하게 되었다.

토픽 쓰기 수업을 받을 때부터 문법보다 전체 구조나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수정할 때 문법은 많이 안 고쳐줬어요. 요즘도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쓰면 문법을 고쳐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연습을 자주 해서 문법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알기는 아는데 헛갈려요. 문법을 신경쓰면서 쓰기를 하면 길게 못 쓴다고 그래서 문법보다 내용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헛갈리는 게 나와도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써요. 그래서 요즘 실수가 많아요. <참여자 2>

이처럼 정확성보다는 글의 구조와 유창성을 강조하는 수업 분위기 속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정성현(2018)은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 중급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을 틀리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고급 학습자는 ‘고급 어휘를 다양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급 학습자들이 어휘 및 문법의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부담이 큰 반면에 고급 학습자들은 다양하고 유창한 어휘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정확성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반면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유창성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가 작성한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에 대한 질적 접근’을 통해 조사 오류의 언어 외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최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한 조사 사용

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조사 사용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외적 요인으로는 전공 교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내용 중심 접근법에 기반한 교수 방법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최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조사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류를 유발하였다.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 역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고급 학습자의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의 방법 역시 내용 중심 접근법을 표방하더라도 정확성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정확성과 유창성 그리고 적절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석주 외. 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김가람. 2022.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국어문학 80, 국어문학회, 289~318쪽.
- 김지민·신승용. 2012. 「어휘오류 연구에서 질적 분석의 필요성」, 시학과 언어학 23, 시학과언어학회, 33~52쪽.
- 이정희. 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서울: 박이정.
- 조철현 외. 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한상미. 2014.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담화에 나타난 조사 오류양상 분석」, 이중언어학 57, 이중언어학회, 224~255쪽.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2년 10월 7일 (금) 09:50 ~ 17:00 / 한글학회 강당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1LQq-P8IQ8>

□ 제3부 연구 발표

##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원 분석과 제언

김영일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syntactician@daum.net

### 1. 서론

사동은 한국어 교육과정 중급 단계의 문법 항목으로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물론,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도 항상 출제되는 등 현장에서 교수 학습의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왔다. 그 예로 「한국어능력시험 급별 문법 평가 기준」 3급에 사동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법 목표 3급에도 사동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3급 과정에서 한국어의 사동을 처음 접하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가르침과 더불어 교재에 있는 설명과 예시를 바탕으로 사동을 이해해야 하고, 형태 연습, 문장 연습, 대화 연습 및 활동(과제)을 거쳐 완전히 숙달된 학습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올바른 사동문을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사동의 습득과 숙달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교수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고 적절한 교수 방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할 때 주동사 및 주동문의 범주에 따라서 사동문의 의미와 구조가 달라지므로 교수 내용의 조직과 배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기

에서의 핵심은 사동사와 사동문인데, 사동의 의미, 사동사의 형태, 사동문의 구조, 사동문의 생성 방법 등의 목표를 학습자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동 단원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가 사동사를 사용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사동문을 생성하는 데 있으므로 사동사라는 단어 생성 차원의 논의를 사동문이라는 문장 생성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분야의 서적과 한국어 교재를 검토해 본바, 다음 2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동의 완전한 숙달과 정확한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교사 입장에서도 교재의 앞 뒤 내용에 모순이 있으므로 명쾌하게 교수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교재의 개정판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재의 문법 설명과 제시문의 적합성, 제시문의 특성, 연습 문제의 구성과 사동문의 제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주요 쟁점을 풀어내고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 2. 문제 제기 및 주요 쟁점

한국어 교육에서 사동은 주동의 짝으로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드는 단어 파생 측면과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문장 전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어 교육 개론서를 표방하는 국립국어원(2005:252~262)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주동과 사동을 대비시키며 주동사를 사동사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이루어진다.

사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크게 교육 방안 연구와 언어 간 대조 연구로 나뉘며, 편수는 적으나 오류 연구와 습득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sup>1)</sup> 이 중 교재를 분석하였거나 교육 방안을 논의한 선행 연구로 백봉자(2001), 최해주(2007), 서종학·강수경(2013), 조영미(2016), 최지희(2017), 송대현(2019), 안소정(2019), 신혜림(2020), 유현기(2020) 등이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대부분에서 사동의 범위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교재를 검토하여 사동사가 제시되는 급수, 사동사의 제시 방식, 사동사의 수, 사동사별 빈도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이상의 깊은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들 연구에서는 사동사에 논의를 집중한 탓에 사동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사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본격적인 논의에 부치고자 이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1) 최근 10여 년간 사동과 관련한 학위논문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조 연구 10편, 교육 방안 연구 18편, 오류 연구 5편, 습득 연구 6편이 확인되었다.

첫째, 한국어 교재를 보면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사용한다.”, “사동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다.”,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게 할 때의 표현이다.” 등과 같은 문법 설명이 사동 단위의 첫머리에 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사동문으로 전환하기 전, 즉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이거나 행위성 자동사이고 주어가 유정물일 때만 참이 된다. 예컨대 주동문 “아이가 밥을 먹는다.”에서 성립된 사동문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는 교재의 문법 설명과 일치하지만, 주동문 중에서 형용사문 “길이 넓다.”와 비행위성 자동사문 “얼음이 녹았다.”는 사동문으로 전환했을 때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와 “예진이가 얼음을 녹였다.”가 되어 오히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사건을 나타내며, 의미상 능동과 동일하다. 몇몇 책에서는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사동을 설명한 뒤 곧바로 피사동주가 무정물이며 사동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인부들이 담을 높였다.”, “햇빛이 얼음을 녹였다.”,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출발 시각을 9시에서 10시로 늦췄다.”와 같은 문장을 제시한다. 이는 사동을 소략하게 정의하거나 관계적<sup>2)</sup>으로 정의한 뒤 형용사문, 비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된 예를 구별 없이 한곳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이다. 교재의 설명과 예문이 정합하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특히 사동의 정의 및 설명과 교재의 제시문을 결부하여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동의 정의 및 설명 여부, 제시문의 수, 제시 방식, 사동문의 유형, 다른 문법 사용 여부, 복문 여부, 필수 성분 생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재에 있는 사동문의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제시문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교재에 있는 사동문을 보면 학습에 간섭을 일으킬 만한 길고 복잡한 문장, 다른 문법이 함께 사용된 문장, 사역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 주요 문장 성분이 생략된 문장, 상이한 구조를 지닌 문장이 한데 뒤섞여서 제시되고 있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사동 단위의 목표가 사동사를 익히는 데서 나아가 올바른 사동문을 생성하는 것까지임을 고려한다면 학습자들이 단원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도록 문장을 배열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의미와 형태 제시 이후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검토해 보면 사동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동문이 형성되는 과정과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

2) 본래 원인, 인과(관계) 등의 기본 의미가 있는 ‘causation’을 ‘사동(使動)’으로 번역하고 ‘使動’이라는 한자의 의미에 충실하여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만 정의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장이 한국어 교재 안에 매우 많다.

우가 많고, 연습 문제와 활동이 주로 질문과 답변 유형의 단순한 말하기 활동에 치우쳐 있음이 발견된다. 즉,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3.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위 분석

본 연구에서는 12개 대학 기관에서 펴낸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위를 분석하였다. 모든 교재에 사동이 목표 문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재 정보를 기관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교재	기관	교재 이름	급수, 단위	문법 항목
㉠	경기대학교	좋다!! 한국어	3, 25과	V-이/히/리/기/우- (사동사)
㉡	경희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1	사동
㉢	계명대학교	살아있는 한국어	4, 4과	V-이/히/리/기/우
㉣	신라대학교	비타민 한국어	3, 3장	사동 표현
㉤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국어	3B, 11과	V-이/히/리/기/우-(사동)
㉥	선문대학교	선문 한국어	중급, 1과	사동①: -이/히/리/기/우/추-
㉦	성균관대학교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3, 11단원	사동
㉧	연세대학교	새 연세 한국어 어휘와 문법	3-1, 9과	사동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3-1, 4단원	사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13과	사동
㉪	한양대학교	한양 한국어	3-1, 10과	-이/히/리/기/우/추- (Causative)
㉫	홍익대학교	홍익 한국어	3A, 14과	사동(-이/히/리/기/우-)

〈표 1〉 사동이 목표 문법으로 제시되는 기관별 교재 정보

〈표 1〉의 12개 교재 중 11개 교재는 3급 과정에서, 1개 교재는 4급 과정에서 사동이 목표 문법으로 제시된다. 이로써 사동은 3급 과정의 한국어 교재에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문법 항목의 이름은 주로 ‘-이/히/리/기/우-’ 또는 ‘-이/히/리/기/우/추-’를 사용하거나 ‘사동’, ‘사동사’, ‘사동 표현’ 등을 사용한다. 먼저, 교재에 있는 사동의 정의 및 설명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나타나는 제시문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더 나아가 사동 단위를 분석하여 교재에 있는 제시문의 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2개 교재 중 아래의 4개 교재에서만 사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교재에서는 사동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교재	용어	정의 및 설명
㉞	사동 표현	동사에 ‘-이/히/리/기/우/추-’를 붙여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해 줄 때 사용합니다.
㉟	사동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사용한다.
㊸	사동사	‘사동사’는 다른 사람, 동물, 사물을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함을 나타낸다. 사동사는 몇몇 동사와 형용사에 ‘이, 히, 리, 기, 우, 추’를 붙여 만든다. 사동사에는 ‘먹이다, 보이다, 눅이다, 끓이다, 눅히다, 앉히다, 읽히다, 알리다, 살리다, 열리다, 올리다, 감기다, 남기다, 맡기다, 숨기다, 웃기다, 세우다, 재우다, 태우다, 늦추다’ 등이 있다.
㊹	사동	Causatives are created by adding the causative suffixes, such ‘-이-’, ‘-히-’, ‘-리-’, ‘-기-’, ‘-우-’, ‘-구-’ or ‘-추-’ to action verbs or descriptive verbs. It is an expression when a subject makes another person do an action.

〈표 2〉 교재에 나타난 사동의 용어와 정의 및 설명

〈표 2〉의 ㉞, ㉟, ㊸에서는 사동을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사동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달리 ㊹에서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상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㉞, ㉟, ㊸의 관점에서는 사동이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문법 현상이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게’가 가능하려면 사동주인 ‘주어’와 피사동주인 ‘다른 대상’ 모두 의지를 지닌 유정물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동문 안에 있는 두 명의 참여자 A와 B 중에서 한 참여자(A)는 시키는 자이고, 다른 참여자(B)는 한 참여자(A)가 시킨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㉞, ㉟, ㊸의 설명을 충족하는 사동문은 사동주의 사동 사건과 피사동주의 피사동 사건이라는 복합 사건을 나타내며, 대응되는 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 동사이고 사동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유정물이어야 한다.

㉞, ㉟, ㊸에서 사동의 설명과 함께 나타나는 제시문은 다음과 같다.

교재	제시문
㉞	1.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 줘야겠어요. 2.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혔어요. 3.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셨어요. 4. 죄송하지만,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음악 소리 좀 낮춰 주세요.
㉟	1. 네, 제가 떡국을 끓일게요. 2. 엄마는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눅혔다. 3. 형이 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여 동생을 울렸다.

	4. 이모가 조카에게 신발을 신겼다. 5. 햇빛이 강한 날에는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세요.
㉔	1. 어머니가 아기에게 밥을 먹고 있어요. 2. 학교 앞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넓혔어요. 3. 젖은 옷은 말려 입으세요. 4.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을 조금 남겼어요. 5. 아침마다 제 룸메이트가 저를 깨워요. 6. 제 친구의 취미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에요. 7. 삼겹살을 구우려고 팬을 뜨겁게 달궜어요.

〈표 3〉 한국어 교재 ㉔, ㉕, ㉔의 제시문

㉔의 제시문은 ‘알려 줘야겠어요’, ‘먹여 주셨어요’, ‘낮춰 주세요’처럼 사동사와 함께 ‘-아/어 주다’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어 주다’가 초급 문법이라 하더라도 사동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이 다른 문법이나 어휘 등의 간섭 없이 오롯이 사동을 이해하고 익히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동 단원의 첫 제시문에는 ‘-아/어 주다’와 같은 사동 외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동사로만 문장을 끝맺는 편이 낫다. 제시문 중 ㉔-4는 다른 문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 외에도 사동의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문장치고는 너무 길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인 ‘죄송하지만,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를 삭제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의 특성상 ‘음악 소리를 낮추-’의 주체인 2인칭 주어, 즉 청자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㉔-1도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있다.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원에서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문장 전환 연습이 이루어지므로 제시문에서 주어와 목적어 같은 필수 성분을 생략한 채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문장 전환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통사적인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정확히 익힐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㉔-4는 문장 전환이 어려운 명령문보다 기본문인 평서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다.

㉕의 제시문은 첫 번째 문장부터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의미를 충족하지 못한다. 교재에서 “성민 씨, 설날인데 떡국을 먹을까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사동문 ㉕-1 “네, 제가 떡국을 끓일게요.”는 사동의 기본 의미인 ‘시킴(사역)’이 나타날 수 없다. 주어는 ‘저’이고 다른 대상은 무정물인 ‘떡국’이므로 ‘떡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㉕-1은 오히려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의미가 나타나며, 떡국을 끓이는 주체가 바로 주어 자리에 있는 ‘저’이다. 이처럼 사동을 위와 같이 설명한 뒤에 곧바로 그 설명에 반하는 제시문을 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되는데, ㉕-3과 ㉕-5는 복문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좀 더 간결한 단문의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형이 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여 동생을 울렸다.”에

서 ‘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여’는 불필요하며 “형이 동생을 울렸다.”로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목표 문법인 사동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세요.”에서도 ‘햇빛이 강한 날에는’을 쓸 필요가 없다. 이 외에도 ㉔-5는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문장의 주어인 사동주가 생략되어 있다. 특히 사동의 경우 사동을 설명한 후에 첫 문장부터 주요 문장 성분을 생략한 채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문장 구조 변화와 문장 생성 방법을 주동문과 결부하여 살펴보는 사동의 학습 과정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수 문장 성분이 모두 갖추어진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㉔의 제시문도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다. 문장에서 다른 문법을 함께 사용한 사례(-고 있다, -아/어서, -는 것, -(으)려고 등), 단문이 아닌 다소 길고 복잡한 복문으로 제시한 사례(㉔-1, 2, 3, 4, 6, 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필요한 성분이 사용된 사례(학교 앞에 있는, 너무 좁아서, 너무 배가 불러서, 삼겹살을 구우려고 등), 주요 문장 성분을 생략한 사례(㉔-2: [누가] [길을] 넓히다, ㉔-3 [누가] 젖은 옷을 말리다, ㉔-4: [누가] 음식을 남긴다, ㉔-7: [누가] 팬을 달군다 등)를 안고 있다. 특히 ㉔-2는 사동의 설명과 함께 나타나는 제시문으로서 치명적인 문제를 노출한다. 모든 사동사는 타동사임에도 ‘을/를’ 명사구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넓히다’의 대상 ‘길’이 선행절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서’의 ‘길’과 공지시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습자는 제시문만 보고 ‘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거나 ‘넓히다’가 피동사라고 오인할 수 있다. ㉔-2, 3, 4, 7은 생략된 성분을 복원하더라도 주어가 길을 넓힌 것, 주어가 젖은 옷을 말려 입는 것, 주어가 음식을 조금 남긴 것, 주어가 팬을 뜨겁게 달군 것 모두 주어가 직접 행동한 것을 나타내므로 교재에 있는 사동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심지어 ㉔-6의 명사구 ‘제 친구의 취미’에서 핵인 ‘취미’도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좋은 제시문이라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오인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목표 문법의 용법과 통사 정보를 정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본문의 개념 설명과 정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예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외국인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문법 습득 과정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동의 외연을 넓힌 ㉔에서도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세요.”처럼 명령문이 복문으로 제시되고 필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등 다른 교재와 동일한 문제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 교재에서도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이루어지는데, 명령문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세요.”를 주동문으로 과연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지어 의미상 피사동주로 기능해야 하는 ‘체중’과 ‘노화’는 ㉔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 동물, 사물’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며, “운동은 노화를 늦춰요.”와 같은 제시문을 고수하기 위해 3급에서 ‘노화’ 같은 고급 수준의 단어를 새로운 학습 어휘에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시문을 보여준 뒤에는 주동사에 사동 접사를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드는 연습이나 사동문을 만드는 연습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재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므로 ㉔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㉔에서는 <보기> “우표가 붙다.”를 “내가 우표를 붙이다.”와 같이 사동문으로 바꾸는 문제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 <보기>조차도 ㉔에서 설명한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사용한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1) 가. 동생이 속다. → 형이 \_\_\_\_\_.  
 나. 라면이 끓었다. → 유미는 \_\_\_\_\_.  
 다. 치마가 줄었다. → 나는 \_\_\_\_\_.  
 르. 동생이 웃었다. → 언니가 \_\_\_\_\_.  
 무. 문제의 답이 맞았다. → 뚜언이 \_\_\_\_\_.  
 바. 도로가 넓어졌다. → 서울시가 \_\_\_\_\_.  
 사. 안나 씨가 머리를 감는다. → 미용사가 \_\_\_\_\_.  
 오. 아이가 머리를 빗는다. → 엄마가 \_\_\_\_\_.  
 자. 학생이 책을 읽다. → 선생님이 학생에게 \_\_\_\_\_.  
 차. 아이가 옷을 입다. → 아빠가 아이에게 \_\_\_\_\_.

(1나, 다, 무, 바)은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이고 주어는 무정물이다. 그러므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주동문의 주어 ‘라면’, ‘치마’, ‘문제의 답’, ‘도로’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더라도 이들 개체는 주어가 시킨 동작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교재에 있는 사동의 설명에 반한다. 교재에서 의도한 대로 사동문으로 바꿔 보면 각각 “유미는 라면을 끓였다.”, “나는 치마를 줄였다.”, “뚜언이 문제의 답을 맞혔다.”, “서울시가 도로를 넓혔다.”가 된다. 네 문장 모두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가 동작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문제에서조차 방금 전 설명한 사동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다른 교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나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사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소략한 입장만을 고수하여 개념 설명과 문장 간의 불일치가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교재에서 사동의 설명과 함께 나타나는 제시문을 살펴본 결과, 사동을 학습하

는 데 간섭을 일으킬 만한 길고 복잡한 문장, 다른 문법이 함께 사용된 문장, 주어가 직접 한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 주요 문장 성분이 생략된 문장, 상이한 통사 구조를 지닌 문장이 한곳에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준거로 삼아 검토 대상인 한국어 교재 12종의 사동 단원에서 ①사동의 정의 및 설명 여부, ②제시문의 수, ③제시 방식, ④사동문의 유형, ⑤다른 문법 사용 여부, ⑥복문 여부, ⑦필수 성분 생략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③제시 방식은 제시문이 A와 B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별 문장으로 제시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동문과 사동문이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④사동문의 유형은 제시문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NP1<sub>유</sub>-이/가 NP2<sub>유</sub>-을/를 VP’를 유형1로, ‘NP1<sub>유</sub>-이/가 NP2<sub>무</sub>-을/를 VP’를 유형2로, ‘NP1<sub>무</sub>-이/가 NP2<sub>무</sub>-을/를 VP’를 유형3으로, ‘NP1<sub>무</sub>-이/가 NP2<sub>유</sub>-을/를 VP’로 유형4로, ‘NP1-이/가 NP2-에게 NP3-을/를 VP’를 유형5로 설정하여 제시문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래 첨자로 표시된 ‘유’는 유정물을 의미하고, ‘무’는 무정물을 의미한다. 사동문은 주동문의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동문으로 전환하기 전 문장이 형용사문, 비행위성 자동사문, 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문 중 어느 문장인지에 따라서 사동문의 구조와 의미가 달라지고, 특히 주동문 중에서 형용사문과 비행위성 자동사문은 사동문으로 전환했을 때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5	주동문→사동문 <sup>3)</sup>	①	②	③	④	⑤	×	×	×
㉡	×	2	대화, 문장 <sup>4)</sup>	①	②	③	④	⑤	○	○	○
㉢	×	3	사동문(주동문) <sup>5)</sup>	①	②	③	④	⑤	×	×	×
㉣	○	4	문장	①	②	③	④	⑤	○	○	○
㉤	×	5	대화, 문장 <sup>6)</sup>	①	②	③	④	⑤	○	○	○
㉥	×	0	×	×					×	×	×
㉦	○	5	대화, 문장	①	②	③	④	⑤	×	○	○
㉧	×	6	문장, 대화 <sup>7)</sup>	①	②	③	④	⑤	○	○	○
㉨	○	5	문장 <sup>8)</sup>	①	②	③	④	⑤	○	○	○
㉩	○	7	문장 <sup>9)</sup>	①	②	③	④	⑤	○	○	○
㉪	×	1	주동문, 사동문 <sup>10)</sup>	①	②	③	④	⑤	×	×	×
㉫	×	6	사동문 <sup>11)</sup>	①	②	③	④	⑤	○	○	○

〈표 4〉 한국어 교재의 사동 단위 분석 결과

3) 동생이 밥을 먹어요. → 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여요.  
 철수가 옷을 입어요. → 아빠가 철수에게 옷을 입혀요.  
 동생이 울었어요. → 형이 동생을 울렸어요.  
 민수가 웃어요. → 라이언이 민수를 웃겼어요.  
 아기가 자요. → 엄마가 아기를 재워요.

위의 <표 4>는 한국어 교재 12종을 대상으로 사동의 정의 및 설명 여부, 제시문의 수, 제시 방식, 사동문의 유형, 다른 문법 사용 여부, 복문 여부, 필수 성분 생략 여부를 두루 살펴본 결과이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하나 논의해 보겠다.<sup>12)</sup>

첫째, 사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교재는 앞서 제시문을 살펴본 4종뿐이며, 다른 교재 8종에는 설명이 빠져 있으므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사동의

- 
- 4) 가: 엄마, 형이 자꾸 때려요.  
나: 철수야, 동생 울리지 말고 잘 돌봐 줘야지.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5) 형이 동생을 울려요. (동생이 울어요.)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여요. (동생이 밥을 먹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요. (아이가 침대에 누워요.)
- 6) A: 출근할 때 아이는 어떻게 해요?  
B: 어린이집에 맡겨요.  
출출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검사를 해야 하니까 환자를 침대에 눕히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해서 동생을 자주 울렸어요.  
비가 오니까 아이에게 장화를 신기세요.
- 7) 올리비아 씨가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레오 씨, 이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세요.  
저는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으러 가야 해요.  
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지?  
나: 네, 혹시 제가 못 일어나면 깨워 주세요.  
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나: 과장님께서 오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회의 시간을 2시로 늦췄어요.
- 8) 올리비아 씨가 아기에게 옷을 입혀요.  
어머니가 아이를 깨워요.  
운동은 노화를 늦춰요.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세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여요.
- 9)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어요.  
학교 앞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넓혔어요.  
젖은 옷은 말려 입으세요.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을 조금 남겼어요.  
아침마다 제 룸메이트가 저를 깨워요.  
제 친구의 취미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예요.  
삼겹살을 구우려고 팬을 뜨겁게 달궜어요.
- 10) 아이가 밥을 먹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 11) 청소기를 돌린 후에 방도 한번 닦아 주세요.  
내일은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깨우지 마세요.  
동생이 팔을 다쳐서 동생의 손을 씻겨 줬어요.  
친구가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A: 다 익었죠? 지금 먹으면 돼요?  
B: 아직 안 익었어요.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 돼요.
- 12) 앞에서 제시문을 살펴본 교재 4종 외의 나머지 교재에 있는 제시문은 각주로 표기하였다.

의미를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범용 교재이면서도 목표 문법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사동사를 만들어 보거나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사동사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이 많이 제시된다. 그런데 사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4종의 교재에서조차 사동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 까닭에 사동문의 목적어가 무정물인 경우에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본문의 설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하면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주로서 사동주가 새롭게 참여하게 되고, 사동문으로 바뀌기 전 문장에서술된 내용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재편된다. 그러므로 사동주는 원인 제공자이고, 사동의 결과로 주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동문에서 주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아니라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제시되는 것은 피동문에 비해 능동문이 기본문이듯이 사동문에 비해 주동문이 기본문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교재 12종의 사동 단원에 있는 모든 제시문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문장까지 사동문으로 명명하려면 교재에서 설명하는 사동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형용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비행위성 자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행위성 자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타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모두 사동문으로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사동은 참여자A(사동주)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참여자B(피사동주)의 동작이나 작용이 나타나는 것과 참여자A(사동주)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참여자B(피사동주)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교재의 사동 단원에 제시된 문장을 사동문의 범위 안에 포함할 수 있으며 범언어적인 사동문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럼에도 한국어 교재에서는 사동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로만 소략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한 후에 여기에 반하는 예문도 사동문으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 설명과 예문이 어긋나게 되어 교수와 학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둘째, 제시문의 수와 제시 방식은 사동의 설명과 함께 제시된 문장에 관한 것이므로 묶어 논의하기로 한다.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제시문의 수는 0개에서 7개까지로 확인된다. 특히 0개~2개는 사동문의 유형과 구조를 다 보이지도 못할 만큼 적은 수이므로 학습자들에게 사동의 설명에 맞는 전형적인 문장과 사동문의 구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적어도 <표 4>의 ①, ②, ⑤에 해당하는 세 문장을 주동문과 함께 그림을 곁들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㉞은 제시문이 하나도 없이 사동사 표를 완성한 후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 문제가 이어진다. 더욱이 “사동사’로 표현해 보세요.”, “사동사’로 대답하세요.”로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서 문(文)이 아닌 사(詞)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의 한계도 함께

발견된다. ㉠은 2개의 사동문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가’와 ‘나’의 단발성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다. 그러나 둘 다 다른 문법이 사용되는 문제, 복수의 중급 어휘가 사용되는 문제,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제시되는 문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므로 제시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어휘와 관련하여 부연하면 ㉡, ㉢, ㉣은 각각 ‘출출하다’, ‘노화’, ‘달구다’ 등 고급 수준의 어휘가 제시문에 사용되고 있다.<sup>13)</sup> 사동이 중급 문법이라는 점, 사동을 학습할 때 모르는 단어의 출현으로 인해 학습자가 사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제시문에 고급 수준의 어휘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은 1개의 사동문이 제시되지만, 그림과 함께 주동문 “아이가 밥을 먹어요.”와 사동문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어요.”가 나란히 놓여 있다. 그러나 곧바로 문장을 완성해 보는 문제가 이어지고, 여기에서 NP-이/가 NP-을/를 VP, NP-이/가 NP-에게 NP-을/를 VP, NP-이/가 NP-의 NP-을/를 VP, NP-이/가 NP-을/를 NP-에 VP와 같은 다양한 구조를 지닌 사동문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1개의 제시문만으로는 학습자가 사동문의 구조와 형태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문장에 해당하는 그림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동문의 구조를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소화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제시 방식은 주로 대화문이나 서술문의 형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동문만 제시되거나 주동문과 사동문이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주동문과 사동문이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두 문장을 함께 제시하되 그림을 곁들이면 문법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상황의 이해도를 높이며 기억 효과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장에서 표지가 달라지는 부분의 글자를 두드러지게 표시하거나 색을 달리하고, 문장 성분의 이동을 화살표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사동문으로 전환할 때 구조 변화나 형태 변화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시된 부분을 학습자들이 주목하도록 만들고, 반복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규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다섯 문장 유형 중 ①유형과 ⑤유형은 사동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유정물이어서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나머지 ②유형, ③유형, ④유형은 문장에 무정물 명사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여 교재에서 설명하는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교재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무정물 명사구와 유정물 명사구로 이루어진 ④유형은 하나도 없고, 명사구 두 개가 모두 무정물로 이루어진 ③유형은 “운동은 노화를 늦춰요.”와 같은 제시문이 한 교재에서만 나타난다. 남은 ②유형은 유정물과 무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문이 8종의 교재에서 나타난다. “제가 떡국을 끓일게요.”가 바로 ②유

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의 결과물을 통해 확인하였다.

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을 사동문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목적어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까지 사동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상이한 문장 구조는 주동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식의 연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동문의 유형에 따라서 사동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①유형과 ⑤유형은 전형적인 사동문이라 할 수 있는데 ①유형은 “동생이 온다.”와 같은 행위성 자동사문에서, ⑤유형은 “아이가 밥을 먹는다.”와 같은 타동사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다섯 문장 유형에 대한 주동문과 사동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주동문	사동문
①	동생이 온다.	형이 동생을 올린다.
	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문
②	떡국이 끓는다.	나는 떡국을 끓인다.
	비행위성 자동사문(상태 변화)	타동사문
③	노화가 늦다.	운동이 노화를 늦춘다.
	형용사문	타동사문
④	얼음이 녹는다.	햇빛이 얼음을 녹인다.
	비행위성 자동사문(상태 변화)	타동사문
⑤	아이가 밥을 먹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타동사문	이중타동사문

〈표 5〉 문장 유형에 따른 주동문과 사동문의 비교

위의 비교를 통해서 주동문에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 문장 성분 측면에서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므로 본래 주동문에 있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이동하고, 비행위성 자동사문이나 형용사문도 새로운 주어의 작용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타동사문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본래 타동사문이었던 주동문의 경우에는 이미 목적어가 자리가 차 있기 때문에 주동문에 있던 주어가 부사어(여격어)로 이동한다.

넷째, 사동 단위에 있는 제시문을 살펴보면 사동과 함께 다른 문법이 사용된 예가 흔하게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문중에서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 ‘해야 하나까’, ‘있다고 하셔서’처럼 나타나거나 문말에서 사동사 서술어와 함께 다른 문법이 사용되어 ‘낮춰 주세요’, ‘깨워 주세요’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문장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사동사로 전환된 ‘낮추(다)’, ‘깨우(다)’ 같은 사동사의 기본형이 학습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복수의 문법이 함께 사용되면 사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다른 문법의 간섭 없이 목표 문법인 사동을 학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문에서는 다른 문

법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12종의 교재 중 7종의 교재에서 제시문에 다른 문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과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게다가 ㉞은 제시문이 없으므로 사실상 11종의 교재 중 7종의 교재에서 사동의 제시문에 다른 문법이 함께 사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래에서 사동과 함께 사용된 문법의 빈도를 교재별로 확인해 보겠다.<sup>14)</sup>



〈표 6〉 제시문에서 사동과 함께 사용된 문법<sup>15)</sup>

사용된 문법의 총 빈도를 보면 ‘-아/어 주다’가 8회, ‘-아/어야 하다/되다’가 6회, 관형사형이 4회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제시문만 살펴본 것으로, 연습 문제에 있는 사동문까지 모두 고려하면 사동 외의 문법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급 교재를 살펴보면 하나의 문장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지?”처럼 문법 항목인 ‘-아야 하-’와 ‘-다고 하-’가 연속적으로 사용됨은 물론,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한 문장 안에 복수의 문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동 단원의 제시문에 사동사의 형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례로 ‘먹인다’, ‘먹였다’처럼 사동사가 드러난 채로 문장이 종결되어야 하며, ‘냇취 주세요’, ‘먹여 주셨어요’처럼 다른 문법이 사용되면 바뀐 사동사의 형태가 빠르게 해득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나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제시문은 학습자들

14) A와 B의 대화로 제시된 경우에 사동문이 아닌 의문문에 사용된 사동 외의 문법도 집계에 포함하였다. 사동문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쌍을 하나의 연결된 발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5) 교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지 말다, -아/어 주다, -을/를 위해, 관형사형, ㉡ : -아/어 주다(3), -고 있다, -(으)니까, ㉢ : -게 하다, -(이)라도, -아/어야 하다, -(으)ㄹ 때, ㉣ : -아/어야 하다(3), -어 주다(2), 평서문 간접 인용(2), -(으)려고, -(으)러, -(으)면, -고 하다, ㉤ : -을/를 위해, ㉥ : 관형사형(2), -고 있다, -(으)려고, ㉦ : -아/어 주다(2), -아/어야 하다/되다(2), -(으)ㄴ 후에, -아/어도 되다, -지 말다, 관형사형, -(으)려면, -(으)면 되다

이 사동을 학습하며 최초로 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사동의 용례만을 충실히 보여주면 될 뿐, 그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처럼 어휘와 문법을 통제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을 활용함으로써 목표 문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동이라는 문법의 특성상 사동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고,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문장 성분의 추가, 문장 성분의 이동, 격 표시 교체, 동사에 사동 표시 결합 등 학습해야 할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부담이 적도록 간명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째, 복문 여부라는 검토 항목은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있거나 연결 어미가 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성분이 개재되어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사동 단원의 앞부분에는 목표 문법의 사용 양상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필수 성분 위주의 짧은 문장을 교재에 제시하고, 뒤에 이어지는 연습 문제에서 점차 긴 문장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들은 문법 설명을 들으면서 제시문을 보고 사동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게 되며, 이후 문장 빈칸 채우기나 대화 완성하기 등과 같은 통제적 연습을 통해 사동의 규칙과 원리를 체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표하기, 이야기하기, 글쓰기, 대화 만들기 등의 유의적 연습을 통해 이해한 문법을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의 수준으로 고양하게 된다. 그런데 제시문에서부터 불필요하게 긴 문장이 나타나고 있어 학습자들이 사동을 이해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일부만 예로 들어 보이면 ㉠의 “여름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의 “과장님께서 오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회의 시간을 2시로 늦췄어요.”와 같은 문장은 그 길이가 너무 길고 불필요한 성분이 문장 안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사동이라는 목표 문법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장 생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의 문장을 3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즉각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혜진이가 물을 끓였다.”, “나는 회의 시간을 2시로 늦추었다.”처럼 간결한 제시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서 살펴본 다른 문법 사용 여부라는 항목과도 매우 연관하다.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연결 표현이나 종결 표현을 사용할 경우 통사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통사적 복잡성은 학습자들의 문장 인식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시문의 난도가 높아진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살펴본 항목은 문장 성분 중에서도 필수 성분의 생략 여부이다. 앞서 ㉢, ㉣, ㉤의 제시문을 살펴보면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면 학습자들이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정확히 익히기 어

려우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표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재에서 필수 성분이 생략된 제시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주동문과 사동문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필수 성분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필수 성분이 생략된 제시문이 너무 많기에 모두 가져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㉔의 제시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 설명하기로 한다. ㉔에서 필수 성분이 생략된 제시문은 ㉔-2 “학교 앞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넓혔어요.”, ㉔-3 “젖은 옷은 말려 입으세요.”, ㉔-4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을 조금 남겼어요.”, ㉔-7 “삼겹살을 구우려고 팬을 뜨겁게 달궜어요.”이다. 이 중 ㉔-3은 명령문이어서 2인칭 주어인 청자가 문면에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명령문은 일반적인 서술문이 아니라는 점,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아/어 주-’가 함께 사용된다는 점, 대응되는 주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주어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시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세 문장 중 ㉔-2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㉔-4와 ㉔-7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㉔-2은 ‘넓히-’의 목적어가 앞서 ‘좁-’의 주어인 ‘길’과 공지시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사동사 ‘넓히다’ 앞에 ‘을/를’ 명사구가 놓이는 통사 정보를 익히지 못할 수도 있고 ‘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욱이 ‘넓히다’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으므로 오해와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제시문으로서 ‘X가 길을 넓히다’와 같은 식으로 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㉔-4와 ㉔-7은 선행절 ‘너무 배가 불러서’, ‘삼겹살을 구우려고’가 불필요하며 후행절에 주어를 표시하여 “저는 음식을 조금 남겼어요.”, “제가 팬을 뜨겁게 달궜어요.”처럼 타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실현된 채로 제시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관찰되는데, ㉔-7에 있는 ‘달구다’는 사동사가 아니다. 사동사 ‘남기다’는 주동사 ‘남다’와 대응을 이루어 ‘음식을 남겼다’, ‘음식이 남았다’가 가능하지만, ‘달구다’는 ‘뜨겁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대응을 이루는 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달구다’는 타동사일 뿐 사동사는 아니며, 사동의 제시문에서도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 4. 연습 문제의 구성과 사동문의 제시 양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동 단원의 제시문에는 학습에 간섭을 일으킬 만한 길고 복잡한 문장, 다른 문법이 함께 사용된 문장, 사역(시킴)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 필수 성분이 생략된 문장, 상이한 구조를 지닌 문장이 한데 뒤섞여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습 문제의 사동문까지 그대로 이어져 학습자들이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익히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문을 검토했던 기준과 더불어 연습 문제가 사동의 숙달이라는 목표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지, 앞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통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연습 문제를 살펴보고, 동시에 사동문의 제시 양상을 서술 및 제언한다. 교재마다 연습 문제의 목록과 배열이 상이하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교재	연습 문제 내용
㉠	없음
㉡	1. 오늘 준코 씨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다음 [보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준코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의 일기를 완성해 보세요. 2. 오늘 첸첸은 아이들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첸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장에 맞게 쓰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빈칸은 채우십시오.
㉤	1.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해 줘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2. 아래의 단어를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1.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사동사로 표현해 보세요. 2. <보기>와 같이 옆 사람에게 묻고 사동사로 대답하세요.
㉦	1. <보기>와 같이 사동 표현 문장으로 바꿔 보세요. 2.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사동 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3. <보기>와 같이 사동 표현으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4. 다음 상황에 맞게 사동 표현으로 <보기>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	1. 미선 씨가 언니 대신에 유나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십시오.
㉨	1. 아기 어머니가 무엇을 합니까? 다음의 어휘를 사용해서 그림을 보고 말해 보세요. 2. 들어 봅시다 (의사와 상담하는 대화 듣기) 3. 말해 봅시다 (이웃에게 아기 부탁하기) 4. 아기를 돌봐 주시는 분에게 아기를 부탁하고 외출하려고 합니다. 우유 먹이기, 옷 입히기, 모자 씌우기, 신발 신기기, 낮잠 재우기, 목욕시키기, 산책시키기, 약 먹이기 등을 부탁하기 아기 돌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2.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3. 다음은 어머니의 하루입니다. 그림을 보고 '사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다음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2. 다음 중 맞는 단어를 골라 [v] 하고 문장을 말해 봅시다. 3. 동물을 길러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을 기를 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먹이다, 씻기다, 입히다, 신기다, 빗기다
㉫	1. 다음과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2. 다음과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3. 길에서 우연히 같은 반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표 7> 사동 단위의 연습 문제 내용

㉠을 제외한 모든 교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연습 문제가 실려 있다. 11종의 교재를 검토한바, 빈칸에 알맞은 사동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와 그림으로 제시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사동문을 만들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문제가 가장 흔한 유형으로 확인된다. 지금부터는 교재별로 연습 문제의 유형과 배열을 살펴보면서 문장과 관계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의 첫 번째 연습 문제는 빈칸에 단어 넣기 유형이다. 보기에 있는 사동사 10개(갈아입히다, 끓이다, 돌리다, 말기다, 붙이다, 벗기다, 말리다, 놓이다, 목욕시키다, 비우다)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빈칸 ㉠~㉩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 (2) 오랜만에 집안일을 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였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신나는 노래를 들었다. 책과 옷들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렸다. 청소기 소리 때문에 노랫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볼륨을 ㉢높였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상쾌해졌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물걸레로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오랫동안 사용한 침대보를 ㉣벗기고 하얗고 깨끗한 침대보로 바꿨다. 겨울 동안 입었던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 또 쓰레기통을 ㉥비웠다. 집안일을 다 마치고 보니 강아지가 너무 지저분해 보였다. 강아지를 ㉦씻겼다. 드라이로 털을 ㉧말린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집안일을 다 끝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학습자들이 일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장을 읽고 맥락과 내용에 알맞은 사동사를 찾아 넣을 수는 있으나,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고 복문이 연속해서 나열되고 있어 학습자들이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숙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문장 차원의 연습보다는 단어 차원의 연습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의 대응문을 생각해 보면 ‘돌다’, ‘벗다’, ‘말다’로 학습자들이 주동문의 존재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연습 문제로 사동문을 만들어 말하기가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 14개의 상황이 그림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은 사동 단원에서 제시문 두 문장을 보여준 후에 곧바로 빈칸에 단어를 넣는 연습과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말해 보는 연습이 이루어져 교재의 구성에 따라 학습한 학습자들이 그림만 보고 상황에 맞는 사동문을 만들기는 무리일 것이다. 이에 그림마다 동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사동문 생성에 필요한 통사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주동문에서 사동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 사동 단원에서 제시문과 사동사를 보여준 후에 빈칸에 단어를 넣는 연습 문제가 이어진다. 해당 연습 문제는 주어진 주동사/사동사 중에 선택하여 대화 참여자 ‘가’와 ‘나’가 발화한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이다. 제시된 주동사/사동사

중에 둘 다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끓다/끓이다’는 [가] “왕단 씨, 물이 끓으면 지금 라면을 넣을까요?”, [나] “네, 지금 넣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끓이다가 파를 넣으세요.”에서 둘 다 사용되지만, ‘말다/말기다’는 [가] “투이 씨, 내일 제가 고향에 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제 강아지를 투이 씨한테 좀 맡겨 둘 수 있을까요?”, [나] “네, 그렇게 하세요.”에서 ‘맡기다’ 하나만 사용된다. 주동사에서 사동사가 되면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주동문에서 사동문이 되면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 그 차이를 ‘가’와 ‘나’의 두 발화문을 통해 보다 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가’의 발화문에서는 주동사가, ‘나’의 발화문에서는 사동사가 사용되는 식으로 동사 차이에 따른 문장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도록 문제를 설계하는 것이 낫다.

㉞은 사동 단원에서 사동사와 제시문을 보여준 후에 빈칸에 단어를 넣는 연습 문제가 이어진다. 빈칸 아래에 주어져 있는 기본 동사 ‘떡다’는 ‘떡여’로, ‘입다’는 ‘입혀’로, ‘자다’는 ‘재워’로, ‘씻다’는 ‘씻겨’로 바뀌어야 하고, 네 문장 모두 ‘-아/어 주-’가 포함된 명령문이므로 필수 성분인 주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습 문제 하나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 숙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므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빈칸에 단어를 넣어 문장 완성하기 유형, 대화를 완성하여 말하기 유형, 듣고 질문에 답하기 유형, 읽고 질문에 답하기 유형, 주제에 대한 쓰거나 말하기 유형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이 개인 활동에서부터 짝 활동 및 그룹 활동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㉟은 사동 단원에서 제시문을 보여준 후에 곧바로 말하기 연습 문제가 이어진다. 첫 번째 연습 문제와 두 번째 연습 문제 모두 말하기 유형으로, 둘 다 그림의 상황에 맞는 사동문을 만들고 그것을 말해 보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보기를 통해 대화쌍을 예로 들고 있어 학습자들이 문장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으며 ‘-(으)면 안 돼요’, ‘-아/어/여야 해요/돼요’를 사용해서 말하도록 문법 사용을 제한한다. 두 번째 연습 문제는 동생, 조카, 아기, 친구, 가족, 친척 등의 단어를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을 이야기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사동주, 피사동주와 같은 참여자와 사동 사건, 피사동 사건의 내용을 직접 구상해야 하는데, 이는 사동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가능한 활동이다.<sup>16)</sup>

㊱은 사동 단원에서 사동사를 만드는 표를 보여준 후에 주동문을 사동문을 바

16) 사동사와 사동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은 워크북에서 이루어진다.

꾸는 문제와 사동문으로 대답하는 문제가 이어진다. 우선, 그림과 함께 주동문을 제시하고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연습이 이루어진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연습 형태이며 학습자들이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완전하게 익히기 위한 단계로 적절하다. 특히 단문 위주로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과 다른 교재들과의 차이이다.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연습이고, 5번부터 8번까지는 판정 의문문에 대해 사동문으로 답변하는 연습이며, 마지막 9번은 그림을 보고 ‘가’와 ‘나’의 대화를 만드는 연습이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주동문은 아래와 같다.

- (3) ㄱ.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요.  
 나. 다카오가 웃어요.  
 ㄴ. 아기가 자요.  
 ㄷ. 환자가 살았어요.  
 ㄹ. 가: 김스한 팔로 직접 머리를 감았어요?  
 나: 아니요, \_\_\_\_\_  
 ㅁ. 가: 아침에 스스로 깬어요?  
 나: 아니요, \_\_\_\_\_  
 ㅂ. 가: 택시가 그냥 섰어요?  
 나: 아니요, \_\_\_\_\_  
 ㅅ. 가: 마술사가 무엇을 해요?  
 나: \_\_\_\_\_  
 ㅇ. 가: \_\_\_\_\_  
 나: \_\_\_\_\_  
 ㅈ. 가: \_\_\_\_\_  
 나: \_\_\_\_\_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상대방에게 말하고 상대방은 사동사로 답하는 유형인데, 교재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질문과 함께 답변에 사용할 동사의 기본형을 괄호 안에 제시해 놓았다. (3ㄱ~ㅇ)과 비교하여 문장의 난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ㄱ. 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발이 푹푹 얼었어요. (눅다)  
 나: \_\_\_\_\_  
 ㄴ. 가: 고기 맛이 좀 이상해요. 아직 덜 익은 것 같아요. (익다)  
 나: \_\_\_\_\_  
 ㄷ. 가: 드디어 종이비행기를 다 만들었어요. (날다)  
 나: \_\_\_\_\_  
 ㄹ. 가: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남다)  
 나: 네,  
 ㅁ. 가: 청소하는 데 좀 도와드릴까요? (비다)  
 나: 네,

ㄷ. 가: 약속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늦다)

나:

학습자들은 (4ㄱ~ㄷ)의 ‘가’에 주어진 동사로 사동문을 만들어 상대 발화에 답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들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 추가되거나 과업의 해결을 통해 언어 기능을 신장하는 활동이 추가된다면 학습한 지식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은 사동 단원에서 제시문을 보여준 후에 사동사 만들기 연습, 사동문 만들기 연습 두 개, 대화 만들기 연습, 말하기 연습이 차례로 이어진다. 첫 번째 사동문 만들기 연습 (1ㄱ~ㄷ)을 보면 ‘-어지다’가 결합한 동사 ‘넓어지다’가 주동문에 사용되는데, 형용사문도 사동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도로가 넓다’를 주동문으로 제시하여 다른 문장들과의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동문 만들기 연습을 보면 첫 번째 연습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을 깨끗이 \_\_\_\_\_ 간식을 주었다.”처럼 문장의 길이가 세 배 이상 길어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동을 좁게 정의하는데, 그 정의에 위배되는 문장이 제시문은 물론, 연습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사동을 넓게 정의하고,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을 주동문으로 제시하여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학습자들이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화 만들기 연습 문제는 질문에 대해 사동사를 사용하여 사동문으로 대답하거나 사동사를 사용하여 부탁하는 문장을 만드는 유형이고, 말하기 연습 문제는 그림의 상황에 맞는 사동문 대화를 만드는 유형이다. 다른 교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연습 문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은 사동 단원에서 피동사, 피동사 만들기 연습, 사동 제시문, 사동문 말하기 연습의 순서로 제시되며, 동사와 문장을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장과 관련한 연습을 보면, 언니 대신에 동생을 챙기게 된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먼저 제시된다. 주어진 그림을 보고 언니의 답변을 사동문으로 만들어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림에 따라 ‘입히다, 태우다, 먹이다, 씻기다, 재우다’ 등과 같은 동사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동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재의 보기에 있는 예문에서는 ‘유나를 깨우-’가 가능하지만, 1번 문제에서는 ‘유나를 입히-’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2번 문제에서는 버스 그림이 나오는데 유나, 버스 등 해당 상황에 등장하는 명사에 어떤 격 표지를 붙여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처럼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는 사동사의 형식, 사동문의 구조, 격 표지 등을 알아야 하므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시되는 것이 순서상 적절하다. 이어서 그림

을 보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사동문으로 답해야 한다. 보기의 예를 보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어때요?”의 답변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요.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모두 다 치우고 날마다 찌개를 끓여야 해요.”처럼 문장의 길이가 길고, 사동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사용되며, ‘-어야 하-’가 결합하는 등 복수의 문법이 사동사에 붙어 있다. 말하기 연습에서는 첫 번째 연습과 두 번째 연습이 동일한 유형의 말하기 연습이나, 그림을 보고 사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동문에 대한 통사 지식을 학습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동문에 대한 통사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연습이 말하기 연습에 앞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㉘은 사동 단원에서 사동사와 제시문을 보여준 후에 문장 만들어 말하기 연습, 듣기 및 말하기 연습, 대화 만들어 말하기 연습이 차례로 이어진다. 문장 만들어 말하기는 그림을 보고 주어진 사동사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문장을 만든 뒤 상대방에게 말해 보는 연습이다. 이는 그림을 보고 사동문을 만들어 이야기하기와 동일한 유형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씻겨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요.”와 같이 구조가 다른 문장을 그림만 보고서 정확히 만들어 내려면 사동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의사와 상담하는 대화를 듣고 이야기하는 연습이고, 세 번째는 듣기 문제를 푸는 연습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이웃에게 아이를 부탁하기 위한 말하기 연습이다. 여기에서는 대화 틀을 따라 대화를 구성해야 하는데 부탁하기-부탁 내용 묻기, 사정 설명하고 아기 부탁하기-허락하고 시간 묻기, 시간 말하고 감사 인사하기-감사 인사에 답하기, 우유 먹일 것 부탁하기-목욕에 대해 묻기, 아기 씻길 것 부탁하기-다른 부탁 묻기, 약 먹일 것/옷 입힐 것 부탁하기-안심시키기를 참고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만들어야 한다.

㉙은 사동 단원에서 사동사와 제시문을 보여준 후에 문장 완성하기 연습, 대화 완성하기 연습, 그림 보고 문장 완성하기 연습이 이어진다. 첫 번째 연습은 주어진 명사와 동사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사동사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고, 기본 동사는 사동사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림만 제시되는 문제보다 풀기에 용이하다. 두 번째 연습은 주어진 단어를 골라 사동사로 바꾸어 문장의 빈칸을 채움으로써 ‘가’와 ‘나’의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연습은 어머니의 하루에 대한 여러 그림을 보고 사동사를 사용하여 그림에 맞는 사동문을 만드는 문제이다. 다른 교재와 달리 사동사를 제외한 모든 문장 성분이 채워져 있으므로 그림을 보고 적절한 사동사만 입력하면 된다.

㉚은 사동 단원에서 사동사 채워 넣기, 그림 보고 문장 완성하기, 알맞은 단어

콜라 문장 읽기, 동물 기른 경험 말하기 연습이 이어진다. 그림 보고 문장 완성하기 연습은 ‘언니/라면/끓다’처럼 문장 성분이 주어지고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답을 쓰는 곳에 조사가 채워져 있으므로 제시된 단어를 사동사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그림이 함께 있으므로 사동문이 사용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연습은 문장 안에 있는 두 개의 사동사 중 알맞은 것을 콜라 표시하고 문장을 말해 보는 문제이다. 세 번째 연습은 동물을 기를 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먹이다, 씻기다, 입히다, 신기다, 빗기다’와 같은 사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해 보는 문제이다. 제시된 문제를 통해 사동사에서 사동문으로, 개인 연습에서 짝 연습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㉔은 사동 단위에서 제시문을 보여준 후에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짝과 대화하는 말하기 연습이 연이어 제시된다. 첫 번째 말하기 연습에서는 A의 발화가 주어지고, 함께 제시되는 성분을 이용해 B의 발화를 만든다. 일례로, “저기 택시가 서 있네요.”가 주어지고, 답변을 위해 필요한 ‘신지 씨/택시/서다’가 제시된다. 이것을 “신지 씨가 택시를 세웠어요.”와 같이 사동문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말하기 연습에서는 그림을 보고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동문으로 이야기한다. 첫째 연습과 둘째 연습 모두 그림을 보고 사동문을 만들어 말해 보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다.

이상으로 사동 단위의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교재마다 제시되고 있는 문제의 유형과 배열이 제각각 상이하나, 매우 단조로운 연습 및 활동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빈칸에 사동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와 그림에 어울리는 사동문을 만들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문제가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재에서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숙달하기 위한 연습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에 적합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자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ACTFL에서 제시한 3가지의 소통 방식인 대면 커뮤니케이션(Interspersal Communication), 해석 커뮤니케이션(Interpretive Communication), 발표 커뮤니케이션(Presentational Communication) 등을 교재에서 활용할 수 있다.<sup>17)</sup> 이것들은 모두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연습 및 활동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에는 말하기와 듣기(대화, 전화), 읽기와 쓰기(문

17) <https://www.actfl.org/sites/default/files/pdfs/PerformanceDescriptorsLanguageLearners.pdf>  
2021년에 한국어진흥재단에서 펴낸 <EPIC KOREAN> 교재에서 대면 커뮤니케이션, 해석 커뮤니케이션, 발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연습 및 활동을 교수 단계 이후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참고된다. (<https://epickorean.org>)

자 메시지 읽기/쓰기, 소셜 미디어 메시지 읽기/쓰기, 편지 읽기/쓰기)가 대표적이고, 해석 커뮤니케이션에는 실제적인 텍스트 읽기(웹사이트 자료, 수필, 시, 소설, 동화, 기사, 광고, 안내문), 실제적인 텍스트 듣기(연설, 안내, 노래, 뉴스, 광고), 실제적인 자료 보기(비디오, 영화, TV쇼, 드라마, 발표, 광고, 뉴스, 연극, 뮤지컬)가 대표적이며, 발표 커뮤니케이션에는 쓰기(편지, 기사, 광고, 전단지, 책자, 짧은 이야기, 보고서, 대본, 발표문), 말하기(이야기, 연설,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뉴스 진행, 드라마 또는 영화 장면 대화, 토론)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문장 연습에서부터 실제 상황 맥락을 포함한 의사소통 활동까지 사동 단원의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이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조직되어야 하며, 교재에서 전달할 내용의 범주를 정하고 이것을 어떤 기준과 순서로 제시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문장의 경우 교수 단계에서 의미와 구조가 상이한 여러 사동문을 한곳에 뒤섞어 제시하지 않고 주동문을 기준으로 NP1-이/가 VP 구조의 형용사문과 자동사문, 그리고 NP1-이/가 NP2-을/를 VP 구조의 타동사문을 나누어 제시한다. 형용사문과 자동사문, 타동사문의 순서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칙과 원리를 명시적으로 교수하여 학습자들이 사동문의 특성과 사동문의 생성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형용사문, 자동사문인 주동문은 NP1-이/가 VP에서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여 NP1-이/가 NP2-을/를 VP의 사동문이 된다. 타동사문인 주동문은 NP1-이/가 NP2-을/를 VP에서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여격어) 자리로 이동하여 NP1-이/가 NP2-에게 NP3-을/를 VP의 사동문이 된다. 명시적으로 교수한다는 것은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주어 도입, 사동 접사 결합, 문장 성분 이동, 격 표지 교체 등을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사동문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규칙과 원리를 익히면서 사동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동문이 표상하는 사건을 그림으로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하여금 사동문이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후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 문제에서도 문장 구조에 따라 연습1과 연습2로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앞에서 학습한 사동문을 생성하는 규칙과 원리를 한 번 더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장 전환 연습은 학습자들이 앞에서 배운 단어나 구문을 포함해야 하고, 다른 문법 검용 금지, 단문 위주 제시, 길고 복잡한 문장 지양, 필수 성분 실현 등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여 문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장 전환 연습 이후에 한국어 교재에 있는 것과 같은 빈칸에 알맞은 사동사 넣기, 그림에 해당하는 사동문을 만들어 상대

방과 이야기하기 등의 연습 문제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언급한 문제들은 사동에 대한 교수와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고, 학습자들의 숙달과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는 문장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였는데, 교재의 개정판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밖으로 꺼내어 논의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서 교재의 문법 설명과 제시문의 적합성, 제시문의 특성, 연습 문제의 구성과 사동문의 제시 양상을 고찰하여 문제들을 밝히고 해결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논의이다.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에서 사동의 문법 설명과 제시문이 어긋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몇몇 교재에서는 사동을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소략하게 정의한 뒤, 곧바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문장, 피사동주가 무정물이며 사동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제시한다. 형용사문과 비행위성 자동사문은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하였을 때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이거나 행위성 자동사이고 주어가 유정물일 때만 사동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교재에 있는 사동문을 모두 사동문으로 처리하려면 사동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형용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비행위성 자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행위성 자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타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을 모두 사동문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동은 참여자A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참여자B의 동작이나 작용이 나타나는 것과 참여자A의 동작이나 작용으로 인해 참여자B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교재에서 사동의 설명과 함께 나타나는 제시문을 살펴본 결과, 사동을 학습하는 데 간섭을 일으킬 만한 길고 복잡한 문장, 다른 문법이 함께 사용된 문장, 주어가 직접 한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 필수 성분이 생략된 문장, 상이한 통사 구조를 지닌 문장이 구분 없이 한곳에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교재의 제시문을 대상으로 사동의 정의 및 설명 여부, 제시문의 수, 제시 방식, 사동문의 유형, 다른 문법 사용 여부, 복문 여부, 필수 성분 생략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제시문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항목별로 문제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분석하여 교재마다 연습 문제의 유형과 배열이 제각각 상이하나, 매우 단조로운 연습 및 활동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빈칸에 알맞은 사동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와 그림으로 제시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사동문을 만들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문제가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에서 사동문의 구조와 생성 방법을 숙달하기 위한 연습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문장 연습에서부터 실제 상황 맥락을 포함한 의사소통 활동까지 사동 단원의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이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조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예를 제시하였다.

넷째, 교수 단계에서 사동문을 유형별로 나누어 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NP1-이/가 VP 구조의 주동문(형용사문과 자동사문)과 NP1-이/가 NP2-을/를 VP 구조의 주동문(타동사문)으로 나누어 각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칙과 원리를 명시적으로 교수하여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장 성분 추가, 사동 접사 결합, 문장 성분 이동, 격 표지 교체 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연습 문제에서도 문장 구조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앞에서 학습한 사동문을 생성하는 규칙과 원리를 한 번 더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장 전환 연습은 학습자들이 앞에서 배운 단어나 구문 포함, 다른 문법 적용 금지, 단문 위주 제시, 길고 복잡한 문장 지양, 고난도 어휘 지양, 문장의 필수 성분 실현 등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여 문장을 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사동의 의미, 사동사의 형태, 사동문의 구조, 사동문의 생성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참고 문헌〉

- 구본관 외. 2015.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국립국어원 편.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 북스.  
 김영일. 2020. 「學校 文法の 主動과 使動 記述 內容 檢討」. 語文研究 48(2).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95~323쪽.  
 김종록. 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박이정.  
 김진호. 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박이정.  
 백봉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 : 피동/사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415~445쪽.  
 서종학·강수경. 2013.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구성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21쪽.

- 송대현. 201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동법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25. 국제한인문학회. 213~238쪽.
- 신혜림. 2020. 한국어 사동 표현 교수 방안 : 형태 초점 교수법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소정. 201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동 표현 지도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현경 외. 2019.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유현기. 2020. 한국어 피동·사동 문법 항목 교육 연구 : 학습자 인식 설문 분석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웅. 2021. 문법 범주(5). 심표, 마침표 (2021. 12.). 국립국어원.
- 임지룡 외. 2005/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조영미. 2016. 상황 맥락 기반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 연구 : 피동·사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재희. 2006.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 최지희. 2017. 교수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효과 비교 연구 : 사동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주. 2008.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8. 한국국어교육학회. 295~317쪽.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허용.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Blackwell.
- Goddard, C. 2002. The search for the shared semantic core of all languages. In: Cliff Goddard and Anna Wierzbica (eds.), *Meaning and universal grammar Volume I*.
- Lewis, D. 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17). pp.556~567.
- Lucien, B. & Jaehoon, Yeon. 2016.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Routledge.
- Song, J. J. 2001. *Linguistic Typology : Morphology and Syntax*. Longman.
- Talk To Me In Korean. 2020. *Level 7 Korean Grammar Textbook*. Long Tail Books
-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2019. 『좋다!! 한국어 3』. 한울.
-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1』. 한글파크.
-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 2009. 『살아있는 한국어 4』. 계명대학교 출판부.
- 라혜민 외. 2018. 『선문 한국어 중급』. 소통.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서울대 한국어 3B』. 투판즈.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2019. 『성균 한국어 3 어휘·문법』. 하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9.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3-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1. 『이화 한국어 3-1』. Epress.  
조정순 외. 2017. 『비타민 한국어 3』. 다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하우.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2019. 『한양 한국어 3-1』. 하우.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2019. 『홍익 한국어 3A』. 내용과형식.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2022년 10월 4일 박음

2022년 10월 7일 펴냄

---

위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mailto: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 이 책은 팔지 않음 \*

---

“이 발표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